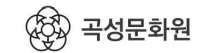


곡성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
머시기 할매 거시기 아부지

곡성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

머시기 할때 거시기 아버지

조준원 엮음



세월이 약이어

- 짚공예에 취미로 기능전승자 돼 _ 임채지 ... 13
- 총기 좋아 화투 치면 일등 _ 노미선 ... 22
- 죽으면 묻지 마라 _ 이영자 ... 30
- 보따리 싸고 싶은 적은 없어 _ 홍금선 ... 37
- 십 남매 중 혼자 살아남아 _ 강성자 ... 45
- 기차마을에서 반평생 장사 _ 한상철 ... 53
- 도시 사람들은 시골 풍경을 찾아 _ 최정심 ... 63
- 지금은 전동차 타고 다녀 _ 김정남 ... 66
- 일 십 백 천 만이 좌우명 _ 최종출 ... 75
- 큰딸네가 오면 기분 좋아 _ 김옥순 ... 88
- 이제는 김장을 못 담가 _ 양지호 ... 92

내게도 사랑이 있어

- 지금은 편한 경찰공무원 _ 박종서 ... 111
- 기막힌 세상을 살아냈어 _ 문종순 ... 114
- 처녀 때부터 봉사 _ 이종렬 ... 122
- 요즘은 옛날보다 마음 편해 _ 박귀선 ... 138
- 누워 있어도 건강하다고 해 _ 안정순 ... 141
- 스물여덟에 혼자 돼서 _ 김순희 ... 147

- 클 때는 호강했어 _ 임계령 ... 157
- 전쟁도 겪고 파마도 하고 _ 양순례 ... 159
- 지금 세상을 알고 살아야지 _ 정덕례 ... 171
- 그리고 살았어 _ 박영희 ... 177
- 베 짜고 채소장사하고 _ 윤일애 ... 180
- 상이군인한테 시집와서 _ 김순임 ... 187

이만이면 잘 살았어

- 머리 깎는 기술자로 한평생 _ 진천신 ... 203
- 신랑이 열다섯 살 _ 김미효 ... 214
- 옛하고 하우스하면서 _ 이양숙 ... 220
- 동대문시장 집꾼으로 _ 김상기 ... 236
- 전봇대 만들었어 _ 박일호 ... 243
- 아내만 고생시켰네 _ 정대창 ... 251
- 요 선에서 가면 좋겠어 _ 박금순 ... 263
- 유과로 생생정보에도 나갔네 _ 박길순 ... 273
- 사랑받고 살았어 _ 이귀현 ... 286
- 인생을 잘 살았다 싶어 _ 오금례 ... 293
- 놀이 가면 끝을 봤어 _ 엄순자 ... 301

한 분 한 분의 인생 행적, 우리 문화의 자산 되기를

고광운(곡성문화원장)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사연을 책으로 쓰면 역사책 수집 권도 넘을 것이라는 말을 예사롭게 하곤 한다.

곡성문화원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 등으로 우리 고장 34분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조사하여 한곳에 모았다. 실제로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상세히 기록한다면 34권의 역사책이 되어도 모자라겠지만, 요점만 간추려 한 권으로 묶게 되어 어찌면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나름대로 주마간산이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기실 아무리 기쁘거나 슬픈 인생 이야기도 채록하지 않으면 그냥 강물처럼 흔적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행적이 없어지지 않고 기록되어, 우리 고장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에서 구술 생애사 연구조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의 개인사 구술과정과 채록과정에서 변형 가공되어 일부 사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우리 고장의 은인이신 어르신들의 무형의 문화유산인 살아온 일생 이야기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러두기 -

1. 이 책은 곡성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지역의 전통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문 내용은 어르신들께서 구술하시면서 표현한 말과 사투리 등을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단어 등이 우리말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가 많다.
3. 구술사 연구 조사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개인 구술에 의존함에 따라 본문 중에서 일부 내용이 변형 가공되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혀 둔다.
4. 소재목은 어르신들의 구술이 아니며 역자가 본문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5. 이 책은 2017년 창조지역사업으로 발간되었으며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 복제나 전제를 금한다.

곡성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

머시기 할매 거시기 아버지

세월이 약이여

짚공예에 취미로 기능전승자 돼

나는 37년 7월 16일에 고달면 백곡리인디 배실이라고 해야지, 거기서 태어났어. 군인일 때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내는 19살, 풋내기. 내가 일본시대 때 살아봤고, 육이오, 여순사건, 육이오 지나고 사일구 등 웬만한 건 다 겪었지. 내가 우리 시조에서 31대손으로 해서 큰아들로 태어났지. 구남매, 형제간에 큰아들로 태어났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내가 쌍둥이거든. 어머니가 시물두 살에 쌍둥이를 낳어. 그래갖고 그때는 못 묵은 세상이라 거 시물두 살에 쌍둥이를 뺏으니까 월메나 골병이 들어부렀겼어.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지금 말하자면 골병이 들어서 돌아가셔봤지. 지대로 묵지도 못하고,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 근디 가만 ~ 보든 어무이가 지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일만 씨가 빠지게 했지. 골병만 들어서 그래갖고 돌아가셨지.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졌지.

내가 쌍둥이로 어려서 학교도 같이 땡겼어. 고달국민학교. 쌍둥이

랑 똑같이 크고 자라고, 나를 누가 때려주면 동생이 또 달라들고, 누가 동생 때리면 내가 달라들고 해서 누가 못했어. 쌍둥이라 귀엽게 보이는갑서. 운동회 하면 둘이 엮고 달리기 이런 거. 어머니는 열다섯 살에 돌아가셨지. 하이고 두 달 만에 새 어머니가 들어와갖고 침에는 아버지도 좋게 했어. 근디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맘이 변해부렀는가 보더라고. 그래갖고 모질게 컸지 우리 둘이. 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을 또 그렇게 함부로 해 아버지가.

어머니는 겉으로만 그러제 속으로는 안 그러더라고. 약을 줬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머니 말을 잘 들어. 그전에는 어머니 말은 안 들었어. 예쁘다고도 안 그랬어. 거시기헌디 이 어머니 들어오고 나서 말을 잘 들어. 내가 외롭게 외롭게 컸지.

고달초등학교 졸업하고 핵교를 가고 싶은디 안 보내주더라고. 중학교꺼정 시험까지 봤는디 아버지가 댕기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갈치더라고. 일만 시켜.

그래가지고 허다허다 안 돼서 농사 쪼끔 짓다가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죽곡 절에 들어갔어. 절에 들어갔는디 며칠 간 종이 말헌게 좀 있으라 글터니 또 며칠 있으면서 머리를 깎으래. 아이 그래가 또 나왔어. 국민학교 졸업 막 하고.

안 되겠다 해갖고 집에서 어떻게 그전에 강의록을 사다가 보고 해서 거 누가 광석에 개발을 해갖고, 부락사람들 물어보면 알지만 제일

먼저 광석에 가갖고 이를 어찌 치고 어찌 해갖고 좀 거지거이 뭐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좀 성질을 부려. 일은 안 허고 그런 것만 한다고. 남달리 힐라고 했어.

그길로 나가서, 근디 아버지가 그런 것만 한다 해잔게 뛰쳐나와서 사진을 배웠어. 사진을. 사진사. 그때는 인자 아버지가 쌀 반 가마 값을 주더라고. 그래갖고 인자 카메라 하나를 샀어. 사가지고 인자 해볼라고 했는디 아 그것도 또 밀천이 겁나게 들어가더라고. 필름 인화지 값 뭇 값 배울란게. 이십대가 못 뻤어. 내가 돈이 없은게 쌀을 좀 퍼내가지고 필름 좀 살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일러바쳐서 뭐라 해싸 아버지가. 아버지가 일만 시켜싸. 카메라 거시기 할랑께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겠어.

그럭저럭 해가꼬 군인예를 갔어. 작은 쌍둥이랑 한날한시에 갔어. 군번호 10384320, 또 10384321. 똑같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백일번 중대에서 갈라진디, 동생은 탄 데가 가고 나는 갈라졌어. 동생이 글더라고. 내가 죽어도 형하고 갈란디 같이 보내달라고. 근디 글게 안 되더라고. 안 해주더라고.

갈라졌는디, 인자 내가 이십사단으로 떨어졌어. 거기서 군 생활하고. 많이 맞았어. 군대에서 그때는 안 맞았다고 하면 순 거짓말이여. 그래갖고 훈련받고 만기가 돼갖고 김치공장에 보내주더라고. 군인들. 거기서 몇 달 있으면서 집에서 편지가 왔어. 여자사진하고 명함하고 와

갖고 편지가 왔는데 결혼날짜가 잡혔다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가져왔어. 그것을 인자 김치공장일 때, 여자가 아니라 몰라 내가 젊었을 때 여럿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편지다 사진을 동생이 붙였더라고.

인자 휴가를 내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저 뭐 와서 쌍둥이가 한날한시에 결혼을 했는데 그전에 가마가 두 개였어 이제 여그는 동생 각시나 내 각시가 여그로 양쪽으로 들어와 구식결혼을 했어. 시물네 살 때. 그 때로 늦게 했지. 동네사람들 굿 보러 온다고 와갖고 한집에서 며느리 둘이 오니까 아버지도 좋았는갑서. 지금 부인, 애 썼어. 접방살이로 한 일 년 살다가— 그 동네로 접방살이를 했어.

그래서 인자 서로 또옥같이 쌀 반 가마니랑 밭 한 마지기씩이랑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몇 년 살다가, 삼 년 살았는가 몰라. 마누라 데리고 돈 번다고 전주로 올라갔어. 아비 옆에 있기가 싫어서. 한 삼 년 있다가 집을 장만해서 그놈을 팔아갖고 전주를 갔는데 이모집에서 이모가 폐연탄 골라서 새로 만들언 데가 있는데 저를 들어갔어. 전망이 없게 생겼어. 그때는 애가 하나였어. 밥벌이가 그것도 안 되게 생겨서 그러저럭 빠듯이 지냈는데, 처남이 대전서 산디 처남이 와갖고 전주보다 대전이 더 나은께 대전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대전에 갔더니— 그때는 집을 안 팔고, 대전에다가 쪽만 한 집을 팔아. 아 또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백곡 집은 못 팔아 또. 그래서 인자 대

전에서 인자 복잡해. 지금에서는 인자 서러워. 대전서 거시기헌디 삼 년 사니까 종이 나브렸어. 아이가 셋이었던가 둘인가 되는데 목고살기가 복잡헌게 안식구가 집을 나가브렸어.

어쩔 수가 있간다. 아들 데리고 인자 망해부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인자 아버지가 뭐라 해싸코, 접방살이 했거든 거기서도. 안주인이 애가 비쩍 마르고 똥도 싸는데 아이고, 밥을 싸서 주더라 먹이라고.

집에 왔는데 또 나갔어. 아버지 밑에서 버티질 못하고 또 나갔는데 나가서 다람쥐장사를 했어. 진흙하고 조미하고 있어 뽕뽕뽕 기어. 그런 장사도 하고, 돈은 못 벌었어. 다람쥐장사 하다가 별거 다 해봤어.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를 못 들어와. 거기서 또 살다가 애기들 데코 나갔지. 그때 눈이 안 떠졌어.

서른시 살에 집애를 도로 들어왔네. 그래서 농사도 짓고 주저앉았어. 전답 안 팔고 그랬는게로 주저앉았어. 딸 둘 아들 둘이랑. 그래갖고 농사를 짓는데 별 희망이 없어. 뫼 좀 해봐야겠다 해갖고 밤이 길면은 할아버지가 예전에 짚신을 했는데 짚신을 밤에 삼았어. 사람들이 잘 삼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넘어 안하는 거인께 해 봐야겠다 해서 밤으로 새벽으로 만들어갖고 만들어노면은 그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짚신을 팔았어. 자꾸 가지고 오라고 해싸. 그래갖고 참팔로 농사지어감서 한께로 기분이 좋더라고. 부업으로다가. 부락사람들은 잘 몰라 내가 새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서울 청계천 종로 오가 삼가 이런 데 짚신을 가져가면 서로 가져갈라 그래. 그때는 돈이 되었어. 재밌었어. 그래갖고 농사를 인자 짓기는 저도 안식구에게 땀겨야겠다 그런 맘이 들어서, 민속촌을 한번 땀겨봐야겠다 해서 서울 민속촌에 갔는데, 되기는 된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 신상파악 하고, 거서 잡일을 시키더라. 그때가 한 사오십대가 좀 넘었제. 거가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순천 낙안민속마을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갔어. 가을에 마치고 때를 맞춰서 갔는데 짚을 잘 뜯게 서로 오라게싸. 그 부락사람이 방 하나 준다고 그러더라고. 한 달에 십만 원짜를 도래. 그래서 인자 내가 또 잘 뵈었는가 사무실서 집 한 채 줄 텐께 거가 있으라고 글더라고, 돈은 안 주고.

그러다가 내가 참 집 한 채 준대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판께 내가 칠 년간을 월급을 안 받고 팔았어. 안사람은 농사짓고. 그런께 불만이 많아. 녀들은 농사짓고 자식한테 해주고 하는데, 공을 들이는데 미쳤다고 거가 있나 이거여 돈도 못 번다. 근데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해갖고. 실은 주일마다 오기는 해도 갈 때는 불만이여 불만, 싸우고 가. 거기서 불만이 났어. 좀 죄송한 맘 들어도 내 갈 길을 가야겠다 하고.

또 내가 칠 년간 하다가 안 되게 생겨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한 열흘 후인가 낙안에서 나를 델러 왔어. 문화재도 만들어주고 월급도 주고

그럴 텐께 들어오이나 해갖고, 안식구에 말했더니 또 가래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또 팔 년간을 살았어. 그래도 안식구가 또 불만이여. 알고 본께로 여자들은 걸으로만 그러제 속은 아니더라고. 어쩔 수가 있간디, 그래도 낙안에서는 좋이라 그래. 그때부터는 내가 상투에 전통 한복을 입고 해서 인기 좋았지. 오십여덟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십오 년인께 칠십 몇 살이 되어버려. 또 문화재가 되어버려서 또 오래 살어래. 일흔한 살에 곡성으로 들어왔어.

가만있어 보자, 일본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일본서 초청이 왔어, 공문이 와서 좀 와 달라고. 가서 석 달간 있었는데 몇 달 있은께 또 오래, 그래서 또 갔는데 또 북해도에서 왔어. 그랬더니 낙안에서 우리가 일본 가라고 들여세웠냐고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모른 체했는데, 일본서 임채지 임채지 하면 누가 알아주냐, 그 일본 가라고 월급 줘냐 해싼께 듣기도 참 힘들더라고. 그 무렵에 또 월급을 받기는 받는데 명절날 끼블고 쉬는 날 끼블고, 그래서 이제 일당제로 주더라도 그래. 그래서 안식구가 퍼붓고 그랬어.

순천 부시장이 그걸 알았는가 그 사람 꼭 붙잡으라고 막 소장한테 그랬는갑서. 그래서 소장이 막 따라땀겨서 짐을 들추고 막 못 가게 해 또 거기서는. 내가 인기가 좋았어 참말로. 춤을 좀 잘 춘께로. 금께 나를 덕서 곳이라고 농악을 한디 꼭 나를 데리고 땀겨 민속마을에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왔지 곡성으로.

그래서 안 되게 생겨서 기차마을에 세트장도 있는데 알고 해서 김 영춘이라고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슬קות이 마음을 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서 있으라 해서 갔어. 그래서 내가 또 영춘이 거기 있는데 기능인들 몇 사람 불러들이더라. 판 사람들은 몇 달 있다가 별이가 안 되게 가버리고 나만 있었어. 나가란 말도 않고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나가 이렇게 여기 있는게로 인간 극장에도 아침마당에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서울 짚풀공예 임병선 씨라고 남편이 시인 신동엽인데, 여자가 짚공예 책자도 많이 냈는데 찾아와갖고 자기가 행사한 디 참석하고, 날 찾아댕기고 그랬어.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언제 갈 텐께 아쇼 글더라고. 여그 있을 때, 한 서넛이 왔어. 기능전수자로 해줄 텐께 하라고. 그때 또 제자가 있었어. 김이랑이라고 젊은 여자. 몇 번 거시기 하더니 닿았어. 전시도 쪼막쪼막 해논 거 보고는 며칠 있다가 기능전승자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 며칠 있다가 코엑스가 거기서 표창장을 받고 그랬어. 그 뒤로 삼 년간 기능전승자라고 팔십만 원씩 나오고, 그거 끝난게 문화재가 되었어. 기능전승자가 더 커. 그건 국가서 주는 거고 무형문화재는 도에서 주는 거고. 지금도 팔십만 원씩 나와. 지금은 할망구랑 둘이 살지. 인자는 안식구도 오래 살으라고 해싸. 그 대신 품위를 지키라고 해싸코, 큰소리를 더 못 쳐 내가 지금도.

이 앞전에 인기가 참 좋았네. 지금도 애들 인사 참 잘하거든. 사탕

도 하나씩 주고, 엽전도 주고. 어른들한테 뭐 할 거 있간디 애들 보는 재미로 하지. 엽전도 맞추고, 엽전까지 가져갈라면 어른도 끈당께. 내가 서울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가든 진짜 서울사람들이 사진 찍네. 어디서 왔냐 하면 곡성이라 하고 홍보를 엄청 많이 하네.

꿈은 인자 뭐 건강이제. 건강해야제. 건강해갖고 손님들한테 골동품이라도 솜씨도 보여주고 싶어. 아이 뭐 딸이 하긴 한다고 한디 묵고 살기가 복잡헌께 할 새가 없어. 전승자는 김이랑이가 있어. 시흥서 아주 대단헌 사람이여.

딸 둘 아들 둘은 다— 하면, 다 가정 가지고 있지. 나는 인자 원도 한도 없어. 오래 살아갖고 엽전 한 개라도 애들 더 즐라고 그런 맘이지.

임채지(남, 82세) | 곡성군 고달면 백곡리

총기 좋아 화투 치면 일등

나는 노미선, 팔십다섯, 오지리에서 태어났고, 십일 남매 중 딸이 여덟, 내가 큰딸이었어. 남동생이 세 명. 시방 다 살아 있어. 현재 여기서 아들하고 둘이 살고.

나 어릴 때 학교는 안 댕겼거든. 그때는 댕겼가니, 집에서 봉판땡키로 거기서 보문장을 띠고 책을 써서 내 이름 쓰고 고른 것을 할무니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열두 살 묵어서 해방되어브렸어.

하든, 생전 어머니 아버지하고 농사짓고 살았지. 도지로 방에 찡고 불살해갖고 반지르르 밥해 묵고 반질하고 동생들 옷 해 입히고 옛날에는 베 짜. 베 짜지. 세상에 없는 것은 다 했어. 내가 큰딸이라. 밑에 쫄망쫄망 있어. 할무니 할아버지 해갖고 열두 식구여.

애기들은 또 맛 갔어도 많이 놓았어 어무니가. 내가 또 큰딸이라, 다 학교는 못 댕기고. 우리가 문자가 많아갖고 학교 문 앞예를 못 가게 해. 할아버지가 상투를 이만큼 올려갖고, 문 앞에서 봉판에서 딸들

을 서당땡키로 해, 가도 못 히게 하고.

어무니가 그때 애기나라를 해. 그래서 내가 동생들을 다 받았어. 딸 낳으면 어무니 미역국에 밥 해주고, 내가 큰딸이라 다 했어. 할무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열다섯 식구가 다 밥을 해 먹었네, 대가족이. 우리는 그래도 부자여. 그래도 우리는 논이 많아서 열다섯 마지기, 스무 마지기인데, 머슴도 작은 머심, 큰 머심 이렇게 둘! 그래서 이렇게 식구가 열다섯 명이당께. 겁나 부자여.

아버지 할아버지가 시방 우리 집을 환하게 알아부러. 읍내 향교에 비석도 있어. 어무니는 함양댁이었고. 경상도 함양에서 온 사람은 오지리에서 하나였어.

우리 집은 다 암전해갖고 밥 해먹고 베 짜고……. 즈그들이 어디 가고 시집을 가야지 아무 데도 못 가게 했어, 머리는 요만치씩 따갖고. 그런 집이 어디가 있어. 읍어. 그라꼬 열아홉 살에 시집을 왔어. 스무 살에 오고 나는 열아홉에. 우리 아버지가 나룻배 동산진이 타고 왔어. 박정희가 다리를 해주었지. 내가 나룻배랑 줄배 타고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부자라고 막 히지. 그 집도 부자, 우리 집도 부자. 그래갖고 인자 시집와갖고 즈그 아버지가 군대를 갔어. 애기를, 그때 삼월달인데 애기 있는지도 모르고 갔어, 그때는 군대생활을 오래까지 6년간 하드라고. 그래서 아들이 크단해갖고 앉아서 꼬덕꼬덕했어.

시누가 나룻배 곁에 셋째오빠가 동산진이 나룻배 타고 온다고 해.

그래서 아들 업고 아빠 온다고, 아들 겁나게 이뻐서, 그래서 외갓집이 가 키웠어. 내가 그런 일을 못해서 애기를 업고 친정에 가서 키웠어. 꼬덕꼬덕 커갓고 행자가 애기를 업고 가니까 저 어떤 형수가 애기를 낳냐고 그래, 하하하.

아들 아버지는 사 형제에 이 남매. 그래갓고 세상에 군대에서 안 왔어. 시아버지도 옛날에 며느리 오라고 궁께—사동 오 선생이 군인애를 함께 갔어. 우리 집이 저 며느리 조께 오라고, 아들 아버지가 면회 조께 오라고 그러니까 오 선생댁이 와갓고 애 구실댁! 저 아들이 면회를 간께 며느리를 오랜다고 전해줬어. 그니까 어무니가 아이고! 우리 집에 새각시를 데꼬 면회를 가라고? 못 가 못 가! 그래서 면회를 안 갔어. 그래서 삼월달에 군대를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지. 그때는 군대에 육 년을 있은께 애가 큰지도 모르고.

궁께 어떤 형수가 낳냐 글더래. 그런께 행자가 업고, 셋째오빠 애기 라우! 이런께, 어? 셋째오빠 애기가 뭐데? 하니께 행자가 아이고! 셋째오빠! 아들 낳어 아들 내!

그때께 인자 구두를 신고 따박따박 안고 들어오더라고. 그런께 내가 왜께 부끄러. 부끄러서 환장해 죽겼어. 나는 거시간 흠일 뭇 일을 못했어. 근데 여기 시아버지는 그런 일을 딱 하더라고. 우리 집은 사치를 하고 딱 부자로 산디, 여그 와서 조께 있으면 못 살긔어, 식구가 스물두 식군께. 나는 열다섯 식구서 살았는디. 아 근디 내가 남편도

없지 재미도 없지 여기서 사나 싶어서 나룻배 타고 친정으로 가블고 그랬제 글고 그때는 중매로 결혼했지. 여그는 딱 눈만 많아갓고 정신 없는 시상을 살아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는 좋게 집을 해놓고 들일 도 안 하는디 여그 와서 못 살긔어. 반세상을 내가 애기를 업고 다 살았어.

내가 부끄러워서, 결혼할 때보다 더 부끄럽대. 애기를 보듬고 들어오네. 인자 와서 시어머니가 술을 잘 묵어, 그런께로 뭇 놈의 나라에서 사람을 안 보내준다냐, 아들이 이렇게 크드락. 우리 시어머니가 애기를 다 한디, 큰동서가 밥을 해. 아이고 그래갓고는 부끄러서 어떻게 살고, 시어머니랑 시누들하고 한 방에서 살았어. 갱뱅이랑 쥐가 버글 버글하고 내 시집은 짐은 쟁여놓고 큰방에서 시누 둘하고 애기하고 다섯 명이 잤어. 친정애를 안 가고 잡대, 그래갓고 인자 부끄러디 착착 옷을 벗더니 아랫방을 치운 거여, 허허. 갱뱅이가 버글버글하고 죽석방에다가 방을 막 불을 때고. 앞산에 가서 속갱이를 쳐다가. 갱뱅이랑 연기가 나면 달아나븐다고. 그것도 좋아비였어, 우리 집이 셋째양반은 용감해. 지그 서방을 보고 전동판, 뒤시기 가이내 만나짜. 십 년 살고 가이내 데꼬 살았어. 지금은 안 내줘 시아버지들이 아까워서. 나는 반쯤 허송세월하고 오지리 가서 아들 데꼬 살았지.

아 그 인자 저녁에 아이고미, 요 방애를 들어오란디 첫날밤보다 더 부끄러. 어찌께 부끄러면 고히께 부끄러운가 몰라. 호롱불이여, 전기

도 없어. 그때 촛불을 사 오대. 촛불을 키놓고 요상한가 얘기를 이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얼마나 이뻐졌어. 그때는 아버지가 스물여섯인가 되었을 거여, 첫 휴가를 나왔는게. 갱방이에 연기에 불을 때고 해 갖고 얘기를 보듬고 아랫방으로 들어가대. 설거지를 하면 얼마나 설거지를 하고, 식구들이 많은께, 으이구 우리 둘째형님이 우리 셋째덕은 좋긔네, 저녁에 막 이래. 이이 근테 얼마나 부끄럽던지.

들어간게로 인자 내 사람 되었네 해. 애기 신지도 모르고 삼월달에 갔는디 그때게 어찌게 뒤시 먹고 잡고 막 오징어 과자가 먹고 잡고 해도 친정애를 못 가게 해, 근테 인자 아들이 날 때가 되니까 가라 하더마. 인자 지네 식구 되었응게. 그 안에는 못 가게 해. 저녁에 아후 내 사람 되었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한게 지그 친정애를 가블 주 알고 맘 놔버렸대. 친정애는 잘해먹고 산디 우리 집에는 논만 많지 거렁뱅이 같이 살아. 그런게 내가 왜 인자사 휴가를 오냐고 그런게로 나라에서 그때는 총알에 폭탄이 떨어지고 하니께 금지를 해브렀다고, 못 가게 해왔다고 허믈서 손을 이렇게 잡아. 인자 내 사람 되었네 그래.

생전에 못 믿었는갑서. 어떻게 머이매를 요상하게 볼 거여. 미안하 다급서 저녁내 얘기를 히고 인자 우리 집에 살것다고 그럼서 즈그 아버지도 울고 눈물이 다 나오서 그런내. 애기가 꺼덕꺼덕 노는 게 이뻐서 어떤 형수가 낫냐 근께 행자 여시가 셋째오빠가 낫네! 했다고.

인자 또 휴간게 또 가야제. 그때는 휴가도 짝께 해줘. 인자 갈 때가

되었어, 휴가가 열흘인가 해줬어. 이제 즈그 아버지가 군대를 안 가서 해병대들이랑 광주 상무소에서 방망이 차고 잡으러 와브렸어. 근디 저기 나루에서 풀을 뜯어와서 꿩꿩 찌어서 붙이더라고. 그런게 테인 거맹키로 이렇게 장판지가 요만치나 부껴브러. 그래갖고 군대를 안 가브써. 안 잡아봉게. 그때 전화를 했는가 와서 다리를 보러 왔어. 테이가꼬 못간다 그런게 광주 상무소에서 방망이 칼 차고 해서 들어와. 그래갖고 헌병대들이 다리를 보자고 한게, 고놈이 독해갖고 부커서 까시를 추우욱 나가. 고놈이 빨해갖고 헤어져갖고, 헌병대들이 휴가를 도로 낮아가꼬 오라고 열이레를 해줘. 덜 나스고 갔어. 옥동화가 글케 독한 거여. 미나리같이 생긴 거.

그래갖고 그런 세상을 내가 살고 팔십다섯이나 먹어도 명이 안 죽어. 육년 제대하고 농사짓고 큰집에서 살았지. 시방 아들히고 오두막 살이를 큰집에서 살다가 갔어. 머이매 둘째는 거기서 낫어.

머이매 다섯 낳고 딸 하나, 육남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딸내미는 익산. 시방 딸내미가 오십다섯. 그런게로 딸내미가 익산서 큰아들 중매를 해갖고. 아들도 지금 개인택시 해. 딸내미는 건강해서 잘 살고.

우리는 똑도 안했어 물이 저쌓고 할아버지는 댐배장사 하고, 아들이 거기서 중학교 국민학교 맹겼어. 아 그래갖고 그 집에서 둘째랑 딸내미 낳고 그래가꼬 인자 큰집으로 도로 들어와서 자 낳고 그랫당게.

시어매 시아부지가 도로 들어오래. 보리밥이라도 해놓고 보르르 와서 밥하라고 해서 나를 귀찮아게 해서. 나는 팔 년 만에 나가고, 근데 또 여가 와서 앉아 있어. 밥해 도라고. 그래서 또 내가 밥을 채려줘. 또 맨날 둘째 니가 들어와 들어와 해. 우리만 붙들라고 해싸. 셋째며느리를. 왜 나를 그렇게 좋아라 한가 몰라.

그런게 인자 나는 하는 말이 팔 년 만에 허송세월하고 제대하고 살 만한 게 또 왜 이런가 싶어 점쟁이한테 간계 지가 큰매느리 노릇 하겠네 그래. 어찌 여그를 안 들어올라고 나뻤을 거여.

장삿떡은 셋골로 나가고, 이제 넷째동서도 여기다 살다가, 여 윗집에서 살다가 선동떡 집을 사가갔고 살 만헌디 복이 없는가 어쁘가 차사고로 죽어벗어. 새끼들은 인자 아들 집에서 며시매가 셋 가이내 하나 그래.

나는 인자 셋째아들이랑 살아. 장가 안 가고 나허고 살아 이렇게. 내가 책을 질라면 요만치를 지어. 셋째가 토끼띠, 오십네 살. 나는 친정이 부자지, 여그 부자지. 친정에 시방 다 살았어. 우리 어머니 팔십여 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내미는 각시랑 얼마나 부자다고, 가서 보면 막 으리으리해 인자. 인자는 살기가 곤란하고 그렇게 자는 요래. 나는 농사질라요. 그런게 아버지가 아따 너는 갱운기 사주마 해갔고 여기서 농사짓고 살았어. 자가 이미 와갔고 여기서 살아.

나가 인자 경로당 갔다오면 잔해. 내가 어찌게 눈을 감고 가나 싶

어. 자를 가면 맘이 아파.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사나라고 니가 애쓴데, 익산서도 뿔뿔 뿔뿔 다 잘하느디 혼자 산놈이 수도 없대. 너 편히 살라든 너도 앞으로 편히 살아. 그런게이 못신 가시내 하나 얻어다 노면 지그 동네로 돈 벌어서 가브러. 그니까 그냥 편히 살아 허고 위로를 해. 나는 귀도 안 먹었고 다 시방 보청기를 끼느디 나는 귀도 안 먹었어. 여섯 명이여 여자가. 근디 전부 화투 치고 논디 보청기를 해갔고 못 알아들어. 나는 아직까지 귀도 안 먹고 건강하고 수술 한 번도 안 해보고 건강한끼.

여기 문재인이가 대통령 허기 전 곡성서 와갔고 막 회관에 노인당에 나를 딱 보더니 할머니는 백다섯 살! 하느디 나보고 백다섯 살 사는 거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부아를 내니께, 귀가 부처님귀로 생겨가고 선전 댕기는 여자가 딱 나를 보고 백한 살 백두 살도 아니고 백다섯 살이라고 그래! 귀가 어찌게 잘생겼던지! 지금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하면 처녀 목소리댕기로 목소리가 좋으면 오래 산다더만.

총기가 좋다고, 화투를 쳐도 만날 일등이여! 그런디 오늘 장에 갔다가 셋째아들한테 싹 보내블고 나는 경로당에 열두 시만 되면 밥해 주느디 밥 묵고 화투 치고 내 놀다가 이제 들어온 거여!

노미선(기명, 여, 87세) | 곡성군 고달면

죽으면 묻지 마라

이영자, 46년 11월 17일 생이여 음력으로. 지금 칠십둘. 결혼은 스물하나에 했을 거여, 늦게 했어. 모르것네 나하고 일곱 살 차이여.

내가 태어난 동네가 창신부락 매아리. 남원이여. 사매면 상신, 대신이라고도 하고. 형제간은 둘인디 하나는 죽었대. 여자 둘밖에 없었는데 한 명은 죽었대.

기구하게 살았지 뭐, 어려서. 나는 매 놀기만 했어. 부잣집이었어. 인제 밭 매고 그러면 새거리나 해다 주고. 콩국수 이고 밭으로도 가고 감자 찌갓고 땡기고 고런 일만 했어. 고생은 별로 안 했는디 시집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

엄마 아버지는 일찍 또 죽었어. 내가 여섯 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가 모르겠구만. 아버지가 돌아가신게 어머니가 상치를 했던 모양이여, 그래서 내가 인자 큰엄마한테서 컸어. 엄마 안 따라가고 내가 큰 집에서 컸지. 큰집 형제간도 별로 없었어.

옛날에 나 머리가 겁나게 좋았어. 그때는 요만 한 전과책 고런 것이 있어 나는 그 전과 하나로 공부했어. 사 주신 것도 아니고 얻어다 했을 거여. 사매국민학교 갔어. 그때 학교 못 간 사람도 많았는데 나는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자치기 잘했는디, 나보고 집에서 못 가게 할려고 새 보라고 막 그러고, 나를 학교 선생님 이강현 선생님이 이빠라 했어. 그런게 인자 머시마들이 공부를 잘한게 시기를 해. 성적도 좋아서 선생이 좋아한게. 그놈들이 나한테 개보러 물어버리레 나를. 그래서 내가 개를 보면 덜덜덜덜 해.

국민학교 사학년쯤 되었는데 몰라. 그래서 선생이 아깝다고 날 찾아왔어. 아침때만 갈치고 저녁때 보낸대 새 보라고. 그래서 나 학교를 그렇게 땡겼어. 큰집에 있고 돈 벌러는 안 가고 집에서 매 그런 일만 했어.

또 우리 개머들이 여러, 가시내들이. 바가지를 쓰고 배나무를 찾으면 배를 찾겠구만. 그리고 소리가 난게 따. 또 겨울 돌아오면 쌀 갖다 친구들끼리 밥을 해먹어. 누구 집 가서 김치 돌려 하자 하고 불 써갖고 본게 명태대가리라 또 도로 갖다 땡겨버리고 짓궂게 컸는디.

그래갖고 또 내가 시집은 뵈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우리 인자 할머니가 장씨거든. 내가 그 그새끼 사매면 오면 짹 짹 찢어서 슬나무다 널어본다겠어, 중마쟁이를. 스물한 살 때 중마를 해갖고 어휴~

그전에는 들일이란 건 모르고 시집을 온게 아이고 형님 손은 여케

이렇게 이쁘대 하고, 아이고. 중매쟁이가 한번 와갖고, 그러기 전에 참! 우리 저그 고모 아들인게 행복사지만 그사람이 와갖고 순창 어디 역에 댕긴다고 중매를 한다 그래. 고리 가지 미친년이 한번 그랬는디 어뜨케 그래, 고러더래. 와서 선을 본디, 하이고 참 복잡해 죽겠네.

선은 몇 군데 봤지, 여그 요 사람이, 중매쟁이가 우리 할무니 친정 조카래. 장씨 문중에 종종 일을 하러 댕겨. 그라꼬 인자 선을 와서 본게 조께 사람이 이상하고 그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고 놀러를 가브렸어. 근데 문둥이새끼가 사성 갖고 와브렸어. 우리 시댁집은 소아과도 하고 약방도 하고 부잣집인디 좇같이 자식들을 키웠어. 육 남매였고. 시할무니 시할아버지, 회혼례시킨다고 나를 빨리 헨 거여. 그래갖고 사주단자가 오고 눈물로 세상을 산 거여 내가. 근께 이씨가 사성을 갖고 왔는디 그때는 왜 막 이장 앓을라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잖아. 그래서 억지로 와브렸어.

사는 날부터 인자, 나도 와서 큰머느린디 와서 인자 저그 저 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겁나게 힘들었어. 지금도 생전 심득해. 몇 년 안 남았지매, 아직도 오지랴 생전 심득해. 첫째는 개띠하고 토끼띠하고 만나갖고 신랑하고 성격이 안 맞아.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이고, 둘째는 오냐오냐하고 참말로. 큰아들은 내뉘른 자식이고, 전부 작은오빠만 생각하고 부모도 그러고 다 그렇더라고. 그러고 하 열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맞아 어뜨케.

갈라고 갔는디 유월 유두날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저 일도 생전 안 시켜본게 일도 못 해. 근디 가지골에 눈을 매러 간다고. 내가 그래서 허락 맡을라고 차비 조까 달라고 갔는디, 친정 간다고. 인자 본께 허가 맡을라고 갔는디 못 가지. 그래서 인자 똥매거리라고 있어. 거기에 할무니를 만나브렸어. 도망 간디, 할망구가 말을 해브렸어. 그래서 잡으러 와서 잡히고, 와서 죽을라고 농약을 한 방을 타서 먹을란다 지금 생각하면 슴치온인디 안 죽을 건디 한 번 훌쩍 하고는 구정물을 퍼묵어야 안 죽는다고 그래서 막 먹었어. 그러고는 못 가고 나도 인자. 애기는 사 남매 낳고 섬진강 가서 죽을라고 세 번을 갔네. 치마 둘러쓰고 못 들어가 무서워서. 고것이 기왓집으로 보인다네.

시집살이는 별로 안 했는디 남편하고 하이,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아니고 신발만 짹 짹 끼실어도 소름이 짹 끼끌어. 그래서 내가 인자 마음의 병이 들어브렸어. 근디 저 인자 각시라고 찾아와. 인자 그날 저녁은 싸운 날 저녁이여. 지금도 뭐. 다 인자 버리고.

지금 다섯을 낳는디 하나 죽고 또 우리 하나는 또 결혼 안 했어 마흔다섯인디. 막둥이도 마흔둘이고, 그것들이 우리 사는 걸 보고 그런 영향을 끼친 것땡키로. 대학은 못 졸업하고, 우리 아들이 백일장 상 타고 근디 개네들 클 무렵에 내가 염병이 나갔고 나갔다 막 그러니까, 한 마흔하나 둘……. 다 무너졌는디 그래도 나보다 참 못헌 사람도 아래를 내다보면 겁나.

결혼식은 남원 원불교 와서 했어. 그때는 요그 차도 안 땡기고 마이 크로버스로 나를 싣고 오고 그러더라고. 드레스 입고 원불교에서 했 다니까. 몇 십 년 전에도 드레스 있지 왜 없어. 드레스 입고 사진이랑 찍었어. 아이고 구 년을 내가 할아버지 할무니 아버지 우리 저기 구 년을 밥 채려다 놓고 영혼 생활을 했어. 조식으로 밥을 채려다 놓아. 날마다 잘 드시라고. 우리 어무이만 안 했어. 징그럽네. 농사도 쪼티. 인자 여 정의하고 상서부터는 고생문이 열린 거여. 시방 나하고 일곱 살 차리 곧 팔십 돌아와 양반은. 먹성을 잘해. 삼백육십오일 한 끼니 를 안 굶어요. 아침 여섯 시에 밥 먹은 거 보면 또 뭘 맛으로 밥을 먹 냐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국이라도 끓여놓고 갖다 줘도 못 먹은 때가 씨부렀당게.

우리 작은아버님 대학교 나오고 동자는 시집갔더라고. 그리고 인자 자식이, 큰자식이 든게 시아버지가 이빠라고는 하지만은 남편은 뒷 전 기블고. 원자하고 지그 아버지하고 남원 춘재엄마 고리 선을 보러 갔어. 근디 딱 어찌 신랑이 크고 이쁘던지 딱 지가 결정을 해브렀더라고. 근디 화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 집이가 전부 유전으로 뭐 이 대가 간경환가 그걸로 다 죽었어. 삼 남매 내놓고, 작은딸 하나하고 있고. 원자가 그래서 우리 때는 앓을 것도 없고 뭐.

나는 인자 평생 따로 자. 옆에가 있으면 이렇게 막 올라와. 근디 그 때는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애가 서. 우리 시아버지도 인자 맨날 새타

사다 주고 한게, 우리 원자가 우리 아버는 맨날 새언니만 좋아한다고 그래. 근디 상대자가 맘이 안 든게 내 인상이 환했는디 울상이 되어브 렸잖어. 글고 뭇놈의 사람이 안 찻쳐요, 냄새가 풀풀 나. 근디 내가 애들한테 나는 미워라고 해도 너그들한테는 아빠여, 해. 그래서 가들 이 지기 아빠밖에 몰라.

또 내가 몇 년 나가서 안 들어왔어. 근디 나보고 들어오라고 다시는 안 근대. 뺏을 안 그래, 그 버릇이 어디 가. 때리고 그러던 안 해. 억지 로 뺏어 논게 그래. 우리 저기 아즈씨도 오 년 만에 애기를 낳더래. 아 들을 나냈어. 근디 아들이 크다가 전풍이 나더래. 전풍이 나면 전끼를 해서 우악을 털푸덕 해브러서 더 놓해. 근디 때로는 생각하면 불쌍 해. 그 사람도 나한테도 뭐, 저 같은 각시를 만나도란게, 나 같은 사람 똑똑헌 사람 만났은게, 불쌍해.

일은 별로 안 했는디 마음의 상처가 커서 합병이 들어갔고 막 흑! 하고 올라오고. 또 하늘에서 천질이 또 있어. 나 사니란게 애졌네. 천질은 뭐 물로도 들어가블고 불로도 들어가블고 그렇대. 그래서 내 가 작은집에 쫓아갔어, 큰집에 가보시라고. 새각시 때. 엄청 겁이 나 갖고.

나는 죽으면, 아파 죽으면 묻지 마라 그래, 아들한테. 자기 거스그 를 묘를 만들어 뵈어 가묘를. 가본게 뭐 그리 또 뭐. 오지리 고수. 그리 고 나한테 힌트라도 조께 주고 그려, 가본게 우리 애기들 이름을 써뵈

어. 아따 덜덜덜 떨리대. 또 저기 애미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다요, 돈을 배를 들이고 야를 옆에다 해 논께, 말도 마.

이영자(기령 여, 73세) | 곡성군 고탈면 대사리

보따리 싸고 싶은 적은 없어

홍금선, 음력으로 몇 년생인가 모른다 정월 열셋날. 올해 일흔아홉이여.

결혼은 열아홉에 하고, 영감은 스물한 살 먹었지 두 살 새끼. 구례 산동 산수골에서 태어나서 도로 산동으로 시집을 갔지. 사남매를 키웠지, 둘은 끌기고.

우리는 그때 아홉 살인가 일곱 살 때 빨치산 난리가 나갔고 학교 문앞에도 가보도 못하고. 난리 나갔고 군인들이 학교에다 반란군 와 산다고 불을 내뿜어. 저녁이면 구두 신고 그득그득 와서 방을 다 뒤져. 짚에 나락에 짚어서 까불라서 갖고 가고, 옷도 갖고 가고. 목을 것만 뺏아 가고 사람은 피해 없어. 그때 거가 빨치산이여. 농사져갖고 묵고 살고, 시래기가닥 묵고 살고 쪽 캐다 지져서 먹고 가을이면 콩잎 훑어다가 볶아서 묵고. 양식이 없으께로 비단 지져서 갈아서 묵었어. 고놈은 해서 우리가 묵어볼지. 그러면 빨치산이 와서 담을 허르고는 독아

지를 묻어서 요놈들이 낮에는 보고 있다가 밤이면 와서 다 돌라가브리. 쌀을. 우리같이 타고난 거 없어. 그래갖고 인자 다 형제간들이 함께 살고.

아이고 왜 인자 애들은 안 잡아갔는디, 옷이고 베고 뒤고 다 돌라가고 갖고가 본연에, 지가 했지. 우리는 무선계 이불 밑에 숨어 있고 우리 어무이는 졸졸 따라댕기고 보고 있어, 총을 메고 그러고 한계. 산동에 부락이 몇 부락 있다고 거가 산동면이제, 거가 켈로 빨치산이여. 거기서 반란군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다가 한번 밀고 들어와서 면차지 군 차지해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 피해도 없는디 큰아버지가 거시기 될 저그 저 군인으로 있었어. 근께 큰아버지 가지, 우리 친척 다 빨치산한테 죽어브렸어. 한날 그렇게 죽어브게 지사 지내러 가들 못해 우리 아버지도. 죄가 없은게 옆으로 딱 꽃들마을에서 죽어 브터마. 우리 큰아버지는 봉알이랑 썬바닥 끌어블고, 다 출상을 하고 난계,

군인이 밀고 들어온게 반란군이 쫓겨갔지. 다 도망가고 산으로 가블고 군인들이 왔어. 우리 아버지는 유가족 돈을 탔어, 애먼 사람인게. 우리 하나씩 형제간이 오형제여, 밑에 자손이 다 죽어브렸단계, 우리 오빠는 열여덟이나 열아홉이나 묵어서 쪼깐했지, 우리는 쫄망 쫄망 밑에가 쫓어. 우리 동네는 판촌이고, 상관이라고 동네가 있어, 우리 애기 아버지가 상관 동네여. 우리는 판촌이고, 그러고 살다가 결 혼하고 형제 간들이 싹 시집 장가를 간게 흠어져브렸지.

우리 엄마가 서른 몇 살에 혼자되브러서 감장사, 꽃감장사, 다 했지. 걸어서. 밤뚝재를 넘어서 가마를 올귀서 따라가면 감을 팔아갖고, 찌짐 그걸 팔아갖고 와서 너갓고 콩이랑 풀이랑 훑어다가 지져서 먹고 그랬어. 우리 영감도 고생 몸쓸나게 했어. 똑같이 당했지. 중매로 만났지.

우리는 여기서 담 사이로 하나로 살아서 옆집이 부잔디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을 살려 와서 아무진께 나를 기어코 중매를 했어. 근디 신랑이 오메 아버지가 없어. 혼자 살려 왔어 머슴살이를. 큰집에 동생을 맡겨 놓고. 어매는 자기가 열세 살에 죽고, 아버지가 이복어매를 얻어서 딸을 얻어서 살았대. 근데 이복어매가 집 살림을 양도 안 차게 죽을 써놓고 친정으로 가블고 말도 못허게 그렇게 살았지.

가마 타고 시집가고 큰집으로 갔지 인자. 시아바이 성 집이여, 말하자면. 가갖고 그 앞선에 아버지를 어쨌냐면 시아바이가 무식이라서 어득게 무식똑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반란군한테 연락해 쫓다고 군인이 날마다 잡으러 온게 자기 발로 딱 시월달엔가 깔망대를 어깨에 딱 미고 나섬서 어디 갔다 온다고 하더라. 지금까지고 뼈를 못 찾아. 산으로 들어간게 반란군한테 죽은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고통게 없어져블고, 아들들만 있는게 집은 넘을 쥐블고 살림살이를 비닐에 해놓고 큰아버지가 데리고 있음서 큰애는 머슴 보내고 노은 큰아버지가 짓고 해서 살림이라고 쳤겠지, 내가 결

혼해서. 그래서 인자 결혼하고 군인을 가봤어, 그래갖고 나는 셋 낳지, 딸 하나 아들 둘. 군인에 갔다 와갖고 한삼 년 있다가 어찌든지 결혼은 칠 년 만에 첫애기 딸을 낳어. 근계 동네사람이 쭉덕거렸는가비여, 이제 시아재 데리고 둘이 살았는디, 논에다 보리도 하고, 제대를 와서 인자 시아재 장가를 보내고. 그때 농사를 짓다가 영감이 기계에 소질이 있어서 방아를 보다가 밀천이 없은게 거덜이 났다가, 순창까지 가서 기술자 따라 가서 전구방아를 보러 갔어. 고놈 기술자를 따라서 가서 있다가 인자 문디를 썩어서 늑막이 와브렸어. 그래서 명이 긴게 살아서 이제 방아를 못 봐, 고름이 옆구리에서 나와짚게.

여기 댕글로 온 지는 사십 년 됐지. 내가 마흔아홉에 왔은게. 그래갖고 시방 칠십아홉인디. 순창서 살다 요리 왔지. 내가 구례서 셋을 나갖고 순창으로 와서 막내를 낳았어, 글고 여그 와서 머시마를 하나 쟁겨브렀잖애. 계속 방아로만 벌어먹었지. 그래서 인자 먹는 것이라곤 잘 먹고 살고 그랬어, 근디 인자 영감이 폐가 안 좋다고 해. 그래갖고 폐가 우찌게 해서 나아서, 또 한 번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려다 살았다가 그때 빗이 천백이 그때 돈으로 있었는디, 그거 다 갚아주고 죽었어.

방아를 보면 영감은, 뇌에서 귀를 나가브러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함께 들어주고 나락 떠다 주고 다 함께 했어. 그래서 귀는 아프고 성질이 나서 나를 욕을 해. 그리고 살다가 칠십다섯에 갔어. 그리고 여

그서 떡하고 고추방아 찼고 그랬지 애기들 키우고, 우리 막내는 지가 벌어서 지가 살지. 대학도 지가 야간대학 나오고, 군인에 말뚝 박아서 있고.

아이고 말도 못 해. 시아재가 게을러갖고 일 한 시간 하든 몇 시간 놀아블고 속깨나 썩였어. 동네사람 다 알지.

우리 언니는 저 시방 구례 토지에서 살고, 남동생은 부산서 살고, 오빠는 산동서 살다 돌아가시고. 올케도 혼자 살아 싹 서울로 가블고, 나는 학교 문앞에 가보도 안하고, 밤이면 야학으로 가르침을 받았어. 기억 나온 한글을. 나 외본 뒤에 산수유 키워갖고 축제를 하더마. 나 있을때도 산수유나무가 있었고, 우리 친정에도 산수유 밭이 있었어. 이밭로 싹 다 까서 방에다가 뜨겁게 쪼여갖고 이로 까서 껌테기를 한 밥그릇에 십 원씩 이십 원씩 팔아 돈을 벌어, 그러면 하룻저녁에 열 그릇씩 까면 천 원이여. 그리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 친정엄니는 이가 다 갈아브렸어, 하도 까서.

지금 산동에는 우리 큰집도 있고 작은집도 있고, 우리 큰 올케도 살고. 나도 산수유도 많이 까고, 그때는 과일이 없은게 산수유 따고 겁내게 먹었지. 크게 대추 산수가 있는데 쓰지 않고 달아. 개비에다 넣어갖고 까묵고 그래. 짚루나무도 많아. 메뚜기는 잡아다 불에다 튀서 먹었지. 그리고 우리 어무이가 옷이 안 올라. 옷을 망태로 꿰어다가 삶아서 무쳐서 먹고, 고놈을 덜쩍지근하게 맛있어. 그때는 묵었는디

시방은 조계 의심스럽대. 대밭에 가서 대깎부기 까서 묵고, 배가 고프게. 좋은 것만 먹고 살았어. 돼야지감자를 캐서 고구마대로 들어서 시쳐갔고 이도 좋고 한게 캐서 묵고, 그랬지. 묵을 것이 없은게.

근게 시방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 먹은 게 좋은 것인갑서. 대열매를 훑어다가 갈아갔고 첩로 받쳐서 갈아먹고 살았어. 가재, 대수리 잡아다가 지저 묵고, 가재 지저 갖고 피리 같은 거 꺾테기 상추 조계 넣어서 지저 묵으면 열매나 맛난가. 약을 안 한게 그때는 새비가 많은디 그놈을 잡다가 호박 너서 볶아 묵으면 빨간 게 맛있어. 개구리는 안 묵었어. 미꾸라기를 많이 묵었지. 눈에 요래케 구멍이를 파면 나와. 벼는 낫으로 베고 손으로 승꿘지. 그때는 뭇 약이 있대. 시방 같으면 찢 기름을 얻어다 뿌려놓고 비료로 품어냈어. 고랑게 해서 농사도 저서 먹고. 홀태로 훑어서 묵다가 몇 년 된끼로 발로 밟아서 훑으고.

우리 당숙도 돌아가셨지, 아버지 큰아버지 다 돌아가셔브렀지, 사촌 동상도 돌아가셨고, 우리 어무이 또래 나이는 전체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하나도 새서방 얻어 간 사람들이 없었네, 다 수절하고. 친정 엄마는 한 육십 살에 갔지. 돌아가셔블고 우리는 딱 어무니가 여위고 이제 형제간도 다 가블고 없고 자손들만 있어.

새끼들이 있는데 어똥게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았고, 보따리 싸고 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 큰아들은 결혼해서 머이마 둘 낳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가브렀어. 살림을 못해. 머시마들은 둘 다 군인 갔다 오고

결혼할때 됐어. 막내아들은 포항에 산디, 지진 있는 데는 괜찮고, 또 머이마 가시나 낳고 살고, 딸은 부산으로 가고 아들만 둘 낳어. 그라 안 해도 아들이 석 달을 있다 가라네. 안 간다 그랬어. 인자 여그서 나 죽으면 끝나는 거여.

방앗간은 내가 마흔여덟에 와서 칠십세 살에 방앗간을 그만뒀지. 네 살에 뜯어브렀고, 아 그미 명절 때 해묵을 것도 못 해먹고 새벽때 방아 찌러 오고, 밥 묵을 때 되면은 방아 찌러 오고 그러대. 밥 많이 묵었어 남창 사람들. 남창, 서당골, 세전, 저 어딘가 몰라 어디서도 오고 많이 왔어. 우리 농사질 때 막 콩국수에 해갔고 새참 갖고 갔어. 많이. 내가 이제 방애를 봐서 사람 마음을 다 알아.

인제 딸을 내놓고— 해가 이만큼이나 있는 년에 동짓달 열여섯 날에 낳는디, 변소를 갔는디 애가 딱 화장실 문 앞에서 떨어졌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방에 기어들어왔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만 알고 있었어, 큰애기를. 아들은 친정엄마가 다 해주고 다 땃줄 끊어주고, 옛날 말에 화장실 가서 넘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디 내가 어무이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참고, 또 점쟁이가 와서 손 비비라고 하면 비비고, 팽가리 두드리면 또 아프면 낫고, 그리고 나면 또 아파. 그러다가 또 낫고, 지금은 이제 우리 가이나가 쉰다섯 먹었는데 건강해. 그래도 우리 막내는 늦게 난게 나이 차이가 겁내 나. 마흔 몇 살에 낳을 거여 우리 막내를. 지금 마흔네 살 먹었는데, 산파 데려다가 고놈은

났어. 그리고 고 밑에 애기들은 다 잘 크더라고.
나는 별로 아픈 데는 없어, 그냥 힘이 없어 다리에.

홍금선(거령 여 81세) |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십 남매 중 혼자 살아남아

강성자. 동짓달 스물여드레. 인자 팔십아홉.

나는 저 곁면서 시집왔어. 거 죽산리, 거그서 살다가 시집왔지. 친정 식구, 우리 어매가 딸을 야똥을 낳어. 하도 딸만 난게 아버지가 열만 채워 달라고 삼신에다 빌었어. 내가 여섯째거든. 그레갓고 전에는 우리 어머니 시주에다 아들이 둘이 딱 있어. 근디 일곱째 남서 가시네가 팔아묵어서 아들을 둘 낳어. 근게 그것만 그러게 이빠라 하고, 꼬막을 사다 꾸워 주면 나는 묵고 자파서 막 글고. 금게 일곱째가 딸이 흥진함서 죽어블고 그 뒤로 아들만 둘 낳지.

근데 딸 다 죽어블고 나 혼자 살았어. 흥진으로 다 죽어블고. 나 결혼하기 전에 언니들 다 죽어봤어. 성은 인제 어디로 가서 죽은지 모르고, 우리 동생들도 명이 짧은가 다 죽어블고 나만 살았어. 딸 일곱에 아들 둘. 동생들도 죽어블고 나 혼자 살았당게. 그레도 명이 진게 살아, 안 죽고. 그 귀한 동생들 봉알 깨진다고 업도 못허게 했어. 근데 장

가가가꼬 하나는 차사고 하나는 아파서 죽고 영감도 죽어붙고 이려고 살아.

명 진 것도 못써. 아이고~ 조카들은 있지. 그래도 큰동생은 아파서 죽은게 그런디 작은동생은 형수 칠순 세리 가다가, 차 싣고 가다가 그 자리서 죽어붙어. 없어 인자.

저그 난리통에 피소로 나왔어. 참말로 못 죽은게 못 죽지. 그리고 큰아들 놓치고. 내가 공출 안 보낼라고 시집왔지. 어매가 막 딸들 있게 저그 일본서 막 나온 사람 막 결혼해갖고 신랑이 일본으로 막 가 붙는가. 근디 고놈을 노망했는가 어디가 있는가도 모르고. 몰라. 그래 갖고 죽어붙어 보살도 못 받고. 나는 인자 끌려갈까봐 억지로 결혼했어. 열 일곱 살 때. 그래갖고 일본으로 가본게 친정살이 했지. 그래갖고 일본에서 난리통에 나왔더마. 일본서 자식 하나 낳고 영감이. 일본에서 한 삼 년 있었는데 몰라. 성님 대로가붙어. 저그 일본에 하나 나 놓고 왔대. 나는 인자 딸 넷 낳고 아들 둘 낳고 했어. 여그 와서 그때는 그러고 살았어 그냥. 동생들도 안 죽고 여그 와서 재미지게 살았는데 영감 죽고 동생 죽고 아들 죽고 그랬지. 내가 복이 없어.

하아, 농사 쪼지. 영감은 똑딱집 지러 댕기는 목수. 근디 성질 있고 무셨어. 술 묵고 오면 아주 아그들이 다 숨고 내가 참말로 거스근게 살았지 안 그럼 못 살아. 시어매가 큰집서 살다가 시숙이 군인에 가다 죽었어. 근디 인자 큰성님이 서방님이 없은게 시어매를 못 보고 우리

집에서 구 년을 살다가 죽었어. 한방서 잤네 돌이 싸우고. 나는 통 거 짓말만 하고 좋게 붙일란게. 나는 둘째며느리. 저그 영감은 노무자로 일본 큐리세 뭐라더라 반장 이름도 몰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노망했는가. 뭐 폭탄 굴 파고 어디 난리난 데 짐 갖다주고 그랬다 해싸. 지그 성 대로가서 안돼붙어. 성님은 아프고 그러. 저그 반란군들 없었는가 네 저그 충정들 짐을 지고 가서 구월달에 총맞아 죽어붙어. 그래서 거 그는 타묵어. 아주 굶어갖고 못 죽게 생겼어. 아이고, 몰래 도망쳐 나와갖고 어찌 했는가 몰라. 금게 어쨌든지 야매배 타고 왔대. 내가 인자 와서 낫지 반란군 굶힐 때 해방서 집져서 살 때 한창 클 때게 그랬는가, 우리가 거 반란군들 다 허고 딸을 낳을 것이여.

최씨네 아랫방에 살 때 술집 갔는데 저기 개놈이라고 나를 죽일라고. 젊어서는 가난해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남의 점방에 살다가 회관서 살다가 시댁서 살다가 그러다가 사우가 지어 줬지, 지금 집은. 큰아들이 살아 있으면 육십삼 세지. 아이고 보고 자프면 사진을 보고.

인자 요 집으로 이사 오고 술만 묵으면 영감이 사람을 잡아. 근게 우리 아들이 어찌 놀기를 좋아한게 막 책도 부작에다 여블고 서울로 도망가붙어. 그래갖고 학교를 못 갔어. 하도 친구들하고 노는 꼴을 못 봐. 그때는 하이고 아조 제장스런게 말도 못혀. 저그 어디 가서 콩을 뽑으다 삶아 묵네. 한창 친구들이 많이 있어. 창기, 영관이, 명호 집나

게 아주. 학생들이. 근디 많이 죽어봤어. 그때 저그 중학교 다닐 때 그
래갔고 막 가마 위로 보리 고놈 지고 가서 팔아갔고 창기하고 도망가
브렸네. 보리 가마니를 팔아서 도망갔어, 돈이 없인게.

그 세상이 그래도 좋았어. 매번 술을 먹고 칼로 조지고 억지소리를
해싼게 아저씨가. 밀천 다 날라가고 짐을 싸서 갈라 해도 새끼들 때때
못 가. 학교서도 집있네 막내도. 우리 높은 집에 시누 있을때 글로 가
기도 하고. 젊어서 살았다. 놀러도 막 댕겨싸고. 나도 놀러 댕기는거
좋아하는데 술만 묵으면 잡아싸. 생전 내가 잘못된 거 없지만 내가 술
만 묵으면 잘못했소 잘못했소 그랬지.

큰아들은 담배를 쪼간씩 피워서 폐가 녹아브러, 숨이 가빠갔고 댕
기지를 못하고 서울로 가서 수술 해볼라고 날 받아놓고 죽어봤어. 가
가 몇 살에 죽었는가, 오 년인가 되었을 거여. 그래도 인자 작은아들
이 잘한게. 우리 둘째사위는 집 지으러 댕겨. 집이 흰하고 좋은게.

나는 야학 조께 댕기다 말았지. 전에는 연송회 댕기다가 집에서 야
학 조께 댕기다 어찌다 그러다 말았지 야학당. 그래도 산수를 할까 뉘
슬 할까 정말 국문이란 배우고 막 그래도 산수도 알고 이름자 쓰고 그
러 여그 와서.

나는 인자 안식일교회 댕겨. 교회 댕긴 지는 오래되었어. 큰딸 사우
가 댕긴게 고리 인도해갔고. 여그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 전부 비
늘있는 거만 묵어. 현미밥하고 소고기하고. 교회는 저그 군민회관 앞

에 있어. 내가 죄 많은 것이 켈로 자식들 죽은 거당개. 며느리가 다 혀.
며느리는 잘했어 참말로. 명절 때고 뉘이고 지가 장 다 봐갔고 그러
고.

아저씨 일본 가고는 친정서 살았어. 일본에 있는 자식이랑은 연락
안 하고 아들만 내놓고 와봤대. 전화도 안 하고, 일본 여자랑. 서구보
일라를 뉘서 살아. 여그 원래 시부인테 내가 연탄을 뉘어. 전에는 동
네 화전 가서 장구는 내가 오드락 다 치고. 움씩하게 댕겼네 못 가게
해도 꺾꺾이로, 막 간다고 하든 막 디꼬가븐게. 보리를 베고 있는디
오직해서 막 갖다오면 보리에 불도 디고 그러. 가서 화전놀이 허구.
뉘 다 한 번씩 간디. 아저씨는 오죽해서 시방 생각허든 뉘 좋다구 그
때 저 신작로 저그 이발소 데려다가 했어. 굿을 하려고 하는디 제삿날
에 가자고 하네. 나도 술찬히 미쳤어 아주. 놀기는 좋아했지. 못 놀았
단 말을 못 혀. 월경서도 텔러 외싸. 골짜기에서 재미지게 놀다 오든
막 인자 아침에 막 그러지. 그러고 살았어. 놀 때는 참말로 재밌게 살
았어.

침에 모 승글 때에 모 승고 판자 찢쳐서 쟁이 갖고 오든 내 속에서
열이 올라와. 일 안 혀. 그런 일을 무서라 혀 아저씨가. 그래서 혼자 다
했지. 시방은 경운기도 팔아블고 내가 사서 고상을 했어.

장사는 괴기장사 빵장사도 해보고. 이고 가든 보리 한 대씩 주든 팔
고 곤란한게 그러고 살았어. 그러다 논을 술찬히 장만해서 살았는데

다 팔아먹고, 시방은 목을 것이 흔해빠져갔고 안 목고 근디 뭐 그때는…….

저그 아학은 내가 오래 산게 글지 친정에서 하던 친구들 다 죽어붙어. 그때 야학 선생들은 그때 전에 공부한 사람들이 갈쳤어. 남자선생. 문가들 집이, 켈로 부잣집이 거그도 망해브렸어. 그리고 전에는 일본사람들이 잿기 밀빵 치마 입고 뭘 갈쳤어. 연성회 땡김서. 그래갖고 이 갈치면 우신 사람도 췌어. 고것도 뒤를 돌아서 저리 가고 재미지게 살았구만 큰애기 때. 내가 다 갈쳤어. 몸뻐 꺼면 놈 입고 흰놈에다가 밀빵에 입고 이뻐. 그걸 입고 갈치면 아주 재밌어. 문동기 집 마당에 가서 저녁마다 갈키지. 춤을. 거 훈련 갈치고. 그때 일본 창가로 다 잊어브렸네. 연성회 땡기고, 우리 동네서 내가 혼자 땡겼거든. 그래갖고 와서 갈치고. 꺾간했을 때부터 굻히고 땡겼어. 신사참배도 하고 일본 창가도 부르고 했는디 저그 관사자리에 당산이랑 신사 있었는디 다 잊어브렸어. 일본말도 히고 다 했는디 다 잊어붙어. 아는 것은 없을 거여.

내가 그때 베도 췌어. 열다섯 살 때. 친정 밭에 뽕나무 큰 거 내가 췌서 베를 짜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베 소리는 난디 사람은 안 된다. 큰 비늘이 그렇게 해놓고 했는디 시집온게 밭도 굻게 생겼어. 시집오고 거그서 살다가 집을 거그다 지어갔고, 아이고 그때는 뭐 인자 고것을 알아갔고 그때 지그 아브지 및 번 불려가고 죽일라고, 거시기

반란군 밥 준 걸 문동기 집에서 알아갔고 어매가 베 난 놈 다 팔고 거그서 명주베 난 놈 돈 무더게 췌았네 및 번.

거 반란군한테 내가 뭐 받았는데 그것을 내부리야 했는데 내가 뭘 뭘 너놓고 잊어브렸는데 그걸 안 열어봐서 내가 살았지. 그 빼다지 안 열어봐서 인자 살았지. 그래도 우찌게 돈으로 막아갔고 아버지가 그래갖고 살았단게. 우리 시어머니가. 하고 내가 하고. 베 난 놈 다 팔고 그래갖곤 살아갔고 여그와 살고. 빨갱이로 안 몰려서 다행이여. 용케 살았어. 근게 뭐 집합장으로 오라 거시기였는가 근디 나는 그때 글을 몰랐었어. 나는 일본 글을 배웠지. 나는 열여섯 살에 거그서 살았단게. 열여섯 살 이월달에 시집왔구만. 반란군이 난리통에 우리 친정집 다 태워블고 겨우 살았지.

우리 영감이 칠십아홉에 돌아가셨어. 나 때 인자 신장 거그가 안 좋아갔고 심장 수술해 놔서 나도 인자 숨이 똑똑 끊어져브러. 아이고 인자. 그 당시에 노무자로 끌려가서 면회도 안 돼. 저그 숙자하고 남원댁 딸하고 광주사태 때 함께 나서서 부인들이 죽일라 한게 할매 집으로 뛰어 들어가붙어. 근디 할매가 아무도 몰랐는디 막 막 안아서 안 죽었어. 그 뒤로 요것이 근디 저기 죽을라고 기찻길에서 있었는디 만난 사부가 성만 달라, 황씨여. 저그 신안군서 살아 육지를 나와갔고 큰애가 가서 있더라. 여관으로 데꼬가갔고, 큰애가 집에 가면 거스간게 죽어 분다고.

아이고 막 나가지 마란게 할매가 저기 왜 나가냐고 남원댁 딸하고
그래갖고 동갑인디 살았어. 그래갖고 만나갖고 살아. 가본게 신안군
시어미 하나 있고 집 지고 살터마. 나와서 목포서 산디 그래갖고 그때
아이구미 그나저나. 놀레다니 그때는 죽었다 했어.

저그 인자 죽을라고 하다가 뭐 제 짝을 만나서 죽을 거스그가 못된
거지. 글고 딸은 뭐 막내를 낳는디 시어매 모시고 간디 돈만 벌어블른
시어매한테 맡기고 시어매는 술 좋아해갖고 막. 서방도 막 저기 애기
난사람을 과부를 얻어브러 신랑이. 안 오고 근계로 요것이 이혼을 해
블고 새끼들 디꼬 나와블지. 시어매가 울고블고 너 없이는 못살아 하
구. 그래갖고 고생한갑서. 우리 둘째딸이. 재혼해서 얻어간 사우가 집
을 해줬어. 잘살아 거그는. 뭐.

강성자(기명 여. 90세) | 삼기면 원동리

기차마을에서 반평생 장사

한상철, 44년 7월 6일에 태어났어. 결혼할 때 서른 살이죠. 늦게 결
혼했지. 아내는 스물넷에 했지. 읍내 1구에 이발소 윗집에서 태어났
지. 어릴 때 인제 거그에서 초, 중, 고를 다 다녔지요. 형제간은 육 남
매, 두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네 명이 살아계시죠. 셋째아들로 태어났
지요.

옛날에는, 그때는 각설이 같은 것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는. 초
등학교 때는 별로 그렇게, 그때는 아주 옛날 일이라서……. 여자 한
반 남학생 두 반 이렇게 삼 반 그랬어요. 해방을 초등학교 때 맞았어
요. 나는 국민학교를 일 년 늦게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무서를 다
니다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져갔고 다음 해는 낫을까 하고 학교를
못 가서 아홉 살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애기들보다 한 살
늦게 갔죠. 그래갖고 인자 국민학교를 마쳤죠. 아버지는 일흔넷까지
사시고.

인자 우리 외갓집이 부자였어요, 신월리 부자. 신월리가 부자니까, 우리 집은 가세가 아버지 그리 되고 기울어져서 그 집에 신세를 졌죠. 그쪽에 가서 많이 지내고. 피난 생활을 신월리 가서 했지. 그러다가 영운내서 살고, 이밭소 그 위에. 그 뒤로는 가족나무가 많은 집에서.

그때는 가족나무가 가족을 많이 주각같이 부쳐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내가 각설이를 동네 애기들 모여서 하다가 문제가 되어갔고 그때가 한 육십삼년인가 몇 년도에, 학교로 각설이 한다고 쫓아온 적이 있어요. 저 인자 주인인가 뵈이 쫓아왔어요, 학생들 요래갔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한창 때 그러는디 좋게 봐주라고 말을 잘 해서 보내줬어요. 문제 삼지 않았지. 지금 같으면 당연히 정학감이지. 그때는 훈방조치 되고.

그때는 시골에서, 저 죽곡 같은 데서 곡성으로 고등학교를 오면 자취하는 학생들 많았어요. 그때 곡성에 자취방에 가서 까부리한다고 학교에서 빠져나와서 밥도 해먹고. 그때 밥 해먹고 반찬이 변변치 않은디 그때는 몽고간장에 비벼서 묵고, 참기름도 없고. 바다가 있을 땐디 바다에 비벼 묵고, 어찌 맛있었는지. 그때 학생들 몇 명씩 온 애기들 자취방에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나와서 광주 가서 형님이 가게를 했어요, 식품가게. 그래서 가게 현 데서 있다가 군대 갔어요. 인자 카투사 갔어요. 그때는 그냥 거기서 있다가 와갔고 피엑스 그런 건 없고, 미 칠사

단이 파주에가 있었어요. 우리들은 미군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그냥 인자 깡통영어예요. 그런대로 해요. 손짓발짓은 아니고, 글고 가들도 일 년 몇 개월을 있으니까 알아듣고. 우리는 백오미리 포대였고. 그레갔고 인자 또 일 년 육 개월을 거기서 해요. 그리고 인자 한국 부대로 넘어와서 잔여기간을 하고, 광주 31사단으로 와서 나머지 생활을 하고.

그레갔고 제대하고 나와서 집에 와서 곡성에 있다가. 그때 스물일고여덟 됐죠. 조계 허송생활을 하고 낚시질이나 허다가 취직시험 보다가 어찌다가 경찰시험을 봤어요. 그러다가 곡성사람들 시험 보러 서이 가갔고 합격자 발표할 때는 두 사람이 갔는데 안 돼블고 나는 되고 그레갔고 인자 그때는 옛날 송정리 간 데 화정동 거기 경찰학교가 있는데, 거리 가서 일주일간 교육받는데 꼭 군대생활 같아서 헐 짓이 못하겠어서 그냥 집에 와서 놀았지. 속깨나 썩혔지.

그래서 장사나 해야겠다고, 해서 누나랑 형수가 요 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때 당시 집 사 주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레갔고 결혼해갔고 그다음 날 와서 집에서 자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한동네서 중매해갔고 결혼했죠. 그때 당시에는 여그 곡성 역전 광장이 쪼그만했고 벌판같이 이상허니 있었지 포장도 안 되고, 잡초가 우겨져 있고 그랬지.

서른하나 때 여기 왔지. 그때는 역전상회를 하고, 역전상회가 있을 때는 대평리 오지리 그런 사람들이 지게로 참외를 여그다 짚어지고

와서 팔아. 글면 여수 순천 사람들이 와서 기차로 싣고 가고 했어. 그럼 또 여수 사람들은 생선을 가져와서 술집마다 곡성 시내로 사가서 팔고 그랬죠. 그때는 장사꾼도 많고 여기 그때는 과자 그런 거 팔고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움직였는데, 주요 교통수단이었는데, 여행을 많이 하고, 시골에서는 화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여수로 놀러를 그렇게 많이 가고 했죠. 여기 또 명절 때로는 선물용이 처음에는 쪼그만한 사과하고 소주하고 사 가고, 그다음에는 설탕하고 소주하고 나가더니 그다음에는 정종하고 과자 선물세트가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으로는 식용유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식용유하고 정종, 그다음에 사과가 박스로 나가고 그래요. 그렇게 허다가 인자 교통수단이 버스로 바뀌더라고요. 열차가 줄어지고 버스로 바뀌면서 점차 쇠퇴해 가더라고요.

그때는 통학열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는 통학이 어려웠니까. 그레가지고 열차로 통학을 하면은 주로 먹는 것이 꼬박이예요. 그렇게 먹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읍내까지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고.

자식들은 삼 남매 두고. 그냥 인자 키우기도 복잡하고 해서. 그러다가 또 눈도 사고 인자 돈 많이 벌어서 요렇게 애기들 갈치고, 장사가 덜되고 하니까 우리 애기엄마가 내가 어영부영하니까, 하루는 놀러 갔다 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한신택시 하나를 계약을 해부렸더라고요. 이천오백을 주고. 그때 당시에 이천오백을 주고 계약을 해서 차

라리 택시 운전이나 하라고. 그래서 또 기사 두고 나오고 교대로 하고 그랬어요.

그레가지고 열차가 복선화한다고 공사를 시작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 집을 팔고 옮기던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옮기지 않아도 묵고 산다 해갖고 우린 그냥 살란다 그랬는데, 막상 옮겨가니까 그건 아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로고 살았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또 죽고, 세 집이나 죽고, 네 집이나 죽었구나. 사위들은 뭐 그냥 그래요. 키울 때는 나도 금چه 여기서 우리 애기가, 첫 애기가 딸이예요. 우리 애기 국민학교 삼학년만 되면 도시로 나갈라 그랬어요. 근디 우리 애기엄마가 절대 못 나간다 그래요. 저그는 읍내 여운내에서만 살아봐서, 절대 도시로는 못 가 산다고. 그럼 나도 인자 자가당착식으로 촌놈으로 살았어요. 애기들도 다 여그서 학교 보내브렸어요. 지계꾼 자식은 지계꾼이 된다고, 다 전문대 가고.

지금도 후회스럽네여. 내가 농사 안 지으면 영원히 남의 손으로 넘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손닿는 데까지 할라고. 그래서 지금은 택시는 그냥 자가용이고 그러죠. 땅값은 쪼끔 올랐죠. 그때 집값이 이백삼십이었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삼억 오천 정도. 아이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살았으면 훨씬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디 여그서 산계 재산이 얼마 안 돼요.

근디 내가 일흔네 살까지 산 것이 우리 새끼들 건강하니 농사져서
처제들 쌀가마니 주고 농사지어서 새끼들 다 주고, 중매해서 신식결
혼 했어요. 거가 옛날에 곡성에 고향예식장이 처음으로 있었어요. 남
양공업사 자리 옆에 있었는데, 거그서 했어요.

지금 읍내 1구에는 동생 가족 살고, 어무니는 아흔 몇 살에 돌아가
시고 장수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차마을 살면서 옛날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장사한다고 놀라면서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
어요. 그러면 정말 감회가 새롭고, 보람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 사
람들이 와서 정말로 잊그제도 와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고 정말
로 오랜만이라고 그러면서 애기엄마 보고 하이고, 지금까지도 장사
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로코 늙어서 놀래고, 우리를 알아주구나
그런 생각 하면 기쁘기도 하고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고 그러네요.

여그가 예전엔 비포장이고 완전히 그때는 뚝시었냐면요, 여그가 뚝
랄까 그래가지고는 밭같이 이상하니 그래갖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시멘트만 주고 섬진강에 모래는 무자니 쌓여 있고, 옛날 그 골재사업
하는 김순철 씨가 섬진강에서 퍼다가 주고, 오곡면에서 새마을사업
한 시멘트를 무상으로 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여기 일부를 포장을 다
한 거예요. 날마다 와서 광장을 포장을 헐디, 나도 오지리 6구 주민이
고 그러니까 저그 가서 거들고, 우리 애기엄마는 가게를 보면서 애기
가 쪼잔한께 천기저귀를 팔면서, 사람을 믿어서 저기 집을 좀 봐달라

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갖고는 거 새마을사업을 한 디 일을 하고 저녁에 딱 와서 그
날 우리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는 집에 예금을 안 하고 지갑 속
에다가 너놔요. 그런디 시집오면 이불 크게 만들어서 솜이불을 해주
잖아요, 거 이불 속에다가 너놔요. 각시가 요만 한 가방을 갖고와서
너어논디 내가 일을 하고 이불 속에다 손을 너어논디 그거이 가방이
없어요.

어이 자네 이 돈 어쨌는가 하는디 나는 가게도 안 비웠고 모른대,
지갑이 없어졌는디 나는 절대 안 비웠는디 그리 알아! 나한테는 말하
지 마 그래. 돈 가방이 없어져봤는디 어찌 그래. 그런디 그럼 그런갑
다 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도 속상한께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 밥을
안 묵더라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요 안내소 요 차보다 좀 더 저
나무 있는 데만큼 뒤에가 담이 쳐 있어요. 그 뒤에쪽으로 가더니 가방
을 들고 나와요. 급서 어저께 내가 저 묘천 여자한테 얘기 좀 봐주라
고 기저귀를 팔았는디 그 여자가 농 속을 뒤져가고 돈을 내가브렸는
가, 가방을 던져브렸는가 보네. 그래서 엿저녁에 말하면 찾지 그랬는
디. 글고 그 일찍 여섯 신가 새벽같이 그 여자가 묘천 산지 알고 그때
는 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둘이 뒤에 태우고 갔지.

그 집을 물어 물어 간께 고흥 산다고 그러더라고. 고흥 어디냐고 근

게, 고흥 사람이 친절애를 가서 친절엄마가 아이고, 우리는 그년 어뜨케 된지도 모른담서 고흥이라고만 해요. 그래서 부리나케 와갔고 그때 마침 통학열차가 저그 출발을 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저그한께 출발한 놈을 정지를 시켜줘갔고 갔어.

그래갔고 어찌 물어서 고흥에 그 집애를 간께 한낮이 되어브렸지.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래. 고흥 시장에 그 여자가 왔는데 어디서 낚는가 돈이 많아서 신랑 양복도 맞추고 큰 가게에서 전기장판도 사고 그런 것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저 벌교 있는 데를 간께 기다리고 있어도 그 여자가 우리를 봤는가 어졌는가 안 와요. 그래서 와브렸어요. 그래갔고 그때 경찰서 수사과장한테 말했어. 곡성경찰서에. 수사과 형사들이 몇 번을 가도 못 잡았어. 그래갔고 한 열흘인가 며칠 만에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디 인자 수사과에서 잡아갔고 경찰서로 디꼬와갔고 간께 그 방을 벌교에다가 얻어놓고 연탄도 띠고 독항아리도 해놓고 상도 사놓고 살림살이를 다 해놔어. 이불도 사고 뒷도 사고. 그것을 인자 수사과에서 그시기를 해갔고 차를 갖고 가서 싣고 오래. 연탄도 백 장도 띠놓고 그랬다고. 그때 나는 차도 없은께 인자 박일서가 디젤을 갖고 있어서 싣 싣고 왔지.

그 여자가 용서해 주면 지가 벌어서 갚은다고 해쌓고 그런께—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더마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좋게 해주시

오 하고 와브렸어요. 돈도 엄청 있어브러갔고. 내가 돈이 많았는데 금께 겁이 난께 저는 절대 집 비운 적도 없고 맡기지도 않았단께.

기차마을은 그때 머시기 국회의원이 여기를 광양 하치장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마요. 근디 오만 평이 안 되니까 무산이 되브렸고, 그 뒤에 곡성군수가 기차마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반대하고 그것이 무슨 흥행성이 있겠냐 하고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 될줄을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반대도 많이 있었고, 웃기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여그 영화촬영은요— 촬영하면 열흘도 안 돼서 영화촬영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장소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뒷선에서 밀어줘서 된 것이더마요. 정말로 영화촬영이 열흘 간격으로 들어왔어요. 기차마을이 참말로 요렇게 잘될 줄은 몰랐어요. 비교가 전이랑 되고요.

곡성 처음에 왔을 때는 삭막했어요. 글고 새마을사업 하기 전에는 우습도 않았어요.

여기는 창동마을이었어. 오지리가 8구까지 있어요. 나도 어릴 때는 읍내서 살아나서 오지리다리 학살은 잘 몰라. 이사 와서.

아, 장사! 그것은 내 친구가 저 읍내서 대구사과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장선리에 살았었고 광주공고를 나왔어요. 나는 인자 곡성농고를 나왔고. 고 사람이 나보고, 친구가 상철아, 너허고 나하고 장사를

하자. 나도 너도 여그서 한 것이 좋게 역전상회가 나왔는데 괜찮은게 해라. 해서 그래갖고 그 친구가 소개를 했어요.

거 매일우유가 그 친구여. 고 친구가 나하고 동창인데 고등학교를 다르게 나왔지. 중학교를 같이 댕겼지.

한상철(거명 남 75세)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도시 사람들은 시골 풍경을 찾아

곡성역 앞에 여그가 안에서 요쪽으로 전부 텃밭이고, 인자 저쪽에 로즈홀 저기가 관사여. 거가 세 채가 관사가 있는 자리고, 여그는 텃밭같이 됐고, 여기를 수장이란 사람이 짓더마. 중간에 또 여그를 막더라고 답을 쳐브러. 그리고 저리 나가는 길을 하고 저쪽이 통운 현장이요. 또 여그가 수하물 창고. 또 여기는 지붕만 바꾸고, 그때 치가 썩어 갖고, 또 광장은 그대로여.

가운데 시방 차 돌린 데 아스팔트 거기가 동그란하게 동산이 있었어, 나무 동산이. 그래갖고 거그서 차 들어오면 뱅 돌아서 나가. 집은 요렇게 그대로 생겼어. 우리 애기아빠가 가게를 하자고 그랬지 나는 몰라, 어떻게 여기서 장사한 지는.

여그가 기와집들이, 요그 시방 지붕 올려논 데도 꺾간한 기와집이 있는데, 그리고 옛날부터 산 사람들도 거의 다 그대로여. 짜장집부터 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살아.

여그 역전에 차 한 대씩 오면 수북수북했지. 글고 여기 차 한 대 오면 광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때 돈 많이 벌었지. 지금 저 동산에 가 향나무 비스듬하니 딱 송겨져갖고 잘잘한 나무가 가상에 있던가, 여기 역사 있고 그 옆에는 화장실 있는 데는 그대로 선로반 사무실이 있고 저그 시방 목욕탕인다고 지어진 데는 선로 고친 데가 있었어. 저 그 공원 된 데가 쪽 다 개인 논인디 사브렸지.

아이고, 그때가 좋지. 그래도 여그 집들도 안 팔고 있어요. 중앙연탄도 빈 집, 저기 선로변도 빈 집, 근디 안 팔아. 공원에 안에 들어가서 본게 옛날만 못허더마. 쪼끔 있으면 사람들 싫증낸다고 하겠어. 또 애기들 에스키모인들 나무로 칠닝쿨로 쪼끔 있으면 실증내가꼬 안 와. 나 딱 가서 틀렸다고 했어. 옛날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했잖아. 그 코스모스를 찾아서 가을이면 사람이 바글바글, 근디 잘못됐더마. 돈만 엄청 들어가 있지 몇 번 있다 가면 싫증내브러. 참 이상하게 해 봤더만.

너무 사람이 손을 대놔어. 영화세트장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찾아왔지. 세트장도 오래가면 낡고 헐어져서 숙박업소는 했다고 해도 저 안예를 도시화를 하면 안 돼. 그걸 알아야 한디 췌가상도 안 들어. 하, 자기들은 한 대로 한디.

그때가 좋아. 우리 손님들도 도시화를 하면 안 된다 이거여. 도시보다 더 좋게 하면 그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대. 도시 사람들은 옛날

시골 풍경 그런 걸 찾아오는데 지금은 완전히 배려놔어.

최정심(가명, 여, 69세)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지금은 전동차 타고 다녀

김정남. 음력으로 칠월 사일. 41년인가 모르겠어. 나이가 팔십 팔 세.

여그 태어나기는 반송, 죽곡 반송서 태어났어. 그래갖고 저 세살 먹어서 요리 왔대. 삼기로 이사 왔어 가족이 다. 세 살 묵어서 월경서 어머니가 이사를 옴서 따라와서 쫓지. 삼기에서 커서 삼기로 왔어.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봤어.

나 세 살 묵어서, 다섯 살 묵어서 돌아가셔브러 아버지가. 몰라 아버지는. 우리 어무니가 개가를 오셔갖고 살다가— 젊은 사람이라 혼자 못 산게. 살다 요리 왔지. 요 집으로 시집을 와.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저그 학교를 댕겼구만. 이년제 학교를 댕발로 댕겼다니까. 그러니 어찌고 살겠어. 신발 절어갖고. 걸어서 짚신 신고 댕겼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간지를 몰라. 인자 여럿이 댕긴게 그때는 영봉 거그서 남자들 둘 여자 한나 그러고 다녔어. 근디

그 양반들 커서 졸업해블고 나는 이학년까지 댕기다가 큰애기 공출이 나와갖고 공출갔단게. 누가 뭐 아버지가 없는데 나를 보냈어. 가서 산게로 해방돼갖고 와갖고 시집왔지. 열네 살이 가갖고 열다섯 살에 해방돼서 와갖고 열여섯 살에 여그 왔어. 공장으로, 인제 위안부 그런 거 말고 가서 인자 광목 짚디 그런 거 모집은 갔어도 뭐 난 꾀간한게 못한게 뭐.

나는 공출을 저그 광주로 옛날에 저그 지사공장, 제국시대에 공출갔단게. 열네 살에 갔는데 해방이 되분게 미국사람들이 터쳐서 나온 다그래, 일본놈들은 쫓겨서 기블고, 미국놈들은 막 이만 해갖고 사람 다 죽인다고 들어갖고 오지리 여자가 한나 불쌍한 여자더마. 작은아버지가 텔러와서 내가 따라서 와봤지. 옆에서 돈 준다고, 광목 주래 돈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돈도 받도 안히고 따라서 도망와봤어.

여그 옥과댁 성이 거가 있더만. 남편은 일본으로 모집 기블고 왔는데 고향사람이라고 그렇게 잘해줘는디 죽어브렸는가 몰라. 그 양반덕으로 살다가 왔어. 나는 뭐 저그 언니를 텔러 왔을때 나는 오지리 사람 따라와서 요 집으로 왔단게.

나는 인자 언니 하나 있었어. 엄마 따라오도 안 하고 외갓집서 떨어져갖고 시방도 살기는 살았어. 글구 배다른 동생도 있구. 아 여동생 하나 서울에 있어. 딸만 셋이었어. 세 자매.

글고 학교는 이년 댕기다가 광주로 가브렸단게. 졸업을 못했어. 국

문은 알아 인자. 그때는 국문도 안 배웠는데 맨 일본 히라가나 고런 거여. 나 인자 맨발로 땀진 거, 책보에다 둘러매고 거시기 신발도 짚으로 나라갓고 이케 절어갓고 벗짚으로 엮어갓고 신었다 요 말이여. 글고 그때는 고무신이 귀한게 나막신을 신고 다녀. 근디 그때 시어머니가 당신 어디 다닐 때 신는다고 신발도 못 신게 해. 시어머니가 무섭지. 짚신도 그렇게 귀해 그때. 삼을 섞어갓고 좋게 해서 준게 어디 가본 신을란디 당신은 나막신 신고 땀김서, 근디 니가 쪼그러서 꼬집고 신고 땀기냐고 막 그래.

책은 인자 이학년 올라가본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래. 공부를 할란게 책을 사갓고 공부하고, 큰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 불쌍하다고 나를 데려다 오빠들이 갈렸어. 근디 다 죽어봤어 인공 때. 국문 다른 건 몰라. 일이삼사 그런 건 제국시대 써먹은게. 지금은 한일 두이 하나둘셋 그런갑네. 그때는 일이삼사로 나온게. 하꾸, 쥬, 백, 열 그리고 배웠어. 시방은 그런 거 안써본게 잊어봤지.

그때는 농사도 없은게 고생을 했지 남의 일 지어먹고 개가를 해도 뵈이 없는갑서. 밭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다 쳤어 영감 할멈이. 아이고 시방도 그 생각이 나.

월경 쪽으로 산이 있어 황토밭이. 그놈을 다 쳐갓고 나락을 승귀. 논에서 끼면 피가 있어, 그놈을 찌면 노랗게 나와. 찌서 피를 묵어, 피밥을 해묵어. 모가지가 쭈세 모가지메이로 타가 찌갓고 털어서 찌어

서 밥을 해묵더란게. 그리고 살았어 옛날에는. 어머니 산 것이 짠해. 농사가 없는 집이라 논이 없지. 벼는 좌계밖에 못한게. 아이고. 땅을 이려고 샀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일이나 그래. 땅도 귀한게. 노인들이 벌어갓고 땅을 사논게 좋더라고.

그 친정보다는 시댁이 쪼매 낫았는데, 아들 하나 딸 둘 막 근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누나가. 아이고 말도 못해. 나는 인제 아들 셋에 시집와서 큰며느리여. 막 어머니가 오셔서 인자 어찌서 애기들이 쫓아서 시아재들이 죽어블고, 새 시어머니가 왔는데. 아이고. 배다른 시어머니가 다시 왔어. 새 시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낳는데 그 아들들도 다 죽어봤어. 원래 시어머니는 아들하나 딸 둘인데 딸은 어디로 가 브렸어. 뭐 그때는 아들들 열두 살 먹고 시어매도 죽어봤어. 그래갓고 내가 다 키웠지. 뭐 곡성 돈 번다고 나가브러 자기들이. 그래도 곡성서 살다가 인자 죽어브렸지 일찍히니. 시아재들도, 수를 못히고 죽어브러. 시아버지는 오래 살도 못히고 죽어브러. 우리 시아버지가 그때 나이로는 칠십 잡수고 돌아가셨는가 모르겼어, 환갑은 넘겼는데. 잔치도 못해 그때는. 그도 야들 아버지가 기여이 동네사람들 뵈에다가 줄라고 한당게.

육이오는 뭐 어찌꺼여, 무서서 벌벌 떨었지. 저그 반란군이 쳐들어왔네 산이 가시기한게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애기를 보듬었지. 아가 울지 마라, 막. 괜찮다 울지 마라 그럼서 둘레둘레 방에 찌다가

나뒀더라 그놈을 뺏어갔고 가브리. 나무로 덮어놔는데 찾아갔고 뜰
어 갔당게. 산으로 다시 올라갔지, 늦그릇도 다 둘러갔고 가. 해방된
뒤에 나 시집와서 애기 낳고 산디 그랬당게.

가운뎃방서 우리가 아홉 식구가 살았어. 늙은게 어매하고 자고 우
리 식구들은 가운뎃방에 막 거그서 다 잤어. 또 요짜 방에는 용수막
사람이 살고, 무서워갔고 한테 다 모아갔고 살아. 글고 큰방에는 작은
식구들이 살고, 다 한방서 잤당게. 아 우리 아들 나갔고 그랬는디, 칠
십칠인가여 큰아들이. 글고 저놈을 뜯어다가 배운동 댁에 저그 초가
집을 지어갔고. 그때는 저 말도 못해. 배운동 집을 떼어다가 짓고 또
새로 지었어 인자. 영감이 목수라서 요놈 지어 놓고 죽었어. 돈도 뒀
별도 안 허고 학교 같은 데나 지으러 댁기고, 옛날 학교.

뒀 인자 사람들 다 죽어블고 살았는가 몰라. 말허자든 같이 삼룡이
아부지하고 저그 선생하고 행정덕 이모 딸이여 거그하고 궁계로 같
이 어울렸나, 좋게 살았지.

아이고 여그 와서서 막 반란군이 닭도 훔쳐가블고 저 옷동에까지
썩가터졌어. 옛날에는 아주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았어. 시방 살기
도 좋고 좋은 세상이여. 인자 53년에 전쟁 끝나고는 이려고 살았지
어찌.

일정 때는 저그 석곡 가는 도로 없었어, 해방되고 길이 났지. 그때
는 걸어 다녔다니까. 석곡도 차가 없었는가 모르졌어. 인자 도로가 중

간에 나갔고 좋아라 했지.

전기는 인자 첨에 호롱불에서 공부하고 머리 횡 붙어브리. 그러다
가 남포등 있었어, 어디 가도 안 꺼지고 들고 다니고, 그러다 후라쉬
나오고, 초꽃이가 있으면 지름을 붓어갔고 초꽃이를 만들어서 부으
면 불이 환하게 썩지. 아버지는 인자 저그 싸고 그는디 나쁜 놈들이
중간에 돌라카봤어. 골동품 장수들이 어찌게 돌라카나 몰라, 맘을 묵
었다나 봐. 인자 또 발전이 많이 되어부러.

나는 인자 오남매 났어, 딸하나 아들 넷. 애기들 키울 때 뒀, 아 몰라
잊어붙어.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었는가 몰라. 큰아들 클 때는 배운덕
댁 집에서 저그 가래떡이랑 다 가져가블고 몰라 인제 잊어브러서. 큰
아들도 국민학교 나왔고 서당 한문 거시기, 둘째는 고등학교까지 나
오고, 곡성서 나왔을 거여. 셋째는 말을 못 헛게, 넷째는 광주서 고등
학교 나오고, 의사는 아닌디 병원에 근무해. 각시랑 딸 하나디 신세계
댁긴대. 인자 저그 쉰…… 넷인가 모르것네 양던게.

셋째는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해도 천재여 천재. 어찌 잘한가 몰라.
태어나서부터 말을 못 했어. 어렸을 때부터. 근디 학교를 보낼라고 광
주를 데꼬갔는디 죽어도 안 떨어진다 해. 그래서 디꼬와서 여수로 가
라한게 안 간대. 영빈이가 조께 갈쳐본다고 보내라 그레 보냈더니 뒀
못 갈치겠다고, 현품이 있어야 갈치. 그래서 못 사줘서 못 갈쳤어.
밤에만 인자 이렇게 황토를 맡으믄 뒀 한다 그래서 막 부업으로 어디

로 다 돌아댕겨. 약이 없은게. 태어나서 울도 않고 옹알이도 않고. 귀는 인자 보청기 끼고. 지가 기계를 잘 다룬게 벌어서 살고.

가들은 잘할 거여. 새끼들 있고. 다섯을 나서 인자 손녀들은 야물어. 딸도 잘하고. 큰딸도 유치원 선생하고, 셋째는 간호대 멩기고 광주서. 간호대 사학년. 둘째는 매장에 들어가서 옷 판 데 벌어. 넷째는 학교, 대학교 멩기다 휴학해갔고, 광주 보건댄가 모르졌어. 내년엔 갈라고 휴학했대. 막내딸이 곡성중학교 삼학년이고. 엄마도 딸 못해봐도 미련하들 못해. 그런게 살지. 귀도 안 들려. 아들은 보청기로 잘 알 아들은디 아는 잘 못 알아들어도 영리해. 수화로 해. 다섯이나 된게 인자. 나는 수화 못해.

우리 딸은 인자 서울서 살아. 그냥 벌어먹고 산대. 서울서 만났대. 딸만 둘 낳고 살아. 아들은 안 낳고.

큰아들은 딸만 다섯. 순천 옛날에는 보해에서 멩기다가 뭐 그냥 있고. 며느리도 있고. 여워서 외손주도 보고 그랬어. 둘 낳았어 인자. 여그 인자 저그는 딸 하나만 낳고 살아 아들이. 딸 하나 나눈게 아들이 못 낳게 수술해블고 키워갔고 신세계 댕겨 엄마랑 둘이. 고깃들은 걱정 없지. 잘 안 온디 올 때는 뭐 광주놈도 여그 오면 인사하고 저 외갓집 기블고. 둘째도 남매, 넷째도 딸 하나. 딸도 가이내만 둘 낳고. 딸부자여.

나는 인자 전동차 타고 댕겨. 옛날에 나무 승그러 가는디 인자 나무

를 받아가라고, 그러다가 인자 산에가 불이 나갔고 불이 퍼르르 올라가서 손으로 탁 잡은단 것이 벌벌벌 타고 올라가블잖아. 그러다가 겁쟁이가 놀라갔고 터덕터덕하다 궁그러브러. 그러다가 탁 해갔고 파상풍이 와브러갔고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안 쏘드라져. 아이고. 그르나 손 조까 핀게 심이 하나도 없어, 감각이 없어. 파상풍이 와. 딱 오그라진 놈을 핀게 혈액순환이 안 되어갔고 감각이 없어. 입만 살았어. 나 사십오 세에. 안 죽고 멩이 진게 이려고 살아. 전동차 타고 시방 이려고 댕겨. 어디를 뚫어갔고 쇠를 달아. 그래갔고 누워 있으면 무거운게로 꼬집고 잡아댕기는것이 치료대. 그러니까 감각이 조께 돌아와서 시방 많이 좋아진 셈이여. 한쪽을 못 걸어. 영감이 침에 다쳤을 때 얼마나— 영감이 골병이 다 들었지. 내가 한번 속을 상한게로, 내가 누구 때때 골병들었냐 그럼 영감이 목구멍에 피가 나고 그랬어. 그렇게 골통을 했지.

영감은 칠십여섯에 죽었는갑네. 어머니가 구십네 살 잡셨은게. 불교였지 그때는. 저기서 초상 쳤은게.

나만 교회 댕기지. 교회는 저, 몰라 솔찬히 되었어 지금. 아파갔고 올해는 통 못 나가봤어. 아저씨 살아 있을 땐 못 갔지. 불교 댕겼지. 인자 오래된게 내가 교회로 가브렸어. 하나님한테 믿어본게, 잘되던지 못되던지 믿어본게.

제사는 아들이 지넬게, 큰아들이 모셔가봤어. 막둥이가 간게 순천

에 따라가는데 인자 안 가도 해. 나 늙은게.

김정남(기명 여. 89세) | 삼기면 농소리

일 십 백 천 만이 좌우명

학정리에서 태어나서 4대째 이 집에서 살고 있어. 45년 10월 27일 생이여.

결혼은 스물일곱 살에 했어요. 이 집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나 4대째 1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육 남뎌데요, 네 명이 여자고 남동생 하나고 그래요. 제가 장남이고.

저는 어렸을 때 귀염을 많이 받았어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모님들 사랑 작은아버지 사랑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주 귀엽게 컸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육 년 후에 육이오가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서 여 뒤에 고양문당 산에서 굴을 파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우리 식구들이 살았어요. 굴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저는 태어나가지고 하이튼 역사적인 고비를 굉장히 다 맞은 것 같아요. 왜그냐면, 거 저기 뭐냐면 광주 그것도 겪고, 또 군사혁명도 당

히고 하이튼 거 시련이 굉장히 많이 살아온 것 같거든요. 하이튼 육이 오 사면부터 시련을 굉장히 많이 겪고 태어나서 보통 국민학교를 만 나이로 7세에 가는데, 곡성 중앙국민학교를 댕겼습니다. 점심을 싸 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손갈씩 도시락 뚜껑에다가 나눠주고 살았네요.

거 친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가 옛날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이었던 김완기 친구예요. 구월리 친구. 그래갖고 돈이 없어갖고 중학교는 광주 동중을 나와서 광주고를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대학을 못 가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거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치워서 합격해갖고 광산군 면서기에서부터 시작헌 친구야요. 그래서 각 면에 다니고 도청에서도 움직이다가 결국 내무부로 들어갔지요.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같은면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는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는 공부는 잘한 편에 들어갔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들은 거의 직업이 거의 다 농사라서 지금은 아이들이 없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동네에 아이들이 제일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삼학년짜리 한 명이 딱내래요. 저는 곡성중학교를 나왔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광주로 나갈라고 그랬어요. 근디 큰아버지가, 최영석 큰아버지가 국회의원 세 번을 낙선을

해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군청에 다니시다가 선거를 도울라고 매진을 해서 떨어져본게 나도 학교를 못 가블고 곡성농고를 갔지요. 그래갖고 곡성농고를 나와가지고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에 합격을 했지만은 등록금을 못 챙겼어요, 선거 때문에. 그래갖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네요, 제가요. 등록을 못히고,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죠, 조계.

철원 1사단에서 그때는 군대 생활 마치고 와가지고 곡성우체국에 임시직원으로 들어갔네요. 우체국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교사들이 부족하니까 교사를 모집한다고 그러요. 양성소죠. 그래갖고 선생으로 돌아서서 곡성군 겸면 홍산초로 발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있다가 인자 곡성 동교로 오고, 거기서 서교로 오고, 서교에 있다가 중앙초로 오고, 그렇게 생활을 했네요.

고향 후배들을 지도를 하고 있다가 광주 가까이 군에서 15년 이상 있으면 다른 군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고흥군 호두면 오치초등학교로 갔네요. 승진하기 위해서는 벽지점수를 받아야 허거든요.

가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할 당시에는 동국민학교에 있었죠. 부인은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선을 봐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오빠들이 한 명은 의사고 오빠 둘이 중학교 교사고, 그래서 이 정도 같은면 내 아내를 가져도 되겠다 싶어서 점을 찍고 바로 인자 좀 만나고 만나

고 하다가 결혼을 했네요. 구식결혼했죠. 구례 가서 갓 쓰고 사모관대 쓰고 절하고. 그러니까 신혼여행이란 것도 못 가고 그대로 지냈네요.

지금 거, 제가 다른 학년들을 다 만나면 마치 일학년 새로 들어온 애기들 지도하듯이 책 놓을 때, 신발 놓을 때 다 지도를 했거든요. 내가 담임이 됐다고 하면 아이쿠, 잘못 만났다 했죠. 그래갖고 한 이개월은 다른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것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인자 글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정신을 집중해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전부가 공부를 해요. 아이들은 싫어했지만 저는 보람을 느꼈네요. 우리 제자들 중에 잘된 제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선생님이 저희들을 사랑했네요, 하고 그래요. 지금도 많이 찾아오죠. 저기 저를 참 좋아하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고흥에서 아파가지고 검사를 싹 해본게 그때는 엠알 아이가 없었고 씨티를 찍어보니까 뇌종양이라고 해요. 그게 뭐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낮아서도 반신불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영영 울었네요,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와서 말하니까 세상에 그러냐고 계속 물대요. 그때 큰아들이 중2 둘째가 초5 막내가 초3이었죠. 저는 가들 대학도 못 보내고 죽을 줄 알았어요. 큰아들은 지금 옐지 이노텍 탐장이고, 나름대로 가도 열심히 살았죠. 그때 쯤 복잡한 것이 뭐냐 그냐면 제가 경제적

으로 가장 시달릴 때예요. 병가를 내놓고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 사직을 해버렸죠.

작은놈은 서울에서 병원 하는 의사예요. 저는 애한테 제일 첫째가 친절, 병원에 가본게, 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가 환자에게 친절하게 해줘라, 둘째로는 초심을 잃지 마라, 곤란했을 때는 항상 생각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활동해버리면 안 된다 글고, 세 번째는 가정이 잘 돼야 된다. 아내하고 사이가 나쁘면, 원장은 아이들 아내한테 나쁘게 한다 소문이 나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래서 세가지 것을 잘 지키고 있어요. 친절, 초심 그리고 화목.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딸 하나는 인자 벤쿠버에 살고 있네요. 사위가 은행에 다니는 캐나다 놈이어요. 딸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전남대 컴퓨터 공학과 나왔는데 아무 필요가 없고 다시 거기서 대학을 나와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애기들 세 명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시고, 내 간호하고 가정 살림은 집사람보고 하라고 했죠. 그것도 보통 다른 것은 전덜 수가 있는데 경제적 부담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유언까지 했네요. 나 죽더라도 애기들 공부를 꼭 시켜라, 두 번째는 아버지 돌아가신 밑에다가 묘를 써 주라, 두 가지 유언을 했네요. 다른 친구들도 와보고는 나한테는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위안을 해주지만 밖에서는 아내보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

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네요.

제가 악착같이 산책을 했네요. 다섯 시 십 분에 뉴스 딱 듣고 약 먹 으면서 집에 오면은 악착스럽게 했네요. 그래가지고 중앙교 백주년 기념식에, 2011년 10월 1일날 있었거든요? 나를 착한 사람으로 다 인정해줘가지고 우리 고향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글고 저는 공로상을 줬네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 박노수 친구가 나를 추천했대요. 학림동 마을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 산책하면서 항상 청소를 한다, 중앙교 45회 우리 졸업생들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수 터를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래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깨끗한 물을 먹고 살자 했죠.

바로 제가 지금 웃지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은 머리가 허안테 나는 머리가 까매요. 우리 마누라가 진짜 나한테 성질 한번 안 내고 지금까지 32년 6개월 살고 있는데요, 막 아파서부터 지금까지 검은깨하고 검은콩하고 미숫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두 손갈, 열한 시에 두 손갈, 다섯 시에 두 손갈 미숫가루를 돼지감자가 있어서 끓여서 그 물에다가 끓여서 마셔요. 그랬더니 머리가 이렇게 안 새요. 웃지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환잔지 모르거든요. 나 간호할 때 그때 침대도 없는데 거기서 자고 나 화장실도 못 가는데 잡고 가고 그 일이 보통이 아닌디 그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

아 있는 것이 나는 장가를 참 잘 갔다, 점을 참 제대로 잘 찍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 이장을 오래 가지고 내가 가정도 깨끗이 해야지 하듯이 우리 마을도 깨끗한 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후손들에게 깨끗한 마을을 넘겨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인자 전국에서도 깨끗한 마을이 드물 거예요.

거의 애기들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해블고 내 속을 썩히면 내가 못 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어머니께 가르쳐주십쇼 해서 다행스럽게 할머니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줘서 세 명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살았대요. 애기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고 지그들이 다 알아서 해줬네요.

지금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손주를 여섯 명이나 봤네요. 큰아들 둘, 둘째 둘, 막내딸 둘. 제가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곡성신문 18주년 기념에 가장 글을 많이 썼다고 해서 제가 또 감사패를 받았네요.

저는 요즘 뭐 전부 다 부모 탓하고 하는데 저는 제일 큰 탓이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또 교장선생 교감선생님께서 애기들 잘한 거 잘못된 거만 이야기하지 어떨 때는

자기들 이득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화를 내고 썩을 내버리면 서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저를 싫어했어요. 바른말을 해버리니까.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했거든요. 근께 교장 교감선생님은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자면, 유신헌법 할 때 교사들 가정방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방문한 것이 진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다는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개헌한 걸 찬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사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저는 교장 교감한테 말하고 안 가브렸어요. 만약 그것을 상부로 보고했으면 전 좌전을 가브렸을 거예요. 하지만 고향에 있고 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교육적으로 가정방문하는 것은 좋아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가족관계를 앞으로써 하는 것은 좋지만은, 또 가정방문을 가져보면은 내가 애기들한테 일기를 쓰도록 지도하는데 내 책상 위에 일기를 두라고 해요. 그럼 일기를 읽어보고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한번은 한 아이가 일기를 안 내블더라고. 근디 고모집에서 고모가 찢어버렸대요. 왜 그랬냐고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찢었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할라본 스스로 느끼고 깨우치게 해야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일기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요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는 전부 소풍을 걸어서 남원 가는 다리 있는데 금곡교로 가고, 동산리 백사장, 그리고 명산저수지, 도림사요 거 네 군데가 딱 정해졌거든요. 그때 보면 우리 소풍날이니까 간다 하는디 교사가 돼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봄소풍은 저 금곡교 또는 동산리 백사장, 가을소풍은 도림사하고 명산저수지하고 정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금곡교는 풀이 돌아나는 모습, 강물에서 고기를 노는 모습 살펴보게 하고, 기러기가 돌아다니는 모습 보고 배우기 위해 거기를 소풍장소로 정했지. 그때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래요. 글고 거의 대부분 소풍에 도착하면 — 그러니까 그때는 막 못 살고 못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소풍도 못 와블고 도시락 싸기가 힘든 사람은. 글고 도시락도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십명 이상 육십명 그렇게 한 반에 보통 인자 동교 같은 덴 두 반씩 있었고 서교는 세 반씩, 중앙교는 5개 반 혹은 6개 반씩 있었거든요. 교실이 없어가지고.

소풍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술래잡기, 수건돌리기. 그것이 인자 끝나고 나서 12시 되면은 점심시간이 되니까 통 먹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랬죠. 점심시간이 다 끝나면 1시 반에 나 보물찾기를 하지요, 그러면 또 보물을 숨겨놓고 찾은 사람한테 공

책, 지우개, 연필, 스케치북이나 크레용 그렇게 받고 살아왔거든요. 소풍을.

그때는 난방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난로에다가 나무로 해서 불을 땀거든요. 저 저기 나무 가져갈 날이 되면 분단별로 나무를 가져오게만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난로에다 나무를 넣고 불을 때요. 옛날에 벤토를 난로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젤 밑에 있는 도시락은 타버리죠. 서로 가운데 놀라고 하고, 위에는 잘 덥혀지지 않고.

방학 때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애기들한테 신경을 안 썼잖아요, 먹고 살기 괴로워서. 지금과 같이 난방시설이 잘된 게 아니라 불 때서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 학교 다닐 때는 오전만 오후만 있었죠. 글고 떡 한 조각 얻어먹을라고 시제 가가지고, 가을철에는 지게 그걸 들고 저그 토끼를 잡아가지고 우리들이 먹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 드릴라고 야산을 호위를 해갖고 토끼몰이도 하고 그랬네요.

글고 인자 저 지금은 스케이트가 있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손으로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구렁논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썰매를 타고 그랬네요. 놀이는 주로 땅따먹기, 남자들은 주로 말타기를 하고, 모또랑 고무줄놀이 하고 그랬죠.

어려운 학생들이 밥도 못 먹고 공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집에서 무우 같은 거 썰어서 섞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걸 먹

고 점심을 안 싸 와서 밖에서 물만 먹고. 나 때는 우유가루 옥수수가루는 없었고 나중에, 인자 아주 나중에 저 정부에서 빵 같은 거 나와가지고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런 생활 했네요. 소풍날은 도시락 가져올 수가 없어서 두세 명은 학교를 안 나오고 그랬네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런 생활을 했네요.

제가 자서전에다가 거의 재작년에 제가 써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나의 삶이라는 자서전을 써가지고 녹음을 해놨어요.

저는 이걸 지켜요. 일 십 백 천 만을 지켜요.

일일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하기.

십은 하루에 열 번 이상 웃기. 거울을 딱 보고 야이 최종철아! 하고 열 번 웃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놈으로 보죠.

백은 백 자 이상 쓰기. 글씨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일기를 쓰게 했네요. 대학교 가서는 강요는 하지 않겠다 해서 학교 다닐 때 일기장만은 항상 검사를 했네요.

천자 읽기. 아무 글이라도 읽어요. 인자 뭐 잡지도 좋고 신문도 좋고.

가장 어려운 것이 만이어요. 만보 걷기어요. 한 두 시간 반 이상 걸어야 그렇게 걷는디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삼인동 두 번 갔다 와도

6천 보까지밖에 안 돼요. 그걸 계속 하고 있죠. 재작년부터 자꾸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체육공원까지만 지팡이를 짚고 갔다 오네요. 일 십 백 천 만을 지켜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사람들 물론 고장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해결하도록 만들어주고 마을사람들이 비석을 마을 입구에 만들어줬어요. 아버지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살면서 꾸중 한 번도 안 듣고 자랐네요. 그래갖고 그게 인자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비석에 그게 써져 있어요. 산림조합장 하시고, 농조조합장 하시고, 저기 농협장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해직이 돼서 전두환 씨가 집권하자마자 고장에서 3년 이상 뒤 한 사람은 해직이 돼버리니까 너무나 충격받으시고 홧병에 걸려버려서 폐암이 걸리셔갖고 1년 7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거 삼십칠이어요. 4년 후에 인자 내가 뇌종양에 걸려버렸죠.

저는 누에는 안 키워봤고, 최한석 씨가 누에를 한참 많이 키워어요. 학림원 거기가 조합이 있었어요. 학정리 누에를 많이 키워서 거기 조합을 만들고 우에다가 잠실을 지어가지고 여자들이 거의 많이 와서 누에를 길렀네요. 그래서 비단을 만들어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랬네요.

저는 어머니 덕택에 머슴도 두고 남부럽게 지냈죠. 머슴은 나무허고 농사일하고 소 깔 비고. 저는 그런 일 거의 안 했죠.

여그는 읍내라 아픈 뒤부터 술 담배 커피는 딱 끊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독한 약을 먹어썩게 고기를 간혹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꼭 사다가, 약을 먹어썩니까 자주 줘요. 그런 생활을 하고,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인데 어제 우리 집이 김장을 했네요. 혼자 산 분들께 다 김장 담아주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갖다주고, 아들 주고 여동생까지 딱 두 명을 챙겨서 주고. 내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는게 주는 것 같아요. 내 바로 밑에 동생이 6년 전에 갔네요.

나는 내가 쉰 살도 못 먹고 갈 줄 알았는데. 왜 그냐면 병원에 있을 때 내 휠체어 밀어주던 친구들이 죽은 애들이 많아요. 모임이 세 개 있는데 그중에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저는 지금도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 잘 시간에 잠자고, 음식은 새참 하나라도 꼭 그 시간에 먹고, 8시 반에 자서 2시 반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으면서 글을 쓰죠. 그리고 여성시대에 글 많이 쓰고, 또 전주방송이 잘 들려요, 거기서 글을 많이 써서 그걸 녹음을 해놔서 테이프가 굉장히 많아요. 곡성신문 글은 다 떠가지고 여기 쫓어요.

최중출(남, 74세) |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큰딸네가 오면 기분 좋아

장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 열여덟이나 열아홉에 시집갔어. 너무 오래되어 다 잊어버렸어. 고향은 남원, 제천마을에서 태어났어.

남원서도 한참 가야 돼, 촌에 살았지. 결혼해서는 남원 주생면에서 살았지.

어렸을 때, 친정에 살 때 언니가 있었고, 나, 오빠 둘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지. 부모님은 농사짓고 살았다.

큰딸은 서울에 사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고 있지. 둘째딸은 여수에 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굴 보내줘서 잘 먹었지. 셋째딸은 딸 하나 있고, 막내딸(뉘)은 서울에 살아.

나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도 안 다녔지. 하지만 자식들은 다 딸 넷, 아들 셋은 다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냈지.

남원에 있는 큰 절에 다녔지. 절에 가면 경치가 좋아. 큰물 있고, 작은물 있고, 소가 있어.

집성촌에서 집을 좋게 지어서 살고, 아무나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살아라고 했지. 열두 성반이가 한동네에서 살았지. 동네가 커졌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사는 사람도 있었지. 우리는 곡성으로 이사 왔지.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배우라고 했지. 조선글 아는 사람도 일본말 배우라고 해서 그때는 모다 배웠지. 아버지가 장씨 양반 동네로 나를 시집보냈어. 친정 언니하고 나하고, 오빠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죽고, 큰집은 여기 살고, 작은 집은 여기 살고 했지.

우리 집 딸들도 고왔어. 시집가면서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갔어. 부잣집은 큰 가마 너이 메는 걸로 가고, 작은 집은 둘이 메는 가마 타고 시집갔지. 시집가서 보니까 책도 많이 있었어. 큰머느리가 되었지. 시아버지는 양반이여, 갓 쓰고 잘생긴 어른이었지.

시집와서 아무 고생 안 했어. 외할아버지는 술도 못 잡수시고, 시아버지는 아무개는 잘 해라, 양반이라. 아무개 여감은 집안에서 잘해라 하면 총무들이 찢찢맷지.

시어머니한테는 뭘 소리를 못했지. 나무 막대기 가져와라, 콧때기를 여래 와라, 동네가 떠들썩하게 고함을 질렀지. 시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섭하고 잔소리가 많았어. 어디 갔는지 찾으러 다녔지.

큰딸네가 오면 제일 기분은 좋아.

큰아들은 죽어버렸지. 농사짓고 살면서 외출을 안 했지. 딸 둘 아들 둘 낳고 했지. 둘째아들하고 셋째아들이 농기계 수리점 하지.

둘째아들네는 지리산 밑으로 이사 갔다고 와보라고 해서 갔다 왔지. 집 좋은 놈 해놓고 살고 있지. 지리산 꼭대기에 집 지어 놓았어. 하룻밤 자고 왔지. 며느리는 학교 선생이야. 지리산 꼭대기에 집이 한 채뿐이야. 전원주택이지. 군대 간 아들 하나 있고, 작은아들하고 셋이 살아. 하나는 학교 가고, 아들은 가끔 오고, 며느리는 한 번씩 오지. 사과나무를 따서 씻어서 말려서 가마니에 담아갔고 갖다 주지. 다리에 담아 뉘다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지. 앵두도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냉장고에 넣고 가져가지.

셋째아들네는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내년엔 군대 간대. 작은놈은 대학 가고.

목욕차가 오면 깨알 벗고 목욕하지. 싹 씻겨서 새 옷 입히고. 열흘 만에 한 번씩 오면 좋은데 이번이 세 번째야. 요양보호사가 와서 나 껌데기 벗겨지게 문지르지. 머리도 싹 깎아주지. 미장원에서 쓰는 머리 깎는 기계로 깎았어.

우리 큰딸은 손녀들을 많이 낳아서 살고, 둘째딸은 여수서 사는데 섬것들을 보내줘서 잘 먹었지. 막내딸은 중학교를 나왔지. 큰아들은 못나왔을 거야. 나도 학교는 안 나왔지만 자꾸 밑에서 도와줘서 배웠

지. 영감은 중학교 나와서 동네서 이름날 정도로 지냈지. 79세에 아파서 돌아가셨지. 영감이랑 아들들이 다 괜찮게 생겼지. 딸들도 나쁘게 생긴 사람 없어.

김옥순(가명, 여, 94세)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이제는 김장을 못 담가

나 이름 양지호. 인자 본 나이로 구십하나. 열여덟에 증매해갖고 열 아홉에 시집왔어. 옛날에 부자들은 결혼하고 바로 안 보내고 일 년씩 친정에 뵈다 갔어. 저그 양반은 열아홉 때 결혼했어, 한 살 차이.

나는 석곡면 연반에서 태어났어. 형제간들은 친형제가 동생 하나, 여동생. 전에 아버지가 옛날에 첫날 저녁부터 골병 들어가서 돌아가 싹때까지 어찌기 애를 냈나 몰라. 나 시집을 때까정 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아버지가 골병이 들어갔고 한게 잠을 많이 자잖아. 엄마하고 둘이 고로고 시집에서 살아. 돌아가실 때까정도 모르고 엄마가 아버지보다 앞에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새로 장가를 보내갖고 큰며느리하고 한 방에서 자게 해도 애가 안 서고 소용없은게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랑 나가서 살아. 애기는 나면 죽고 꼭 나면 죽고, 엄마가 전에 그랬대. 너그가 아를 낳아서 키우나 봐라.

우리 아버지가 셋째아들인데 질로 인물이 좋았대. 금계로 고로고 삼서 아이고 딸도 딸자. 친정아버지는 양반 행시고 맨날 놀고 강부장 집이라 묵고살아. 할아버지가 맨 말 타고 댕기고 종을 두고, 한량같이 하도, 양반집이만 양반 며느리만 얻었어. 옛날이라 그리 양반을 개렸어. 새엄마랑은 아들 둘이랑 나서도 푸득푸득 크다가 죽더만. 옛날이라 병원이 없은게, 딸 하나 살아서 거그시 조께 다리가 파딱파딱 아파가꼬 그랬는갑서.

아버지 소리를 그래서 생전 못 불러봤단게. 우리 형제는 아버지 소리를 못하고 어무니랑 셋이 살았지 따로 나와서, 요기 울도 담도 없이 작은집에서 한 집하고 똑같이 해갖고 막들 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짠한게 거기 지어 줘서 살아. 옛날에는 안 가고 꼭 시집에서 산 것땡키로 살았어. 할아버지도 돌아가셔브렀고 이제. 어무이는 그냥 혼자 농사짓고 살았지. 아버지는 농사도 짓도 안 하고 한량땡키로, 엄마는 서마지기 줘서 서방하고 딸 둘 디꼬 살았잖아.

나는 옛날 제국시대에 십리를 걸어서 아스팔트길도 없고 자갈을 깔아 놓은게 그자갈을 고무신도 못 신고 짚시기 그런 거 신고 자갈밭에 댕기면 신발을 나무로 생긴 거 고거 신고 댕겼어 학교를. 6학년짜정 다녔어. 일제시대에. 십리가 멀어. 큰아버지 딸하고 둘이, 나보다 한 살 덜 묵었어.

내가 질로 큰 손년계로 골방 사는 며느리가 딸을 나니까 하도 이빠

서 일곱 살 먹도록 할무니가 찻간, 그러니까 변소에도 직접 데려가서 대변하고 땀했다고 해싸시더라고. 그때는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남동생들도 땀기고 큰아버지 딸— 그 동생은 팔십일곱에 죽었어.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 졸업을 했지.

학교생활 허먼은 학교가 교실이 작았는가 여자들만 따로 인자 저그저, 저그 서울서 왔다고 조선 사람인디 나이가 조께 먹은 사람. 머리 길어갓고 뒤로 넘겨서 땡당 꽃고, 일본 사람 선생들은 다 얼굴에도 나타내고 글지만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땡키로 막 갈치지 못했는가, 그 선생들은 기억이 안 난디, 일본 사람들은 기억이 나. 교장선생이 어찌 좋던지 내가 학교 가기 전에 한문 공부를 잘헌 일간디 그 할아버지가 담양 그 동생하고 나하고 거그서 공부를 하눌 천부터서 한 권 떼고 떼고 해서 배우고, 배우니까 큰아버지가 학교를 보내더라고.

우리 큰아버지가 장성서 한약방을 했ندی, 우리 큰아버지가 보냈어. 시방 생각허면은 아홉 살이나 묵어서 학교를 갔는가 몰라. 공계로 공부를 잘했어. 그런디 잘허다가 한 권 떼면 떡 한시리 보시낭크리 해다 주고 이제 학교에서 배웠지. 일본 사람들도 붓글씨도 잘하고 하니 까 잘 해주더라고. 여그 시방 일본어 히라카나 가타가나 배우고, 그래서 나 아들들한테 나 치매 안 걸리게 일본어 책 좀 사다 주라 해서 심심하면 고 이야기 책 읽고 그러.

또 거시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본 사람들 사당땡키로 만들어서

거기 가서 통 그러잖아. 학교 들어감서 절하고 집에 오서도 절하고 나오고, 거기가 석곡학교 지금도 있어. 개다 신발 신고 걸어 다니고, 일본 사람들은 저그 꺼먼 옷만 입지 다른 옷들 못 입게 하잖아. 그래서 명주에 솜을 넣어서 입히고 치매는 또 속에다가 바지 같은 거 해서 입히고 털 조께 달린 전을 둘러쓰고 가자가 그 집에 땡겨노면 주워놔다가 거기서 찾아서 둘러쓰고 나고. 그 여선생이 그 집 작은방에서 살아서 우리 이빠라 했어. 여그 이름을 일본어로 불러, 양숙이 일본어로 료수코.

내가 그 칠십여덟엔가 제주도를 보내주더마. 서울 둘째동서하고 나하고, 제주도 감서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쓸지 이는 사람은 쓰더라고. 그니까 오매 할무니가 시방까정 한문도 안 잊어부렀어 하지. 우리 그 일본 사람들 칼땡키로 거시기 해서 체조를 고렇게 갈쳐. 그걸 복겐다이셔라고 그래. 남자들하고 똑같이 여자들도 하고. 한 9시에 나 학교로 가서 한문은 다 일본 사람들이랑 통용을 해서 한문 글씨 써노면 또 부끄러. 써서 내노면 우리 둘이 아마 조께 쓰는가 딱 거다가 불혀놓고.

학교 땡길때 하모~ 운동회도 부모들 다 와서 구경한다고 하고, 6년을 그러고 다녔어. 옛날은 중학교도 안 가고, 또 걸어서 우리 집이 오다가 술장사가 있더마. 그 할매가 우리들을 똑 여놔다가 불 쪼고 가거라, 그럼 서로 공부하러 땡기느라 애쓴다 해서 딱 싸서 줘. 그럼 뜨끈

뜨끈하다고.

또 시방은 일년에 몇 번씩 청소를 잘 안 하고 산다고 몇 번씩 챙길 나온다고 그래. 집안에 전부 청소를 해. 천장도 막 대빛자루로 막 하고 살강을 딱 시치고 하고, 잘못 해노면 그 사람들이 잡아가고 막 난리를 쳐. 농사지면 일본사람들이 공출해서 다 가져가블고, 갖다가 시방 매상하듯이 다 일본 사람들 어따 모르게 땅을 파고 묻어놓고 했잖아. 고로고 살았어.

학교 졸업하고는 뵈을 해 집에서 인자 그냥 도로 시집을 와브렸지. 여자들을 전부 잡아간 통에. 그냥 다 잡아가서 시집을 일찍 무서워서 와버렸어 시집을. 우리 동네에서 그 중신, 그니까 중매하는 양반이 있어.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와갖고 중신을 또 따로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와서 우리 큰아버지가— 아버지 소리를 생전 내가 못 불러봐서 큰아버지가 아버지인것처럼 살았어. 사형젠디 고모 하나고. 근디 큰아버지가 친딸처럼 해주시고 결혼식도 따라오시고.

옛날에는 인자 뭐이나 결혼을 할라든 사성이라고 생년생시 써서 조계 반듯 끈을 달아갖고 봉투 여그다 여서 인자 중신한 사람한테 보내면 갖다주더마. 고놈을 받으면 해야지. 구식결혼하고, 신랑집으로 시집을 오지. 결혼식은 내 집에서 하고.

그때 시집은 할아버지 할무니 시아버지 어무니, 영감, 그리고 형제간이 여섯. 딸은 없어. 큰아들이여. 나 시집오던 때도 옛날에는 애기

가 흥역으로 많이 죽어. 또 그래도 우리 애기가 마니 죽진 않고 살았어. 아들 여섯에다가 시어마이 내외 할아버지 내외, 나 시집온게 열하 나야 식구가.

가마 타고 오지리 덕산으로, 하도 한이 되어서 저그 저 삼기 피티재 거기 가마 우로 탐서, 우리 아버지는 내다보도 못한게, 큰아버지가 잘 해서 어무니가 다른 것은 하지만은 다 해서 여그 와서 주무시고 감서 눈물바람으로 못 잊고 가시더라고. 하도 여유 없고 집에서 밥 한 끼 안 해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나 내다보고 싶었더래. 또 근행이라고 일 년 후에 친정으로 보내 옛날에는. 근행 보냄서 글더라고. 눈 열 마지기 밭 열 마지기다, 이것만 갈쳐주시더마.

영감은 나 시집온게로 면에 다녔어. 그러다가 산림조합에 댕겼잖아. 또 일 년 있다가 또 와, 그러고 쪽 살아. 시집살이는 또 가시내들은 친정에서 시집가면 암것도 할지를 모르면 물동이나 이고 물 길러 다니고 콩나물 씻고 불이나 댕다고 오만 거 다 갈쳐. 바느질이란 음식 만든 거랑 다. 그래서 여가 오니까 여기 할무니도 친정할무니랑 똑같이 암전해. 그래서 여그서 사흘 만에 장으로 데꼬가셔서 당신 농에서 꺼내서 치마에 달 짓을 내더라고.

전에는 비누도 없어 빨래를 하려면 재를 실에다 담아갖고 물을 따 뜻하게 찬나락지라고 하면 물이 매끄러. 침에 삶을라고 가꼬가서 젓물도 안 쓰고 쇠똥 같은 비누조각 사다 주면 고놈 갖고 시켜머니 빨래

를 몇 번을 한 줄 알아?

우리 할머니는 치매말을 뜬어서 내놔. 치매말 달 것을 딱 내놓더라고. 고놈 시쳐서 주름 잡아서 말을 달아야 새 치마뻥키로 하지. 오후에는 보신 꼬맬 걸 내놓길래, 보신에 솜을 주세요 했는디, 코에서 요만치 딱 따부러. 거를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서 솜을 너서 올허고 똑같이 해서 감춰서 여그다 인자 요만치 앞에 밟아서 보신을 신었어. 고놈을 내놓길래, 솜을 너서 뒤집어갖고 꼬매서 잠보를 대서 해서 배꼈에 딱 보를 받아 요만큼. 그러니까 바닥이 안 떨어지잖아. 대번에 할머니가 한 소리가, 바느질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시더라니까. 념의 손안 빌려도 하겠다. 우리 시어매가 얘기만 다산해서 시집살이 겁나게 하고 일도 할 줄 몰라서 그랬더마. 나무래싸면 얼마나 배렸겠대, 그러다가 우리 시어매는 나 시집온게 시아버이는 서른아홉 살, 시어매는 서른아홉에 나 시집온게 마흔 살. 우리 할무니는 손여덟에 손부 얻어 갖고 손아홉. 나 시집온 뒤에 환갑을 안 셀라고 했는디 할무니 딸 하나 있는디 거로 부잣집으로 가서 시집살이만 했는디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 사우가 와서 환갑을 쇠어주더라고. 사월 열여스레 유가 뭐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세었어.

그러다 인자 옛날에 싹 다 베를 나라갖고 베로 짜고 그랬잖아. 나는 첫애를 스물한 살에 낳았는디 살았으면 일흔하나지. 오빠는 인자 스물시 살에 낳지. 경사도 경사지만 큰딸 낳을 때 식구들이 아주 환장을

해 아들 낳다가 나오니까. 근디 크다가 다섯 살 먹은게로 아프더니 전풍이 나갔고 못 살고 죽어붓어. 오만 전풍약을 해도. 나도 얘기를 낳기를 서이나 죽었어. 지금은 아홉 명 중에 여섯 명 살았지, 딸 둘에 아들 너인게. 근께로 해주 오씨인디, 할무니가 글 때부터 허리가 농사짓느라 빠졌는갑서. 나 시집온 뒤로 방허고 화장실만 땡겼지 들에를 안 나갔은게. 얘기 젓 쥐라 하든 젓 뵈여주고 나는 디꼬 잘 때만 보지 가서 젓만 주고 일하지.

나는 얘기를 혼자 낳아. 누가 있으면 못 나. 나는 애를 못 견디게 못 낳고 그러들 안 했어. 두어 시간 돌면 얘기가 나오더라고. 고리고 살았지.

명절 돌아오면 인자 말도 못해. 영감님이 인자 어찌다가 조계 잘못 해갖고 논이랑 뭐다 다 팔고 목을 놈만 남겨놓고, 거시기 시아버지 인자 없애본게로 고생하고 살았지. 또 산림조합에서 사무했지. 생전 념한테 나쁘단 소리 안 듣고 살았지 식구들만 쪼께 그랬지. 여즈긔 셋째 양반이 글더라고. 형님이 워낙 마음이 대천한 바다로 근께 아주 큰아들이 아버지 죽고 손님을 받을란디 절을 한께 사람이 많이 와갖고 절을 못한다고 했대.

할아버지가 육십네 살인가 잡순 양반이 담뱃대 물고 갓 쓰고 꺼먼 거 씨고 다니시고 궁께로, 바느질을 다 솜 너서 했지. 얘기 배갖고 열달 돼도 베를 짜. 보대기를 하니께 얘기가 툭 하면 배가 한쪽이 툭 튀

나와. 할무니 할아버지는 바깥제사 두 번, 영호도 안 히고 삼년상을 하고 사랑방에다가 하더마. 영호 하면 옛날에 무쇠. 근디 방에다가 해 놓고 아침저녁에 삼 년을 밥 잡순 거맹기로 해. 또 이 년간을 또 해.

그리고 시어매가 팔십둘에 돌아가심서도 시어매가 먼저 돌아가신 게 어떻게 상식을 하나 그래서 한 달에 초하루랑 보름날만 상식을 하 라고 하더마. 그래도 갖고 맹긴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머라 한게, 그 뒤로 이 년간을 갖고 맹김서 한 달에 두 번 했어. 그런데 매일 하는 것보다 신경이 쓰이더라고. 또 이듬해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똑같이 했지.

큰아들이 고등학교 맹겨가 집에가 있었잖아. 대학교를 안 가고 선생 시험을 본다고 가. 그니까 할아버지가 합격을 합성 싶으나? 그래서 합격통보가 온게 좋아 죽겠는갑서 할아버지가.

할무니는 구십에 돌아가셨은께, 그 후로 십 년 만에 시어매 돌아가 시고. 나는 시집와서 열아홉에 할무니 봐서 사십 년을 거쳐냈지. 함께 다 살았지. 밥만 삶아주래도 말도 못해. 시방은 시아버지하고 겸상하고 안 한가. 근디 옛날에는 상도 다 따로따로 했잖아. 할아버지는 손자들하고, 시아버지는 어무니하고, 또 시아재들 상, 이렇게 네 상을 차려. 또 머슴은 하나씩밖에 안 뒀어. 새경 주고, 철에 옷 해주고. 큰아 들은 학교 선생하다가 야간대학 졸업하고.

내가 해방될 때는, 그때 제국시대 해방됐을 때가 나 시집오기 전인

가? 시집오기 전에 해방이 되었은께 시아재가 시방 부산에 있는데, 그 시아재가 다섯째나 나 시집온게로 애기로 덮고 누웠더마. 또 내가 첫애기 낳고 그 이듬해 시어매가 막둥이 시아재를 낳어. 옛날에는 시어매랑 애기를 같이 낳어. 그리 삼 년간을 애기를 셋을 나서 키워. 그럼서 밥해묵고, 그라꼬 시아재들 다 여우살이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면사무소를 영감이 맹긴게, 그런 사람들 집을 뒤지지. 반란군이 들어온게 유득수 면장 영감하고 우리 집 양반하고는 저기 오지리 덕산으로 해서 동네로 들어가든 인자 요리 들어간 데 거가 있잖아. 고리 다님서 유득수 그 양반하고 일찍히니 밥을 먹고 그 집으로 가. 싹 그 집에 갖다 놔두고 거기서 자고 맹졌잖아.

그러다가 저녁에, 반란군이 들어온 날 저녁에 시방 데 총을 쏘고 막 집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못 자고, 시어머니가 가보고 온다고 나가다가 여가 송장, 저가 송장 다 총 맞아 죽은 사람들 있어갖고 집집마다 다 잡아들였어. 그래서 그 집에서 돌이를 단지 속에 옷을 둘러 싹어갖고 물어주더래. 와서 그놈들이 방에 놔둔 옷을 가져가블고 사람들은 다 살았어. 여그서 면에 총소리가 나니까 고놈들은 방에 달아나고, 우리 집은 소 날아가봤지. 그때가 유월인게 오월인가 모 송글 때인디. 또 저기 독에 쌀 한 독아지 다 퍼갔지, 시아재들 양복들 가져가브렸지, 귀신들맹기로 다 찾아가 집집마다 맹기면서. 겁나게 와서 동네가 다 퍼줘봤지. 나무동을 또 베개맹기로 세워 났는디 나무동에

가서 숨어 있어서 시아재가 살았어 그래도. 고추장 담으려고 고춧가루 든 것도 다 가져가봤지.

근디 또 육이오 때 누가 제일 손해봤냐고 누가 물어보고 다녔당개. 우리 집인디 누가 아무도 말을 안 했대. 보상이라도 받았을 건디. 나가니께 송장들이 막 누워 있는디, 양반은 고놈들 올라가본게 나왔지. 또 그래서 낮에 그랬는가, 둘째 시아재는 나락밭에 숨었던가 해갖고 휴지힐려고 종이떼기 너갓고 다니다가 잡혀서 공무원 집인 거 알아갓고 반이나 죽이다시피 해서 아이고~.

회쟁이 뭐이고 여행이 뭐야, 양반은 일만 히고 살았지. 시방을 내가 생각해 보든 우리 할아버지는 왜 양반만 보고 손녀를 요리 주고, 편하게 있게 하지. 내 새끼들 새끼 빠지게 고생한 디다가 딸려온 양반이 뭐냐고.

우리 영감은 일흔둘이고 나는 일흔 하나일 때 죽었지. 생전 아픈게 병원을 십 년도 더 디꼬 땀졌어. 눈이 거시기한게 광주 안과로 가서 큰 병원 가고, 당뇨가 있는게 그대로 거시기한게로 잔글씨가 안 보인게 싸인펜을 사다 쓰더만. 종땀키로 나를 다 부러먹었지. 그러다가 또 인자 당뇨가 있어서 아픈게 통 투석을 4년을 하고 땀겨도 큰아들이 다 지가 벌어먹고 직장 땀긴디 못 디꼬 땀기니까 내가 일흔여섯까지 농사를 지은게로 큰아들이 농사 그만 지라고. 그래서 내가 팔십까지만 지을게 하니까 큰아들이 소원 좀 들어 달라고 그래서 농사 내놔브

렸어. 지어서 준 놈만 받아먹고 살제. 시방 또 40키로 두 개, 한 마지기 정도 받아먹지.

아이고, 그래서 인자 나도 며느리 얻고. 우리 며느리가 시집온게 상할머니가 계셔. 우리 할무니는 영리한 양반이라 왜 할머니가 돌이나 된게 왜 여기로 시집을 오냐 글고. 또 스물여섯 살에 결혼을 했어. 그레갓고 며느리 두니까, 할무니 말고 증조할무니 있는 데로 왜 시집을 오냐 그니까 할머니한테 귀염받을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뻐서 거기에 감동을 해 생전 말을 해. 미련하지가 않고 이쁘게 말을 한다고.

우리 손지는 며느리가 애기 내놓고 딸은 지가 저기 목사동 저기 있다가 광주로 발령이 나서 가고. 우리 아들이 어무니가 예전에 부각도 해서 주고 뵈도 해서 주고 그 공을 못 갚는다고 나한테 돈을 많이 보내더라고. 봉투에다 돈을 50만 원 넣어서 주고 한당개. 시방도 고추장 담으면 다 주고. 나 시방도 다 해.

올해는 고추장 큰 다라도 두 번씩을 담야. 그레갓고 딸 주고 손자 주야지 큰며느리 주야지, 큰며느리 여동생들 다 주야지 해서 고추장을 큰 다라에다가 두 번씩을 담아갓고 다 줘. 올해는 고추장 하나만 줘야갓다 그러다가도 걱정이 땀 죽겠어.

영감이 죽은 지 20년 되었나, 또 3년 못 돼서 큰딸이 집을 지어갓고 가서 반찬을 해주고 그랬어. 그래서 저도 식당을 히든 결혼 손님을 받으면 나를 오라고 하더마. 가서 거들어 주다가 아침 내내 전 부치고

뭐하고 시어머니하고 우리 동생하고. 전 내 다 부치고 가쁜 꼬막 까고 밥을 한 손가락 뜯게 안 좋더라고. 그길로 난중에는 오만 약을 먹어도 안 가리았어. 그래서 내 몸뚱이가 밤실만하게 오그라들게 생겼어. 그래서 병원을 간게로 그렇게 집에서 혼자 있으면 죽어본대. 내 심장이 내들면 그냥 숨이 가쁜대. 병원 안 갔으면 죽어봤대.

그래서 거그 가서 엠알아이를 찍어갖고 본계 심장이 안 좋아서 응급조치하고 몇 시간 있다가 광주로 디꼬가서, 바로 큰아들이 현대병원 앞에서 살아서 거그서 시방까지도 약을 타다 먹어. 다른 이상은 별로 없고 혈압이 높고. 우리 며느리들도 다 좋고 자식들도 다 좋고. 나는 큰며느리 얻어갖고 시방 팔십여덟까지 김장을 해주다가 3년간은 아들들이 죽어도 못 허게 해. 그래가조 인자 3년간을 올해까정 못했지.

새끼들 디꼬 안 나간다고 미워라고, 싹 디꼬 안 나간다고 아들 보러. 아들이 인자 아버지 앞애가 못 있는게, 죄를 지었은게 며느리한테만 미운 소리하고. 내가 그 꼴을 다 당함서도, 집안에서 내가 죽어 들면 큰소리가 안 나겠다 해서 입을 딱 붙이고 살았어, 한 십 년간을. 시어바이 살아 있을 때. 올매나 내가 맥없이 며느리 손자들을 미워라 해. 아버지라면 짬할 거 아니여, 근디 그냥 미워라 해. 하루 이틀 마상에 안자 있는게 시아버지가 마상을 탁 놔브로.

내가 그래서 나가자 했는디 죽어도 안 나가. 그래도 하도 나가자 현

게 사랑방으로 가. 근디 할머니가 따라 나와서, 나는 손녀한테 죽을 거라고 따라 나왔어. 그렇게 맘씨가 오만 대천 한바다여. 시어머이는 그것이 아니지만. 할무이랑 시어머니는 나 어디 갈까, 새끼들 내블고 갈까 싶어서 애가 터지겠다. 내가 말 안한게. 공께로 생전 행이나 나 그시기할까 싶어서 벌벌 떨고. 공께 내 말을 책을 보면은 몇 권이라도 봤을 텐게.

시집을 때 내가 장화홍련전을 베껴 써갖고 가지고 왔어. 담양으로 간 동생은 충렬전을 써갖고 갔대. 또 내 저그가 어무니 그거 아직도 있어요, 나 도라 그래서 있으면 가지가라 그랬제. 내가 거그서 익힘서 책을 써갖고 와. 일 년 동안 써갖고 왔어.

옛날에는 명산 오가들한테 세배 땡긴다고 옛날 양반들은 그러고 땡겨. 일가들 집만. 고 사람들까지 떡국 다 끓여줘야지. 살아남은 시상을 생각하면 아주 징그라 죽겠어.

정월 초하룻날 지내고 나면 책을 그놈을 갖고 와서 할무니가 읽으래. 죽는 날까정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뭘 거시기를 하겠어. 당신은 그 이야기를 싹 암시롱 또 읽으래. 또 읽고 안졌어. 그럴 때나 조계 쉬어라고 그랬제. 한카힌가 싶은게 가꼬 와서 책을 읽으라대. 작은엄니가 오셔가꼬 어이 내가 조계 읽을랑게 자네가 저 방 가서 쉬소, 하고 나를 쫓아내브러. 짬해서. 당신은 또 한참 또 쉬둥 못하게 한담서.

내가 또 우리 작은엄니는 나를 올매나 이빠라겠다고. 인자 시방도

안 잊어브렸으께 책 한 권 사 오라고 해서 작은아들이 히라가나 책을 사다 줬더라고. 신문에도 다 알아. 며느리 핸드폰이고 딸들 핸드폰이고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들 대강은 다 알아. 우리 큰아들은 우리 어머니는 말만 하든 외갓댁 동생들이고 폰번호 다 알고 있으께 하여튼~ 이래.

이이 저기는, 양홍석 저기는 친정에 큰아버지 손자여. 내가 고모 되지. 우리 사형제가 짝 터놓고 살았지 넘맹기로 안 살아. 그래서 친정서 벗이 되갓고 시집을 오니께 배를 못 짤까 음식을 못 할까 내가 실고추 조계 썬다고 그레. 저기 명절에 할매가 실고추를 썬다고 그런께 할무니, 내가 실고추 조계 썰게요, 그니까 오매 니가 실고추도 썰 줄 아냐? 그레. 그래서 썰어 놓게 좋아졌어 할무니가.

우리 동생은 저 남원 산동 신동마을에 시집을 가갓고 팔십다섯 살에 죽었어. 나하고 다섯 살 차이인디 작년에 죽었어. 그레갓고 그우리 동생 새끼들도 딸 하나 아들 여섯. 다 한국 사람 며느리 해갓고 며느리들 다 좋아. 내가 뭐 거시기야 다 좋더마. 남한테 억지주고 썩소리 하면 못써.

아구매~ 우리 손녀가 할무니 할무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엄마 좀 바꿔 도라 하니까 가이내가 왜 그렇게 존대를 잘 맞춰갓고 해싸. 이학년 때 어머니 가자고 해서 갔더니 선생님이 얘기를 무신 얘기가 선생님한테도 제가요, 제가요 근다고 얘기를 어찌게 교육을 시켰냐고. 금

께로 하여간 될 애가 저런 애가 있냐고 그랬다고. 이래서 클 때게 조께 저 가정리 첨에 맹길 때는 내가 많이 도와줬지.

우리 셋째가 얘기를 늦게 낫자나. 내년에 고등학교 간디고 책을 짝 며느리가 다 보내줘. 공께 인자 손녀가 크든 가이내가 책을 내갓고 한번 읽으면 끝나도록 읽어본대. 책을 읽다 전화도 하든 안 된다네. 내가 쉬었다 읽자 해도 끝나도록 기어이 읽으래. 다 알아본갑서. 그래서 가이내가 그리 영리한갑서. 영어도 저기 시험을 봐갓고 영어 잘하는 사람 뽑혀서 시험을 봤더니 우등상은 못 탔어도 될 상을 받았답서 삼학년 때부터 배웠어도 걱정 마시라고 그레. 아무져. 동네서도 다 근데.

양지호(가명, 여, 93세) | 곡성군 오탁면 덕산리

내게도 사랑이 있어

지금은 편한 경찰공무원

박종서. 33년 5월 18일생.

원래 곡성이죠. 삼기 원등. 어릴 때부터 살았죠.

인자 가족은 삼촌, 부모님, 상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 중 장남. 여동생은 없어요. 결혼해서 살림 저그할 때는 안 했고, 그전에는 도왔을 것이여. 뭐 세 명이 광주 살고 서울서 살고 그랬지.

학교는 고졸이여. 현재는 종교는 없어요.

뭐 현재까지도 시방 건강하게 살고 있고, 다투고 그러던 안 해. 자기들이 묵을 만치는 살고 있으니까.

젊을 때 저 직업은 뭐 무직이라 그러시오. 그전으로부터, 청년시절부터 애정 갖고 한 것은 없고, 농사짓다가 지금은 못 짓고 인제. 논이고 밭이고 쪼끔씩 짓다가 금년부터서 손을 뗐라고 합니다.

저그 작은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뭐 해가지고, 지금 징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자 어디로 가브렀냐, 사진은 아니고 임명장이 있어요. 저그 청구권 신청해야 돼서 서울로 오라 했는디 내가 못 간다 했어. 미국 변호사가 재판을 해서 7년 이상 하는디, 보상해 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는디 정부가 또 정책이 바뀌어버서 널모레 서울로 오라고 하는디, 삼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오라고는 그러는디 갈 사람만 물어본게 못 간다고 그러고. 그런 실정이에요.

작은아버지 징용 가서 남양군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방된 이듬해 1946년도에 집애를 왔어요. 43년도에 징용을 가서 나왔어요. 여그서 살다가 징용 간 사람들, 뭐 하시마 탄광으로 해서 군함도로 갔지. 근디 시방 인자 하는 사람들은, 여그 빨간 사람들이 삼기 분들이에요. 일곱 분. 두 분 있는 사람이 저그 두 번 신청을 해도 안 나와서, 결정통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나는 인자 조카지, 내 작은아버지, 아버지 동생이지. 그때는 인자 근거 서류도 있었는데 없어져블고 인자 요것은 최근에 나온 거이고. 현재 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는디, 인자 군청에 가문 근거가 있어서 내가 알아가지고 현재 곡성군 지부장을 나보고 연합회장이 하라고 하다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을 시켜서 내가 부회장이 돼갖고 임명장도 받았는디, 이제 현재까지 실정을 알고, 최근에는 돌아온 14일에 모이기로 했는디 젊은 사람들 모여서, 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서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대요. 국회에 다섯 사람 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합해서 변

호사까지 해서 실제 사항을 이야기하고. 뭐 인제 그전부터서, 이명박부터서 요런 것을 신청해갖고 보내고 하는디 맘대로 안 돼서 인제 하려고 서류를, 그러고 돼있어요 인자.

나는 군대는 안 갔어요 경찰 복무했어요. 인자 3년 있다가 현재 나와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 경찰관 책임이 있잖소, 신중히나 하다가 여태까지 집애가 있는데, 우선에 무슨 강도나 절도사건 있을 때 고런데 인자 뭐여 어렵게 갔을까 고런 실정이고, 그 외로 경찰공무원 들은 다 똑같지 뭐. 그때는 뭐 봉급이 쌀로, 현물로 나왔어.

가만있어 봐라, 어디가 서류가 있나. 육이오 사변 끝나고 나서부터 1953년 8월 1일부터서 1965년까지 근무했어요. 66년부터서 나와가지고 집애가 있었죠.

그때는 뭐 공산당 처벌하러 산에 땡겼소. 우리도 저기 덕유산 같은 데서 뭐여 토벌작전도 가고 있었는데 애를 썼죠. 지금 얼마나 편하요 경찰관들. 그때 당시에는 전투대 갔다 온 사람들 임명 받아블고 어찌고 안 했소. 1933년 출신 내가 했은게, 이십 몇 살 때 했죠. 결혼도 인자 경찰공무원 때 증매결혼했죠.

박중서(기명. 남. 86세) | 삼기면 원동리

기막힌 세상을 살아냈어

문종순. 나이는 팔십. 생일은 시월 삼일날. 음력.

고향이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일구에서 태어났어.

우리 친정애가 어무니 아버지, 형제간이 여자가 너이 남자가 둘이
육남매. 내가 둘째딸.

결혼해갖고 나는 가족은 넷이지.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 있어.

학교는 안 댕겼당게. 우리 친정아버지가 입학식도 데꼬갔는디 어디
로 가서블고 없더라고. 중앙초등학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찾으러 나
와브렸어. 그래갖고 입학을 못 해봤어. 그래갖고 취미가 없어갖고 친
구들하고 놀러만 댕겼어. 녀들 풀 하러 댕기고 하믄 놀러만 따라댕기
고 그렇게 보냈어. 그때까정도 공부 안 현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묵은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 저그 막 보리밭에서 풀 베고
막 캐러 댕기고 쌀 퍼다 주고 그 지랄하고 돌아댕기고.

우리 아버지가 저그 거스기까정 우리 아버지가 삼판했는디 우리 집
은 장작이고 여그애가 우리 삼판 크게 해놔서 서울로 다 올라가고 했
는디, 없는 애들은 썩은 나무 고자배기를 하고 댕기고 했는디 나는 그
런 데 따라댕기고 그랬어. 공부할 생각은 안 허고 후회시러.

인자 내 밑으로 딸 낳고 아들 둘 낳어. 내 위로 언니 하나 있고 밑에
동생도 저그 학교 댕기다가 육이오사변 나가지고 못 댕겼어. 우리는
인자 일본말로 많이 했지 그때는. 다 했지. 이름도 일본말로 부르고
그랬지. 요 친구들도 일본 학교 댕기다가 육이오사변 나갔고 다 못 댕
겼지. 나는 또 입학하러 갔을 때가 일제시대였지. 울 어무니가 그때는
거시기 나팔을 갖고 댕기면 거시기로 받으러 가, 훈련받으러 가 몸빼
를 입고, 저그 따라가고 그랬어. 저그 군인들처럼 똑같이 받았지. 곡
성 하믄 일본 사람들이 다 구역 기차역 거가 다 일본 사람들 집이 많
았어. 늦그릇 그런 것도 일본놈들이 싹 가져가고 괴롭혔지 많이. 난
인제 쪼꼬매서 몰라. 몸빼 입고 울엄니 갈 때 따라가믄 일본 사람 순
경만 보면 무서서 떨었지. 겁나 싸나. 댕기면 벌벌 떨었지.

해방되고 육이오 겪고는 말도 못 허고. 육이오는 열네 살이지. 그때
는 동막으로 피난을 왔어. 동막서 살다가 집이로 가, 뒷동산에 땅굴을
뚫어. 여그는 들어가고 여그는 나고 밭댕기로 하믄 그 속에 들어가서
있고. 폭격도 징그럽게 때렸지. 학교는 다 때리고 비행기가. 하이고,
곡성은 철쭉다리 잘르고 학교 때리고. 동막서 피란 와갖고 성하고 있

은게 올 엄니도 근게 거시기했는갑서. 세상에 반란군 비행기가 폭격하고 난리 났는데 밭에 가서 목화 미영을 따오라 그래. 그럼 할 수 없이 가다가 남자고등학교, 거그는 탱자나무로 막 그랬는디, 동막서 둘이 곡성으로 미영 따러 갔는디 하필 또 간 날 비행기가 학교에다 폭격을 놔본게 둘이 보듬고 탱자나무 안에가 있다가 비행기 가고 밭에 못가고 도로 동막으로 간게 올 아버지가 엄니를 얼마나 뛰라 하더마. 애기들을 그런 데 보냈다고. 나는 열네 살 묵고 성은 열여섯 묵고. 말도 못해.

월경 양씨가 곡성서 살아갔고 그놈이 곡성을 아주 쏘를 만들어브렀잖아. 반란군 대장이었어. 아이고, 그래갔고 다 한게로 뵈힌다 뵈힌다 다 알잖아. 우리 아버지는 일본으로 사업 때문에 드나들었는데 하이튼 양씨가 부락사람들 다 뭐 아니어단계 다 죽여뵈지. 저녁이면 트럭으로 싣고 가서 구덩이를 파갔고 차곡차곡 붓어서. 아주 나는 징그러. 학림동 방에다 순경들 그런 사람들만 쟁여갔고 말도 못 하게 죽였어 그때. 글고 다 9시나 되믄 막 좀 어둑어둑하믄 다 몰고 들어와 요것들이. 반란군이. 양씨가 시켜서 그런가 어쩐지는 몰라. 들어오믄 집집마다 떨어간 거여. 사돈영감도 그 사람들이 소고 떨어갔고 올라간갑네. 다 디꼬 가. 그때서야 순경이고 뵈고 쏘면 애자건 사람만 맞지. 요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징그러.

아이고. 그런 세상을 살고 그랬는디면 승주 송광에 이틀테면 인자

집안이 살아, 송광사 거그서. 우리가 거시기여, 화순이 우리 큰집이랑 다 있는디 송광서 산디 인자 성을 그리 보내뵈어. 우리 엄니는 암전해 갔고 실 씨갔고 명주 베를 다 만들어갔고 우리 성 여울라고 해논 놈을 저녁이면 이불 속에다 숨키니라고 그려. 반란군들만 오면 뛰들고 들어와. 다 쪼간한디 내가 좀 톨톨한가 우리 엄니가 니가 나가라 해. 글고 반란군들이 막 어디로 가냐고 그런 거 도망갈 길 물어봐. 그럼 인자 다 갈켜줘 내가. 올 엄니가 다 나보고 갈켜주레. 우리 성은 없어져 블고 내가 저녁마다 떨어 들어와 아주. 먹을 거는 다 가져가블고 없어. 글고 또 우리 아버지가 숨었는디 잡혀갔고 마당에다 꿇어놓고 총을 막 해갔고 그랬는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대목인디, 아는 사람인가 근가 총 치우라고 막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놓고 우리 아버지를 빼놓아서 안 돌아가셨어.

여그 노래도 있잖아. 역적의 반란군을 찢어죽이자~ 역적의 양씨를 찢어죽이자~ 이 노래도 부르고 다녔어. 저그 월경, 양씨 놈이 곡성서 잘살아. 요리 보내고 저그 보내고 길을 다 알아 그러지. 그래갔고 나는 인자 동막서 살았어, 그러다가 또 인자 보대껴서 저그 신월리에서 살았어 집에서는 못 살고, 우리도 인자 못 살아 거그서는. 그랬는게로 내 생각인디 미국 사람들 미워라 한 것들은 못된 것들이여. 미국 사람들이 안 밀고 왔으면 우리도 다 죽었어.

인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부락 부장을 했는디 일주일 있으면 가족

들 죽이기로 했는데 우리가 살았지. 나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 때때 살
았어. 안 밀고 들어왔으면 쏘대브러 한국. 여그 양씨가 죽은지 알았더
만 시집와서 또랑에서 빨래를 한게 저그 양씨라고 하더라. 저그서 죽
은 사람은 양씨가 아니었던단. 그래갖고 곡성에 양씨가 산다고 아이
고, 저그가 있더라.

내가 시집을 스물다섯에 왔어. 안 갈라고 했는데 왔어. 뭐 스물다섯
에 오기는 왔는데 너무 가난한 데로 왔당게. 다 알지 뭐. 양씨는 나 시
집와서도 몇 년 있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대. 할머니랑 교회 댕기다가
월경서 살면서 죽었대. 나중에 교회 댕기다가 월경서 건너오다가 죽
어봤대. 각시랑 교회 댕기더라. 나는 죽어본 줄 알았어 군청 앞에서
인자.

시집왔는데 집인지 뭐인지 다 짜그라져갖고 식구는 아홉 있고 시
어매 시아부지 시아재 둘 또 시누, 나, 즈그 아버지, 큰시누. 근디 우리
는 시동생 거시기들이 술을 아주 징그라 징그라. 시아재들이 웬수란
게. 시집와서 얼마 안 돼서 몰랐지. 큰방에서 빨래를 훑고 있는게 형
수라고 들어와 시아재가. 그랬더라 신작을 벗어서 막 달라들어서 뚜
드러 때 나를. 울 엄니가 저그 품앗이해서 쫓아와서 막 때리고 막 그
래. 우리는 아주 시아재가 아주 술먹구.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좋아. 술
먹고 들어오면 칼을 갖고 나대고 문짝이고 뭐이고 잠도 못 자고.

경숙이 할매 있지? 저그 곡성서 살아서 우리 엄니랑 살았는데 저그

가 나를 디꼬 댕겼어. 저그 가쁜 고사리 집나게 끊고 그랬어. 저그 큰
시아재랑 막 작은시아재랑 다 노름을 해갖고 자기가 죽어브렸어 아
들 둘 내놓고, 우리 뒷집에 살다가.

작은시아재는 인자 집을 나갔지. 저그서 머슴 살다가 돈도 많아. 우
리가 못산게로 지 돈 뺏을까봐 벌벌 떨고 안 주고, 시집은 우리 시아
버지만 좋아. 시어머니도 애기 업고 막 기블고 술이 또 안 좋아. 술만
안 잡수면 좋은디.

나는 또 동짓달 그믐날 스물네 살에 와갖고 그래갖고 애기가 들어
서갖고 큰아들 낳고, 말도 못 하게 곤란했지. 아이 아들네들이 그러디
또 이틀테든 모 한 단지 승귀주면 쌀 한 단 셋거리 갖다 묵고 그랬지.
고지, 저 점등 저그 집이 두 집이서 갖다 묵고 품앗이하고 그랬어. 쌀
로 갖다 묵고 대신 모 승귀 주고, 아이고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시아버
지가 그래도 밥을 남겨준당게.

시아머이는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으며, 녀의 집 가서 자. 그 집이가
집이여. 요 큰방 작은방 아랫방 방 세 개서 다 잤지. 신흔방은 짝간하
게 있었지 뭐. 그러고 둘째 스물여섯에 낳고 일곱에 낳고 그랬어. 애
기들도 지대로 못 보냈지 애기들을. 고등학교밖에. 이리고등학교, 금
호고등학교, 옥과 댕기고 작은아들은, 글고 큰딸은 중학교 보낼라고
해냈더라 저그 이순이가 회사에서 부산 간 얘기를 해갖고 지들이 가
서 돈 벌어서 즈그 오빠 갈친다고 이순이랑 같이 가브렸단게. 지그들

이 고생을 해갔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대학교 나오고.

나는 인자 아들네들 방 얻은다고 십원 하나를 못 쥐봤어, 지그들이 다 했어. 뭐 걸린게 내가 해주고장계로 밭일 쪼매 하고 자식들 주고 싶어서 하고. 아이고 시누들은 다— 큰시누는 서울로 기블고 시누 양반도 참 좋아, 큰시누도, 근디 노름도 하고 술이 세. 근디 작은시누는 말도 못 해 이년 저년 해. 여그서 초등학교 이학년 땡기더마 아주 껌 껌해. 근디 잘살아 시집가서.

근디 우리 큰딸은 그것을 못 잊어블고, 그러 나보고, 엄마 고모가 그런 것이 기억이 안 난갑서, 삼춘들 할매들 한 것이 맘에 걸리던가, 그러. 우리 큰아들이 막 엄마, 엄마 성가시게 한 양반들 가셨어 그래. 큰아들 큰딸이 얼마나 그런 것이 한이 됐으면, 너무나 없이 살고 엄마 사는 것이 너무 한이 됐다고. 우리 시아재 둘 다 죽어블고 큰시누 죽어블고 작은시누만 살았지. 근디 이렇게 없이 산게 깔본 사람이나 그런 것이 있더마.

제일 속상했을 때가 뭐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애기들, 작은딸 애기들을 저그 인자 그놈을 즈그 아브지한테 뺏겨블라고 하느디 요놈이 디꼬 가쁜 내븐다고 그래. 우리가 이혼을 시켰어. 애네가 여름에 더우면 시원한 데서 살고 공부 잘하면 고등학교까지 키울라고 하고 데려다 키운디 부락에 뭘 일이 있으면 해나 갖다 두고 막 가슴 아프게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내가 막 옥과를 디꼬가블고, 그때는 애기들이 글

고, 글고 영세민이 됐느디 지그 할아버지도 병신이 돼갔고 있느디 부락 사람들이 아주 영세민 된 꼴을 못 봐. 나한테 돼서 그리 말을 한 사람들은 지그 손지들도 그 세상을 살아보라고 하고 싶어. 지그 시어매랑 같이 일 땡겼어 저그 이구사람.

지금 영감 간 지가 십칠 년째 됐느갑네. 아이고, 내가 그때, 가슴 아픈 것이 안 잊어블고 나한테 한 것들이. 나 뚜드러맞기도 맞았어, 남자한테도 맞고 여자한테도 맞고, 잘 참고 하니까. 그래도 지서로 갔어 고발할라고.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어.

내가 인자 다 안 잊어부러. 영세민 돼서도 안 잊어부러. 저녁에 맥 없이 압록댁이 그러더라고. 왜 영세민이 되냐고 그러더라고. 또 근디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없어갔고 영감은 병신이 되어블고 애 둘을 키운게, 그러더라고. 가슴에다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

근디 새벽에 우리 집을 쫓아와서 어떻게 영세민이 됐냐고 쫓아와서 이년 저년 하면서 옷을 짹짹 찢어부러. 글고 저그 나무 밑에서 여자들이 왜 우리 집 영세민 해주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자 어떤 년들이 그냐고 이장 집으로 쫓아갔어. 그래서 그만두소, 영세민이 뭘 혜택을 본가, 병원 가서 약값인디 뭘 혜택이냐고 그만두라고 그랬어.

문중순(기명, 여, 81세) | 삼기면 원동리

처녀 때부터 봉사

이종렬, 30년 8월 10일생이여. 스무 살에 결혼을 했제.

나 태어난 데는 충남 부여군 구령면 죽전리. 내 형제가 오빠 둘 하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저 일제강점기 때 광주교보 교사로 계셨어. 지금으로 말하면 동중학교지. 아버지 광주로 오실 때는 나는 태어나도 안 했지. 근디 인자 아버지가 마흔네 살에 돌아가셨지. 나는 유복녀여. 어무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지. 태어난 뒤에 이제 아버지는 사진도 안 찍었어, 얼굴도 모르지. 비상시덴께 일제시대는. 부여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음력으로 이월 초이튿날이구 제사는. 나는 몇 개월 안 돼서 윤달로 태어났지. 근게 할 수 없이 엄마가 부여로 갔지. 형제는 오빠 둘이구.

우리 집안이 딸이 귀해. 내가 참 귀하게 태어났지. 올 외할아버지는 총독부 감사관이여, 판인관.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만났지. 아버지가 하숙을 하니까 곱게 봐서 사우를 삼았는디, 우

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충청도로 갔는디, 거서 살다가, 나는 다 커서 들었지.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홍영당약방, 저그 우리 외삼촌이여. 그런디 우리 외할아버지가 딸만 넷을 낳고 아들을 못 나서, 담양 군청에 외할아버지가 판인관네로 가서 대밭 네 마지기랑 논 여섯 마지기 사주고 처녀장가를 가셨어. 그래서—곡성 정씨 대종손이여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는 쥐락펴락했지. 그랬는디 대종가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는디, 할무니가 홍영당 외삼촌을 난 거여. 요새 같으면 동거인이지.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한테가 올렸어. 우리 작은할머니도 첫아이 나시고는 딸만 또 주르륵 나서브렸어, 서이를. 그런게 우리 본할무니가 넷, 작은할무니가 셋, 그런게 우리 할무니가 칠선녀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담양 읍내로 보내고, 작은할머니랑 살고 그랬대. 나는 그때 네 살이었어. 내 동갑짜리 이모도 있었고.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를 오렸어. 근디 우리 오빠들이 학교가 멀어서 어무니가 저녁이면 등잔불 들고 십리길 마중을 나갔거든. 그 정도로 멀리 학교를 보낸게로, 어찌게 가시내를 멀리 학교를 보내고 그럴수가 있냐 그래서 느그 어머니랑 와서 살라고 그래서 내가 담양으로 왔어.

근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게, 담양서 살질 못 허지. 그런게 작은할머니 애기들은 작은할머니 집으로 가고, 홍명당 삼촌은 저기 병원

서무를 보고 외할머니가 키우고. 딸들은 자네가 전답이 있는게 키우 소, 했지. 금계 우리도 후생병원 이모 덕을 많이 보고 컸지.

그렇게 커갓고는 담양서 일학년을— 그때는 일제 강점기 때 일학년 이 기억 나으을 알아야 하고 아이우에오 일본말을 쓸 줄을 알아야 시험을 봐. 그래서 시험만 보고는 곡성으로 와부렸어. 그래갓고 곡성 죽 동으로 이사를 왔어. 요새 같으면 전학이 되는데 그때는 시험을 보고 일반 반이고 이부반 삼부반도 있어, 야학도 있고. 중앙국민학교 지금 성당자리에서 다녔지.

그 이듬해 열 살에, 담양서 아홉 살에 학교를 갔는데 곡성서 열 살에 갔어. 몸집이 작아갓고. 나는 지금 요렇게 국민학교라도 나왔지만, 우리 어무니가 혼자 사시믄서 나를 보통학교라도 보낸디 현재도 감사를 느끼고 살아. 근디 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일등을 했어. 그때 들어가믄서부터 급장을 했어. 사학년하고 일학년하고 합반을 했어, 딱 한 달. 한글을 딱 한 달 배웠어. 그래갓고는 조선어 폐지가 됐어. 그리고 한 달 배워갓고 기억 나은 이런 것만 떠었지. 그리고 사학년 때— 삼학년 때꺼정 성당자리에서 보냈는데, 사학년 때 저그 시방 레저문화센터 거그다가 곡성의 그 정참봉집 그 양반이 하여간 여섯 마지긴 가 줘가지고 그니까 기증했지. 그때 회장이었는데 이사했어. 고달국민학교에도 기증을 했더만. 정참봉집 하고는 사촌이여, 아버지 사촌. 그래갓고 됐는데 학교 신설학교로 이사를 헌디, 정참봉이 땅을 줘서

나를 인자 뭐라고 할까, 축하식을 했어.

그때는 여 짚신 신고 꺼른 옷만 입고, 꺼른 거 꺾매고 맵기고, 그것 이 개화가 돼갓고 매는 걸로 하고. 나는 일학년부터 육학년까지 어찌 다 팔십 점도 일년에 하나나 맞았지 일이등만 허고 급장도 주르륵 했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제고사가 있었는데, 항상 나는 일등만 하니 상품으로 배급을 받아. 연필, 공책, 하얀 운동화, 그 요즘에 실내화. 근께 나는 그런 것들 사들 않고 짚신도 안 신어봤어.

그랬는데 이월달이여, 사학년 이월달이여. 사월달에 졸업을 하는데 이월에 눈이 하얗게 와갓고 몸뻐에다가 숨을 누벼서 해갓고 갔는데, 어렸을 때 내가 말이 목청이 크다 거기서 내가 전교 호령을 했어. 전교생들. 우리 졸업할 때는 천오백 원— 그런게로 어째서 되었나면 동국민, 오곡, 삼기가 이학년만 있어. 그런게 인자 없는 사람들은 인자 겨우 그것만 하면 안 보낸디, 시골서 다 부모들이 눈을 뜨믄 중앙국민학교로 와. 한 반에 칠십 명 팔십 명이야. 그래갓고는 꼭 차 교실이, 책상들이.

지금 저 내가 알기로는 요동네는 여운표 씨, 나보다 다섯 살 더 먹었어. 근디 나랑 동창이여. 글고 방공훈련을 받을 때, 시방 레저문화센터 자리 가상에 뺄 돌려서 방공호를 봤어. 내 키가 기준이여. 금계 우리가 그놈을 다 봤네, 공부는 안 하고 6학년 때. 5학년 2학기 때부터서 학생들이 다 파. 파갓고는 나를 거그서 내가 뵈 둥 말 둥 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서 파. 거기 또 향나무 있지. 그거 다 우리가 승렸어.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우리가 승렸는데, 그래.

그래갖고 졸업을 했어. 사월달에 졸업을 하고 팔월달에 해방을 맞았어. 졸업하고 인자 내가 그렇게 좀 군청에서 급사감을 보내도라, 위안부, 그때 그 위안부들을 가난한 사람, 아버지 없고 외로운 가정 애기들 영리한 놈들만 해갖고 중앙국민학교로 들어가 배정이 되었는데. 나하고 시루가와라고, 시루자 내 천川자 쓰는 일본 성이여.

근디 저기 보배치과 옆에 뭐 거그서 거시기 나마가시리라고 요새 같으면 거기서 빵장사를 했어. 그래갖고는 시루가와하고 나하고 배정이 됐어. 시루가와는 나보다 일년 선배고. 거시기 군청에서 급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둘이 배정이 땡겨로는 나를 급사를 너췌어. 근게 내가 농회, 그때 열여섯 살 때. 바로 읍내 어린이집 시아버지가 농회 과장이네, 농회장이여. 그 농회장 주위에서 시아버지가 다 관리를 했지. 요쪽에는 총무과 있어갖고 그랬는데, 해방이 되께 끌려갈 뻔 했는데 그러고 요로고 지방 산 거여.

근디 우리 외할머니가 가시내 분칠이나 하고 구두 신겨서 군청에 보내냐고. 근디 그때는 열 일곱여덟에는 다 시집을 갔는데 나는 노처녀였어. 그때 막 못 보내게 하고 그런데 내가 또 사표를 냈어 군청에. 나는 산림계 급사여. 거기는 또 뒷채가 있었어. 그래서 사표를 쓰고 수나 놓고 뜨개질 바느질이나 하고 살아서 췌어. 그리고 요리 결혼을

했지.

우리 남편은 학교에 선생이었지. 우리 작은어머니가 중매를 했어. 여기 신랑은 1구 사람, 나는 죽동이고. 그래갖고는 결혼힘서 육이오가 닥쳤어. 새신랑은 그때 스물다섯, 나는 스무 살. 육이오가 닥친게, 우리 둘째시숙님은 주암에서 경찰을 했어. 저기 대밭에서 산디 인민군들이 개놈들 죽인다고 그래갖고 시숙님은 주암으로 장가를 가블고 피란을 큰집으로 와서 대밭에 굴을 파서 숨고 잘 때만 나와서 자고, 우리 큰집 살림살이를 다 그놈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런게로. 나는 시집은 다음 해에 일 년도 안 돼서 닥친게로 물건이나 건지게 죽동으로 저금을 냈어. 근디 뭘 종이 가 있겠대. 천장은 신문지로 바르고, 배람 박은 책 찢어서 바르고. 나는 글고 죽드락까지 월급봉투를 봐보들 안 했어. 그러다가 친정오빠가 세무서를 다녔어. 애기는 배갖고 우리 애기아빠 우에 딸을 가졌는데 큰집 갔다가 동네에 왔는데 우리 친정집에 우리 어머니랑 나랑만 살고 작은아버지한테 오빠들은 가 있고, 아홉 집 식구가 덕석 깔고 다 죽동으로 피란오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각자 다 끝나고 한집에서 밥들 각자 해묵고 살았어. 그러다 그 이튿날 종고에 폭탄 떨어져갖고 타췌잖아. 애기는 배갖고 있는데 막 B29라고 비행기가 연기를 두 줄로 품고는 나만 쳐다보고 온 것 같아.

낮잠 자다가 종고를 향해서 오는디 놀래갖고는 빗장으로 올라갔는데 비행기에서 보이겠다 해서 마루 밑에 들어갔더니, 나 그때 쌍둥이

뻘뻘했다고 했거든. 아홉 달인데 유산이 돼봤어. 근데 후생병원 의사가 나를 살렸어. 그러고는 미역을 살 수 있어 쌀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오빠가 세무서에 다닐때 미역 큰 줄기를 사서 보내고, 또 저기 양교장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자매라서 또 뭐 부자로 잘사는 뭘 다 사서 보내고. 우리 어무니가 쌀 없다고 쌀 얻으러 가서 큰 말을 받아오고.

그때갖고 육이오 끝나고 영운내로 다시 왔어, 잠잠해진게. 또 저기 집으로 이사를 왔어. 죽동서. 그래서 산디 우리 우깁이 아비를 뺐네. 애기 낳기 전에 김장하라 그래서 배추 뽑아놓고 거스그 있는데 왜 그렇게 배는 요만 현디 오지리 폭도들이 올라와브렸어 여까지. 그래서 우리 대문을— 보리쌀 삶은 거랑 배추 곁절이랑 해놓고는 갔어. 소쿠리 지금도 안 잊어부러져. 눈에가 선해. 널 아침에 해먹는다고 뵈더니 대문을 막 어찌게 했는가 뚫고 들어와브렸어. 나는 막 화장실에서 들어가브렸어 무서워서. 그래서 숨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텃밭으로 가서 뒤지더라고. 살찌기 나와갖고 요짜 양장점 성앤가 두봉이라고 현 아들이 있는데 세무서 급사로 다녔어. 그래서 있는데 영깁곁에 그놈들이 부엌에서 보리쌀이랑 다 퍼묵고 갔어.

그리고 선생들 월급을 그때는 우웃가리하고 밀가리로 줬는데 밀가리를 갖고가서 국수집에 가서 해갖고는 한발대를 지고 왔고, 밭에다가 꼬치 심어갖고 저그 뒤주에 뵈는데 내 옷 시집갈 때 해갖고 온 옷들 짝 자리 뻘들어서 갖고가브러. 국수, 꼬치, 짝 실속히 잡아갖고 가

나라고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두봉이네 집으로 훌쩍 담 넘어갖고 도망가니께 두봉이 애미가 시암 빠진디 조심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기 시암이여. 빠질 뻘했어. 아이고, 저 배를 갖고 어찌까막 그랬지.

돈 고놈 다 갖고가고 그랬는데 그레도 돈다발을 어찌게 그시기했는가 뒤안에 구석에 던져놓고, 돈은 모르고 구석에 던져붙고 내가 고로고 갔는데 탄피를 요만치 넣어놓고 갔어. 그래서 내가 탄피 때때 경찰서까정 불려갔네. 감싸준지 알고.

그레갖고는 와서 저 시월 스물다섯 날 그 이튿날 애기를 낳어. 돈은 인자 애기 낳랑께 생각도 못하고 봉계로는 그날 날 새갖고 가니께 탄피가 되양으로 하나여. 경찰서에서 들고 갔어. 내가 신고를 했는데 갖고오래. 무거워서 못 갖고 간다니까 와서 가져갔어. 와서 봉계 공책 일기장하고 돈허고 저기 있더라고, 가게부랑. 그레갖고는 구석에 쳐놓고 갔더니 그놈들이 왜 탄피를 내놓고 갔는지, 고춧가리고 지름이고 짝 갖고갔어. 그리고 그냥 살았어.

영감네는 딸 둘 아들 셋이있어, 삼남이네. 그레갖고는 여그서 살다가 우리 친정오빠가 광주세무서로 발령이 난게로 친정 고리 이사를 갔어. 근계로 우리 오빠가 죽동으로 와서 살거라, 해서 내가 죽동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사는데 인자 문맹퇴치 야학이 있었어 주부들. 그 할매들이 인자 구십이 다 넘네. 나는 학교 막 졸업헌게로 그때는 구장이여, 구

장이 갈치자고 해서 나는 여자 담당, 구장은 남자 담당 해가지고 과녁 판 저기 활 쏘는 디 지금은 없어졌어. 거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해갖고 야학을 갈쳤어. 하여간 훈련은 인자 해방되고 정신대 뽑아 갈라고 그랬나. 일제강점기 때는 정신대라고 했는디 인자 또 여성 뭐 해갖고는 공산당, 김일성이 거시기가 올라운게 깨우쳐야지, 공계 고런 훈련을 시켰어. 딸귀 아이들으라고 우향우 좌향좌, 하나 둘 이런 거 갈쳤어.

그래갖고는 인자 훈련은 조계, 그러니까 또 이제는 문맹퇴치한다고 야학을 갈치래. 돈도 안 주고 처녀 때부터서 나는 봉사를 했어. 읍내에서는 또 한국부인회 회장을 허래. 그때는 애기 다 낳고, 내가 낳기는 이남삼녀인데, 우미엄마, 둘째는 서울서 살고 막둥이 광주 살고. 막둥이는 대학원을 씬 넘어서 해갖고 그래도 잘 해갖고 책이랑 내고 강의 나가. 시간강사로. 그래갖고는 죽동서 신아홉에 나왔네. 49년을 살았어.

글고 그전에 막 해방되고 내가 아는 사람 마누라를 난산을 한게 애기를 났는디, 낳다가 죽었어. 그것이 사건화가 됴게로 남원으로 병원이 이사를 했는디, 우리 외할머니가 거가 계셨어. 근께 할머니가 계신께 내가 갔어 거기로. 갔는디 걸어 땡기네 그때는. 거기를 걸어서 곡성을 왔어. 걸어왔는디 새벽에 1시나 되었을 것이여. 낮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활동도 못 했네, 미국사람이 훔쳐간다고. 근데 같이 간 사람이 있는디 우리 이모 막둥이 시동생이 정씨네 집으로 시집갔는

디 요리 왔는데, 경찰서에서 부장을 했는디, 처갓집으로 갔제. 갔더니 경찰서에서 밤에 호출당했지. 해방이 된께.

죽동서 살 때게는 왕주를 근 삼십 개를 해도 누가 얼마 가져가고 얼마 가져갔다고 장부를 잊어브러도 다 기억을 해브러. 동네 초상계 뭇계 해도 돈놀이를 하잖아. 이자 받아서 키우잖아. 근디 잊어블고 장부가 없어지든 돌려감서 장부를 갖고 가는디 내가 갖고 있음 안 잊어브레, 또 다 잊어브러. 그래서 내가 다 그런 것을, 아무개가 얼마 가져간 걸 다 기억을 하지. 근디 어떤 사람들은 다 우기는디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찌다가 찾아. 그럼 딱 맞지. 나는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만 선생님 눈을 보고, 숙제만 했지 어디서 예습공부하진 않지. 3·1 운동 그런 건 몰라. 우리 어머니가 애 낳던 해 기미년인데.

글고 광주사태라고 해서 모른디, 저 뒤 5·18 그것은 광주 가서 목격을 했네. 내가 또 저그 이남삼녀 나서 큰딸만 중학교 광주서 하고 큰아들은 서증을 떨어져서 조대공전을 보냈어. 둘째아들은 순천고 나와서 조대공대 나왔고. 큰딸하고 작은딸은 아들들한테 밀려갖고 못 갔제. 다 우등생이었어. 인제 다 여우살이 다 허고.

아, 근디 내가 64년 때 교리 허고 성당에를 나갔고, 2년을 공쳤지. 일 년은 무보수로 다니고, 이년은 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험서 일 년을 갈쳤지. 백이십 문답을 다 외워야 허.

여기 동네 박씨가 군 회장이었고, 돌아가시고 주조장 아주머니가

하고 내가 했을까? 나 다음에 중앙병원 히고 그 뒤로는 몰라 인자.

나는 도 운영회장이랑 했어. 군 자문위원도 하고. 나는 인공 턱을 보고 시부모하고는 6개월 살았지. 우리 형님은 내보낸다고 해싸도 어른들이 내보낸게 할 수 없이 나왔지. 우리 영감은 돈만 벌라고 곡성만 뱅뱅 돌았어. 고흥서 와갔고 고달로 가고, 고달만 두 번 가고, 목사동 3년 살고, 고흥 가서 3년 살고. 그때는 3년이 거시기였어.

우리 애기들 학교 다닐 때는 서국민학교 초대 자모회장도 히고 서국민학교 학생들은 별로 안 많았지, 중앙교에서 갈려 나와서. 근디 읍내 4구랑 5구에서 상인들이 많아서 안 줄라고 했어. 근디 서국민학교가 발전을 먼저 했지.

나는 베 같은 건 안 짜봤어. 우리 어무니는 목적이 과부가 아버지 없이 키워갖고 죽동 큰애기들 다 어지간하면 삼인동으로 나무허러 땡기고 했는데, 나는 가난한 집 딸이어도 절대 안 보내. 나는 안 갔어. 어무니는 어쩌다 한 번 가리나무 굽으러 해 오지, 나는 절대 안 보내 어무니가. 나는 산에 가서 자빠져서 빙신 되면 빙신 딸 된다고.

애기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가정에 충실하고. 공직에서. 나는 요 집에는 36년 땀어. 내년 이월이 36년. 시방 내부만 저기 없애블지, 옛날 집 그대로 있어. 천장도 낮췄어, 너무 높아서 파리가 붙어도 안 날 아가.

여성 활동은 38년 했네. 금께 나 젊을 때에는 부녀회 회장이다, 막

거 뭐이나 전두환 박정희 그때 새마을운동, 일 년에 한 번씩 전국 지도자대회 하든 청와대도 가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영빈관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부터는 영빈관 가서 밥 묵고 꿈에도 못 보는 요리들도 나오고. 일 년이면 각 시군 지도자대회 운동회. 근디 구레 곡성은 빼주더마.

우리 딸은 걸레 하나도 안 빨아보고 시집갔네. 농협에서 연애해갖고 결혼했네.

우리 큰아들은 조대 공전. 괜히 말하지만,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서중예를 쳤는데 시험점수 2점 차로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옥과에다가 입학시켜갖고 곡성으로 전학을 시켰지. 그래갖고는 중학교 나오고, 그때는 공전이 고등학교 과정을 속성으로 해서 5년이 있어. 일고 떨어져본게, 수류탄 던지기에서 떨어져갖고 막 그날 지태가 와갔고 축고 그런게 손이 얼어붙어서 공전을 갖제. 공전에 다닌디,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어 아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글서 두 달 넘겨놓고 퇴학을 시켜부렸어 아버지가. 그래서 외갓집에가 있다가 자취할 랑게 시켜달라고 해서 자취하니께 정신이 들었지. 그래갖고 또 그동 안에, 머릿속에는 뭘 있는디 자격증이 없어서 뭐 그냥 군대 갔다가 군청에다가 기사로 넣었지.

나는 양력으로는 여섯이고, 음력으로는 다섯이고 육십다섯, 할아버지는 양력으로는 구십이고, 음력으로는 팔십아홉이고 그래. 양력으로

로 1월 1일에 돌아가셨지. 변비도 있었고, 나는 그러네.

판콜에서 내가 이 저것을 우리 영감님이 중앙국민학교에 근무하면서 서국민학교를 지었어. 그래갖고 감독하고 하는데 인부들이 당신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수들은 아니니께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때 판콜 에이에서 에스로 나오는데 날마다 박카스를 사다 놓고 먹어. 판콜 에스가 카페인이 덜 들었으께 먹으라고 해서. 나도 그냥 간이 되어갖고 40년 돼, 하루에 하나씩. 저것을 먹어야 내가 그 날 활동을 하제.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먹어. 그래갖고는 가마니로 담아냈어. 짐이 얼마나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디, 천장이 높아갖고 뜯었는데 저기 씨졌더라고. 내가 지금 여든여덟. 딱 그때 열두 살이었는데 기억을 하지. 남원하고 곡성하고 가격 차이가 저거 판콜 에스가 많이 나. 근디 곡성은 시방 만육천 원인가 그려. 똑같이 감기약 인디 그려.

부각장사는 18년 했네. 요리 이사 와서 갈 데도 없고 한계, 시누네 집이나 가면 늙디 늙은 할매들만 일만 허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포도집이 80년 친군디 저기나 가지. 근디 딱 변비가 와갖고 딱 가만히 묵어본게, 저걸 묵으면 소변을 덜 봐. 일하다가 안 고 나가면 조께 이따 누고, 조께 이따 누고, 두 알까지는 괜차네. 근디 세 알까지는 나도 변비가 올 여 아마. 근디 또 저거 딸은 나한테 딱 판토했때, 포도집에도 판토했때 온다 그려. 하하…….

부각 장사해서 3억 벌었다고 소문났어. 근디 내가 영감님 생활비 허고 하니께 돈 쓸 데 없지. 손주들 과자 사 주고 맡아블고 공계. 모았는데,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은 제일 많이 모았지. 그래서 인자 나는 그것이었어. 두 딸들, 잘나도 못 현 아들들에 치여갖고— 내가 계산해 본게 천만 원이 있으면 4년을 갈치겠더라. 그래서 내가 참, 그때 수중에 백만 원도 없는데 천만 원이 어뎠어. 그래서 내가 딸들 천만 원씩 주려고 부각장사 했어. 그래서 내가 대학 갈쳤다 하고 천만 원 주마, 변호사사와라 해서 큰딸 주고 둘째딸도 주었지.

아버지가 첫째 목적이 전대여. 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아들도 막 그랬지. 그때 아버지가 구판장 하고. 내가 근디 풀빵장사 술장사 할랑게 원서라도 내라, 그래서 막둥이는 살레지오 가고, 큰딸은 상고 나오고, 근디 아버지가 전대 아니라고 못 보낸다 그랬지. 근디 또 딸이 농협에 원서 내서 발령이 났는데, 누가 저기 지그 아버지가 운동을 했는가 가를 물어내갖고 다른 애가 가봤지.

내가 뭐 오십대 때는 55, 6키로 했는데 지금은 38키로여. 근디 요새 위장병을 20년도 넘게, 밥을 묵고 매운 것도 묵고 짠 것도 묵고 나면 한 시간은 괜찮은디 두 시간이 되면 딱 위경련이 오고 두어 시간 몸살이 오고 또 가라앉아. 시방 지금 두 달이여. 그때 내가 레저문화센터 의료진 방송 허는데 회관에서 두 분이 와갖고 혈압이 높으라고 그려. 당뇨도 없고, 근디 손발이 차. 윗병 있고 근디, 약 묵을 때는 괜찮

아. 근디 한 두 날 안 묵으면 아이고, 지금은 만성이 되어가지고 남원도 가보고 저기로 가보고 막 그러더니 아직은 약 잡술 정도는 아니라고 해. 견뎌보시라고 그러더마, 레저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윗병 생기다간 혈압 올라서 죽겠다 하고 막둥이한테 그랬지. 그래서 뭐 판콜만 묵고 살고 그랬지. 아주 그냥 대소변이 나온지도 모르고 자고, 아침에 보면 요강에다 있고 그랬지. 그럼서 나올람서 녀들은 다섯 여섯 가지 약 타가고 그러더마. 근디 나는 혈압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윗병 진찰해달라고 가서 말한디 그러래. 그냥 거시기 처방전 써주더마. 그래서 약을 타갔고는 요놈 묵어보고 좋으면 여기로 찾아가면 되지요? 한게 오래. 근디 내가 요 약을 먹으니까 괜찮은 듯하더라.

그런게 타러 갈라고 전화한게, 본인이 와야지 약을 준다고 막둥이가 오면 안 된다고 해갖고 산수동인가 어딘가 우리 사위가 갔어. 그러지 말고 저기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세상에! 20년이 넘은, 약을 묵어도 안 낫던 게 딱 한 알 먹으니까 좋아. 연대가 맞은다고 그래싸믄 몰랐는디, 시상에 그렇게 신속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는 딱 요놈을 자고 일어나서 먹으래. 먹고 요것이 24시간 효력이 있는디 먹고도 안 들으면 또 요 약을 세 때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자 그냥 와갖고 하나를 먹었어. 그랬더니 괜찮애.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또 먹었더니 괜찮애. 그랬더니 요 약만 떨어졌네. 그 약 먹고 내가 밥맛

이 좋아.

시집와갖고 형겼에 받쳐서 고 녹두허고 예 팔하고 찹쌀을 딱 같은 노방주라고 있어, 옷 해입는 거, 여름에. 거따가 쳐갖고 비누를 썼어.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커피 스푼 반에 해갖고 물에 풀어서 얼굴에 찌끄러. 그래서 피부가 다 좋았어.

이종렬(여. 89세) |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요즘은 옛날보다 마음 편해

나는 시어매도 없는 데로 시집갔어. 나같이 산 사람 없어.

결혼은 여수서 했는디, 시무 살에. 처녀 때 농사짓고 살았지 거그서 배에는 안 다녀. 중매로 결혼했지. 연애결혼이 있가니, 서방 거시기로 살았지 안 그러면 못 살아.

우리는 인자 따로 살았고, 일 년 못 살았나 순천에서. 순천 별량면 서. 그때는 시가에는 농사가 없어 배 탔지. 배에서 그랬지.

요리 올 때는 큰아들 다섯 살 묵어서 왔나, 4년간인가 5년인가 살다가 왔나, 큰아들이 인자 쉰여덟. 여그 와서 고생하지 어찌 안 해. 그렇게 속상한 일은 없지. 없어도, 애기는 여섯이고 딸 셋 아들 셋. 밥 거스 그하게 묵고 못 산게로 넉넉한 놈이 없어. 다 보당보당했지. 15년 동안 자식들이 줄 때는 주고 뭐, 나는 인자 노인일자리 하고 살지.

살면서 재밌는 일은 없어. 뵈이 생각이 나. 옆에서 말한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애들 키움서 고생 많이 했어. 학교 땡길 때도 그랬고 머

압것도 없이 살믄서 다 고생했지 고생 안 한 사람 없어.

난 학교 가도 못 했어. 오빠들은 초등학교라도 나왔는디 가시내라 근가 나는 안 보내던디. 안 보내준게 못 갔지. 안 보낸 것이 보통이여. 오빠가 넷. 거그서 살 때는 꾀간한게 잘해줬지. 오빠들이 잘해줬어. 막내오빠가 여섯 살 더묵었는디 놀러 땡김서 거시기했는가 몰라. 큰 오빠는 부모나 똑같애. 그런게 나 뛰어땡기믄 딸하고 똑같이,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했지. 조카가 나보다 여섯 살 덜 먹었거든. 어디 가믄 똑같이 묵고 땡긴게. 허허. 시방 칠십아홉. 인자 넬모레 팔십이여. 거그서 계속 살다가 스무 살에 결혼해서 집에서 하다가. 음식 차려 놓고, 집에서.

그리고 나서 큰애가 다섯 살 때 곡성 와서 삼기에만 자리 잡고 거시기 탄 데로 가도 안 허고 여그서, 여그 옥과장에도 걸어 땡기고. 나 꾀간해서 친정어매 따라서 열차로 와갖고 걸어 땡기고. 곡성서 내리갖고 걸어왔어. 친정어매 친정이 여기 여 원등이 친정 본토지여. 그런디 인자 우리 이모랑 오수서 살았거든. 열차 타고 와서 걸어왔어. 몇 살 묵었는가 몰라, 온 것은 기억이 난디.

인자 교회는 심심풀이로 몇 번 나갔어. 우리 아저씨가 뭐 아파서 고생했지, 내가 시집와갖고 아파서. 죽을란 사람과 살다 갔어. 위장병. 뱃속. 사람이 붓어갖고는 아주 침엔 붓더니 나중에는 삐쩍 말라갖고. 저그서 살믄서. 첫애기 내놓고 순천서.

요즘은 인자 옛날보다 편해 마음이. 사는 것은 지금은—마음 하나
는 편한디, 나 하는 날까지는 일을 해야지 인자.

나는 인자 허리가 많이 아파, 다리도 좀 아프고. 다리는 아프긴 아
파도 심허던 았애. 근디 허리가 좀 아파.

곡성은 잘 안 가. 병원을 가도 옥과로 가지.

박귀선(여, 78세) | 삼기면 원동리

누워 있어도 건강하다고 해

안정순, 음력으로 오월 초삿날. 나이가 구십. 글서 아팠어. 수술을
해갖고 대장암. 나 열여섯 살에 결혼했어. 영감은 7년 차이 나지. 스물
셋인가. 좋게 살았어.

내가 인자 여그서 태어났어. 신랑은 저 목사동. 내가 오지리 상동 5
구. 여그 회관은 1구고, 나는 태어난 데가 5구. 그 동네 이름이 상동.

그때가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넷 딸이 둘인가 서인가. 그때는 제국
시대. 그럴 때는 재산도 없지 뭐. 그때는 나도 뭐 강 놓고.

야학당졌어 일본글. 여그 요 동네에 서당같이 그런 데로. 일본 사람
이 갈쳤지. 힘들게 안 해, 일본 사람이라도 좋아. 인자 우리덜은 못헌
게 안 한디 그 사람들은 조선말로 많이 하지. 일본 사람도 조선말로
배웠어. 학교 안 간 사람들은 야학을 인제 나와. 많지.

나는 인자 공출허고 그럴 때는 일본으로 시집을 가브렸어. 인자 울
집안에서 일본까지 중매를 했어. 영감은 조선 사람인디 일본 가 살았

어. 몰라 그땐 어렵게 힘들게 산지는 몰라. 부모들은 강 오빠가 저그 제재소에서 벌고 그래서 편히 살았어. 내가 인자 막둥이.

조선 사람한테로 시집을 갔어. 영감이 일본으로 회사 댕겼어. 신랑은 학교를 나왔지, 목사동서. 신랑 고향서. 내가 인자 첨에 시집갈 때 일본으로 바로 갔어. 신랑은 모냐 가블고 시아버이가 계심서 냐지, 나이가 있어갔고 안 해줘 못 가. 근게로 시아버이가 광주 어디까지 가서 나이를 열아홉으로 옮겨갔고 제국 갔어. 결혼식은 신랑이 요이 나왔지. 나는 인자 얼른 안 간게 목사동 옛날 사당에도 가고 그랬어.

우리 큰집이, 시댁 큰집— 시부모도 다 일본에 있었어. 살지는 않고 댕겨갔고 친정 와 있었지. 그래갔고 그해에 일본으로 갔어. 이월달엔 가 갔어. 아학을 한게 알아듣고 아리가또 그런 거이량은 다 해, 조께 해. 일본서 나도 회사 댕기고, 그때가 공출할 때여. 오빠들도 일본서 있고 그랬었어 큰오빠랑.

영감이 어떤 회사 댕겼는지도 몰라, 나는 유제 사람들 조선 사람들 많이 살아, 그런게 같이 갔어. 일본 사람들도 좋아. 그때는 거시기를 안 한게. 그런게 나도 회사 댕겼지. 가마니 이려고 틀로 박은 거.

얼마 준지는 모르게 전차 타고 댕기면, 표를 한번 끊어 노면, 한 달치를 끊는다든지 하고 그래갔고, 기억은 안 나는데. 조선 사람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아. 몇 시에 간지는 몰라도 전철 타고 가서 딱 내리고, 한 달에 월급 주지. 힘은 안 들었어 경제적으로. 해방된다고 또 3년 만

에 나와뵈어, 무섭다고. 얘기는 거그서 안 넣고 임신해갔고 여그 와서 났어. 한국 사람들까지 가서 어울려서 살고 그랬지. 돈이 조께 있는게 안 죽은다고.

여그 온게 모 심더마. 그래갔고 와서 삼월에 나와갔고 삼월에 큰아들을 났어. 목사동으로 갔지. 목사동이 고향이여 영감. 시부모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나왔어, 여수로. 배로. 시간을 알가디?

목사동 와서 농사뻬에 질 거 있가디. 저그 목사동 거그 범계라고 하는데 있지. 다 나왔지 같이. 벌어갔고 와서 첨에 여그 와서 뵈이 없은게 저그 가서 지게 맨게 가서 사 오고 그랬어. 집도 없은게 빈집이 있으면 고쳐갔고 살고 논전답 많이 사갔고. 아저씨가 일을 잘 못해. 그러고 또 이장만 하고 그래논게 일을 잘 못헌게 여그 와서 지게질을, 그래서 요리 이사를 왔어. 일 안한다고. 거그서 애들을 다 나갔고 왔지. 오래 살았어 목사동서. 나 첨에 아들만 셋 낳고 딸 낳고 또 딸 낳고 해갔고 6남매 났어. 시집살이 안하고 좋아. 논도 많이 샀어. 거그서는 부자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얘기를 봐준게 편히 살았지.

나는 일만 해, 논농사 밭농사. 그때는 뭐 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해야지 돈이 돼. 석곡으로 장을 다녔어. 걸어 다녀. 십리가 조께 못 돼. 다이고 지고 남자들 막 그러고 가. 시장도 같이 가쁜 나 술을 못 묵은게 술국물에 두부랑 해서 주고 그래 아저씨가. 사랑받고 살았지. 학교는 인자 평리학교로 다녀.

나는 인자 질쌘도 말도 못 하게 했지. 시어머니가 미영 같은 거 자 사서 해주면 나는 배만 짜. 품앗이했지 밤에도 낮에도. 삼 삼고 미영 삼고. 안 싸워보고 영감한테는 사랑받고 살았어. 또 애들 소풍 가든 김밥 싸 준 것이 제일이지. 김은 있지만 당근 같은 거는 안 넣고.

아그들 학교 가든 아그들이 공부를 제법 했는갑서. 그러든 엄마 나 오라 그래. 운동할 때, 다름질하라 글든 내가 옷길라고 가운데로 달아 틀든 또 웃고. 아그들도 책도 다 따갔고 와. 달리기도 하고 오저미 열 기 하고. 또 아저씨가 이장을 한게 학교도 자주 나가고. 동네 뭐 비료 나오든 갈라주고 뭐 나오든 갈라주고 그러지. 몰라 돈은. 지금은 돈이 많이 나온다더마.

이장 허든 일해 줘. 사람들이 아침때 한 집 저녁때 한 집 풀 모아주고 밭에 하고 논에 하고. 소 맥이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옛날에는 아랫채에가 막이 있어. 소죽 끓여주지. 소 키우고 배 짜고 애기 들 갈치고. 시집장가 다 보내갔고 손지 다 보고. 이번에 막둥이딸이 서울서 왔다 오늘 갔구마.

내가 마흔여섯에 요리 왔는가, 지게질 안 한다고. 농사짓기는 지었 지만 리아카를 몰고 다녔지 여기는. 근께 친정 동네서 담궜어, 목사동 은 골짜기라. 여그는 지게를 안지어도 돼서. 오곡국민학교는 막둥이 만 땡기고 저그서 아들 다 다녔지. 저그 죽곡 저그는 창촌, 저그서 땡 기고 여그 와서는 딸들 중학교 고등학교 땡기고 막둥이랑. 농사만 했

지. 친정이 가까이 있어서 여그는 의지가 되지. 품앗이도 하고. 저그 반란군들 온다고 해도 산중에 산다고 해도 우리 집은 안 왔어. 시암에 나가든 반란군 왔었다고 그래. 우리 밑에가 시암이 있어. 동에다가 이 고, 첨엔 통에다 하고 내가 들고 땡겼지 그런게 옷을 다 배리고 그래. 샘이 커도, 커 공계로. 막 인자 저그서 빨래하지. 거꿀로 막 푸다가 물 구나무를 서. 또랭이 없은게 빨래하고 김장도 저그서 아니 저리 지게 로 지고 올라가서 김장은 냇가에서 해. 장갑이 뭐여. 저고리 입고 치 매 입고. 하기 몸빼도 그때는 없었잖아.

뭐, 저그 뭐 우리 아들 임신해갔고 와졌거든. 근디 날마다 배가 요 래갔고 밥해 묵을라고 쑥 캐러 땡긴디 막 부사갔고 막 살이 속으로 들 어가. 죽 묵고 못 묵었지. 그때 막 쑥죽 해묵고 그랬지. 쑥이 몸에 좋 대. 인자 뭐 없어.

그래갔고 여그 와서 영감 이장도 하고. 또 저그 목사동 행사 있으면 가지. 대소가 몇 개지. 시어머니 시아부지는 저그서 돌아가셨어. 아그 들어고 여그 왔어. 여우는 것은, 지그들이 여우는 것도 있고 큰머느리 랑은 목사동서 얻어서 서울로 올라가블고.

영감은 인자 나는 칠십일곱이고 할아버지는 팔십네이 돌아가셨어. 병원도 안 가고 노안으로 돌아가셨어.

나는 서울 아산병원에 가 팔십에 대장암 수술했단게. 여그서 변소 가 늘 가고잡더마. 근께 여그 사랑병원을 간게 보호자 데꼬오라고 해.

그때 우리 딸이 읍에서 가게를 봤는데 옛날 저 뒤에가 의료원이, 근게 봤을 땐대. 큰놈을 못 봤다고 큰병원 가야 된다고 한게 서울에다가 전화를 했다고 해. 그래갖고 아산병원에 가 수술을 했어. 근게 땀날 누워 있어. 요래도 건강하다고 한대요. 약으로 살아.

막둥이 아들이 기상청에 멩기고, 용돈도 다 많이 주고 맛난 것도 사다 줘 자녀들이.

안정순(가명 여. 95세) | 오곡면 오지리 5구

스물여덟에 혼자 돼서

김순희. 2월 7일. 구십삼 세야. 열일곱 살에 결혼했지.

내 친정은 삼기 월경리. 형제는 다 돌아가시고 나 하나 남았지. 태어날 땐 언니 둘 오빠 하나 나 하나. 다 돌아가서븐게. 농사짓고 살았지. 막둥이딸로 태어났어. 태어나갖고 할아버지가 한문 선생을 헌디 내 또래 머스마들이 열이 공부를 헌디, 그중에서 나 하나 여자 하나 공부를 했어. 한문 공부를 다 배우고 나면 책자를 딱 덮어놓고 외래. 머스마들은 하나 둘 틀리고, 하나 틀리면 할아버지가 매초리를 때려. 나는 한 번도 할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 사랑방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머니보고 저놈이 머스마 같으면 얼마나 좋겟냐 그래. 어찌게 영리하냐고. 한문을 다 외와분게 좋아리 한 번도 안맞고 공부를 잘 헌디. 글구 또 초등학교를 3학년 때 입학했어. 제국시대.

인제 초등학교를 3학년으로 들어간게, 삼기국민학교를 간게, 인자 3학년 들어간게 일본말을 일본 선생한테 배운게, 뵈이라고 해. 3학년

때 딱 들어가서 일본글을 모른게로 뭐라고 해. 근디 내가 이제 배운디 배와야 알지, 하고 말했지.

4학년 땡가 5학년 땡가 인자 일본놈들이 그때 해방이 돼서 다 쪼께 들어가브렸어. 근디 인자 말하자면 5학년 때부터 국문을 배와. 그래 갖고 6학년 졸업하고 있다가 친정에서 선산에 나무를 많이 쳐놓고, 나무를 치러 가는데, 낮에 인자 다 짊어지고 실어다 놓고 점심식사를 시킬라고 올케가 반찬을 얹혀놓고 불을 때라 그래. 그리고 있는게 우리 동네 어떤 양반이 상감을 데꼬 와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게, 뭘 여자 공출 나왔다고 그래. 나는 인자 또 불 때다가 서 있어. 그 양반이 뭐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고 나 보러 온지 모르고 여자 공출 나와서 저놈 뺏기면 어쩔까나 그래.

알고 보니 우리 시아버지가 아들이 군청에 다니니까 좋은 놈 소개 해 달라고 한 거여서 나를 소개를 했어. 그래서 나를 불라고 상감을 보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근테 인자 알고 본게 나 보러 왔대 나. 그래서 그나저나 아들을 며칠 후에 보낸다고 하고 아들이 봐야 한게 그러고 갔는갑서. 그때 아들은 군청 다니고. 그래 갖고 아버지가 상감으로 있는게 군청으로 딱 보냈어. 그래서 며칠 뒤에 무슨 양반이 오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나는 그때 오지린 줄 알았는디 탐튼 총각이 큰애 저놈 보러 오니까 옷이랑 깔끔하니 입히소 해. 그전에는 배를 많이 난게, 배를 인자 마당에 길게 추려 널고 있어서 총각이 나를 보

러 와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군청에서 왔단게 군청에서 나락 보러 온 줄 알고, 실상은 처녀 보러 왔는디.

그 총각이 맘에가 있는게 사성을 보내브렸어. 나는 열일곱, 총각은 스물한 살. 네 살 더 묵었어. 그렇게 결혼해갖고 일 년간은 친정에서 묵혀, 마당에서 쪽도리 쓰고 구식결혼으로. 신랑은 관대 입고 결혼식 하고 사흘날에 처갓집엘 와서 신부리, 하룻밤인가 자고 갔는가 몰라. 그래 갖고는 친정서 일 년간 있다가 정식으로 요리 와갖고 내 살았지.

그래 갖고 시집을 온게 시누 셋, 시어매 시아버지, 신랑, 나 일곱인 갑네. 우리가 서씨 대종손이여, 이촌 서씨. 그래 갖고 인자 옛날에는 부자다 해도 시아버지가 별고, 강 겁나게 부잔지 알았는데 논 서마지 기뻐에 없더라고. 금계 인자 발마지기가 있었는데, 종답을 우리가 지었는갑서. 며느리 하나니께 나가도 아니고 나는 시집살이 하고 살았지. 배도 안 배워갖고 왔는디, 우리 시어매가 나 배도 안 짚단다 하고 면을 내놓고 당신이 나 갈칠라고 배를 짜터라고. 딱 옆에서 보면 애가 터져 죽겼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군청에서 저녁에 오시더니, 나보고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배와라, 했어.

나는 학교만 땡기다가 바느질만 배우고 친정에서 그랬제. 여그 와 갖고 바느질 하나도 안 되고, 사당까정 있어갖고 신주를 세워놓고 배밭에다가— 그래 갖고 우리 새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와서 떡국 끓이고 대접해야지, 술대접해야지 다리 동동거리고 에휴~.

금계 인자 애기 낳기는 다섯을 낳지. 인자 머시매 하나 가시내 하나는 죽어블고 아들만 셋이 컸는디, 우리 신랑이 말하자면 군청에 면에 가면 면장들하고 뵈을 다 거시기한다마. 군청에서 인자 면장들은 앉는디 강연을 했다. 그랬는디 찌렁찌렁허더니 보고 있는게 말소리가 작아지고 이상허더라. 혈압이 거시기혈라고 거기서 혈압으로 떨어져브렸어. 그래서 군청에서 병원으로 실어다가 주사 맞혀놓고 인자, 친구가 와갖고 우리 신랑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나는 집만 보라네. 글고 어무니 아버지만 가고. 막내아들이 세 살 때,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1학년 때.

그때게 인자 병원에서 틀렸댕게 치르러 가라고 그래서 나는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 막동이 세 살 때. 그 이후로 뭐 죽드라고 시아부지 시어매랑 살았지. 신랑 죽고도 오월달인가 논에다 보리를 승귀논게 내가 쌀밥만 해먹으면 거시기한다고 보리를 훑어서 와서 비비려고 한계, 3구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짜. 고놈 보리를 훑다가 들어외웠어. 그런게 어무니가 왜 오냐 그래.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저년은 서방 죽고 밥 쳐먹으려고 그런다고 쳐다봐싼게 들어왔다고, 고려고 살았어.

금계 인자 내가 중학교 갈치지, 큰아들 광주까정. 농사진 놈 갖고 대갈박에 이고 댕겨서 시장 가서 갈쳤지. 시아부지도 정년퇴직해블고. 쌀 열 되를 이고 가서 사고, 팔고 해서 갈쳤지.

큰아들은 광주 광고 나왔는디 또 둘째가 광주공업학교를 내갖고 고리 간다고 그래. 그래갖고 아들이 여그 고등학교 가거라. 엄마가 겁나게 힘들다 해갖고 광고 원서 사 왔는디 여그 곡성농고를 보내논께, 공부 잘한 놈들이 다 나가븐께 둘째가 여그따 너논께로 공부를 안 허고 친구들만 데꼬 댕기고 공부를 안 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아서라도 광주공고에 보냈으면 출세를 했을 거인디 허고 후회를 해.

그래갖고 인자 서울로 돈 번다고 가갖고 올라가고 막동이만, 인자 서울까지 첫째가 대학을 간다고 돈을 가져가고 막동이만 중학교 등록금을 못 냈어. 근디 첫째가 이제 돈을 내려보내고 공군으로 군대를 가블고. 동생들 줄라고—.

중학교를 보낼란다, 그때 인자 선생질하는 저그를 쫓아가서 말을 하고 힘써달라고 한계로 교장 교감하고 타협을 해갖고 들이보내 달라고 해.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성적이 되니까 그것을 보더니 교장선생이 여기 보결로 들여보내라고 쫓아가서 열 명 토해내고 요런 영리한 놈 한 명 보낸다고 하고 들여보냈어. 둘째가 이제 영어를 갈치고 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해브러. 그래서 또 고등학교까정 여그서 댕기고, 나도 다른 성들을 생각해서 언제나 뉘우치고, 공부할 맛 안 나지만 자격증을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고 막동이가 그러고 군인을 가브렸어.

인자 막동이가 군인 가고 둘째가 서울서 결혼해갖고 큰애 하나를

얻어갔고 곡성으로 와서 사는데, 내가 친정애를 정월에 갔다 온게로 둘째가 말해. 셋째가 월남 간다고 기별이 왔어. 그래서 그냥 답답하고 어찌냐, 참말로 월남을 시방 간다냐 어쩐다냐 하고 뭐 가졌고,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아들이 월남서 편지가 와. 애인이 있어서 편지 자주 오냐고 전해주는 사람이 그래. 근디 애인이 있어서 근게 아니라 엄마 혼자 아들 셋을 키운다고 내가 엄마한테 편지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디 부모한테다가 사흘거리 보내고 사흘거리 보내고 하나고. 몇 년을 했는가, 그래서 제대할 때 돼서 왔어.

아이고~ 그때는 애가 터지면 점쟁이가 어무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뭐 잘 붙어 있다고. 또 가면 또 그러고. 월남 가갔고도 만날 사무실서 전화만 받고 작전을 한 번도 안 나갔대. 월남서 으서 뿔을 막 요런 통이랑 막 오더마. 담요에 뿔에 해갖고 와서 인자 막둥이가 여그서 살믄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 큰아들은 공군으로 제대해서 세무서로 시험에 들어가블고. 저 막둥이가 목사동면으로 가라고 발령이 왔더라. 근디 군청으로 쫓아가서 군수영감을 만나갔고 가정형편 이야기를 다 했대 인자.

내가 스물여덟에 혼자 되었어. 생전까정 이려고 살아. 새끼들 어찌라고 시집도 안 가고. 그래갖고 인자 큰아들은, 인자 시아재 소개로 해갖고 충청도 양반들 집안에 큰며느리가 오고.

인자 막둥이가, 인자 말하니까 내가 군인은 3년간 월남 가서 마치

고 왔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함서 엄마랑 따르는 안 살랴요, 군수님보고 하믄, 나 몇 달 뒤라도 곡성면에다가 해주라고. 그래서 군수님이 이렇게 착한 아들 그래야지 하고 한 달 지나니까 곡성면으로 발령을 때려브렸어. 곡성면장이 우리 아들 똑똑한 놈인게 잘 갈치라고, 군청으로 데려갈란다고 일 년 뒤에. 그래놓고 6개월도 안 돼서 데려가브렸어. 그때 막 자전거 타고 다닐 때. 그럼서 군청으로 다니고 그래갖고 인자 군청에서 매 근무하다가, 과장까정 하다가 인자 정년퇴직했었어.

결혼을 할란다, 학정리 저기 집안으로 결혼할라 한디, 근디 또 안 시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둥이 하나는 내가 좋은 데로 결혼을 시켜야지 글고 내가 계속 트집이를 잡으니까 아들이— 어무니, 어무니 가서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야지 하고 저기 교회를 다닌디 나 이제 교회 갈라네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찌게 갈라가 해. 내가 자청해서 교회를 가. 그래갖고 인자 교회를 나가갖고 본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면 아버지 외에는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마라, 그래. 저녁밥 먹으면 성경책 읽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 아이고, 여자가 사당 어쩔 지여, 혼자. 그리고 초저녁부터 딱 2년을 기도를 해갖고, 그래서 딱 2년을 기도를 하고 난게 저기 간계로 할아버지가 제셔서 저 오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한단 말이, 저그 사당 가지고 사나라고 고생도 많았어. 그러니까 저기 사당을

없앨라네 해가지고 속으로는 감사한디 겉으로는 아이고 왜 그러시오 그랬어. 딱 음식만 장만하소. 그래서 날짜를 받아줘서 음식을 장만해서 딱 3대 어르신들 싸 갖다 음식 차려놓고 개모를 인자 밑에다가 묻어붙고, 사당 신주들을 배밭에가 사당이 있는데 개모를 갖다 모셔본게, 딱 그 신주를 빼본게 사당이 와르르 무너져버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을 해.

아들은 학정리로 장가를 보내고, 손녀 먼저 낳고 딸 둘 더 낳고, 서이 낳고. 막둥이가 군청 댕기면서 너이를 대학원까정 다 갈쳐브렸어. 큰딸은 인자 대학교까지 전대 인자 수학과인가 영어과인가 공부 잘해서 다 장학금 따고, 아들은 포항공대. 애기들이 영리한게 포항공대 대학원까정 다 나오고, 아들이 나 디꼬 포항을 가서 아들 며느리 내외에 너이 가잖아. 속으로, 아이고 우리 손지 방이 얼마나 넓을까나 속으로 그랬는디, 가다가 학교 옆에가 딱 포항공대 문에 들어간게 손지가 나오지. 나 졸업할 때 몇명이 옵니다 하든 딱 살림살이를 다 잠자리까정 만들어놔더라고. 며느리가 쌀이랑 반찬까정 다 싣고 가서 졸업장을 받는다. 아구미, 저렇게 좋은 가운을 입고 손지가 졸업을 한다. 막둥이 아들이 그래. 또 우리 손지가 대학원을 다니면 가운이 다 립니다 어무니, 그래. 아구미, 그래~ 그러니까 그놈이 대학원까지 나와갖고 대구 대학교 교수여.

나도 보청기를 하나 낄란게 안 된가 잡음이 생긴께. 근게 인제 혼자

살믄서 아들들 셋을 딱 쟁여놓고 권에는 하나님을 안 믿은게로 저기 매사리가 점쟁이가 있다고 해갖고 거그 당파 아지매하고 애기들을 재워놓고 아침밥까정 싸갖고 갔어. 점 보러. 걸어 땡겼지.

저 점쟁이 집으로 간게로 우리 집 양반이 나온다 그래. 아니 누가 나를 찾으러 왔냐고, 내가 웃음서 예, 뵈이 바빠서 그러고 가서, 당신은 혼자 가서 그러고 있소, 그런게 야 이 사람아 나도 바쁘네 이래. 야 죽어갔고 뭐가 바빠, 이러니까 뭐이다가 바쁘대. 나도 이제 당신 부모한테 새끼들 맡겨놓고 새 출발할라요 그래. 그런게 자네가 그런 소리 해도 자네는 죽어도 안 간게 안 간지만 알오라 그래. 그런데 내가 이제 나도 갈라요, 당신 살아 있는 줄 아요?

그래갖고 인자 예수를 믿어분게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 딱 지삿날이면 뭐 장만 안 허고 나 묵을 만치만 해갖고 — 인자 내가 혼자 산게 아래로 히혈을 3년을 했어. 정원 초하룻날, 열한 날, 열셋 날 지사 그래. 보름 세면 지사가 돌아와서 너물 다 볶아 넣고 저녁밥까정 하고 어머니 아버지 채려 주고 묵고, 그 부석으로 들어가든 방이 뜨끈뜨끈 해. 저녁 되든 허리가 내려앉으블라 해. 거기가 누워 있는게로, 시어미가 무뚝뚝해서 나보고 가! 그래. 지삿날 저녁에 고로고 누워 있다고 그래. 내 방에 불도 안 때고, 정월달인게 얼마나 추워. 음식은 다 나보고 하라고 함서, 내가 우리 집에 불도 안 때고 이 불을 깔고 또 깔고, 저녁내 얼마나 울었는가 눈이 땡땡 부어버려. 딱

둥이시누가 성, 지사 다 지냈다고 큰방으로 오시래, 이러면 내가 죽어도 내 방에서 죽을라요, 안 간다 혀. 하이고 내가 인자 시어매 초상 손자 뒷바라지함서 시방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연락도 못 히고 밤새 나 혼자 날샌게 돌아갔지. 하나님이나 알지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큰아들한테서 난 아들이, 저 천안 대학병원에서 큰손지는 의사로 있어. 예수 믿고 얼마나 축복받았다고, 인자 내가 뒷도 생기면 인자 목사님을 먼저 갖다줘브리.

택배를 끌러갖고 본게, 소고기를 요만뜩 해갖고 가져왔어 택배가. 내 옷 보냄서 아들이가. 이제 예수 믿고 편하게 살아.

김순희(71령, 여, 95세) |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클 때는 호강했어

임계령. 생일은 9월 2일, 나이는 아든네 살이여. 내 나이도 잘 몰라. 스무 살에 시집왔어. 내 원래 친정이 고달 백곡이여. 백곡 하백. 큰 동네여.

내 형제간들은 5남매여, 둘째딸로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는 농사졌어. 학교는 안 갔지. 내가 안 간다 글서 안 갔어. 우리 할아버지가 가이 내들 학교 보낸다고, 언니를 학교 보냈는디 눈물을 짜싸서 나는 학교를 안 갔어. 그레갖고 눈물을 짜싸서 학교 보낸다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안 갔어. 돈 벌러는 안 가고, 머심이랑 두고 살았지. 심바람이나 시키든 심바람이나 하고 그렸지 뭐 서럽겐 안 컸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콤서는 호강하든서 컸지. 머심들은 나무해 오고 풀 뜯어오고, 머심들 밥은 막 이려고 담아 주지.

오빠허곤 안 싸왔지 언니하고 싸왔지. 그렇게 막 혼나게 싸우고 그러진 않았어. 우리는 진짜 그냥 콤서, 조심은 했지만은 그렇게 시집살

이하고 살던 안 했어. 스무 살까지 친정에서 그러고 살았어. 연애 안 하고. 요 동네가 할매 친정인디 할매 친정동생이 중매를 했지.

얼굴도 모르고 왔지. 중매쟁이가 와갖고 뭐 옛날에는 가이내들을 아주 가둬놓고 키우다시피 했는디 뭐 할 얘기도 없지. 장개를 와. 그 래갖고 묵혔어 일 년을. 또 옛날에 맞선 본 사람도 있고, 결혼식이 끝나갖고 대반은 오빠가 앉았지. 앞에 인자 장가를 오면, 대반을 남자만 안겨 오빠만. 절을 여자는 네 자리 하고 남자는 두 자리 하고.

영감은 넷째로 컸어, 5남매 중에. 시집온게 시아버지 그때 계셨지.

나도 5남매 났어. 다 커서 시집장가가고, 귀는 들린다 뭐 다 컸는가 뭐했는지도 모르고, 고생 안 하고 키웠지.

임계령(여, 87세) |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전쟁도 겪고 파마도 하고

나는 곡성에서 태어났지. 남원서 상할아버지가 살다가 여 곡성으로 이사를 왔는갑더라고. 우리는 곡성서 태어났지. 거이 인자 그때는 오곡면으로 내려와갖고, 오곡 묘촌리라고 지금은 읍으로 변경되었제. 나는 묘촌리에서 태어났지.

금께 할아버지 상할아버지 때 곡성으로 이사 왔는 거 같아. 할아버지, 뭐이나 아버지 때 곡성에서 자리를 잡은 거 같아.

근디 이자 그 동네서 다른 양씨들이 부자로 잘살고 다른 성씨 가진 분은 몇 사람 안 돼. 박씨, 선씨, 노씨. 그리고 이십 몇 가구 된데 양씨들이 많이 살았는갑더라고. 상할아버지니까 몇 년도냐, 남원 못 가서 선산이 있는갑더라고.

나는 인자 국민학교 일제 때 다니다가, 오곡국민학교라고 시방 앞 냇가 건너서 오곡면으로 돼갖고 묘천리로 돼갖고 있는데, 인자 앞 냇가 알지? 다리 건너 그쪽으로는 묘촌리, 이쪽은 곡성이지. 인자 오곡

으로 많이 멩겨. 나는 오펑 멩겼어. 궁께 그전에 중양교하고 서교하고 갈라서 그러대끼 오펑국민학교로 멩긴 사람 있고 중양국민학교로 멩긴 사람 있어. 멩산저수지에도 면단위 학교가 있지. 다 폐쇄돼블고. 다 합해브렀잖아.

나는 멩산 거그는 곡성서 일제 때 일본놈들이 봤나 보더라고. 나로 해서 아버지 때 일을 했는갑서. 일본놈들이 근께 단단하게 지었는데 지금은 개조를 해브렀잖아. 손녀가 왔을 때 내가 말을 해줬구나. 육이오 때 할머니 집이 묘촌에 있는데 곡성서 이밭소 건너서 저그 아버지 묘에 갈 때 산이 있잖아, 거그가 곡성서 쥔로 다 보여 밑에가. 높아 가지고 남월까지 다 보인디, 육이오 지나고 군인 본부가 생겨서 저녁으로는 반란군이 숨고 또 내려오고 해. 집안사람들 폭도들이 다 데리고 나가갓고 지금은 폐쇄돼갓고 우리는 그 밑에 동네서 살았거든. 밤으로는 육이오 지나고 반란군들이— 빨갱이라 그래, 목을 것을 다 내려와서 떨어가. 위협하든 안 히고 그냥 길썸해서 담아서 찬장에 여는 놈 다 가져가블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블고 쌀 같은 거 다 소도 가져가고.

우리 동네는 그런 일 없는데 멩산 대추나무 사람들은 낮에는 농사지고 저녁으로는 내려와. 산에가 숨었다가 목을 것 가지러 내려오든 곤란한께 쌀 한 주먹 다 퍼갓고 갓고가고. 도림사 높은 산에도 불을 퍼놓고 그래. 옛날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서 위험한 게 거의 없지. 내

가 그때 뭐 몇 살인가 몰라, 지금 팔십이니까 그때가 기억이 안 나네 어떤디.

일제 때 일본글 좀 배우다가 해방되어브리갓고 일본말 안 배우고 한국말 배우고. 인자 내가 몸이 아파갓고 졸업을 못했어. 그런께 인자 졸업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나는 해방되어브리갓고 몇 살인가 모르 것네, 학교를 마치는 못했지. 우리 또래는 많이 중퇴한 사람이 많아 근께.

나는 도림사로, 그때만 해도 오펑에서 도림사를 걸어 다녀. 저수지로 소풍 가고. 멩산저수지가 참 좋다, 방죽도 높고고. 글고 열매나 걸어가는디 다리가 아프잖나. 그때만 해도 도림사 신작로로 걸어 멩겼어. 그래갓고 인자 땅고개라고 주막이 두 개가 있는데 저녁으로 내려와서 반란군들이 히고, 전투본부에서 막 감시히지.

그래가지고는 육이오 때 우리 큰집이 쥔로 잘산디, 마당에가 경찰서에서 쓰는 박격포가 폭 떨어져서 요만치나 패였더라 둥그럼해갓고. 떨어지면서 납 같은 것이 팍 터진갑더마. 할아버지도 좀 다치고. 큰집에도 할아버지 방에 입구 들어온 데만 할까 방문 저 배란다만치 떨어졌어. 포탄이 납덩어리더만. 큰집은 손해를 많이 봤어. 또 나로 해서 오빠 올케가 반란군들이 밥을 해서 갓고 오래. 그래갓고 가다가 포탄이 샘에서 낮에 떨어져서 팻속으로 바로 들어가블면 죽었을 건디 뭐 스쳤지.

애기를 또 업고 큰집으로 가는데, 떨어진게 옆으로 가는데 하나만 있는지 알고 가는데 저그 정형외과 병원 자리도 옛날부터 병원인데 은행나무랑 싹 다 개조해버려서 옆에가 포탄이 또 하나 들어서 죽어 났어. 큰집에도 머시마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갓고 조금 있다가 죽어 틀고. 큰집에 박격포 떨어지고 나서 피해가 많지. 그 자리서 죽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옷집에 살았어. 우리 집은 나중에 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친 적은 없어. 군인들이 거그서 물지게를 져다가 우리 집 있는 쪽에 밥 해먹는 데를 지어갓고 군인들이 교대로 밥을 해갓고 묵고.

일제 때는 일본 사람들이 많지 경찰이. 근디 인자 육이오 때는 그 사람들 들어와갓고 집안 폭도를 잡고 인자 그래갓고 많이 그렸고, 자수하면 안 죽인다고 해갓고 그 경찰서로 자수하러 들어가고 막. 죽곡 태안사로 몰렸는데 태안사도 군인들 많이 죽어났잖아. 그래가지고 많이 죽고, 또 뭐이나 생각이 안 나네. 몰라 인자. 저그 경찰서서 뭐 쓰든 군인 본부가 있으니까 우리 집 쪽으로 많이 떨어진다 해서 앞산이 산이 흰해서 내 동생허고 오빠허고 조카네 방앗간에 업고 앞산으로 피란 가서, 명산 가서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왔지. 그래갓고 공무원이 랑 다 숨어갓고 그랬지만 자수하든 안 죽는다고 해갓고 시누이집 그 니가 애들 고모부도 디꼬 나가서 삼인동 저기서 데꼬가서 묵고 총살 해버렸지. 시누이 남편도 잡아갓고 반란군들이 죽어났지. 북한서 밀

고 들어와갓고 많이 죽었대. 가족들이 시체를 찾아봐도 산 사람들을 구멍이에 파묻고 그래서 시체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시체 찾아다가 대강 물어본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저그 제일 큰오빠가 징용으로 만주가갓고 지금 같으면 말하자든 군인 뽑아가듯이 그래갓고 데리고가버렸더라고 일본놈들이. 나는 인자 셋골 언니랑 다 함께 살았지. 나는 인자 나로 해서 아버지가 8남매여. 그래서 큰아들이 아니니까 할아버지허고는 함께 안 살지. 우리 아버지허곤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 형제간이 아들 넷 딸 넷 해서 8남매래. 아버지가 둘째아들이고, 누나들도 있다더라고. 아버지가 우에 아버지가 있는게 모시지는 않았지.

나도 인자 자세히 모른디, 군인으로 한 번 휴가 나왔다 간 걸 봤어. 그러고 해방됐는데 그 뒤에 어째서 죽었는가 모르겠다고 그러.

인자 어릴 때는 부잣집이라 고생 안 했는데, 저그 나로 해서 상할아버지 고리 할아버지 형제간들이 삼형제였나, 아버지에서 할아버지가 거그도 사형제 중에 큰아들이나 그러. 우리 아버지가 말하자든 누나들 있는데 아들로 해서는 둘째잡더라고.

나는 우에 오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빠를 먼저 보내고 스물한 살에 결혼했지. 그때는 늦었지. 오빠를 결혼시키고 한 2년 있다가 나를 결혼시켰지. 친구들은 일찍 결혼한 사람은 열일곱살에 결혼했지. 우리포레나하고 동갑짜리가 한 날에 결혼했어. 다른 데로 시집가서 죽

동에서 살아. 아들딸들이 광주가 있어서 딸네 집에가 있더라고.

나는 인제 중매결혼이지. 남편 얼굴 못 보고 결혼했지. 우리는 작은 아버지— 나는 덕동이었는데 저그는 읍내 칠구였지. 작은아버지가 읍에 와서 살아서 소개를 해서 얼굴을 못 보고 결혼했지.

그때 인자 파마가 유행이었는데 나는 또 파마를 못하게 했잖아. 결혼해 갖고 와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얼굴이 달라졌다 이거여. 결혼해서 3일 만에 미용사 데라와서 파마를 해브렸지. 인자 근데 구식결혼을 하는데 비녀 꽂고 그러지. 근디 나는 시집와서 파마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다고 그래. 지금 그렇게 머릿수가 많아 큰애기 때도 두 갈래로 따갓고 찍은 사진이.

밤에는 또 나와갖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게 유행이었어. 그때만 해도 군청 뒤에 사진관에 밤에 가갓고 찍고. 머리 따갓고 찍은 사진도 몇 개 있는데 여그 큰이모 딸이랑 일을 거스그한게 간호도 해주고 이준마들도 데리고와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구식결혼한게 맘대로 못해.

처음에 인자 상 차려다 따로 줘서 얼굴을 침에 봐. 저녁에 손님들 끝나고, 그러고 이야기하다가 자지. 그것이 구식결혼이여. 지금은 신혼여행가고 그러지만. 근게 웬만한 사람들 다 머리를 못 자르게 해. 나는 머리술이 많아서 저고리 달만치나 하든 잘라브러.

친구들하고 저녁으로 영화 보러 나가고 사진 찍으러 나가고 그래.

봄에 화전놀이하러 다니고. 옛날에는 봄에 못자리를 해갓고 인자 동네 샘물 내려간데 미나리를 송귀서 못자리 나락 씨 뿌려논 데다 화전하러 가든 집집마다 쌀을 거둬서 동네화전이라고 일을 해놓고 도림사로나 밥을 해갓고 명산저수지 그리도 가서 장구 치고 춤추고 술 한 잔씩 하고 놀지. 걸어서 동네까지 와 그러고. 저녁에도 장구 치고 춤추고 뛰어 놀지.

그러니까 인자 남자들은 머슴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따로 하고. 하루 놀고 그 이튿날 속풀이한다고 후루라 그래. 또 먹고 놀아. 모 송구먼 또 대나무 큰놈에 벨헌 줄 해가지고 또 농악— 테레비 나오잖아 부잣집들 또 와서 나쁜 기운 쫓아낸다고 굿을 하고 뽕뽕 돌고. 부잣집은 말이 있어, 그걸로 쌀 한 말씩 내서 놓고 북을 두들고. 쌀되가 말이라 그래. 여그다 쌀 뒷박에 고봉으로 해갓고 열 개가 들어가든 말이라 그래. 똥그래서. 고봉으로 놓고 깡뽕이 치고 징 치고 해갓고 마당놀이 해준다고 그러고 살았어.

우리들은 또 가게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맘에 든 사람끼리 여름에 인자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오월달이나, 쌀 얼마씩 갓고 해갓고 목을 거 사가지고 도림사 가서 놀다가 와. 한 네다섯 명이. 글고 또 충혼탑이란디 학교산 이쪽에, 저그 제각이 하나 있어 동네 뒤에가. 거서 또 술 받고 목을 것 사고 해서 하루 내 놀다 오고 후문을 해. 어저께 도림사가든 음식 장만해갓고 오늘 또 가고.

여그 목욕탕은 냇가에서 하고, 집에가 물 질어다 하고, 집 안에 또 물이 안 나와. 돈이 없고 그런게 사람이 파가지고 독으로 두루박해갖고 저다가 고놈을 싼 기술자로 해서. 또 샘들이 지금은 다 없어져봤잖아. 부잣집은 샘을 파노면 머슴보다 낫대. 근디 샘 못 판 사람들은 옹구그릇에 이고 물 질어다 나른 것이 일이어. 정제다 놓고 계속 물을 하나씩 채 와. 소 키우고 개 키우고 그래도 그릇 시친 물을 안 버리고 소가 묵어. 그릇 씻는 것도 나무로 해갖고 가운데가 찜크대같이 옴팡하니 있어. 그럼 또 나무로 양쪽에 그릇 시치고 밑에서 그 물을 받아 내. 글면 이쪽에 또 나무로 통 맨들어서 철사로 매갖고 그릇 씻친 데 이쪽에 놔두고 살았어. 저녁때로는 초상이 나도 상복치마 입고도 바계쓰로 물 질어다 날랐당개.

옹구 없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릇 사시오~ 이고 멩기븐 쌀로도 갖다 주고, 사그그릇을 대바구리 같은 데 시방같이 대방울이라고 냇가에 가른 뻘어나간 걸로 접채반지 같은 걸로 만들고 고런 놈을 항아리 같이 이고 멩김서 그릇 사시오 그러고. 시아부지 없을 때 몰래 쌀 주고 그릇을 사.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이겠냐. 쌀도 무건디 그릇도 무건디.

옹구그릇은 옹구 만든 데서 덜 좋은 놈 이고 멩김서 팔아갖고 묵고 살아. 우리는 동네서 양씨들 집에서 쌀을 퍼내야 돈이 나와, 용돈이 없은게. 할무니 몰래 쌀을 푸다가 장에 가서 돈을 만들어서 갖다줘.

글고 곤란한 집에 갖다가 쌀을 갖다줘. 그럼 서로가 좋아. 이득이지.

용돈 생겨서 쓰븐 인제 농사진 사람들은 절대 소 키워가지고 돈을 떼서 아들딸 여우고 대학 보내고, 길쌈해서 아들 딸 보내고 그랬대 옛날에는. 근디 우리는 부자로 살고, 양씨들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풀도 못 베티. 큰아버지는 원두막 지어놓고 담뱃대 따딱 하구. 또 풀 베갖고 소 베티고. 우리는 일 같은 거 별로 안 해보고. 뭐 우리 집은 소는 한 마리씩 키우지. 큰집에서 머슴 들여놓고 당숙모가 그래놓고 살았지.

나는 인자 길쌈 조금 큰애기 때 배웠지. 그때는 뭐 들일 안 한당개. 밭농사를 짓지 인자. 따라가갖고 목화도 따고 할무니하고 따기도 하고, 무명 따고 그러고 살았지.

지금 같으면 보리도 손으로 일일이 베가지고 도리개로 두들려서 까블려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나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뭐 냇가에 가서 빨래 빨고.

옛날에는 시집와갖고도 앞냇가 저그 다리가, 옴쪽다리가 이렇게 난간도 없이 해가지고 나무다리로 해갖고 있어. 비가 많이 오면 떠나가 블잖아. 그럼 충혼탑 있는 데로 돌아서 또 못 건너가고, 앞냇가에서 빨래 줄줄이 해. 옹구그릇에다 이고 가. 지금 애들은 한 발도 못돼서 깨블 거야. 무명이, 목화가 따습기는 따봐.

뭐 목욕도 냇가로 가간디? 뒷마루가 있잖아, 거그다 물을 채워서 목

욕하고, 나는 인자 큰집 위에서 사니까, 작은아버지 집은 앞집이고, 또 큰아버지가 또 아래채에서도 자고, 그리고 살았어.

저그 큰언니 저그 돌아가셨잖아. 거그도 학교를 보낼라 했는디, 할아버지가 학교를 보낼라디 시집가서 사네 못 사네 편지해서 보내짰다고 학교를 안 보냈단다. 일제 때 충훈탑 요짜 산에 가서 여자들을 막 훈련하러 땡기더라고 체육 같은 거 하대끼.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보낸디 막 빙허게 가시내들 학교 보내냐고 안 보내고 그랬단께. 사네 못 사네 해싼께. 그래도 우리 상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래. 아침으로 거그서 뭘 연습을 했는갑더라고. 근디 안 갔어, 얼마나 다행이야 근께.

그때도 잘 갈친 사람들은 얼마나 좋냐. 근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 글고 육이오 지나믄 또 과외 갈치드끼 갈쳤고, 아 저 영화는 합자로 영화 극장에서 많이 있었어. 그랑프리가 옛날에 극장자리여. 그래갖고 요 사람이 다 뜯어갔고 하고, 글고 또 저그 곡성극장 하나 더 시누이집 가는 데 생기고. 시방은 다 망해봤잖아. 여그는 중앙극장이라 하고, 또 저그는 곡성극장이라 하고. 나는 영화도 취미가 없은게 별로 안 봤어. 거그또 곡성 유지급들이 합자로 한 거여.

사거리 시방 빵집 옛날에 현대자동차, 지금은 터미널이라고 하제. 거그가 남조차보라고 쪼끄마하게 차보가 없은까 거그서 가끔 하다가 시방 우리예식장 그쪽으로 차보가 내려갔어. 곡성 사람들은 앓을 자리가 없어 남원서 구례서 사람이 드립따 타고 와블고. 곡성 사람

들은 광주를 대개 서서 갔어. 그리고 땡겼어.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처음에 우리가 60년 4·19 정도 처음 다방 할 때가 저그 백광사 자리 거그가 나무로 돼갖고 이층에가 나무로 올라가. 그래갖고 거그서 일본 판 사람이 했는데 애들 아버지가 그놈을 세로 하는 거여, 주방장 두고, 애기 키우고 나는. 가이내들은 안집에 있어갖고 거그서 다방을 한디 안집이 따로 있으니까 뒷골목에서 또 여그서 가들 밥이나 해주고. 낮에는 주방장 두고 일을 했는디 세상이 달라지니까 우리 산 데를 집을 사가지고 개업을 했는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건풍다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수리를 시작했대. 하나 생겨 둘 생겨 하나까 또 나는 종업원들도 주인은 하나여, 내 말은 안 들어. 그리고 하다가 우리가 곡성서 제일 오래 했지. 그러다가 애들은 내가 밥을 해다 주고, 또 종업원들하고 짜고 계란도 해묵고 그러다가 애기들이— 막내가 좀 크고 하나까, 주방장 두고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또 내가, 뭐 우리가 오래 했어. 내가 또 주방을 봤지.

안집을 또 팔아다가 도로가 안 난다고 해서, 그래서 또 집이 물러났 당게. 새로 우리 집 쪽을 내내 히믄서 뜯고 다시 지었어. 새 신집, 그쪽에는 오히려 쪼께 들어가고, 거그는 그런 병원은 없어 막 은행나무가 큰 것이 없어. 막 그 근방에서 정형외과 땅이 켈로 커. 일본식 나무 건물 들어간 데가 나무로 되어갖고, 안에는 쉼튼으로 됐지.

우리도 옛날에 다방자리를 사갔고 개업을 했지. 집을 또 뜯으니까 나중에 세멘으로 올렸지. 침에는 단층인데 도로 널라고 우리 집을 뒤로 물러갔고 3층으로 올린 거여. 뭐 장사하는 사람은 안집이 팔려야지 따로 있으면 불편하당께. 침에도 저그 앞넷가에서 저까지 전봇대를 끌면 돈이 많이 든께. 큰애기 때, 그러지 한 열일곱이나 열다섯인가 모르겠다, 큰아버지 댁에서 전축을 틀어노면 빵빵 올려.

인자 장사할 때 전축 판도 있는디 기스가 나브러서 버릴라고 했는데 큰아들이 누구 준다고 싸냈는데 안 줬는가 저 집에 다 있어.

양순례(여. 81세) | 곡성읍 읍내리 5구

지금 세상을 알고 살아야지

음력 2월 28일생. 연도는 저 모른디 말띠여. 지금 야든야달. 팔팔이여. 뭐 인자 팔십다섯이 넘으면 오래 산다요. 나는 다리 수술을 양쪽을 다 했어. 여그 안 밀고는 못 멩겨, 어딜 가도 못 해. 밥 묵으러 간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해싸픈 붙잡고 가믄 미안하고.

원래 고향은 겸면. 겸면서 태어나갓고 요리 시집을 왔지. 여그는 삼기면, 저그는 겸면이고.

여그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4학년 때나 돌아가셨나 몰라. 어머니는 시집온 뒤에 돌아가시고. 형제간은 일남삼녀여. 나만 살구 다 돌아가셔브렀어. 막내가 야든야달이나 된게 다들 돌아가셨지.

시어머이는 그때 살았고. 아흔 살에 돌아가신디, 거시그 야든야홉 살에 아들이 죽었지. 한 해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 시어머니가. 애기들 하나도 여우도 안 해놔서 애기들은 내가 혼자 여웠지.

결혼은 스물 안쪽에 일찍 했어, 학교 졸업해갓고 겸면국민학교 졸

업하고 좀 있다가 일찍 했어. 집에서 결혼해, 옛날 결혼식을 인자. 저 12월달에 결혼을 해놔서 눈 오고 춥고 그랬지. 족도리 쓰고 집에서 다 했지. 아이구매~ 우리들은 다 전에는 예식장이 있었어?

나는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이고. 딸은 하나 죽어봤어. 그래서 다섯이지. 딸 하나가 시집가갔고 애기들 내놓고 교통사고로 죽었지. 장구 배우고 거스그로 곡성서 뵈 험다고 그래갔고 그러다가. 지 명이 짧은게 죽었지.

나 인제 혼자 산디, 아들이 몸이 안 좋아라. 안 좋은게로 왔다 갔다 해. 아들만 인자 싹 내놔볼고 전답이랑.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몸이 안 좋은게로 거그서 내려오라 한가 싶어갔고 인천에서 내려와갔고. 인천서 아들네들 다 거그서 살아 셋. 그래갔고 내려와갔고 밭농사만 지가 짓고 있어. 나는 다리가 아픈게 못 하고. 갔다가, 2주 만에 갔다가 와갔고 또 해. 지그 김장도 안 해갔고 와갔고 그러고. 인자 메주랑 김장할라고 배추도 놓고.

나 학교 멩기네 길이랑 훗하지. 산중으로 멩겼어. 겸면 저 소재지 학교. 여그도 학교 하나 있다가 없어져봤지. 근디 나는 인자 겸면 졸업할때는 인자—학교 멩기다 졸업을 했지. 해방된 뒤에 졸업했어. 나는 늦게 학교를 갔어라. 전에는 열두 살 몇 살 간 사람, 근게 동창들도 나보다 더 묵은 사람도 있고 그래. 나도 늦게 학교를 가놔서 동창도 여그 와서 하나 살고, 안 만난게로 인자 몇 년이요, 뵈 험 사람 같으면

정신도 없을 때도 있어.

인자 시집살이는 안 했ندی, 시누가 나 온게 집에가 있고. 시집가 산게 함께 시누가 와서 살다가 딸 여우고는 딸 따라가서 살고. 시누하고 살았지. 우리 애기들은 시누가 다 키웠어. 시누가 친정서 살았어. 시누가 시집간디 남편이 바람피고 객지로 돌아땡기고 근게, 여그 머슴들이고 그런게로 도와주고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어. 시누가 애기들 못 낳고 딸 하나 나서 친정서 키워갔고 저그 시가 가서 여워갔고 딸네 집에서 살다 돌아가셔봤어.

지금 세상에 시어매가 머느리 조심해야 한당게. 뭐라고 한소리 했다가 큰일 나지. 여그 와갔고 다 나가본게로 올 때는 좋아하지 인자. 념들 보면 한집에 사는 사람들이 글터라고. 인자 애들 성장하고는 농사안 짓고 밭만 하다가 지금은 다 내놔볼고.

근게 애기들도 머이매들은 고등학교만 갈치고 가이내들은 중학교만 나오고 고로고만 했어. 대학에 하나도 못 보내고. 공부도 잘했ندی, 똑같이 거스그해야 된다고 고등학교만 나왔어.

인자 인천으로 가서 돈 벌어서 애가 동생 갈치고, 우리 아들이. 글고 그 우이는 큰아들, 셋째도 인천, 막내만 광주서 했고. 근게 먼게 오도 가도 못 해. 한 번씩 올라픈 일이야. 지그가 벌여갔고 성공했지. 집사고 살고. 셋째는 딸만 둘, 막내는 아들만 둘이고. 다들 고생했지.

인자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었지. 거스그 한글 아

니고 일본글 배웠어. 다 잊아브렸지. 인자 또 해방돼갔고 그 사람들 가블고. 학교 학생들이 그때는 많았지, 여학생도 많고 남학생도 많고. 인자 여학생이 한 스무 명도 더 돼. 근디 남학생보다는 적었지. 겸면 서는 그 학교가 쥘 컸지.

친정이 잘산디 우리 오빠가 장가를 일찍 가서 얘기를 못 나브렸 어. 그래서 작은각시를 얻어가지고— 전답이 한 40마지기 되고 그러 고 사는데 다 팔아서 각시 얻었어 우리 오빠가. 그래갔고 한 사람 얻 어갔고 머이매 셋 낳고 가이내 둘 낳고. 아들네들이 착실해갔고 집을 거스그하고는 새끼를 나가 성공해갔고 살아. 각시를 많이 얻어갔고. 그래갔고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블고 망해뵈어. 그놈 다 오빠가 팔 아브러서.

근디 우리 큰조카가 착실해. 저그 공장 차려갔고 성공해갔고 그러 고 살아. 근게 조카가 착실해갔고 산계로 다행이야.

언니들은 다 돌아가셔블고. 언니들은 시집가블고 뭐, 잘했지. 얼굴 들 다 기억나지. 둘째언니가 얼릉 돌아가셔브렸어. 새끼들이 다 잘돼 갔고 괜찮아. 그럼 됐지 인자.

뭐 지금같이 늙어갔고 둘이 살고 있는 것도 좀 글지라. 건강하다 해 도 늙은 자식들 안 여우고 죽어서 글지 그냥, 영감은. 연애 안 하고, 그때는 연애가 있가디, 중매했지. 우리 아그들도 다 중매로 혀.

여름엔 밭해서 저그 모 승그고 머리에 이고 땁기고. 지금은 리어카

로 끌고 땁기지만 그때는 저 머리에 이고 땁기고. 어찌고 산지도 몰 라. 뿔로 살았어. 뿔로 살았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런 것도 없고 뿔로 살았지. 그리고 인자 봄 돌아오른 일하고. 그런게로 재밋게 어디 를 땁겨뵈을까, 그냥 뿔로 살았지.

시어매도 안 젊고, 인자 열둘을 나갔고 다 죽고 아들 둘 딸 둘 그러 고 살았어. 늦게 늦게사 아들 저그 여워갔고 내가 큰며느리여. 그래갔 고 시어매가 나이가 많아갔고 허리가 굽어가 뿔뿔 기어땁기고 늙어 갔고 할팡이고 시아바이도 그러고. 늙어서 며느리를 얻었지 시어머 니도. 그래서 딸이 와서 살았지. 저그 뭇 말 들으면 거스그하다고 조 심히고 살으라고 내가 머리가 딱 거스그저갔고 친정은 가지 못허고 그러고 살았어. 근게 오도 가도 못 하고 살았지. 정이고 뭐이고 농사 를 많이 진게 막. 농사허고 질쌘허지, 미영해갔고 삼베뵈지, 전에는 그랬어라.

삼을 뿌려서 귀갔고 베껴갔고 썬갔고 질쌘을 하지. 꺾가지고 크게 만들어나. 불에 꺾. 그래갔고 빗겨갔고 물레 밟고, 물레를 돌리갔고 질쌘해갔고 베 해갔고 팔아서 용돈 쓰지. 미영도 또 목화솜 고것도 베 나고, 목화 그것을 저 밭에다가 승귀서 보글보글 안 피어? 그걸 따다 가 솜을 땁글어갔고 또 거시기 받아서 실로 날아갔고 베 짜갔고 옷 해 입었지. 지금은 사 입은디 그때는 얘기들 옷 해주고, 질쌘으로만 해갔 고 살았지. 저그 호롱불 썬놓고 베 짜고 밤에.

그리고 살았어

전깃불은 인자 여그는 또 저 방앗간에서 어찌고 해갓고 쓰고 하더라고. 몇 살에 불이 들어온지도 몰라 인자. 텔레비전도 일찍 산 사람 있고 늦게 산 사람 있고 몰라. 우리는 애 아버지 죽어본 뒤에 티비를 사서, 고것은 인자 돈 있는 사람은 얼른 사고.

집은 저그나 시집와서 막 한 건물 쪼끔 고쳤지. 한옥건물. 저그 입 석보랑 저그 만들어갓고 애기들 다 크고 여우고, 여운 담에 그전에는 저그 불 때서 했지.

김장김치는 인자 딸이 와서 하지. 근디 옛날에는 또랑에다 시쳐서 추운디 간해갓고 담궜지. 절여 노면 또랑에 문대서 시쳐서 간해갓고 김치하고 안 맛나다고. 지금 세상에는 뭐 그렇지 전에 사람들은 다고 생했지. 뭐 고생했네 뭐 했네 젊은 사람들에게 뭐한테 말한대요. 받아 주도 앓고 뭐 좋단 사람 있다요.

지금 노인들은 노인정 가든 밥이나 묵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뭐 군소리 하든 이쁘다 하겠어. 해준 놈이나 묵어야지. 그리 안 하면 뭐라고 말해여. 뭐 맛나네 안 맛나네 말하고 있어, 묵기나 해야지. 지금은 세상이 그런게 알고 살아야지.

정덕례(기명, 여, 89세) | 곡성군 삼기면 원동리

이름이 박영희. 시월 초하루. 나이가 팔십인가 몰라. 결혼은 열일곱에 했어.

거기 그 마을 월봉리에서 태어났어. 그 친정에서 딸 셋, 아들 셋 이래. 하나 나서 죽었어. 아버지 어무니 나 다 농사짓고 살면서 그때 그냥 그럭저럭 일하고 농사짓고 밭 매고 아가씨 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올 아버지는 농사짓고 살아도 한량으로 살았어, 머슴이랑 두고, 글다 돌아가셨지. 형제간들이 뭐 하고 놀았지 글든. 뵈 허믈서 놀았는 가 몰라도 재밌게 놀았어.

열일곱 살에 중매로 만났어 할아버지를. 그 동네 마을에 노인네가 그 동네 총각 중매를 했어. 할아버지가 몇 살 묵었는가 몰라. 얼굴도 못보고 결혼했지. 할아버지는 그때 면사무소 댕겼다가 놀았지. 결혼 해갓고 군대 갔는가, 애기는 5남매 낳어. 할아버지는 그도 어찌게 5남매 갈렸어. 나는 살림만 하구, 밭일하고 시어무니 시아버지한테 시

집살이 했지 겁나게. 아 강 내가 배를 잘 찼어, 열일곱 살에 잘 찼네, 하루 한 필씩. 한 이십 줄 찼지. 그래갖고 인자 잘살았어.

근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했어. 시댁 형제간들은 몇 명이나 된가 몰라. 할아버지, 시어미 시아버지 다 함께 살았지. 할아버지가 둘째아들 재금을 안 내주고 같이 살았어. 하이고 말도 못해. 나는 배는 안 꿰었는데, 내가 배를 잘 짜서, 하루 한 필씩. 그래서 한 동네서 어찌 데 시어매가 시집살이도 막 시누들 말해갖고 시켜. 싸우다 어찌다 그러고 살았지. 평생 함께 살았어. 얘기는 봐주고 내가 일을 했지. 얘기 나면 많이 쉬어야 이레 만에 밭에 가서 일하고 해. 얘기 날 때까지도 일하고. 집에서 얘기를 낫지. 집에서 시어매가 받았지. 금줄도 치고, 아들 나쁜 고추를 달아갖고 치고 딸 나면 금줄에 미역 달고.

할아버지는 다른 각시는 안 얻었어. 글고 똑똑했어. 나는 짓이 없어서 못 뻐졌어. 몰라 짓이 작아서, 쌀을 씹어갖고 뻐이고 키우고. 아이고 살아났지 나는. 화풀이할 데도 없이 참고 살았지. 둘째아들인디 한 집에서 살았지 그냥. 큰아들은 나가서 살고. 웬지는 몰라. 내가 가서 시누들 너이히고 나도 겁나게 많이 했네. 시누들이 푸닥거리 시키. 시어매가 밥을 잘 안 줘. 많이 안 줘. 그라꼬 시집살이 했지. 얘기들을 짓이 안 나오는데도 지그들끼리만 밥 먹고 그렇게 살았지. 시아버지는 좋았는데 시키더랑께. 동네사람 다 알아. 순허고 맘씨가 좋은디 시집살이를 해 글께.

할매 돌아가실 때 초상 친 건 기억이 안 나네. 맘죽으로 애들 키우고. 큰아들 난께 아들 낫다고 이빠하더마. 나는 통 일만 하고. 밭 때려 땀기고 녀의 집. 농사짓고 거기면 여름이른 밭 매고 모내기하고. 할아버지는 판 데서 일 하고.

오남매 키워서 어찌고저찌고 해갖고 국민학교를 나갖고. 큰아들도 영리해서 시방은 잘살아. 큰아들은 돈은 그때 인자 어디로 벌러 갔는디 모르졌네. 부산으로 갔제. 육이오는 나도 몰라. 하, 해방도 몰라. 아들은 유공잔디 모르것어 어찌고 뻐는가. 내가 잘 몰라. 다리가 아직 덜 좋아서 나는 요양원으로 왔제.

박영희(가명, 여, 87세) |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베 짜고 채소장사하고

윤일애, 생일은 유월 초난날. 팔십넷이여. 열여덟에 결혼했어. 구례 용방면에서 태어났어. 대적굴. 여그서 삼남매 있었는데 오빠 하나 죽고 둘 살다가 이사를 곡성으로 왔어. 아버지랑 큰집이, 큰어머니 큰아버지 사촌올케 할머니 한집에서 안 살고 인자 따로 살았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살다가 울 아버지가 바람퍼갓고 여자를 얻어서 살면서 우리 어무이를 잘 안 돌봐서 어무이 친정엄마가 오곡이었는데, 배실로 이사를 와브렸어. 구례서 인자 엄마 찾아서 도망을 왔어 아버지한테서. 아버지는 그 여자랑 거그서 살았어. 그래서 동생은 그 앞에 엄마가 디꼬와블고, 나는 멀리 아버지 피해서 엄마 찾아서 엄마한테 오고. 아 인자 뭐 시켜가지고, 마냥 인자 집에서 막 삼으라고 흰 거 뺄겨놓고 와블고, 엄마 막 뒤라 하고. 내가 막 삼삼다가 그대로 자블지 글케. 그럼 친정아버지가 와블고 와서 보고 계모랑 싸우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육이오는 만냈지. 구례 살 때 육이오 막 지리산에 반란 쫓기니라고 차로 막 낮에부터 밤새도록 차가 밀고 가더마, 반란군들 쫓으니라고. 그거이 우리가 인자 처녀들은 그 사람들이 보든 잡아간다고, 우리를 디꼬 산으로 가블더라고. 큰집 올케랑 바구니다 밥을 싸다가 산에 가서 봤어. 미군차가 막 올라가는 거, 새벽부터 마을에서 가는 거 봤는데 저녁까지 그러더라고.

그땐 베 짰지. 삼 삼고, 베 짜고, 배웠어 그때. 그때도 김장은 맛있게 하대. 낮에 왔어 인자 저그 오곡 지나서 세전이라고 거기 우리 사는 마을에서 고리 이사를 왔어. 그럭을 굶더만 웅구그럭을. 그래서 내가 멀리 따라와브렸어. 그런디 계모가 산을 뺏어블더라고. 그 산길을 가을에 온게로 막 발이 억수로 땀발로 시렵더라고. 그때가 한 열 살은 넘었을 거여. 그래갓고 인자 배실서 살았거든, 우리 엄마가. 오곡에가 집이고. 그래갓고 백곡에서 살면서 요리 시집왔어.

인자 외갓집으로 와갓고 인자 있은게 엄마가 나 왔단 소리 듣고 친정에 왔더라고. 그래서 배실에서 살다 시집 왔어. 우리 아버지가 그 여자속에서 난 애기는 없어. 근디 인자 대적굴서 아버지 밑에 살다가 엄마가 와본게로 엄마 찾아서 오지리 와갓고 엄마가 데꼬가갓고 엄마 밑에 살았지. 엄마랑 길쌈일, 미영 잡고 삼 삼고 했지. 그때가 한 열세 열네 살 먹었을까. 하여튼 열여덟 때 여기 시집왔는데 인자 구례서는 나무했는디 여그서는 안 했어. 그래갓고 큰오빠 죽어블고 남땀디

우리가 와브러서 동생은 엄마가 동네 사람보고 데려다달라고 해서 데포외블고 나는 내가 도망오고. 그 뒤로 아버지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갔어. 첨엔 아버지가 반가라고 한디 내가 못 봤어.

친정아버지는 잘생기고 그래서 그랬는디, 거그는 기계질도 하고 해서 못 낚더라고. 울 친정아버지가 젊어서는 이장하고 뭐하고 살다가 모집 나온 사람 많이 디꼬 객지 나가고 그랬잖아 돈 벌러. 반장으로 가더마. 오십 명 육십 명 디꼬 가문은. 근디 내가 여기 아버지는 지게 질하고 그래서 맘이 안 드는디, 그래서 엄마도 미워라하고. 그래서 내가 구레로 도망칠라고 간디 엄마가 잡으러 오고. 내가 아버지한테로 갈라고 하고. 근디 엄마까정 왜 저런 사람을 얻어갖고 산가 싫어서 밉더라고. 근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걸 안 했거든. 울 아버지는 막 선 비매로 살다가 날마다 옷 갈아입고 살다가. 근디 그 사람은 생기기도 못생겼어. 그래서 내가 안 불러 했어. 그 양반이 나를 안 불러고 해야 된디 내가 안 불러고 해뵈어 꺼끌로.

중매는 배실에서 우리 친한 사람이 중신을 해서, 딴 사람도 하고 그래서 시집왔어. 첨에 우리 영감도 맘에 안 들었지. 노동일을 한게. 만 날 내가 인제 영감하고 산다고 엄마를 내내 혈뜬어서 엄마가 나따매 속상하게 살았지. 그렇게 영 맘에 안 들었어. 친구들이랑은 재밌게 놀기야 놀았지. 뭐 수놓고.

혼수도 안 했어. 혼수도 없었어 시집올 때. 그때 영감이 스물한 살,

나는 열아홉이었고. 있는 사람은 한 일 년 묵혀갖고 오지, 나는 바로 왔어.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가 딸 하나 없고 아들만 6형제를 낳어. 영감이 넷째. 한집서 살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왔지. 동산리에 서. 그냥 뒤편에 안 들어도 고분고분하고 살아야지. 길쌈하고 삼 삼고 미영 잡고 살았지.

전에는 삼을 승귀갖고 막 크거든. 그걸 요만씩 허게 쳐갖고 산 곳이 있어. 그걸 꿰. 짚을 저갖고 삶아. 불을 때여. 거기 뺏겨서 껌떡 갖고 대가리 말래갖고 물에다 씻겨갖고 말려갖고 툽으로 이리 감아갖고 짜갖고 인자 또 전지다리다 걸쳐 놓고 이빨로 요리서 기름을 타갖고 삼아. 그래갖고 인자 또 물레에다 자좌서 거 해갖고 돌것에다가 감아갖고 양젓물로 사다가 묻혀놓고, 시꺼먼 껌테기 또 찌어갖고 내려얏아. 그래서 감아서 그릇에다 놓고 또 담아서 거실러갖고 나라갖고 베를 때서 저 보대에다 일일히 꿰갖고 때서 짜. 베도 하루 한 필 못 짜면 짜고 내려와야돼. 스무 자. 다 짜고 내리워. 6남매 낳았지. 갈치기는 갈쳤간디, 못 갈쳤지.

그때는 삼 고른 놈 해갖고 짜서 베 놓고, 팔고, 미영베도 놔서 짜 남원서 뭐 받아다가 자사서 베 놔서 팔고. 또 시집온게 군대 가서 6년 만에 와블고 영감이. 애기 둘 낳고 갔을 거여. 우리는 작은아들인게 나와서 애기들허고 나허고 살았지. 큰집이서 한 마지기 주대. 그거 지어 갖고 모지레면 셋거리 나갖고. 한 가마니 있는 집에 가서 도래. 그리

고 내년에 반 가마니가 지러, 그거를 줘야 돼. 옛날에 짚이 없어갖고 싹 뺏아가브리, 공출. 그러면 막 생 키다 먹고 쪽떡 해다 먹고 죽도 끓여먹고, 험하게 살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

인자 내가 농사 한 마지기 진게로 그걸 셋거리로 얻어먹어. 내년에 또 반 가마니를 더 줘서 한 가마니 반을 줘야 되서 내가 밭도 쪼여. 영감 와서 밭았지. 지금은 기계로 쓰지만 예전에는 거시기 둘 씩 한 두루기 해야 돼. 둘씩 써서 모를 쟁여서 묶어갖고 하지. 글고 고놈 빼갖고 모 심었지. 근게 요리 옆에다 줄을 쳐갖고 재서 주욱 쳐놓고 양쪽에서 줄을 잡아. 요만치씩 꼬실너봤어. 여그또 꼬실 승귀.

또 그렇게 살면서 애들 결혼식은 다 시키고. 내가 부산으로 갔어. 애기들 디꼬 가서 살다가. 어떤 일 다 했지. 뭐 간장공장도 일하면서 다니고. 부산에 우리 동생이 있어서. 노가대도 하고, 채소장사는 오래 했지. 채소 팔아서, 많이 팔아서 나오른 재미가 지지. 새벽에 가쁜 인자 부산 대신동 시장에서 팔고, 채소를 촌에서 해갖고 따듬어서 묶어 갖고 갖고오면 내가 그걸 사. 쪼계씩 남고. 영감도 같이 가고. 우리 영감님은 가서 연탄 만든 디 들어가갖고 한 일 년 있다가 노가대, 집 진 디 있었지. 부산에 내가 서른여덟에 가갖고 환갑을 여그 와서 그해에 샀어. 부산서 거의 살았지. 다른 거는 안했어, 채소장사를 하고. 안 할 적에는 간장공장, 또 뭐 헨디 땡겼는데 잊어브렀네.

그러다가 채소장사를 오래 했지. 가게 안 열고 난장에서. 추우나 더우나 가서 계속 해야 돼. 채소를 받아노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갖다 준 사람이 없어서 못 팔겠더마. 근디 오래 허니까 촌에서 갖다줘. 나도 물건을 받으라든 3시, 4시 첫새벽에 가야 돼. 가서 저녁 9시 10시 꺼정 해. 10시꺼정 할 적에는 왜그나쁜, 낮에도 이렇게 가쁜은, 촌에서 물건이 오잖아. 갖다 준 사람이 한번 잡아논게 첫새벽에 와, 그래서 나도 가서 나가고. 아침마다 새벽에 갖고 와. 채소는 그날 다 팔아야지, 남으면 못써. 헐타 하게 팔쁜은 그게 돈이 되더라고. 옆에 사람 보던 지값 받을라고 보던 다 띠어블더라고. 헐해도 털 남아도 팔아야 돼. 고놈도 인자 막 채소장사를 헨디 그것도 삶아갖고 시래기도 나물도 삶고 해서 두고. 첫새벽에 일어나야 돼.

그르고 인자 여그 온 것이 잘못 왔어. 거그 있었으면 장사해서 집도 있었을 터디. 2월 열하룻날에 우리 시아재 제사 지내러 와갖고, 우리 시어매가 구십 쉐디 일어나들 못 허더라고. 큰조카는 서울서 살고, 작은조카는 다리를 다쳐서 걷도 못하고 있어. 내가 저 시어머이가 막 옷에다 똥을 싸고 있는게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장사해서 싸놓고 와서 시어머이 때매 못 가브렀당께, 불쌍해서. 큰집이 농사짓는 놈 받은 주고 받은 남고, 시어매하고 살고. 우리 영감님은 그때부터 일허다 다치 더만 다리가 오그라들더매. 그때부터 다리를 못 써브러. 3년 뵈셨는가 몰라. 동네사람들이 장사 해주고, 뭐 집에서 3일간 마을 사람하고

밖에 일가가 있으면 온 사람 오고 해서 했지.

애들은 부산에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영감이랑 둘이 와서 큰집이 있을 적에 농사 조까 짓고 살았지. 시어매 돌아가시고 집 사갓고 따로 나와브렸어. 그 집은 비어 있어. 제사 모실 때만 가지. 장사 덕이 있는가, 나는 누래 떼블고 근거 없이 나는 단일 팔아블고, 겁나게 거기서 잘 팔려. 거기 살았으면 잘살았을 거여. 남동생 하나 부산서 살아. 우리 시어머니 때때 내려왔어.

윤일애(기명 여 86세) |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상이군인한테 시집와서

김순임, 선달 열이튿날에 태어났어. 지금 칠십여섯. 열일곱 살에 결혼했어. 영감은 스물여섯.

태어나기는 여수서 태어나서 인자 여그 금지면으로 왔지. 여수서 태어나갓고 우리 아버지 따라서 살다가 요리 금지로 왔지. 여수서 아버지는 조합에 댕기다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허구 우리 키웠지. 학교는 안 다녔어. 그냥 요리 올 아버지가 보국대 나와 갓고 거스기 요리 여수서 왔어. 한 시 살에. 내 형제간은 6남매. 거시기 보국대나 뭐이나 군인 뭐시 나와갓고 요리 와붓지. 금지로 싹 거그서 키워갓고 여우살 이허고 그랬지. 아버지는 농사짓고 살고. 처갓집 따라서 왔지. 거그서 계속 살아서 열일곱 살에 시집왔어. 거그서 나는 뭐 일도 허고 그랬지. 베도 짜보고 농사진 데 도와주고, 아들로 둘 뒤에, 오빠가 둘 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내가 큰 딸이고.

그렇게 어렵게는 안 살았어. 올 아버지도 여그서 여우내서 어뜨게

한게로 올 아버지가 소주를 냈어. 그레갓고 인자 거 상이군인한테 간게 한 팔 한 다리를 못쓰서 불쌍하다고 어디까지 나왔냐 한게로 공자 땡자까지 뺏다고 한게로, 니가 사성을 떼면은 사우로 삼으마 했대. 근데 사성을 써내븐게 그걸 갖고 와서 올 어미한테 내논게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워싼게 이끼이 것이 뭘 하는 것이냐고, 올 오빠가 사성을 소주 술에다 놔뵈어. 상이군인들이 어찌 쫓아와 인자. 그때는 연필 같은 거 팔고 또 쫓아다니고 그레싼게로 시집 안 간다근께로 나보러 시집 탄 데로 갈라근다고 그레갓고로 어찌게 무서서. 팔도 없고 그 저기 와서 막 그레. 내가 숨어뵈어. 근디 창문을 다 찢은게로 놀라갓고 무서워근로 그 찢어뵈터만 그레갓고 코피가 터지고, 찢어븐게. 그레갓고는 시집을 가야 된다고 사성을 받아왔는데 시집가야지 하고 땡깡을 나. 그런게로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디꼬가라고 인자 그랬는디. 아우, 아파서 염병을 해갓고 죽기가 생겨서 땡기도 못했어. 근디 올 오빠가 토끼를 한 마리 삶아갓고는 고놈을 뜯어묵대. 묵고 잔거 묵고 죽거라 그레갓고, 그래서 일어나서 갓다 물을라고 한디, 고놈을 묵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죽을 각오하고 몽달귀신이나 보낸다고 저기에서 살라고 나는 고리 시집온게로 올 아버지가 업고 버스 타고 시집을 보냈어. 죽게 생긴게.

그레갓고 왔는디 서방이라고 한 사람이 술변을 갓다 와갓고 눈도 안 나오고, 말도 요상스럽게 이북 사람이라 하고, 그레갓고는 각시가

온게 막 문을 열고 막 각시라고 그레. 옷 하나도 안 해주고, 우리 집에서도 옷 하나도 안 해오고 옷만 한 벌 입고 왔는디 막 가서 신랑인게 이발이나 하고 옷을 하니께, 매형 옷 얻어 입고 나는 순천서 옷 얻어 입고, 결혼식을 신랑집에서 구식으로 했어. 그레갓고는 인자 상이군인들이 뵈을 막 던지고 아단이고. 그레갓고 기함을 해뵈어. 그레갓고는 인자 아랫방에 누웠다가 캄캄한디 더듬더듬 오줌을 싸러 간게, 오줌통에 풍당 빠져뵈어. 그레갓고는 치매를 입었는디 막 비레갓고는. 그레갓고는 인자 가서 큰방에서 물을 디갓고 목욕을 하는디. 고걸 허고 나스게 찢고 옷도 없재, 뭘. 다 가블고 사람들은.

그레갓고 인자 거기서 누가 옷을 줘서 입고 거그서 잔대, 신랑이 와갓고 내가 그러고 있는게로 너혼자 자거라 그런데 이불도 없어. 거기 할매 뵈를 뵈고 잤는디, 각시가 깨져죽을까 싶다고 각시한테 가면 깨져죽는다고 근다고 거그서 통 살았지 아랫방에서. 그러다가, 첫날밤이고 뵈고. 그레갓고는 험헌 세상 인자 술 묵고 와서 노래를, 신랑이 사흘 만에. 금서 나보고 돈 줄 텐게 가거라. 가서 탄 데 보고 살래. 고향으로 가던지 저기 죽어블던지 그레라고.

궁께 인자 나가브렸어. 찾아땡겨도 없어. 누가 찌 공동산으로 간다해. 그사이 신을 벗어놓고 약을 사다놓고 묵고 죽어블라고. 아이 창가를 고향이 그리워서 막 불러, 못 가는 신세 이럼서 불러.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산다고 말을 허고 인자 시집온 각시 어디로 가서 살자고 인

자, 함께 나랑 살자고 금서 강께로 디꼬와서 그레갓고 그날 저녁에 나
흘 만에 첫날밤이라도 잤는디, 하도 짝간한게 왔다가 가브러 인자. 고
무신도 다 떨어져뵈지.

추접시럽고 근디, 저 금지 사람들 장에를 오고 근디 내가 신을 좌좌
끌고 땡긴게 요렇게 보더니 아이고 신이 떨어져서 발 시려서 어찌까,
그럼서 우리 아버지고 친구가 말을 했담서 자네 딸이 참 불쌍하다
고 신 한 켄 사다주고 그레. 근께 올 아버지가 오셔서 신을 사다가 주
고 니가 못 디꼬 살 바에야 딸 도라. 그니까, 그레갓고 아버지가 나를
테꼬 갔어. 왔는디 불쌍해서 내가 못 떨어져졌어. 어찌게 불쌍해서 도
로 와갓고는, 온께로 뒤더러 왔나 그레. 살라고 왔다고 그런게로— 그
럼서 또 우리 아버지가 텔러 왔어. 너를 못 띠놓고 가갓다 가자, 근께
또 갔는디 내가 또 와브렸어.

요리 와갓고는 산다고 살았는디 그전에 시장 나갈 때게 장사를 헌
디 신바람 해줬어. 근께 올 아버지가 고론 소리를 들었는가 또 오셨
어. 그레갓고는 가자고 오래.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여그서 죽고 살아도
여그서 산다 그렇게로 우리 아버지가 가자 가자 그랬는디 거그서 나
와서 저 정류장 역전으로 갔지. 방 짝간한 놈 얻어갓고는 거그서 살았
어. 술배달한 데서 인자 어찌게 사람들이 좋던지 내가 가서 일해 주든
쌀도 한 다라 주고, 불쌀도 한 다라 주고. 열아홉서 스무 살 묵었어 그
때. 인자 거그서 있어갓고는 애기 낳고 살았지.

큰아들 낳고 둘째 낳고. 둘째아들 낳서 스물한 살에 올 아버지가 돌
아가셔갓고는 불쌍하다고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화장품 장사를 하
고 땡긴디 통 귀가 얼어서 근다고, 그레갓고는 주사를 맞으라 그런디
안 맞을라 그레. 그레갓고 의사를 데려다가 주사를 맞출라면 뺏어갓
고 던져갓고 말문이 열려서 스물한 살에 신을 받았어.

정거장에서 살다가 내가 또 금지로 갔지 스물한 살에. 신랑을 여파
넵두고 하나 업고 하나 걸리고 땡겼어 애기들을. 그리고 화장품 장사
를 하다가 신 받아갓고는, 스물한 살에 신 받아갓고. 강 올 아버지가
나와갓고 내가 생전 학교를 안 다녔는디 한문으로 지방을 써서 붙이
고 신당을 맨들어갓고 하고 그래서 점쟁이를 데려다 굿을 하고. 그레
서 내가 아버지를 친정으로 디꼬가갓고 산디 우리 뒤에 윗집에 방을
얻어서 살고, 나는 친정에 있다 살고 근디, 오도 못허게 근디 나를.

그레갓고 내 살다가 스물두 살에 요리 이사를 왔지. 저그 저 거시기
네 집에 작은방으로. 이사를 왔어. 그레갓고 인자 거기서 내 3년 살다
가 요 집을 지어갓고 왔어, 스물여섯 살에. 그레갓고 손님들이 겁나
갓고, 눈을 감아야 뵈이 나오지 눈뜨면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이 와도
애가 터져, 그래도 걱정 마라. 돈 오십 원씩 받고 그때는 점을 해줬어.
그레갓고 인자 해주고는 상계점을 했어. 귀신이 나와서 말해준 거 자
식들. 상계점 한 번에 3천 원씩 받다가 5천 원씩 받다가 3만 원씩 받
았어. 그레갓고는 여그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애기들은 여그서 낳았

지 6남매를.

영감은 아파서 수족을 못 써서 눕고, 나 스물네 살에. 그래갖고 수족을 못 써. 그러고 인자 병원에 가 내 있다가 인자 스물여섯 살에 나 스물일곱 살에 죽었지. 원래가 병신이단께. 원래가 군인 갔다가 총을 맞아서 눈도 없고. 상이군인. 그때는 나 있을 때는 보상 안 해주고 스물 다섯 살 여섯 살 됴서 추석이든 고무신 한 켤레씩 주고 그랬는디 인자 연금이 나왔지.

그래갖고는 인자, 부모들은 모르지 이북 사람이라. 열일곱 살에 넘어왔지 학교 댕김서. 저그 뭐냐 텔다가 굴속에 살다가 군대로 들어가 뵈어. 그래서 스물여섯까지 군대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지. 학정리에 있었대. 어데 갈 데가 없다고 인자 그래서 누가 데꼬왔어. 그래갖고는 다리도 못 쓰고. 술배달 할 때는 괜찮았는디. 그때 내 나이가 스무 살 스물한 살 그랬지. 그래갖고 와갖고는 배달함서 놀러가갖고 인자 술 먹고 인자 넘어져갖고는 병신이 되어뵈어. 그래갖고는 스물일곱 여덟 살, 아홉 살에 병원생활 하고 통 그러다가 죽었지.

내가 스물여섯 살에 혼자뵈갖고 우리 막둥이 낳았어. 애기 뻘지도 몰랐는디 나갔고 죽어블고. 인자 애기만 배갖고 있는게 사람들이 서방 얻어갖고 애기 낳다고 그랬지. 근디 인자 스물여섯 살에 상이군인 들한테서 상을 받았어. 그때는 막 각시들 도망가고 그랬는디 나는 참고 인자 그렇게 살았다고 상을 받았어. 그 뒤에 또 상을 받았어. 그래

갖고는 서른 살 서른한 살에 또 인자 상을 받았지. 그래갖고 상을 네 번 받았어. 그래갖고는, 그때도 점 허고. 돈은 돼. 새끼들은 갈치고. 6 남매를 우리 친정엄니하고 동생하고 밥을 해주고 키웠지.

내가 요려고 예순두 살에 병신이 뵈뵈어. 그런 기억이 통 그런 것은 없은디, 점 볼 때 애 터지고 아프고 거스기 거스근 사람들이 인자 거스고, 인자 또 가갖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 집으로 가브러 내가. 그래갖고 인자 낮아지고, 또 어떤 집을 가브러. 그래갖고 싸악 돌았어. 가고자 눈만 감으면 천리를 다 거기해브러. 그래갖고는 예순두 살까지 했단께. 스물한 살에 신을 받아갖고.

그래갖고는 인자 이북서 나온 사람들을 많이 찾았어 내가. 형제간 들을. 그래갖고는 애기들이 어린께로 내가 인자 그런게 상이군인들은 거즈건 데서 갈라쁜 내가 앞장스고 갔는디 거그를 갈라근게로 애들 아버지가 책에다 이북 주소를 적어놓고 죽은 것이 있어, 고놈을 싸갖고 가서 방송국으로 가갖고, 서울로. 그것을 인자 찾았어. 우리가 세 번째 찾았어 쥬로 먼저. 내고 왔는디 집에 와서 있는게로, 전화가 왔어. 우리 작은아들이랑 큰아들 중학교 댕기고 그랬는디, 간첩이라고 못 가게 해 나를. 그런 것을, 뭐시 그런 것을 찾냐고. 근디 저그 외국서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온다고 대구 우리 작은아부지랑 인자 거그를 갔는갑서. 거그서 밥을 먹은게 그게 방송에 나오더래. 영감 이름이. 거그서 물어갖고 짝 우리 집이로 찾아왔어. 서울을 가갖고 그래갖

고 인자 만났어.

저기 그레갓고는 저그서 만나갓고 와갓고 그 사람들이 인자 전부 다 요리 곡성으로 내려와갓고 산소에 가보고, 영감 작은아부지, 부모님은 안 나왔대, 사촌동생. 그레갓고는 대구서 살고 저 영동서 살고, 다 잘됐어. 그레갓고 시방도 왔다 갔다 해. 여그 군청에 가서 군수 만나고 경찰서장 만나고 작은아부지가. 그레갓고는 인자 잘된 것은 없는데, 우리 집이 부자됐다고 소문나갓고 우리 아들네들 웃이고 지그 아들 가고.

그레갓고는 작은아부지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 나 예수두 살에. 근디 갔다 온디, 차를 타고 온디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 근디 저그 집에 와서 누워싼게로 어질어질해서 일어났다가 쓰러져뵈어. 그레갓고 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레갓고로 요 팔도 병신되블고. 그레갓고 강 거시기 의원원에서 실코 가서 광주로 갔지. 뇌수술을 인자 하고. 심장이 나쁘다고 글고, 그레갓고는 안 돼서 서울로 가서 또 수술하고, 심장수술하고 뵈어. 그레갓고는, 근디 인자 손발이랑 못 쓰고 그랬는데 여그 와서 인자 구레 가서 우리 아들이 저그 침 놓는데 있다고 해서 저기 가서 침을 맞은게 그때는 쪼오금 나왔어. 저그서 세 달 침 맞고 저가 있었는데 요리 와갓고는 그레갓고는 내가 살 만치 살 았으게로 여그서 고만 해라 하고 곳을 해줬어. 근디 손도 조께 낮아지고, 걸음도 조께 걷고 그래서 인자 고대로 있어. 산을 보내줬어.

그레도 새끼들 고등학교까지 다 갈치고, 새끼털 다 갈치고 손지들 까지 둘이 키우고 셋이 키우고. 그것들이 다 커서 시집가고 거스그한 계로 할매 거스그한지 알고. 우리 큰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나가브렀는데, 건설회사 아파트 소장인디 아들이. 암튼 그놈 손지 키웠지, 일하러 기분놈 손지 키웠지. 둘째 각시 가블고 하나 얻었어. 애기 낳고 인자 저기서 살면서 죽어뵈어. 물에가 놀러가갓고 빠져뵈어. 며이매 둘째놈 돌달에 죽어써. 그레갓고 데릴러가서 내 내가 키워서 갈치고.

그레갓고는 여그 학원에 댕기다가 유치원에 댕기다가 졸업하고 일곱 살에 학교를 안 간게, 손님들이 왜 학교를 안 하나 그런게 우리 할매가 학교 안 보내준다고 그레. 근디 일곱 살이라고 학교에서 안 받아 줘. 그래서 내가 교감선생한테 가서 말해서 우리 손주가 부모가 없어서 내가 손지를 키웠다고 해서 학교를 보냈어. 근디 어찌 공부를 말도 못하게 잘해브러.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상을 받아갓고 그 거시기 짝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하고 그레갓고는 졸업도 안 하고, 다음 년에 졸업을 한 판인디 삼성으로 취직돼서 가브렀어. 그래서 일본말 미국말 조선말 5개 국어 다 해브러. 그레갓고 며시매가 고놈으로 외국을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와. 큰손지. 각시 기분놈.

지그 엄마 안 만날라 그레. 지그 어매가 대학교 가서 납부금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손지가 연락을 못하게 해. 근디 여기 와갓고는 손지가 죽어도 안 한대. 엄마 아니라고 떨어뵈어. 근디 그 뒤에 서울을

간계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근디 나도 몰랐어. 근디 본게 우리 며느리여. 근디 손지가 보고는 안 한다고 그냥 털어버려 그때. 사정 사정하느디, 내가 어뎌게로 그냥 한번 따로가거라 그랬더니, 지그 아버지 내불고 바람나서 간 남자가 교통사고 나갔고 송장매로 누워 있는 갑서. 근데 그 사람보러 아버지라고 인사를 하라대. 근디 내 아버지가 있는디 왜 여그서 인사를 하냐고 외뵈어. 장가갈 때도 엄마를 찾아라 한게 필요없다고 우리 할매가 앉으라고, 나를 차로 실코 가갔고 할매가 불 쓰고 허라고 그래갔고 불쓰고, 내가 갔어. 친구들이 어찌게 많던지 그 찾아갔고 결혼식도 겁나 크게 했어. 말도 못허게 친구들도 많고 회사생활 잘하고 그래갔고는.

그래서 작년에 했는디 올해 얘기 났어. 시방 근디 또 외국 가갔고 손지를 친정에서 났어. 근디 내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디 나는 요걸로 묵고사느디 안 갈수가 없다고, 금서 기어코 간 지 한 보름 뵈구만. 한번은 또 저그 방송국에— 또 그 사람도 여자가 술을 묵고 막 질러뵈었다고 그래. 그더니 요번에는 간호원을 만나싸. 딱 맞은게 좋게 살아. 그래갔고는 잇그제도 사진 찍어서 애기 사진을 보여줌서 아고 즈그 아버지가 보고잡겠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멍기고 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손지만 보면. 그런디 이제 둘째손지는 지그 아버지한테 가갔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한 삼백만 원씩 받은데. 두 번째 며느리는 죽어블고 아버지랑

둘이.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 삼서 저녁마다 전화해. 조카 있으면 전화 오겠고만. 막둥이는 구레 은행에 가 있고, 대가리어.

나는 이제 보훈청에서 인자 상금도 받고 우리 큰손지 대상 받고 그럴 적에 어머니상도 받고, 또 손지를, 큰딸 손지를 두 개 데려다 키워서 고깃도 고등학교 땡길 때까지 키워어. 금계 상도 많이 받고, 재작년에 군수상도 또 받음서 저 거시기서 받았응게 막둥이가 올어. 저 고등학교 땡길 적에 거 저그 석유공장에 배달한 데 땡김서 거시기로 땡김서 학교를 다녔는갑서. 그래갔고 멀리 돈을 벌어갔고 나를 주고 그랬는디, 금계로 또 둘째아들이 여수 살 때는 통 거시기 출근허요 퇴근허요 전화를 두 번 세 번씩 하더라만 목포로 간 뒤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 글고 인자 광주로 왔는디 지그 동생이 통 튕게 전화도 안 허고 어찌다 한 번씩 허고 안 허더라.

근디 인자 큰아들 객지가 떨어져서 잇은게로 전화도 잘 안 해. 그래도 어디 안 가고 뭐냐 저 가서 찾아볼게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한게로 예수 믿으라고 예배드리고 거시기 하고 안 좋더라고. 아파, 몸이 안 좋더라. 근디 밥 조계 아침에 하면 한 숟가락 떠먹고 회관에 인자 가고.

애들 아버지랑 살적에 숟가락 두 개 거그서 친정에서 갖고와갔고 고놈 상이군인들이 밥그릇 냄비 그런 거 사갔고 줬는디 그놈으로 살림했어. 그래갔고 스물여섯 살에 집 지어갔고 스물한 살에 신받아서

넘 작은방에서 살다가 안 간다고 기어코 저브렸지. 흙 퍼다가 짓고 요
그서 밤에 흙 이겨놓고 서럽게도 젖어 집도. 아흐레 열흘 잡은 놈의
집을 강 이레 만에 저블고. 삼베 같은 거 나오든 목수 조께 주고. 그럼
서 목수 쓰봉 입으라고 주고 그런계로 그 사람들도 알뜰하게 해주고.
그래갖고는 집도 다 넘들 돈이 없어서 불을 못 쓴다 근게로 동네서 여
자들이 걷어가꼬 불도 쓰게 해주고. 그래서 이사할 때께 아무것도 안
했는디 글게 해주고. 우리 둘째딸 은행 댁긴 딸 막 나갔고 사흘 만에
디꼬왔어. 그래갖고 망태를 요리 쳐놓고 그것을 키웠고 별에다 눅혀
논 게 시방도 짬해 죽겼어. 시방도 효자야.

나 이제 아들놈들 나이도 이름도 생일도 가물가물 현지만 그때는
눈만 감으면 천하가 내 것이여, 전부다 보여브릿제. 우체국장집이 일
허러 갔는디 일하고 끝네서 나가서 견고 있는디 총각이 글서 거그산
속에 들어가갖고 상도 하나도 없어. 패때기 놓고 음료수박스 얹어놓
고 시는디, 요 집에 일을 하고 저 집 가서 일을 해주고 그래서 거그가
서 싹 뜯어블고 판 데로 머이매를 옮기고 머이매가 뿔뿔 일어나서 통
나보고 어미라고 했어, 어미라고. 그래서 여기 오지리에 새마을공장
에 회사에 저따가 내가 너졌어. 그래갖고 맨날을 여그 댁기고. 돈도
안 받고 그때 해줬지. 내가 거그 산중에서 들어와갖고 그 집도 불쌍해
서 댁기고 안께 오지리 가서. 내가 돈 내가 내줌서 해줬으면 고것도
저 삼기로 결혼 해 가갖고 댁기고. 겁나게 댁겨 울 집에, 남원사람도

글고 금지 사람도 글고. 좋은 일도 많이 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
은 초롱초롱하고 거시기 와서 밥만 조께 묵고 있는게 젊어서부터 오
늘날까지 일하고 뵈 히고 넘의 일 히고 밥 해묵고. 아이고, 뵈 힐 거여.
아무것도 못 히고. 서럽게 살았어.

큰손지는 또 할매라 안 해. 엄마라 그래. 밥 묵었냐고, 운동했냐고,
뉘에다 묵었어 밤낮 뉘 물어보지. 저녁마다 전화해서.

전화를 해본계로, 나는 고것이 해당이 안 된다만. 나는 뉘 보훈청
돈을 타서 뉘 그게 안 된거만. 백 얼마씩 나온다마. 연금 거시기 쪼께
씩 넣는디 이자가 붙어갖고 근가 돈 그때게 면사무소서 와갖고 와서
뉘 넣더마. 달달이 나와. 또 우리 큰아들이 또 백만 원도 주고 오천만
원도 주고 통 그래.

김순임(가명, 여, 78세) | 곡성군 곡성읍 읍내1구

이만하면 잘 살았어

머리 깎는 기술자로 한평생

진천신, 칠십칠 살인데 호적이 좀 늦어서 45년생으로 뒀어요. 원래 나이가 저그 칠십넷이요. 생일은 1월 30일. 다 음력이에요.

원래 고달 목동리에서 태어났어요. 그전에는 전부 초가집이고 나 어렸을 때는, 말하자면 내가 해방 전에 났거든요. 44년에 태어나서 45년에 해방이 뒀거든. 그때 어렸을 때 인자 한 예닐곱 살 기억이 남아지 그때는 안 나죠.

내가 알기로는 고달 목동이 전부 가상으로 뺄 돌아오면서 거기그 울타리가 쳐졌어요. 옛날에 전부 초가집이고. 그레갓고 인자 부모님들이 집에서 얘기를 나지. 집에서 태어나고 그러믄 땃줄 끊고 목욕시키고, 금줄은 다 허쵸 문간에다가 고추 숲 목화 요런 걸. 그전에는 대가족이쵸 전부. 할아버지도 계셨고 아버지 어머니 글고 살고, 또 우리 형제간이 8남매요.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셔버렸는데 이게 복잡했쵸. 어렸을 때는 나는 심부름이나 하고 어른들.

아홉 살 때 지게를 지고 나무를 했어요. 큰나실 요 앞산이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짊어주면은 그놈 지고 오고 그랬죠. 그때 큰형님하고 작은형님은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머슴도 있었고 좀 괜찮았어요. 근디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오십 몇 살에 돌아가셨을 거여, 그때는 환갑을 못 넘었은게. 그때 여덟 살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겠죠. 이제 어머니가 다 수발했죠. 그때는 참 뭇도 모르고 지냈죠 나는. 어린게 농사짓고. 할아버지가 참외 수박 과수원 해갖고 원예인디 그전에는 뭐 밭농사라고 했는디. 그래갖고 인자 서리도 해가는데 나는 서리 해가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서 알지 잘 모르죠, 보질 않았으니까.

먹고사는 건 걱정이 없었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살림이 기울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못 다녔죠.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했죠. 형님들은 돈 벌러 가고, 가서 객지생활하든 밥벌이 하면 다행이죠. 큰돈은 못 벌죠.

내가 저 농사일을 하다가 열여섯 살에 도저히 견디질 못하고 혼자 서울로 이승만 정권 때 올라가서— 전부 판자촌이더라 거기도, 지하도랑 하나도 없고, 전철이 하나씩 다니고, 시내에만. 지금 전철이 아니라 전동차라고 글까, 그런 식으로 다니고 전부 판잣집이죠. 여기서 기 얻어먹다시피 살다가 서울역에 유일하게 지하도가 하나 있었어. 거기서 자고 돌아다님서 뭐 허다가 구두닦이도 해보고 세차도 해보

고 또 양복점도 해보고, 근디 힘이 약해서 못 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열일곱 살 정도 됐었던가 이발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일 년 동안은 집에서 조달해서 식생활을 했어. 일 년 동안 이발소는 밥값도 안 줘요.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일 년 동안 열여덟까지 공짜로 일을 했죠. 그것이 이화여대 정문 앞이거든요, 신촌. 그전에 아주 빈촌이라서 일 년 동안을 물지게를 공동수도에서 지고 다녔어요. 머리를 감기 시작하고 배워요. 글고 숙달이 되면 그때부터 밥 값 줘요. 이발소는 월급이 없어요. 그날그날 조금씩 줘요. 그전에 겨 한 30원 받았는가.

계속 이발소에 있다가, 거기서 한 일 년 있다가 또 판 데로 옮겼죠. 한 집에만 있으면 안 돼. 판 집으로 가서 허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옮긴 집에서는 머리를 감고 있다가 드라이한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면도사가 따로 있잖아요. 글면 내가 면도사로 판 집에 들어와요. 그럼 좀 올라서 또 여러 가지 배우고, 머리 깎는 걸 배우고. 그전에는 머리랑 구두만 깨끗하면 신사로 알았죠. 그래갖고 계속 돌아다니다보니까 머리를 깎는 기술자가 됐어. 그래서 스무 살에 일찍 떳어요 면허증을. 이발사. 열아홉 살에 떳을 거여. 그래가지고 고놈을 따니까 서로 테꼬갈라고 하죠.

그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내 이름이 최연소자로 돼 있어요. 아주 날아갈 것 같죠. 그렇게 어린 사람이 판 건 드물어요. 그니까 서로

데꼬갈라고 하는 이유가, 돈이 있는데 면허증이 없어서 이발소를 체리지를 못해요. 몇 명 없었지. 그래갖고 서로 나를 디꼬가서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주인으로 앉혀서 이발을 해요. 나는 일당만 받고. 그전 기술자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수입을 내가 한 사람을 깎으면 절반을 주인 주고 절반을 내가 가져요. 그리고 인자 거기서 면허증 값은 따로 줘요. 그래서 주인이 감시를 못해 이종으로 돈을 벌어.

허다 보니까 건강이 안좋아져틀서 위장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스펀시 살인가 돼서 못 하고 시골로 내려왔죠. 그때까지 결혼 안 했죠. 몸이 아파가지고 할 일을 못했죠. 거기서 치료를 한디 모아 둔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줘도 못 낫고 와갖고 광주서 일 년간 대학병원에가 있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랬는디 전대에서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일 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낫아서 군대를 갔죠. 일 년 동안 치료받다가 군대생활을 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육이오사변 당시 반란군들이 요 왔다 갔다 한 것도 보고 반란군이 어릴 때 산동 넘어가는 거 보고 동네 소도 잡아가고, 나 어릴 때. 나는 그런 것을 눈으로는 확실히 못 봤어요, 어린께. 잊지 념에 누가 반란군이 소를 잡아갔다 듣기만 하지.

군대 가가지고 저그 강원도 춘천 뭘 어디로 가서 육군으로. 아이고 논산을 갔는디 아파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 하죠. 완치도 못 했죠. 그때는 아파도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인자 군생활 하다가 훈련 6주

간 받고, 사창리구나 거가, 춘천 사창리비행장 거기 부대로 이동을 했는데 어디 쫓병생활은 힘들어요, 고참들이 두드러페고. 밥은 또 없어요 저 소금국에 한 숟가락 주고 그랬죠. 그런게 인자 배가 하도 고프게 소금국에 밥 맡았잖아요. 그럼 산에서 훈련을 받는다 산에 낙엽을 국에 부셔갖고 넣어요. 좀 배가 부르게 할라고. 뭐 짬반도 없고 허니까. 소금국에 보리밥 한 숟가락 줘요. 그땐 그렇게 생활했어요. 낙엽을 부셔서 딱딱하게 먹으면 좀 낫아. 그렇게 훈련을 했죠.

그래서 도저히 힘들고 몸 아프고 그래서 여튼 탈영해볼라고도 연구를 하고 했는디, 그때는 탈영하면 잡혀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사단 이발소가 있었어. 거 장교들만 해준 이발소가 있어. 장교들 해준데 직원이 하나 제대를 해서, 알고 중대장 쫓아가갖고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보내주십쇼 그러니까 진짜냐고 그래. 그래서 이발소 고참이 기구를 싸다가 외뵤라 해서 확인해봐라 해서 고참이 왔어. 와가지고는 중대장이 난로 옆에서 의자 놓고 이발을 하라고 하더만. 딱 보고는 기술자가, 진짜 좋은 기술자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 이발소 고참이. 그래갖고 인자 그때 당시 그날부로 이발소 들어갔죠. 먹는 것도 원 없이 먹고. 근디 배가 아픈게 제대로 못 먹었어요. 내가 사단장 이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부대에서 할 때는 내가 해주고 그랬죠. 이발할 때는 이발만 해 훈련도 안 하고, 약은 의무대에서 조금씩 타다 먹고. 그래가지고 스물일곱에 제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서 또 이발소에서 일 년 동안 하다가 다시 또 이파서 다시 또 내려오니, 그전에는 협동이발관이라고 동네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허다가 동네에서 요금을 정해 주니까 못 허 것다 하고 나가본 거여. 그래서 스물일곱 한 중반이나 11월달 이 정도에 맡았지. 한번 해보라고 동네 어른들이. 금께 딱 일 년만 해보라고, 안 맞으면 서울로 가라고. 그때는 한 20원인가 30원인가. 그래갖고 인자 일 년 동안 있다가 갈라고 근디 못 가고 지금까지 있지.

그때는 한 달이나 있다 왔어요 어른들이. 그전에는 이발을 20원 30원 했지만 현금으로 받질 못하고 딱 일 년 허고 쌀로 줘요. 동네 그때 상당히 좀 들어갔어요. 못 받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스물여덟에 결혼했잖아요. 색시는 남원 대강 사람 스무 살. 그때 병은 어느 정도 낮았고, 완치는 안 땀지만은 민간요법으로 계속 염소를 많이 묵었어요. 염소를 푹 고아서 조금씩 먹고 종단 약은 다 먹었죠. 선을 보러 엄마가 나하고 갔어 같이. 그날은 안 되고 내가 인자 키가 작다고 신부가 마대. 퇴짜를 논 거여. 그러믄 말아라, 하고 갔어. 근디 욕심은 난디 안 온다고 한게 친구하고 재차 갔죠. 가갖고 승낙을 받았죠. 그리고 이듬해 결혼했어요. 스물여덟 12월 24일날. 고달로 시집을 왔지.

저는 인자 이발소를 해갖고 상당히 돈을 벌어갖고 한 몇 년 지났는데 동네에서 이발소를 나한테 인수하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인수해

서 벌었지. 나는 깎기만 하고 면도사, 머리 깎는 사람 이렇게 셋이 했어요. 한집에 20명 15명 이렇게 살아서 엄청 바빴어요. 우리 큰집만 해도 집이 없으니까 아랫집에 또 누가 살았어요. 동네는 한 300호 정도 된디 뭐 그랬죠. 그니까 이발소가 또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해서—목동만 해도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디 인제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생겨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발소 있고 내가 하고, 허던 사람이 밑에 가서 하고 다섯 군데가 생겨붙어. 근게 제대로 수입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제일 나았죠. 이제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게 다 없어졌죠.

나는 아들만 셋이요. 인제 각시가 큰집 농사일을 많이 도우다가 협동구판장이 있는데 거기를 인수해서 안사람이 하고 나는 이발소만 하고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사업이라고 막 견어내고 기와를 이고 동네 길 다시 만들고 해서 동네사람들 합심해서 부역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세상이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동네가 그때 머심 90명 100여 명 있었는데 전부 서울로 가본 거여. 공장으로. 가게를 하면 일 년에 머심들이 잡화 술 사다가 외상으로 가져가는데 다 도망가갖고 돈을 못 벌었죠. 딱 도망가고 도망가고 해서 힘들었죠. 그 뒤로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디 손님이 줄고, 이발소는 점점 없어져블고, 다른 동네도 안 되고, 뭐 고달면 사람들이 오기는 왔어도 인구가 줄었죠. 그전에는 박작박작하고 도시같이 사

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사람 볼 새가 없어요. 대목 때는 날을 새야 돼요. 하루 종일 허고 저녁으로도 하고 고단해갖고 돈이고 뭐고 싫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간식 같은 거 주고 서로 먼저 헐라고 싸우니까 번호를 정해줘서 표대로 깎아줘요. 고단하고 죽죠. 돈보다도 사람이 죽어브러. 고달면 농사일이고 뭐고 누가 갔네 어찌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죠.

아들 셋은 대학교는 다 보냈는데, 셋이 다 전문대. 둘이는 서울 가 있고. 하나는 곡성 저기 전화국.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가 있어가지고 돈 없으면 학교도 못 받았죠. 글고 미국서 원조를— 구호물품, 강냉이, 빵, 글고 목욕탕에 솥단지엔 우유를 끓여서 학생들 주고. 난로 피워서 힘 있는 사람이 도시락 썰 밑에다 두고. 잘 산 사람들 반찬 좋은 놈 가져다가 다 뺏기고.

이제는 다 나가블고 이제 각시랑 둘이만 살죠. 글고 지금 이용원이 인자 나는 세 줄 일도 없고 뭐 나 혼자 밥벌이도 못 할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인자 요것을 그만두자니 그렇고, 동네 어른들 곡성 가서 하기도 힘들고, 웬만하믄 젊은 사람들 곡성으로 가블고.

그래서 이제 딸기를 시작했죠. 논 한 예닐곱 마지기 하고. 우리가 논이 열 마지기 있거든요. 아 인자 딸기 하고 농사짓고 그래가지고 애기들 전부 지원을 다 해줬지. 결혼식이랑 집 산 데 쯤까 보태고. 그전

에는 결혼시키면, 말하자믄 결혼식에서 안 했거든요. 지금은 예식장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디 동네 사람들 마을에서 잔치를 해요. 예식은 예식장에서 한다. 말하자믄 동네로 많이 초대를 해브러요. 그래 갖고 예식장에 가서는 친척들만 했어요. 돼지 잡고, 한 2, 3일 잔치를 했죠.

딸기는 인자 이밭소 손님이 없기 때문에 돈 나올 데는 없고, 뵈을 해야 돈이 나올 거 아니요. 그래서 딸기를 했죠. 하우스 질라면 보조가 좀 나오고, 하우스 그전에 보조 나오면 40프로 정도 보조가 나와요. 글믄 인자 내가 60프로 대고,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했죠. 딸기는 일 년 농사여. 여름에는 모종을 키워가지고, 가을에 가서 9월부터 정식이 들어가요. 옮겨갖고 하고 11월부터 일찍 나온 사람은 나와요. 딸기 열었잖아 인자. 4월달까지 따요. 이거이 딸기도 얼마 번다고! 작황에 따라서 틀려. 얼마만큼 잘 가꾸냐 그런테사 돈 천만 원 차이가 나브러요, 한 동에. 요게 한 마지기 반, 300평. 4월까지 따고 강 모내지도 않고 로타리 쳐갖고 나락을 심죠? 글머는 수확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싹 뛰어나 그 팻 무렵에 쳐갖고 고놈을 거름으로.

요 논에서는 딸기만 하죠. 논농사보다 낫죠. 논농사는 돈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동 정도면 둘이 해요. 다 따요. 벌은 다 수정시키려고, 약을 못 헐게. 약을 아예 안 허고 봄에 가야 하제. 그때는 인자 저그 한 번 해주고 한 일주일 후에 따지. 여기 줄은 수막, 불도 쓰게 돼

있고 물 뿌려준 것도 있고. 겨울에 날씨 추울 땐 물을 품어서 올려요. 저 위에 꼭대기로 물이 들어가면 짝 퍼져요. 지하수는 뜨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막이 되죠. 여그는 고온작물이 아니라 저온작물이거든요. 아조 추우면 안 되지만은 25도 그 정도는 되고 30도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은 동네 어른들 한 달에 2, 30명 깎은가 모르겠네, 이용원. 이용료는 지금 여그서는, 곡성서 말하자면 만오천 원 받게 돼 있어요 전부. 이용업체에서 정해져 있어. 근디 나는 그렇게 못 해줘. 이용업사한테 이 얘기 하든 안 되고. 돈을 벌라고 헛 게 아니라 이저 하든서 온 사람, 담뱃값이나 벌고.

그전에는 저 생각을 많이 했죠. 서울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깐 도저히 머 힘은 약하고 하나까, 그때 인자 이용원이 제일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상당히 알아줬어요. 그래서 고리 취직을 했죠. 이용원은 첨에 내 돈으로 갖고 일 년 동안 버려야 혀. 첨엔 돈을 안 줬어. 여기 협동이발소 그전에 동네에서 저 준 이름 그대로여. 아니 그러죠, 나 어렸을 때부터 여그가 있었죠. 내가 스물일곱 살에 거그 했어요. 거의 45년.

비누로 옛날에는 거품 내고 칼로 하고. 그전에는 칼도 지금은 일회용으로 쓰지만 그전에는 면도칼이 있어요. 고놈을 갈아갖고, 가위도 마찬가지로. 숫돌에다 갈죠,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많이도 샀죠. 그때

는 어찌, 옛날에 썼던 거 보관해 놓 게 많죠. 군에서 와갖고 테레비도 나오고 취재도 하고.

뭐 요즘 애기들은 뭐 서울 애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오고, 곡성 애들은 내가 오라 글 때 오고. 막둥이도 애가 둘인데 하나는 국민학교 땡기고 하나는 내년에 들어가고. 곁에가 있어서 힘이 돼요.

하이고 그전에 서울 가서 내가, 말하자면 사일구 오일륙 다 겪었거든요 그때. 그전에는 계엄령 선포하면 5시면 통행금지 뜨잖아요. 5시 이전에 나오면 총살시킨다고 그러요. 이용원이 청와대 옆에가 있었거든요. 후문 바로 거기. 이용원이 그때 뭐 이용원이었더라. 하하…… 좋은 데로 많이 돌아다녔죠. 최고의 기술을 배울라고. 서울서 돈 많이 벌었는데 몸이 아파가 다 병원에다 쫓버리고 왔죠. 서울서 아침에 나오면 손님 많으면 굶을 때가 많아요. 점심 굶고 저녁 먹을라든 허기져서 몽땅 먹어블고 그럼 위가 늘어나고 해서—몸만 안 아팠으면 괜찮았을 거여. 내 운명인갑죠. 지금도 위장이란 것은 평생을 제대로 낫진 않는 거여. 호전은 됐지. 그래도 아주 건강하지는 못하다고 봐야지.

내가 힘닿는 데까지 이용원 해야지. 나이가 내가 이발사들 중에서 제일 많아. 협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지.

진천신(남, 75세) |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신랑이 열다섯 살

김미효, 생일이 10월 8일이야. 시방 팔십서인가, 쥐띠.

나는 태어난 건 동산리야. 여 우리 원장님도 우리 아버지 다 알아. 우리 아버지 외아들인데 진짜 잘생겼어. 나는 형제간 8남매 중에서 제일 못났어. 나 태어났을 때 너무 못나서 삼이랑 다 갖다 놔대 파문을이라고. 내가 저 형제간 중에서 딸로 해서는 둘째냐? 둘째. 나 형제간이 8남매가 될 거여 많애. 외아들이 그리 많이 낳어 우리 아버지가 좋아 죽을라고. 할아버지 할무니는 모르지, 돌아가신디 나브렸응게.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 어뜨케 인물도 좋든지, 전주 가서도 식당도 하고, 나도 얘기를 봐주나라고 전주로 갔지. 그래갖고 곡성 읍내도 내려와갖고 명주베 공장도 하고. 명주베 공장을 했어. 한 열두 살이나 묵었을 거여 그때 내가. 작은이가 우리 아버지를 환장을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억지로 얻었어 각시를. 그래서 우리 어무니가 바느질이고 뭐고 달달달달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행여나 집이나 불에다 타블까

억지로 얻었어. 전주로 갔을 때는 우리 어무이는 두고 작은어무이만 데꼬 갔지. 두 번째 그사람이 우에서 살았던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때 동산리에서 농사짓고, 방앗간 보고, 쌀방애 미영 탄 거, 고추방애, 또 물품한거이가 그렇게 했어. 직공 두고. 부자로 막 기왓집을 크게 지어 놓고, 대청에 크게 지어 놓고. 잡박, 댓골, 오지리에 서 다 와.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그서 각시를 얻었지. 각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환장을 해갖고.

어무이 형제간들도 여닐곱 되지. 작은마누라 셋 나갖고 하나 죽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억지로 얻었당게. 행여나 집에 불내블까 싫어서. 혼자, 우리 어무이는 명주베랑 크게 혼자 다 하고.

나는 이제 열두 살까지 학교도 못하고 얘기만 봤어. 내가 셋째딸이야. 얘기만 봤어. 가시내 갈치면 연애편지만 쓴다고 죽을라 그래. 작은엄니가 우리 아버지를 들들들 볶아서 따로 살았지, 동산리에서 각시랑. 아들이 하나 죽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 아버지가 농장 한 30마지기 되고, 우리 어매가 남자 저리 가라 나락을 배도 일을 그렇게 잘해. 우리 엄마 친정은 남원 마수. 동산리서도 그렇게 암전한 사람 없어. 방앗간 돈도 잘 벌어서 8남매 키우고. 머슴도 한 너댓 명 두고 그랬지. 나는 나갈 새가 없이 동생들만 봤어.

우리 어무니는 저기 물레도 일귀븐디 작은어매는 가위도 할 줄 몰라. 금계 일 안 할라고 인조 뭐 떠갖고 저고리도 찍어갖고 오고 막. 이

게 뭐대 하든 자른 것은 저고리고 막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럼 계산을 해, 수습할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환장을 했던게. 나는 뭐 작은엄매가 어머니한테 심성부릴까 싶은게.

언니들은 근디 다 나왔어 학교. 동생들도 다 나오고. 나는 우리 어매가 패죽일까 싶어서 참고 참고 해서 나만 못 갔지. 우리 어머니가 참아본게 엄청 참고 그래갖고 싸우도 않아 돌이. 우리 아버지도 엄마를 못 따라해. 양전해갖고 명주도 다 나라갖고 팔고 막 이것도 가서 막 하고. 아버지가 못 따라가. 그래갖고 나는 엄마하고 뭐 좋게 살았어.

나는 결혼을 일찍했어. 나는 남편보다 두 살인가 더 묵었어. 영감이 열다섯 살에 했어. 남편이 외아들인디 시아버지가 보고 환장을 하고. 뭐, 우리 시아버지도 동산리. 나는 대평리로 오고. 우리 시아버지가 대평리 사람이여. 우리 아버지는 저 강가. 나는 인자 시집을 왔어. 외아들인디 우리 남편은, 7구 이장 거 잘생겼어.

아버지는 방앗간하고 어무니는 농사짓고. 어무니는 참고 참아블고 작은어무이는 뭐 비단 갖다 팔고, 비단은 우리 엄마가 싸고 그런 거 떼다 팔아 작은어무이는. 우리 어무이는 한복, 미영 베도 하고 기계 베도 하고 뭐. 작은어무이는 장사하고, 아버지는 뭐 왔다 갔다 하지. 작은엄매가 문 앞에서 막 서 있단게, 아버지 오시면 우리 어매 방에서 제사 지낼라고, 그래서 물밥 힐라고 나가면 작은어매가 문 앞에 서 있

대 아버지 안 온다고.

나는 중매를 안 허고 우리 아버지 이는 아재가 하나 살아, 대평리가. 거기 들락날락한게 거기 성님 딸 하나 있으면 여기 주시요, 해서 뭐 나이 갈쳐주도 어떻게 달라 하던지, 우리 어무니 미영하는 데 와서 이불보 큰놈 하나 썰어놓고, 이불 그때는 헛대다 걸었는데 막 오셨어, 저녁에. 그래서 밥도 안 묵고 미영 잡신가, 하든서 왜 그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평리 동생 집에 가니까 총각이 좋은 놈이 있다고, 작은 방에 열한 명이 있는데 일등이라고 딸 있음 보라고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환장해갖고 쭉브렸어.

근디 열다섯 살에 뭐 이불을 둘러쓰고 새방 채려준대서 막고 그랬어. 어렸지. 친정에서 마당서 한디 까마구 떼매로 사람이 막 많고, 구식결혼이 저기 암반에 덧잎상 놓고 원삼 입고 한복 입고 돌이 절을 해. 우리 시어머니 옷은 영감옷인디 막 우리 남편은 시댁에서 막 옷 좋은 놈 두고, 갈아입고 나온게로 머리가 막 파마한 것대로 따는 놈이 머리가 어찌 좋던지 지그 오빠 방에 가 머리 좀 치고, 이서방은 여기서 옷 입히라 하고. 그래갖고 구식결혼을 원삼 명주베로 착 해맞고 시집을 대평리로 왔지. 첫날밤을 한디 거그서 자고 왔거든, 엄마 집서. 거그서 팽 돌려서 문고리를 뜯고 난리여 엇들을라고. 나를 지르르 꺼시그다가 자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틀인가 쉬어갖고 대평리로 왔지.

시댁에 외아들이라 시어미랑 시아버지밖에. 내 방 쪼끄마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퍼줬지. 우리 남편은 거기 한문글 배운방으로 쫓아내 틀고 나는 혼자 자고. 일은 벼랑 안 했어. 너 안 해도 한다고 못 허게 해. 내가 틈새로 쫓아나갔어. 그래서 시아버지 나락을 베는 데를 쫓아간게 좋아갖고 너 언제 이러게 배웠냐, 그래.

몰라, 그래갖고 남편은 맨날 한문글 배우라고 일을 못 허게 하고 공부만 해. 내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은 머심 두고 필요없다고 밤낮으로 공부만 하라고 해. 공부하다가 12시 넘으면 거그서 자고 오고 그랬어. 딱 쌀밥매이로 친정아버지가 방애를 하니까 뭐 다 먹었어. 큰집 동서는 일일이 아들만 챙긴다고, 우리 아버지가 고상시킨다고 집 앞애다가 막 뭐를 퍼줬어. 거그도, 시아버지 동생네도 작은어매 큰어매 있었어, 큰어매가 병이 있어갖고. 뭐 딸이 너덧 되고 아들이 하나 되고, 나는 인자 8남매를 낳어.

작은어매가 댕겨붙은게 농사 안 진다고 작은어매가 저그 전주로 가자고 꼬셔서 작은어매가 인자 또 읍내로 와서 살다가 아파갖고 죽었어. 어무이 앞에. 전주 가서 살다가 도로 동산리로 와서 살았지. 작은어매가 먼자 돌아가시고 이부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무이는 오래까지 살아계시고.

우리 애아버지가 10년을 이장했다고. 엄청 잘생겼어. 우리 아저씨가 얘기를 나눈게 아주 좋아 죽을라고 하더라고. 집이를 가나 어디를

가나 얘기 업고 실코 댕기고 그랬어. 농사 30마지기 하고 하우스하고. 우리 큰아들 국민학교 댕길 때까지 사셨어 시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은 농사만 지었지.

둘째아들 전대 딱 첫 학기 납부금 내고, 다 장학금 내고 책값만 내고 다녔어. 저 국민학교 댕길 때 막 얘기함서 묵고 저녁에 차 불리갖고 같이 타고 오고.

우리 큰딸이 담박질을 잘 해. 그래갖고 친구들이 양장 나왔냐고 그래. 내가 양장을 내 손으로 해 입혔어, 양장을. 뒤 밥 해묵고 쪼께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막 염소도 몇 마리 해주고 한약도 엄청 해주고. 그렇게 잘해줬어 남편이. 막 다라에다 떡이랑 튀랑 해갖고 막 소풍 갈 때도 딱 장만하고 동산리 산으로 갔지. 동산리 모래가 막 거기 농사진디 꼬터리서 밭래를 하는디 머리가 막 꼬실꼬실해갖고 근게 댕골 학생들이 댕김서 내일은 가새 하나씩 갖고 오거라 저놈 하나 베면 꺾테기 묵졌다 그런 소리를 듣고, 무서서 저그 위에 가서 바위에서 밭래를 했어, 무서서.

우리 글고 큰딸이 담박질히고 다섯 권씩 공책 받고 막 아들네들도 영리하게 크고. 그래갖고 둘째아들은 전대 가고 대전에서 살아.

김미효(가명, 여, 85세) |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옛하고 하우스하면서

이양숙 44년 5월 5일, 양력. 결혼은 스물하나에 했어요. 아저씨는 스물여덟에, 나하고 일곱 살 쟁께.

목사동면 신전 1구에서 태어났어요. 완전히 골짜기였고, 제동엔 간 짓대 이짜저짜 오면 토끼하고 입맞춘 데여. 차도 없어 그땐. 가족들은 엄니 아버지 계셨고, 5남매에 둘째딸. 아들 한나 딸 넷. 거그 목사동 원정국민학교를 다녔죠. 원정국민학교 밑에는 평리국민학교고.

농사지었어요. 그리 곤란하게 살진 않았어요.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때 세상에는 밥 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디 우리는 밥 굶고 그러진 않았어요. 재산도 없고 뭐, 아버지가 둘째아들인게 큰집이 따로 있고, 재금 나와갖고 살으셨고, 배고프게 살아보들 않았어요.

시장은 인자 석곡 골짜기로 다녔죠, 동네 뒤로 길이 나 있어요. 그 저 공복 앞으로 해서 석곡으로 겁내게 멀죠, 인자 뭐 골짜그로 해서 장에 다니고 따라가본 적도 있고 그때 세상에. 그때 석곡장 별명이 돌

아라 돌아라 돌실장이여. 석쇠불고기 유명했고 소전이 컸었지. 글고 삼베 돌실나이 그거 전도 컸고. 삼베를 짜갖고 팔았죠. 우리 동네서도 장날에 짜갖고 팔러 가고.

삼을, 그때 삼나무를 심어갖고 요 대로 이렇게 꼬쟁이같이 쳐갖고 앞삭을 쳐. 삼꽃이 동네에 싹 쟁이고 해갖고 불을 붙여갖고 물을 찌 꼬러서 쟁이고 나무를 넣고 해서 삼을 꿰. 거기 다 익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룻대 펠라고 막 서로 막 삼다발을 꼬집어 이녁에 가서 내와야 혀. 손 없는 사람은 못 해. 그놈 뱉겨서 나무하고, 빗겨서 널어서 고놈을 냇가에 가서 북으로 대가리를 깨, 대가리만. 인자 빗겨갖고 돛배로 싹 빗겨. 그래서 인자 널어놔다가 쪼개 손톱으로. 쟈. 삼을. 잔잔하니 삼을라고. 인자 고놈 인자 말려놔다가 품앗이해. 또래들도 허고 엄마들도 허고.

전짓다리기라고 우게 씨어놓고 품앗이해서 삼아 잇어. 그걸. 꼬랑뎡이를 가르매를 타갖고 물팍에 비비고 대고 해갖고 삼은 거여. 잇어 갖고 인자 잣아. 그놈을 잣아갖고 물레에다가 넙적하게 잇지. 잇어갖고 물레에 가락에 동그렁하게 물레에다 돌림서 비비 짜갖고 돌려. 고놈을 짜면 네모로 딱 해서 돌것에 올려. 고놈을 인자 저그 거시기에다가 네모에 반듯한 놈에 올려갖고 인자 양젯물 사고 어찌고 해갖고 잣아갖고 돌것에 올려논 놈을 아랫목에 초석 뚜들고 양젯물에 방에 쟁여. 겁나게 어려운 일이어. 또랑에 가서 짹짹 밟음서 밭면 삼이 흐거

니 나와. 고놈 인자 바래고 넓고 물밑에 바래고 해서 고놈을 또 인자 내래. 빈듯이 해갖고 삼아갖고 올리갖고 양젓물에 안쳐놔다가 말리면 흐연 실이 나와서 돌것에 올린 놈에 도로 올려. 인자 또 인자 내래 갖고. 여러 인자 해갖고 고놈도 떨어지면 꼬나풀 맞춰갖고 이면 베로 난 거여. 나라갖고 매. 보디에다 싹 끼갖고 불피워갖고 풀썩갖고 풀을 메겨갖고 땀 거여. 그레갖고 삼베가 나와. 우리는 베는 미영베만 아홉 자 짜봤어. 삼베는 짜보들 많았어 우리는

국민학교까지 거리가 여기 오지리 6구서 오곡국민학교 가기만 해여. 우리 클 때만 해도 학교 땡긴 여학생들이 열셋인가 졸업을 했어. 밑에로 고리는 인자 평리, 듯말, 고모리 요런 데 있고 우게는 원정지, 중리, 신전, 제동, 동암, 닥제 이려고 있지.

우리 외가는 저저 거시기 듯말서 평리에서 올라오자른 오른손 쪽으로 동암이란 데가 있어. 거그 살으셨는데, 친정인디 9남매에 셋째딸이여요. 딸을 한때째로 일곱을 나셨대요, 외할머니가. 그레갖고 인자 외할아버지가 작은마눌을 낳어. 그레갖고 작은마누리를 얻으셨는데 작은마누리하고 외할배하고 한 해에 애기가 들어섰어. 우리 외할머니는 여덟째로 아들을 낳고 작은외할배는 딸을 낳어. 지금도 동암서 외삼촌 사셔. 그레갖고 외할아버지가 아들 딸 해갖고 12남매여. 작은마눌한테 딸 둘 아들 둘이여. 초상 치러 갔는데, 노란 삼베로 입고 갔는데 그동안 손지들 크지 그래서 노란 꽃 핀 거땡키로, 나 시집은 뒤

로 돌아가셨는데.

침에 일학년 때는 교실도 흙 낀 땡키로 덱석때기 깔고 앉아서 공부했어. 교실이 부족했었는가, 이름표 달고 수건 달고 못 묵고산게 코가 흘렀는가며. 지금은 코 누러니 흘린 놈도 없잖아. 학교 교실은 있는데 어린 기억으로 덱석때기에 공부했어. 그때만 해도 골짜기라 땡방구두신 꺼면 고무신만 신고 땡겨. 우리 큰오빠가 어디 직장을 가신다고 가더만 꺼면 운동화를 큰집이 동생하고 나하고 동갑인디, 나는 생일이 4월이고 동생은 8월인디, 동생하고 나하고 사다 주더라고. 얼마나 좋아서 신고 학교를 갔는데.

언니하고 나하고 여덟 살 세는데 학교를 내가 여섯 살에 갔는가며. 지금도 짜간한디 얼마나 작았는가 모르겠어. 지금도 동창회를 하는데 내가 칠십하난디, 근게 호적이 아마 우게 누가 죽어갖고 대신 나를 실었는가 호적에는 44년생이여. 어째든가 여섯 살에 학교를 갔는가며. 학생들이 고무신 짚신 신고 왔는데 나만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짜간해서 비리비리해서 운동화 신고 온 꼴을 못 봐. 그래서 내가 못 신게 생겼어, 뺏아갖고 때리고 막.

조까 커갖고는 학교를 가든 논두렁길인디 길도 좁고 근게 찢거리 풀이 막 논두렁 길에가 있어. 고놈을 묶었어 양쪽으로. 나중에 온 놈들 넘어지라고. 또 인자 학교 갔다 오면 미영밭이 있어. 묵화 따 묵다가 들켰어, 다래 따 묵다가 쪼껴땡기고. 논두렁에 지금은 고것 보고

뒤시라 근가 그때는 찰밥나무디 빗겨갓고 먹으면 콧물 같은 게 나오
는디, 아 누릅나무 빗겨 묵고. 우리는 찰밥나무라 했어, 찰진 물이 나
온게. 포랑가에 학교 갔다 오다가 찢구 끊어 묵고 비비 뽑아 묵고 땡
겼어.

그래도 졸업을 탔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어찌게 어려서 학교를 땡
겨븐게 졸업해도 시계 볼 지를 몰랐어.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책도 보
고 그랬지. 국문은 깨쳤는디 6년을 다녀도 시계 볼 줄을 몰랐어.

육이오가 두 살 땡가 세 살 땡가 났는디 나 업고 어머니가 동암으로
피란을 갔다고 하던디. 그곳이 절이었다고 하더라고 동산절이. 지금
은 동암이고.

졸업하고 밭이 많은게 일해주고. 열세 살 묵었는디 어머니가 아파
갓고 돌아가신다고 소동이가 났었는디, 밭은 많으고 늙은 할머니들
따라 땡기면서 밭 매고 품앗이한다고 따라땡기고, 할머니들. 그리고
삼 삼고 땡 그랬지요. 틀을 일찌거니 자봉집을 사 줘서 수도 많이 났
어. 통앞아서 십자수, 식탁보 앞아서 등잔불 밑에서. 책상보랑. 지금
도 횡대보 있어, 책상보도 있고. 안 버리고 나뵈었어.

그래갓고 아저씨를 중매로 만났지. 팔촌오빠가 향교를 땡겨서 시아
버님도 다녀서 서로 알아서 우리 인자 집안간 여동생 있는디 며느리
삼을라냐고 뵈는가 자기들끼리 중매를 봐갓고 말만 보고 선도 못 보
고 코가 어디가 붙은지도 모르고 시어머니만 선을 보러 오셨터마. 그

래갓고 찢간해갓고 볼 거이나 땡 있어? 인자 그랬는디 볼 거 하나도
없지. 우리 오빠가 영리하고 그러다고 말을 하셨는갑서. 머리 좋은 거
하나만 보고 하신다고, 우리 영감님이 땡 공부를 통 안히셨대요. 시아
부지는 향교도 다녔는디. 시아버지 원래 고향은 죽곡 봉정리고.

시집은 요리 왔지. 시아버님이 살림은 안 하고 땡 거시기가 들었는
가 팔도로 이사를 하고 다니셔. 곤란하게 살았쥬, 집도 없더라고요.
넌 작은방에서 살아. 요기 뒷집에 문간방으로 시집을 왔어요. 시고모
님, 전에 군수하던 고모 문간방으로 왔어. 밥은 여그 시아버님이 도정
공장 집사땡기로 일해주고 일시키고 왕재 팔고 그런 일을 하시터마.
공장을 지키신 분이시. 그래갓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밥은 공장 안에
서 숙직 거시킨갑서. 고로고 관사에서 드시고. 그전에 땅 그대로 있어
공장 자체는. 공장은 지금은 개조가 되었지. 잠만 여그 와서 인자 자
고 했지.

아저씨가 여그 딸 넷에 아들 하나여. 외아들한테로 왔어. 인자 신랑
은 공장에 기계 본 기사터마, 영감님이. 그래서 인자 고놈 해서 벌어
묵고 셋집으로 와서 큰아들을 스물둘에 났어. 하나에 시집와갓고 4월
에, 스물둘 음력은 4월달, 오월 초삿날에 났어. 살림만 했지 나는, 시
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나는 인자 얘기를— 오자마자 나 3개월도
못 뵈는디 시아버지가 호랭이여, 손지를 보라고 막, 겁나게 아주 무서
운 양반이여.

시어머니는 창평 고씨여. 바느질이고 음식이고 못 허는 게 없어, 얌전하게 생겨갖고, 그래갖고 그 밑에서 삼서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귀헌 집에 와서 아들을 나브러서 대우는 받았어요. 그 인자 고놈 뒤 그때 하루 일당은 모르것어요 기억이 없어. 시아버지도 도정공장에 계시고 신랑은 인자 기계 보고 있고 그런게 살림은 그래도 집이 없시 산디 큰아들 두 살 세 살째 남서, 큰아들이 쉬은 살 지금 먹었는데 그때 또 딸을 낳어. 딸이 지금 마흔야달이고만.

나도 아들 셋 딸 하나여. 아들 많이 나서 대우받았당게. 그 밑에 아들 난 것이 시방 마흔여섯, 고놈 나 놓고 집을 지었어요. 여그 땅은 강고모집 아까 거그 땅에다가 집을 지었어. 땅세를 줬지. 팔으랑께도 부잣집이라 팔도 안 허고, 여그 한옥 진 디도 고모집 땅이고, 여그 살고 있는 데도 고모집 땅이었어. 요 자리에다가 지어갖고 땅값을 쌀을 80키로 90키로 한 가마닐 거여. 땅세를 두 가마니씩을 줬어. 그때도 안 돌아가셨어. 나 시집은 날로 계산해서 작년에 환갑이고 재작년에 환갑이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 시어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는 육십 둘이고 시아버이는 육십서이고, 근께 그래도 저그 저 양반들이라고 령게 무식하니 시집살이 시키던 았았지. 시집살이는 인자 고리고는 안했지. 양반들이라. 이년저년하고 쫓아내고 물 찌끌고 굶기고 그런 사람 췌지. 근디 우리 집은 못 묵어서 한이여. 그리고 살았어요. 념의 집 오두막이만 있어봐도 좋아 배터만.

친정에선 아주 대궐집 같은데 그때도 기와집으로 살았는데, 친정 와서 집 없는 데로 시집보냈냐고 원망도 안 해보고, 우리 어무니가 시아버이는 호랭이고 시어머니는 깔깔이고 집도 없다고 들었는데, 대문을 못 잠그고 살았대요. 행여나 딸 외블까 싶어서. 근디 얌전한 양반들이라 시집살이는 안 했어.

큰아들 여섯 묵고 둘째 네 살 묵고 난 놈 낳기는 념의 방에서 낳고 둘을 여그 방에서 췌어. 그때만 해도 도정공장 사장 아버지가 겁나게 좋으신 양반이여. 그 양반이 너그도 집을 하나 지어야지, 하므서 집을 지어라고 하셨다더마. 우리 집 아저씨를 오라고 해갖고, 근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을 대준다고 지어라 했더만. 그 아저씨가 말하자름 나무집을 지었는데 그래도 4칸 집을 지었어. 그랬는데 나뭇값이 그때 세상에 18만 원이더마. 그 나무를 그 아저씨가 주셔서 남거지는 우리가 빚지고 대고 벌어갖고 지었어. 60만 원 줬다 그래. 거그서 18만 원 대주고 남의 농사를 30마지기씩 지었어 빚 갚을라고. 다님서 지어갖고 빚 갚으고 죽곡 봉정 종중에서 인자— 영감도 조씨여, 매상해갖고 또 갚으고, 념의 논을 지어갖고, 겁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둘째, 인자 마흔여섯 살 먹은 놈 나놓고 옛을 했어. 옛을 많이 했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갔어 옛이. 옛을, 나 시집온게 시어머니가 창평서 와서 옛 만드실 줄을 알으시더마. 나 시집온께 도정공장 사장집이 잘 살으신게 옛도 해주고 동네서 해주라고 하므 해주고 그러시더마. 조

까 하셨어 시어머니가. 글고 둘째 내놓고 시어머니랑 돈 받고 엿을 했네. 도정공장 사장 어머니가 우리 저그 고모 아들이여 그래서 떠돌아 댕김서 못 산게 도정공장 사장 어머니가 우리 여기 고몬게 일을 해라 그랬대. 그래갖고 산디, 그 어머니가 엄청 곱기도 히고 말 한자리고 굿게 안 해. 그 양반이 형님, 녀의 해주지 말고 얼매씩이라도 받고 하시오 그래갖고 그때부터 공장에서 왕재를 줘, 퍼다 때갖고 엿을 만들었어.

엿을 인자 쌀을 갖고 와 엿 해도라고. 소문이 난께 쌀을 갖고 사방테서 들어오른 인자 고놈 대어갖고 인자 엿을 해. 인자 담가서 꼬두밥 짜갖고 엿지름 보리로 놔갖고 타갖고 찌서 해놔서 새벽에 짜. 식혜를 해 아랫목에다 전부 다 널배기 큰 거, 그런 놈에다 해너. 그래갖고 새벽에 짜믄— 그때 일을 생각하믄 애기들은 어리고 잠은 와 죽졌는디 2시가 새벽에 불러내. 그래갖고 내가 언제 잠을 한번 자볼까 했어. 2시 3시 되믄 시어머니가 엿 짜자고 불러. 짜서 시어머니가 대리고 나는 인자 밥히고.

인제 엿물을 대려, 대래갖고 걸쭉해져갖고 풀때가 되믄 들어서 흑 불면 백엿이 날리믄 물에다 담귀갖고 이빨에 안 드랭기면 퍼야 해. 퍼 갖고 맞춰갖고 안 드랭기면 퍼 아룩에다 물어놔 딱. 그래 안 허면 식어갖고 팡팡해갖고 늘어내지도 않아. 그래갖고 점심 먹고 또 해너. 그레놓고 식혜를 항아리다 너놓고 그놈을 또 썰겨, 늘여. 양쪽에서 잡아

땡기지. 화리 우게다가. 뜨겁게. 식어블믄 똑똑 떨어져브러. 늘인디 첨에는 막둥이시누가— 나히고 동갑인디 내가 와서 여웠어. 시누가 동갑인디 그 시누히고 둘이 시키더마. 시집가본게 시킬 사람이 없어 사주팔자에 타고난가 다 못 시게 엿을. 못 늘여. 글더니 사주팔자를 해묵고 살아라고 타고났는가 나는 대변에 늘이고, 아구미~ 고놈을 씨기면은 젊은게 펴 아픈지도 모르고, 한숨 자믄 또 엿 짤 때 되야. 또 인나서 대리고.

설 대목이 되믄 쌀이 쟁여져브러. 우리 엿은 다 알아줬지. 이빨에도 안 붙고 입에다 너면 사글사글 해블고. 그렇게 해갖고 인자 그나저나 설달 동짓달부터 밀릴 거여 엿이. 그때는 매 고런 것만 해갖고. 또 딸 여우면 하고, 설 돌아오면 하고, 땃 달은 늘 새가 없어. 어쩔 때 대목에 혈 때는 40키로 20키로 두 개 세 개씩이나 했는가. 그때는 쌀 한 되에 얼마 그래. 썰겨갖고 달면 두 근이 나와 엿이. 또 해주고 그 수고비를 받지 인자. 그때 한 되에 얼매씩이나 받았는가 모르겠어, 세월이 지나 본게.

계속 허다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여그서 나오고, 아들이, 큰아들이 광주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디 시어매가 광주로 아들 밥 해주러 나가블고 아저씨랑 둘이 했는디 또 더 많이 해. 밀리고 아주 설달 대목이면 엿감이 못 다할 정도로 늘어브러. 그래도 엿히고 떨어져블면 돈도 떨어져. 고놈 해갖고 생활은 했겠지 큰돈은 못 벌어도. 논도 두 단

지나 샀죠. 인자 하도 고되고 한게 고놈 안 하고 살아볼까 하고.

여그 콩나물 한 양반이 있었거든, 키 짜간하니. 그 사람 어머니가 했거든 질아갔고. 그 양반이 못 허겄다고 우리보고 맡아갔고 하라더마. 옛보다는 나실란가 싶어서 300만 원을 주고 맡았어. 고놈을, 인수를 맡았어. 콩 팔아난 놈하고 통하고 어찌고. 그때는 큰돈이었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댕겼을 땐게. 그레갓고 한디, 옛보단 나실라냐 하고 딴 연구를 해갓고 아들을 대학교 갈키고 그럴라면 돈 벌어야 한디. 그런 것이 콩나물 콩 이런 거 안 받고 내가 험다고 해도 한단디, 우리 슷헌 바보들이 꼭 받아야갓고 험 줄 알고 속아갓고—

우리는 새로 아래채를 저갓고 거기다가 창고를 크게 해갓고 시암을 파갓고 물 주고 키운디, 약을 못허겄더마. 비료는 안 줬는디 담글 때부터 약을 해. 안 썩은 약이어. 근디 우리는 도저히 양심상 못 허겄어. 약을 험게 담글 때하고 놀 때하고 놀 때는 통통한 약허더마. 비론가 어쩐가 모르고 그 집에서 준디 많이 허면 통통해져브러. 난 그래서 통통한 놈 안 사다 묵어. 못허겄더라고. 고놈을 허든 또 팔러 장에를 가야 해. 가게에서 또 갓다줘야 해. 돈도 얼른 안 줘. 근디 저 콩나물집 할매는 가서 욱히고 그레갓고 받은게 우리는 그러들 못해갓고 외상이 깔려갓고 안 돼. 돈을 안 줘. 그래서 또 빚져봤지.

그레갓고 인자, 험디 옛 고놈 해갓고 살아란 팔잔가며. 그래서 옛을 또 겁나게씩 했지. 겁나게 밀려봤어. 글쁜 사방 데서 죽곡도 우리 어

머니가 갈쳐갓고 가서 고향인게 시방 간 데 거그서 살아갓고 우리어머니가 가서 갈쳐갓고 해. 그레갓고 몇 년을 했지.

스물한 살에 시집와갓고 우리 딸 나갓고 딸 업고 꼬두밥을 써갓고 했으니 40년을 해서 지금 어깨가 아파. 심은 많이 봤지. 저그 전라북도에서도 와. 딱 배달한 것이 없어. 외상이 없고. 돈 갓고 와서 찾아가.

그레도 우찌게 짤이 아주 서 되 열 되 갓다가 강산더미같이 쟁이는디, 안 적어나도 안 잊어블고 찾아서 어찌게 해줬나 몰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허다고 해싸. 글고 인자 돈으로 또 해도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 식혜를 아조 대목에 널배기로 네 개 다섯 개씩 넣고 했어. 방은 따뜻하고 따시제 인자.

요 건물 자리에서 많이 했어. 땅세를 인자, 거 뒤에 인자 요 집이 조간 넓혀집서 땅주인이 받아블지. 그 뒤에 우리가 땅 팔아라고 한게로 안 판다고 그레. 그래서 우리는 집 시워나블고 오지리로 이사 가블라고 근게 할 수 없이 팔더마.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을 주고 샀어. 막둥이까지 나갓고 샀나 모르겠어. 이제 우리 집땡키더마. 념의 땅에서 살 때는 내 집이다 생각이 없는디 지금은 내 집이다 그레.

여그 삼서 시어머니가 팔십일곱에 돌아가셨는디 시아버지가 할무니가 돌아가셔브게 딱 들어앉아블더마. 그 양반은 글만 통 쓰고 새끼들 할아버지가 큰아들이랑 딱 갈키고. 가운데아들만 못 갈치고 막둥이하고는 갈쳤어요. 큰아들이 그래서 지금 향교에 댕기잖아요. 인자

우리 시아버지가 걸음을 못 걸어블고 어쨌든가 4년을 대소변을 아저씨가 닦아내든 나는 빨고 그레갓고 구십들에 돌아가셨어. 오래 살으셨지.

인자 근께 옛 해묵고 고놈 해서 내 사주가 물장시를 해야 맘이 편허다 근 사주다구 우리 시어머니가 그룬다 허더마. 옛 안 허고 판것을 할라 글면 손해를 봐.

우리 아들 군인에 보내놓고 인자 친정동생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신발공장에 검사원으로 태화고무신 가갓고 다닌디, 거그서 나와갓고 지가 공장을 해본다고— 뭐 그때는 우게 만들고 바닥하고 분야 별로 하는디 그걸 한번 해본다고 허더라고. 하례는 전화가 와서 누나 돈 200만 얻어줄 수 없을까, 공장 시작해 볼란다. 그레갓고 인자 매 형이 지가 빚을 헐지 모른디 200만 원을 내가 왜 줘야 하고 가더만은, 딱 가서 200만 원을 쥐블고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고 와브러. 그레갓고 벌어논 놈 딱 망헐 판에 시작해갓고는 돈 벌어논 놈 다 쥐블고, 논 한단지 고놈 논 사서 막 경지정리를 해봄서 딱 900만 원 받고 팔아갓고 딱 올려대봘네. 거그다가 돈을 다 올려대봘어.

내 사주에 물장시를 해랐는디 어만 짓을 해갓고, 아들이 대학교를 떨어져브러서 아들 나오면 하라고 한 것이 다 망해봘지. 살림이 다. 빚을 얻어갓고 대줬지. 아이고~ 인자 동생이 지 돈 벌어놓도 안 하고 해갓고 우리 돈만 다 갓다 해봘지. 지는 원룸 하나 사둔 거 올려대블

고. 논도 팔아블고. 뭐 원망도 못 허지.

그레갓고 시집살이를 했어. 그레 안 하겠소. 친정에서 살림 올려뒤서 뭐 논 팔아 묵어블고 고놈 해마다 농사 많이 짓고 옛히고 한 돈 날리고 못 풀고 돌아가셨어 시어머니가. 손 띠블고 나올 때 빚을 800만 원을 졌어. 고놈은 갓고 논은 복구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누가 해도 형제간히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레도 동생이라 짬해서 김장 하든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해브러.

시안에는 옛히고 봄여름에는 농사짓고 하우스도 했어요. 금께 지금 허리 수술도 했어요. 하우스를 근 30년 했을 거여. 안 해본 놈 없어요. 오이도 승귀봤어. 돈 되지. 근디 고놈도 약을 많이 해. 그래서 접었어. 옛은 쌀만 갓고 한디 오이도 오늘 약하고 내일 따서 보내야 허. 그래서 나 오이도 안 사 묵어. 내가 여름으로 승귀갓고 따 묵지 절대 안 사 묵어. 오늘 허고 내일 따서 보내야 한단계. 늙어븐게 어쩔 수 없어, 고려고 살아왔어.

다 착실하쥬, 그레도 새끼들 다. 그레갓고 요 옮긴 것은 도로 확장 함서 뜯겼지 집이. 계속 나무로 지은 집 살다가 뜯김서 들어가브렸지. 그레블고 40평 남아서 요것을 샀어. 안 팔라 헐 걸 어거지로 샀어, 텃밭을. 기어이 주시오 주시오 해갓고 130평인가 사갓고 아들이 인자 한옥을 진다고 해서 아들 줄라고 샀어. 아들 집이라도 짓던지 하라고. 인자 지 살다 나온 집은 막둥이한테로 이전을 해줬어. 그레갓고 요 집

집서 나랑 살다가 막둥이가 인자 나갔지. 나는 아들한테로 가고, 한옥을 먼저 지었은게 들어가고 막둥이가 고리 가고.

나 시집온게 요 역전에서부터 요 앞이랑 다 비포장도로여. 바람 불면 먼지가 막 집으로 다 달려들어서 물도 뿌리고, 아주 길도 좁고, 지금은 인자 큰돈 벌어놓들 안 했지만 나 쓰고 갈 놈은 있고, 새끼들 건 강하고 애들이 다 착해요. 우리 작은며느리도 좋아, 우리 아들들이 키가 작은게 한을 했는데 며느리들은 다 커요.

근디 요렇게 되더마. 내 새끼가 작으면 여자가 큰놈이 앵겨. 여자가 작으면 남자가 큰놈이 앵기고. 우리 딸도 나보다는 커. 근디 사우는 막 이렇게 커. 만나지더마, 찌울러져서 만나더라고.

할아버지가 지금 칠십여덟이예요. 농사 뭐, 강 하우스도 작년에 끝내뒀어. 수박하고 인자 메론도 심어보다가 해내고 깨도 조까 송귀보고 뭐 쪼까 해보고 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블고 한게 막둥이하고 큰아들하고 약속을 했는가벼. 굶는가 뭐 막둥이는 하우스 뜯은 사람들에 땀겨블고 뭐도 큰아들은 땀겨블고, 딱 내가 일주일 아파갖고 와갖고 본게 하우스도 뜯어블고 해갖고 어저지로 그만했어. 그거 하근 일년에 천만 원은 예금한디 아쉽지만 아들들이 띠어본디 어쩔 거여.

아직은 지들한테 용돈 안 받아 써도 지그들 착실한게, 며느리도 착하고 한게. 어찌 착한가 몰라 딸 같애. 며느리다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뭐 녀들은 막 욕을 해싸터만 나는 하나도 그런 생각이 없어. 손

지들도 우찌게 착해갖고.

부녀회장을 올해 시방 8년째 하나 모르겠네요. 올해는 내놀라고 한디, 맘을 묵고 있는디 내놔질란가 모르겠네요. 회원이 스물다섯 명이에요, 6구만. 그전에는 40명 되었어. 근디 많이 돌아가시고 이사나가고. 나이 지금 팔십세 살 잡순 양반이 개중 많이 잡셨어. 기차마을 수퍼, 저그저 거시기 황순경 어머니.

이양숙(여, 75세) | 오곡면 오지리 6구

동대문시장 짐꾼으로

김상기, 생일은 음력 9월 15일. 37년. 글쓴 지금 나이가 아든셋. 결혼은 스무 살에 했구, 할무니는 열아홉 살에 했어. 태어난 곳은 곡성군 곡성읍 구월리 1구였어. 내가 태어난 거이 37년. 형제간은 3남매. 어찌 그러게 나왔어.

아버지, 형, 여동생, 어무이 너이 살았어. 농사지었지. 옛날에 구월리에 무서운 짐승은 없었지, 무서웠지만은. 어릴 때 농사짓고, 학교는 곡성 중앙국민학교에 댕겼어. 그때는 걸어서, 헐 수 없이 걸어서 다녔지. 일본놈들 거이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나갈 때는 썼지만은 고것들 있을 때는 안 썼지.

그때 재밌는 일은 없었구, 힘든 일은 일본놈들이 힘들게 한게로 고 생했지. 맨손으로 때리지 않애, 작대기로 때렸어. 말을 안 듣는다고. 6년 동안은 공부하고 중학교 1년 들어갈라고 할 때 해방이 되어브렸어. 그냥 어찌게 물러간지도 모르고 열 몇 살밖에 안 묵어서 가담도

안 하고, 모르지. 그들이 시킨 대로만 했지.

곡성 고등국민학교라고 있었어, 선생이 조동기. 거그서 졸업하고 시험봐갖고 들어갔거든. 거그서 내가 육이오를 만나브렸지. 구월리에서는 한나 둘, 거의 다섯이 학교를 갔어. 구월리서 중앙국민학교까지 책보 매고, 신발은 서리라고 짚으로 맨들었어.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도 고놈 신고 갔지. 짚신이라고 안 해, 소리라고 해. 소리라고 요리 생겨갖고 발가락에다 끼어갖고, 형짚대기를 깔던지 어찌던지 하고, 게다가 신고. 게다가 알아? 나무로 맨든 거.

일본 사람들이 학교서 일본말만 하게 했어, 6년 내내. 후다라고 팻대기를 주고, 한국말 하면 스까다리! 그래, 그래서 고놈 뺏기면 디지게 맞고. 스다는 열다섯 장씩 15일 만에 조사를 해. 쌀밥은 못 싸고, 짬도 없은게로, 떡을 것만 장만하고 살고, 도시락 싸고.

우리는 나무장시 했어. 산에서 해다가 곡성시장에 가갖고, 새벽에 가서, 사갖고 가. 삭다리라고 나뭇가지 그놈을 하지. 몰라 나는 어릴 때라 얼마 받는지는 몰라. 국민학교는 3남매 다 가르쳤지. 할아버지는 내가 마흔여덟에 돌아가셨어. 중학교 졸업장은 그때는 한국식으로 들어와서 한국식으로 주지. 내가 5학년 땡가 해방이 됐어. 그때 졸업할 때 6개 반이 되었어. 한 반에 60명. 금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전부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비 오면 종이우산 샀지. 비에 젖어도 거 우산 거시기다가 뒤통을 입혀

갖고 땀 흘렸어. 비닐우산을 만든 게 아니라 덮어씌면 땀뻗해갖고 비 오면 주룩 나가브러.

옛날에는 미영 옷 입었지. 학교에는 교복은 없어, 여러 가지 색으로 입었지. 옛날에는 다 배 굶었어, 다 똑같았어. 쪼께 힘들었지만 괜찮았지. 학교 졸업하고 뭐 끌려가갖고, 싹 끌려가갖고 의용군 갔지. 간 곳은 함양 고리 들어갔어. 나는 안 끌려가고, 형님만 끌려가고 한국군으로 가고, 집안에서 하나 가쁜 나머지는 안 갔어.

나는 농사짓고 살다가 스무 살 때 장가를 갔지. 부인은 겸면. 중매했지. 매형 된 사람이 했어. 새각시가 쪼간했어. 농사짓고 엄마 아버지랑 살았어.

결혼해서 큰아들 내놓고 군대를 갔어. 군대는 논산으로 갔지. 거기서 인자 한디, 보충대라고 거기 어딘가 몰라. 거기 있다가 광주 통신 학교로 가갖고 졸업하고 장거리 통신이라고 대구 가갖고, 난중에 원주로 갔지. 육군이지. 헌병대 쪼께 허다가 말았어. 헌병대들은 군대에 일은 똑같애. 시방 말하든 순경땡기로. 뽑아가갖고 함부로 허게 한디 못 허겄더마. 허기 싫다고 해도 괜찮았지. 옛날에는 군대가 3년이었지. 힘들 때는 뭐 마찬가지여. 군대생활 허다가 헌병대 나가갖고 한 일 년 하다가 제대했지. 군대 안에 헌병대를 했어. 헌병학교가 있어. 군대생활하고 똑같애. 군대 잘못된 거 보고, 군인 물품 팔아본가 보고 또 그것밖에 뭐. 가면 뭐 그전에 땡기로 경찰 본 놈 땡기로 똑같아. 요

새는 안 그러지만.

제대하고 와갖고 고향에서 농사지음서, 애기들 딸 둘 아들 둘 낳고, 키울 때는 농사짓지 뭐 없어. 서울까지 쎄 벌다 말았제 뭐 없어. 별것을 다 했어. 서울까지 지게 다 지고, 제대해놓고 이듬해 갔지. 아내는 애들허고 살고, 어무니 아버지는 따로 성남허고 살고, 고려고 살았지.

서울 가서— 그때는 차도 없고 열차로 가. 저녁에 11시 50분이른 출발, 도착하든 담 날인디 12시에 도착해 서울까지 동대문도 가고 여러 군데 갔지. 지게 쳐다보면 거리에 있어. 뭐, 농사짓는 놈보단 나왔지. 벌어서 시골로 보냈지. 평화시장에서 옷을 많이 줬어. 평화시장에서 뒤적거리서 내가 부쳐. 그 사람이 시방 뭐 나 돈 다 해갖고 600인 가뻘에 없었어, 올라갈때 갖고 간 놈 다 써갖고. 근디 동대문시장에서 서 있는게로 아저씨 하나가 어디서 왔냐고, 날 600원 주고 여기 있으시오, 내가 지게를 하나 만들어갖고 주지, 하고는 지게를 갖고 와서 집 지라고 들고 왔어. 내가 거리를 알아야 돈을 아는데 모르게. 뭐 그레갖고, 뭐 아저씨 바쁜디 물어볼 수가 있간디. 그 아저씨는 구루마 같은 큰 거 하고, 어쩔 때는 밀까블고 어쩔 때는 벌고 해서 한 3년 했지. 돈 띠고 한 거 없어, 다 잘 주고 뭐 까먹는 사람은 없더만.

거그 밥장사가 있어, 거그서 먹고 잠잘 데만 벌여갖고 자고. 3년 하고 다시 내려와서 농사 좀 사갖고 했지. 지게만 허고 내려와갖고 농사— 그때 서울에서 뭐 얼마 낫다고 사갓냐고 그러면 내가 사갓다 그

래갖고 서울 있음서 몇 마지기를 샀어. 걸로 농사지고 어찌고 하다가
켰지.

애기들은 뭐 큰애는 시방 저 대통령상 탔어. 큰아들은 키워갖고 삼
성조선소 거이 가 있다가 건조2과 과장했어. 처음에는 큰아들 용접
하고. 용접만 한지 알았는데 지가 해갖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
는 상장 타고는 안 했어? 퇴직했어. 지금은 부산 공단에서 강연하러
댕겨.

둘째아들은 지금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학원 하나 꾸며
갖고, 큰딸은 시방 장사하지. 아내는 구월리 동막서 혼자 살아. 논밭
씩 팔아블고 냄들 쥐블고 그냥 살아.

근디 뭐 파킨슨병에 내가 걸려갖고, 한 20년 났다 한게로. 처음에는
요리고 안 아팠지, 처음에는 그냥 거스기 다리가 이쪽저쪽 해, 쉬 마
렵고. 나중에는 병원에도 못 가고 시설이 있어서 요리 왔지. 병원에서
얼마나 있가니 뭐, 아내도 뭐 흐지부지 아팠지. 시방 자식들이 있는
것이 잘한 것이지.

여그서 잘, 뭐 자식들이 델러 와. 태우고 가서 집이서 한 이틀 자고
다시 실어다 주고 가. 내가 후회되는 것은 큰 병원에 가갖고 파킨슨
할 때에 내가 팔십까지만 벌고 이리 구경 온 아내가 시켜서 봤는디 아
파브렸어. 뭐 자빠져서 아내는 금이 가갖고 고쳤다고 하지.

나 여기 있음게 아들들하고 식구들이 다 보고 싶지. 아내랑 전화가

안 되야. 통 약하게 들려서 못쓰겠어. 저것이 늙어서. 아내가 뭐 아들
이 준 놈이나 조개 같은 거 갖고 오고 과자 좀 사 오고 그래.

옛날에 구월리에 나무할 때 뒷산으로 가지. 아버지 엄마 따라가다
가 동네 사람들 따라가다가 했지. 그때는 용돈도 소용없고 지냈지 뭐.
친구들은 죽었어 많이. 고향에는 하나도 없어. 조동기 선생이 기억나
고 뭐 양열이, 양열이가 셋터 살아. 또 잘 모르겠네 친구들.

학교 가든 일이삼사, 일본 왕 천황이라고 이런 거 가르쳐. 학교 가
든 있다가 조회하지, 운동장으로 썩 나와갖고. 교장이, 일본 사람이
강의하든 듣고 교실 가갖고 공부하고 그랬지. 아침에 일찍 가지. 학교
에서 여덟 시나 시작해갖고 일학년 때는 쪼까 하고 끝나지. 점점 시간
이 좀 늘어져, 그러지 뭐. 집에 오면 다섯 시. 점심밥은 썩 갖고 가. 그
때는 쌀밥을 들켜, 보리밥 갖고 가고. 쌀밥 들키든 뺏어가브러. 한국
사람은 더럽다고 안 먹어, 버리겼지.

공책은 아버지가 사 줘서, 어디서 샀능가 모르지. 보리밥을 일귀갖
고 섞어서 가고. 반찬이 있었는가, 아버지가 그런 것 보든 좋았어, 멸
치에다가 쫄여갖고 멸치가 칼슘이 많다고 묵어야 한다고.

모내기철에 뭐 그때는 내가 어려갖고 쪼께씩 일을 거들었는디 뭐
남은 게 있가니. 나는 뭐 농사 쪼께 거들다 서울로 갔지. 서울서 짐꾼
할 때 돈을 벌어서 기반이 돼서 논 몇 마지기 주워서 질귀 묵고, 만 원
질구면 십만 원 받고, 또 또 얼마 질귀서 불리고 벌어 묵었지.

아들 뒤편 용돈 주긴 준디 그리 많이 안 줘. 금께 우리 저그, 집이 통장이 있어갖고 통장에 부치면 아내가 찾아갖고 고놈으로 뒤편 사와.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해.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그때가 열여섯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열여섯에 학교 3학년 다 하고 거시기 하고 몰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를 키웠어. 질짬해서. 삼 해갖고 짜고 고놈 팔아서 키우고. 우리엄마는 나 열여덟엔가 아홉엔가 돌아가시고 성님이 장가가서 날 키웠어. 어머니하고 성님하고 날 키웠어. 그래갖고 성님이 날 장가를 보내줬어. 여동생은 시방 금지에 살고 있어. 형수도 지금 형수 집이서 살았지. 일 년을 있다가 지금 나왔지.

집을 조그만 오두막을 성님이 사 줘서 나왔지. 형님 조카들이 아들이 다섯, 딸 하나 있어. 고놈 좁아서 팔아블고 지금은 새로 지었지. 서른 살에 팔았는가 몰라. 기지가 좋아서 일찍 팔아브렸어. 돈을 벌어서 새 집을 사갖고 그때 집도 또 뜯어블고 새로 지었어 좋게, 형수는 지금 건강해.

김상기(남 82세) |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전봇대 만들었어

박일호, 42년 8월 9일. 지금 77세.

남원군 금지면 입암리에서 태어나서 거그서 일곱 살 때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로 왔어. 외갓집이 거그여. 쫘 있다가 엄마가 인자 오곡으로 재가를 했지. 일곱 살 전까진 기억이 없지.

학교는 오곡국민학교 댕겼어. 금지에서 태어나갖고 어머니가 재가 해갖고 일로 왔지. 아버지는 나 둘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지 나는. 그런게 인자 지금도 아버지 형제간은 다 죽었지. 4형제가 다 거그서 살았어. 아버지는 일본놈들이 전쟁함서 잡아갔어, 모집해 갔어. 일제 강점기 때 일본놈들이. 아버지는 남양군도로 해군으로 배 타고 가서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해부러서 죽었지.

나는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일찌감치 죽어브렸고 나는 독자지. 누나도 거그서 쫘간해서 금지서 죽었어. 엄마는 저그 고달로 왔어. 가서 외갓집에서 살다가 내가 여섯 살 때 오지리로 재가를 갔지. 그췌 형제

들은 남매가 있었고, 나는 여덟 살에 학교를 들어갔고, 어리니까 뭐 모르고 조계 살았지. 지금도 왕래하고 살아. 엄마가 가그 전에 남매가 있었고, 엄마가 셋을 낳어. 아들 하나 딸 둘. 씨가 다르제. 그전에 형제 간들은 나이가 많았지. 따로따로 살았어. 그 형제들은 나이가 많아서 따로 살았어. 그때 당시 그 집 아들이 면장이었어. 초등학교를 여덟 살에 들어가갔고, 육이오 때는 오지리에서 지냈지. 와서 총 쏘고 그런 거 봤지, 빨치산들이.

해방될 때는 어려서 잘 모르고, 오곡에 금천교 밑에서 다 죽어진 않았고. 전남 저 토벌대장이 다리 밑에서 글썩 기관총을 쏘 걸어놓고 저기 근디 똑똑한 사람들, 청년들 다 죽일라고. 근디 안학선 면장이 저 사람들 죽일라든 나를 먼저 죽여라 하고 다리가랑이 붙잡고 그래서 살았지.

나 땡길 때는 내가 백구번이었어 학교에. 한 반에 한 42명, 3반까지 있었어. 오곡에 남문허고 동문이랑 있었어. 고인들은 없고. 다른 데서는 고인들이라 안 한다, 큰 계 거기 있어, 그 밑에는 자갈이 있어 또. 그래서 그걸 보고 고인들이라 그래. 그것이 아마 독이 동문 쪽도 아니고 남문 쪽도 아니고 기차다리 밑으로 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 책보에 보따리 싸갖고 땡기고 학교를 그랬지. 반 다 나뉘갖고 오전반 오후반은 안 하고, 땡기고, 오곡 보고 605대촌이라고 그래. 사람 겁나 많았지.

나 살던 데가 오지리 7구. 다리 막 건너 압록 쪽으로 주조장에서 쪼까다리 건너가잖아. 거기 위에 큰 정자나무 있는데, 거그가 7구여. 읍 같은 데는 가서 안 놀았지. 거리가 멀고, 어릴 때 인자 그때는 뚝도 없었고. 인자 떡 감으러도 가고 인자 소풍도 가고, 감나무 사과나무 서리 해 봤지. 감 따무러 갈라본 캄캄한디 몰라. 그래서 바가지를 써. 그걸 요리요리 흔들면 따각따각 걸러들어서 캄캄한디 단감인지 쓴감인지 몰라서 입으로 베 묶어보면 뚫으면 안 따고 다른 나무 가서 해보면 달든 애들이 훌쩍 다 따 묶어볼지. 그럴 때는 주인한테 밤인께 안 들 키고, 수박도 해보고. 수박은 익은지 안 익은지 모르면 귀에다 대고 짹 눌러, 거기서 짹 소리가 나면 익은 거여.

그때는 뭐 인자 그 이붓아부지는 나이가 많아서 일도 안 했지. 그때까지는 머심을 두고 했는디, 부잣집이어서. 각시가 죽어브러서 간 거여. 그때 석바우 금바우라고 한 하인, 양반 축에 못 들어간 그 사람들 중매로 간 거지. 나는 인자 거그서 깔짚이지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소 키운데 갈 갖으로 베다 주고 나무도 해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이 여까지 풍풍 빠지고, 나무하러 가갖고 풍풍 빠지고 저그 산으로 가고 나무도 하고 그때가 한 열다섯 살에 졸업을 했은게 여섯 일곱 됐지.

허다가 인자 커갖고 군대를 갔지. 강원도 철원으로. 그때 당시에 잘 못헌 사람은 많이 맞고 영리한 사람은 덜 맞고, 먹는 건 아주 배고팠

지. 양이 작게 삼시세끼 제대로 주는데 반찬도 뭐. 전방에는 면회도 못 오고. 전방에 들어가기 전에 논산훈련소 졸업하고 후반기 가는데 좋은 놈의 옷을 줬어. 여섯인가 일곱인가는 누더기 옷을 주고. 대전 병창학교를 가서 좋은 데 간다고 누더기 옷을 줬어. 우리 선배들은 대구로 가고 우리부터는 대전으로 갔고. 이제 의정부 배출대로 가서 2주 인가 있었는데 좋은 구두도 뭐이고 싹 나온 놈들한테, 석방해 준 놈들한테 싹 뺏겨보고 현 구두싹 하나씩 신고 갔지. 의정부 가서 싹 배출 받아서 이제 철원으로 갔지. 딱 20개월쯤 있었지 철원에서.

철원은 똑같은 철조망 있는 데가 아니라 남방한계선이 있어. 거기서 30리쯤 또 가든 철조망이 있어. 거그 뭐 장벽에 쓰여 있는게 아니고 삼팔이라고 딱 써서 하나 쪽 늘어놔서. 거그시 삼팔선이야. 그래서 그때당시 딱 넘어오고 그래봤지. 우리가 넘어가든 싹 죽여보고, 그짜이 넘어오면 또 싹 죽여보고. 옛날에는 남 통화를 그 총 쏘는 자리를 징끼라고 하는데 선배들은 겁나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회로, 세멘트로 해갖고 완전히 했지.

제대하고 오지리로 내려오고. 여그서는 인자 뭐 첨에는 인자 집에서 있었는데 벌써 스물다섯살이 아니야? 여그서 결혼했지. 결혼해갖고 산골짜기로 왔어 장가를. 가정 옆마을 탑선으로 색시가 세 살 떨어진게 스물두 살. 그 거그서 우리 동네로 시집온 사람이 있었어. 저그 각시를 데리고 오지리서 살다가 의사가 틀려갖고 합의이혼을 해줬

지. 내 손으로 써준게, 도장을 찍어서 줬은게,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직. 일 년 만에 애기도 하나도 안 낳고. 골짜하고 여그하고 차이가 있어서 안 맞아. 의사가 안 맞아. 여그 또 남자를 해갖고 와서 베라고 해도 베도 안 하고. 그래갖고 일 년 있다가 장가를 갔지. 스물 일곱에. 애기엄마가 스물다섯 살 때. 월봉리 사람. 내가 미남이잖아. 그래서 왔지 뭐, 하하…….

인자 그때부터서는 함께 살았어, 아버지랑 엄마랑. 농사짓고 살았지. 그래갖고 인자 어무니가 갖고 온 돈이 있었어. 그래서 논 두 마지긴 샀어. 나도 인자 장가는 보내야 한게 눈을 사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고놈이 그거했지.

나도 인자 성장해블고 애도 나고 장가도 가고 해서 벌러 갔지. 애기들 나갖고 본가에서, 거그서 돌 낳고 재금을 동네 밑으로 나왔지. 저 50미터 우게서 밑으로 내려왔지. 재금 날 때 논 두 마지기 갖고 나왔지. 고리짜 하나 짊어지고 나왔지. 솔단지 밥그릇 이런 거. 집은 사갖고. 그때 집값은 뭐 공짜는 아니지만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공짜지.

인자 거그서 살면서 첨에는 도로공사를 따라댕겼지, 길 난데. 거그서 인자 땡기자고 하니까 시골이 갖잖아, 거그서 날 공장이 아니고 돈을 더 받는다 고 하더라도 월급 탄 것만 못하게 생겼어. 일당으로 받았어. 그래갖고 한 2년 다니다가 도로 넓혀주고 옹벽도 치고 그러고 땡겼어. 근디 사장이 잘 봤던가 어쨌던가 몰라도 인자 거그서 감독하라

고 하더마. 일을 시키라고.

근디 거그서 썸 구레 쪽으로 내려간 디 가정리 앞에서 웅벽을 쳐. 가만히 생각해본게 세멘트는 남아. 근디 썸배를 감독관이라 보면 썸배같은 걸 너면 작업을 중단시켜. 그래서 내가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저그 저 당신들 지계를 짚어지고 오지, 그래. 그럼 한 세 덩이가 두던 두 덩이가 두던 짚어지고 오셔, 그럼 내가 품삯을 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짚어지고 와. 그럼 또 웅벽에 넣어.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고 빨리 차오르고. 글고 남은 것은 가져가서 부뚜막에라도 부어라고 하니까 좋아라 하지. 낮에나 돌아댱기지 밤에는 오가니 감독관이. 그래서 갈 때 또 짚어지고 가고, 올 때 돌 짚어지고 오고.

글고 저 다리, 오편다리도 세울 때 일하고. 그때 당시는 철근 조립했어. 감독은 안 허고. 세워갖고 붙이갖고 비아를 세우고, 글면 또 거기서 일을 했어.

그러다 삼원공장이란 것이 생겼어. 그래서 나 이제 공장에 간 것이 낫겠다 해서 갔어. 전봇대 맨들고 녹강 맨들고 해. 근디 어째서 창고로 가라 하대. 그래서 인자 창고서 한 2년 또 댕겼어. 그래갖고 거그서 인자 오래 있었지. 거그서 인자 애들도 갈렸지. 아들 둘 딸 둘.

아주머니들도 저그 기업을 겁나게 다녔지. 녹강소에 가서 이놈들이 가이네들 쫓아내고 잡고. 고것들이 맛있는 음식도 해다 주고 그래. 근게 인자 돌아댱기고 전봇대 댕그는 데 가서 요리 시찰 돌면 술 받아라

고 하든 얻어먹고. 밥은, 점심밥은 주니까. 마음에 든 여자도 있었지. 거그서 두 사람하고 연애해 봤지. 거그서 11년 일했어. 애기들도 다 갈치고. 월급은 별로 안 많애.

끝날 때 인자 현장으로 나갔어. 전봇대 댕그는 데로. 크레인이라고 있잖아, 그거 몰고 댕기고. 공장 내에서만 짐 옮기고. 삼원기업에 모래는 이제 섬진강에서 갖고 오고, 군청에서 모래 팔아가지고 팔고. 오지리 치만. 돌도 석산에서 갖고 와갖고 깨서 쓰고. 전봇대 댕글 때 자 같이 들어가고. 인자 그래서 섞어갖고 콘트리트 비비고. 모래가 몇 키로면 세멘이 몇 키로 해서 비비고 또 댕글어서 보드 조립하고 원심을 쥘. 그럼 또 받으면 고놈을 짐통에다 썸갖고 인자 한 세 시간 정도 썸서 꺼내면 전봇대가 되는 거지. 그때가 한 사오십대 한창 그랬지.

큰딸만 고등학교 갈렸어, 다 대학을 가르치고. 우리 저기 재가한 아버지나 나 장기간 뒤에 돌아가셨지. 엄마 혼자 새끼들 다 키우고. 아버지 재산이 좀 있었지. 농사는 또 내가 지고, 삼원기업 댕김서. 다섯 마지기 있었어.

엄마가 난 형제간들이랑은 지금도 만나지. 아버지 본 각시가 난 남매들은 오지리서 살아. 나는 인자 나이가 찬게 정년퇴직을 했지. 전에 부인 있을 때 얘기는 하나 여웠어. 글고 내가 세 명 여웠지. 어머니는 인자 계속 모셨지. 어머니는 옷집에 살고 나는 아랫집에 살고. 나는 인자 거그 애들이 다 선량하고 딸은 시집가בל고 아들은 순천으로 가

틀고 뭐 엄마랑 나랑 산 거지.

나는 인자 부인이 내가 육십하난가 육십인가 그때 각시가 가브렸지
혈압으로. 나는 퇴직해갖고 농사짓고 살지.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애
들도 뭐 장가는 안식구 살았을 때 딸만 보내고 나머지는 내가 보냈지.

내 큰딸은 순천서 미장원 두개 해. 글고 인자 큰놈은 전기공사. 둘
째놈은 측량기사. 막둥이는 경찰서.

나는 인자 혼자, 거시기 부인이 죽어봤은게 요양원 와야지 하고 왔
지. 지그들이 나를 못 모신게 요리 갖다놔봤지. 거그 있으면 땀날 술
만 묵은게. 어머니는 인자 저기 현재 요양병원에 있어. 어머니 연세는
한 구십 일곱.

박일호(기명 남 77세)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아내만 고생시켰네

내가 팔십세 살 묵었어. 호적에는 정대석이라고 돼 있고, 정대창이
라고 해야 알아. 지금 음력 팔십 둘. 나 결혼 열아홉 살에 하고 아내는
열일곱 살에 하구. 오지리 여 2구 2길에 20번에 태어났어.

아 그때는 인자 큰집이가 있었고, 큰아버지가 있었고 인자 아버지
가 재금을 냈어. 앞골이라고 했었어 여기가. 그래갖고 여그 오지리에
재금을 냈었어. 큰집은 오지리 원동네서 살고.

형제간은 4남매. 네 형제. 큰집히고 살면서 잘살았어, 머슴도 둘을
두고. 인자 농사를 많이 진게 탄 거 뭐 있간디. 탈곡은 원래 흘태라고
나락을 잡아땡기는 게 있었고, 그 뒤에 앵 돌아간 경운기 탈곡기가 있
었고. 지금 콤바이가 나와서 세상 좋아져브렸지.

그때는 벼늘을 쳐 쟁여갖고, 나락을 쟁인단 소리여, 머슴들이 저 날
라. 배고픈 세상이고 근께 달밤에도 저 나르고 술을 담아서 머슴들이
순전히 뭐, 한들 메꾸지 그런 데서 전화를 하고. 한들이 저 넓은 들을

보고 그래. 여그는 용부댕이라 글고, 원래가 오지리를 처음에는 우곡이라 그랬어. 짝골골짝 소우자 우곡이라 그랬고, 현재는 오곡이라고 하고 있지. 근게 그전에 비교를 하면 너나 나나 배고픈 세상에 지낸게, 예전에는 여자들이 배고파서 남 밭을 매주면 보리쌀 두 오금가량을, 하루 내 썩가 빠지게 일해 봐야 두 오금 가져와서 아들이랑 먹고.

나도 아들만 너인디 갈친 건 그만두고 밥을 못 먹어. 막둥이는 고등학교까지 갈친디 그 우에는 국민학교만 보내고 못 갈쳐. 큰애를 보고 마당에서 달구둥 주서 먹어가면서 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 큰집이서 살 때 나로 해서는 사촌형이 있었고, 면에 땡겼고, 큰형은 일본을 들어가블고 없었고. 그러고 살았어. 나 형제간은 형제여. 작게 낳아. 그레갓고 몇 살 때 큰 형이 나온지는 모르고. 젊었을 때 나오신게. 그때는 우리는 인자 알간디, 쪼깐한게 잘 모르지. 그때만 해도 큰집이가 잘산게 큰 소 키우고 그러고 세상 살았지. 박달 구루마 끌고 땡김서도 했었어.

그전에는 순전히 농사, 열 마지기 스무 마지기 지금은 해도 대학교를 못 보낸 세상인디. 농사지었지. 저 옷집에서 있었는데, 어찌 배가 고포디 집을 팔아묵고 내가 여그 집을 지었어. 아주 작은 집으로 왔지. 육이오는 여그서 만났지. 여그서, 오지리서 팔일오 광복도 맞았지. 어떻게 배고픈 세상만 지내서 눈 깜으면 묵을 거 생각이지 별거 없었어.

나는 인자 그때는 중신이었지. 내가 처갓집은 미산이여. 그레갓고 나는 오지리서 살고, 어떻게 중신을 해갓고 한눈에 뽕 가브렸지. 그때는 하 예뻐었어. 결혼식은 처갓집 미산서 구식으로 했지. 절 몇 자리 한지도 잊어브렸지 인자. 그레갓고 저 시집 장가간 지가 60년이 넘은디, 근게 세월을 잘 몰라, 어찌 배고픈 세상만 있어서.

애기들 키움서 애들은 집이다 나뉘블고 나가서 밭에가 일하고 달구똥을 주서 먹고 산 놈 피골해서 잠잔 놈 깨워갓고 죽이라도 뻘이고. 하이고~ 아들만 너이여. 근디 지금은 아들 둘 딸 둘이면 대복이여. 근디 그전에는 몰랐는디 지금은 아들들을 키우고 살다 본게 아들허고 딸허고 있어야 살지, 편허지, 며느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암 소용 없더라고.

그레 인자 그때 나는 일을 가고 애기들은 두고 갔던 세상인디, 젊은 날에 농사만 지었어. 육이오 때 거이 순사놈들, 때려죽일 놈들이 달과리 다 내서 쳐묵기도 하고, 개죽음을 했어 다리 밑에서, 두드러페고. 우리는 어린게로 얼싸얼싸하니 넘어가고 거그서 죽은 사람들 한이 맺힌 사람이 하나들이 아니터만. 저그 뭐 떠발총을 갖다놓고 쏘아 버리기도 하고. 청년들이 여가 켜어, 억센 놈들이 많고 밭치산이 많은 판이라 그런 거 같아. 나 어릴 때는 거 모래가 많아서 고기 같은 것도 참말로 푸짐허이 잡고. 그때는 해묵을 기구가 없신게 꾸어서나 조계묵고 양념이 있어야 하고 묵지. 배고픈 세상이라 어떻게 넘어온지도

몰라. 지금은 내가 고맙다고 생각한 거야, 애들이 지그들이 컸어. 초등학교 보내고 막둥이는 고등학교 보내고. 아이고~ 배고픈 세상 그전에는 아유 말로는 못해. 시방은 인자 머리가 놈판이 돼서 팔십이 넘어 크게 캄캄캄하고 잊어블고 몰라.

그전에 내가 생여 앞소리도 했었고, 누가 죽으면 앞에 선소리꾼이라고 그러지, 선소리꾼을 내가 사오십 년을 했어. 그런게 생여를 첨에 나가든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말허자든 땡인여. 죽은 어무니 아버지를 저 옷목에다가 그전에는 하아 지랫대를 세 번 엮어서 새땡기로 엮어갔고 옷가름을 싹 개려갔고 눅혀놔. 수족을 건어준다고 한 것이, 우아래 다 걸어서 베개 짚으로 베서 놓고 거그서부터서 3일 만에 출상을 해. 생여를 만들어서. 그전에는 상여계가 있으면 상여계원이 있고 아니면 오지리 육동 하인들이 있었어. 동동 남동 후동 창동 해갓고 육동. 오지리가 일구 이구 하잡애, 그전에는 동으로 있었어. 그랬다가 인자 구로 갈라지고 그랬지.

그전에는 죽으면 집에서 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흰동으로 상여를 해서 너이 매고 나기블기도 하고. 밥 조계 묵은 사람은 소리를 하고, 육동 하인들이 내고 그러고 나가고, 그 뒤는 자식들이 크고 한게 계가 있어서 계원들로 해서 요리 생여를 매고 그러지.

그럼 인자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하든, 선소리하요~ 한 9시경에나 초경을 하고, 에에~ 에에~ 에에~ 에헤에 넘 차 어이야 어~ 그래. 그

러게 하든 후소리를 에에~ 에이~ 에에~ 허~ 허어 허~ 허이야~ 어허이 듨차~ 어허이 우~ 요렇게 뒷소리를 하고. 상여를 땡 사람들이 산에 가서 해주고 묶고 들어와서 3일 초상을 해. 지금까지 하다가 장례식장이 있어본게로 현 지가 한 10여 년 넘을 거야마. 인자 10여 년 전만 해도 아들들이 와서 해주고 나도 3일간을 고생을 해야 된게, 밤에도 12시까지 삼경소리까지 해야 해. 초경을 하고 중경 하고 삼경 하고, 삼경이 12시야. 그리고 아침에 9시나 10시나 되면 산으로 나가제.

여그 오지리 산이 옥갓이라고 했던 산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 많이 해서 앞산 다 기어, 오지리 대동계 지금 저 유사가 있는데, 대동계 유사가 회장이라고 그런디 그걸 한 지가 어어, 우리 오지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5억이 넘어. 앞산도 다 기고. 개인소유가 아니지 없지. 우리 오지리 동네 재산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글게 만들었어. 논도 한 열한 마지기 있어. 오지리 땅으로 해서 있는 것이. 글고 인자 우에 가서도 집도 사 놓고, 우리 인자, 우리 회장이 있당게. 그전에 동네 오지리 총회장과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제.

애들은 졸업하고 서울 가서 있다가 스물대엿 살 묵어서 갔었고, 장가를 들쨌도 그랬고. 그랬어 그냥. 거기가 내 동생, 할아버지가 있어서.

동네 가운데가 1구고, 여그 요쪽에가 2구고, 신작로 밑으로가 2구

3구 그래. 우로가 4구 5구. 지금 저그 보건소 바로 있는 디앞에 가서 동문이라고 써졌지. 서문 가서는 어디가 있냐든 동네 제일 끝터리가 면 있어. 그때도 요 냇가가 겁나게 컸고, 사람이 죽으면 동네 산이 있는게 거기밖에 못 묻어. 가서 할아버지고 할무니고 갖다 묻지만 우리 대동계에 회원이 아닌 사람은 5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주고 묻어야 돼. 운영이 짱짱하게 잘해져~.

갑계가 있었는데 요리해서 제일 그전에는 대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면장까지 해묵었어. 오곡면장 한 사람이 갑장인디 학교도 제대로 잘 졸업도 안 했지만은 영리하고 똑똑한게 면장까지도 해묵었어. 그러게 그전에는, 지금은 대학교 나오고도 취직을 제대로 못허잖애. 그전에는 곡성고등학교가 이름도 별로 안 나고 했어도 고등학교만 나와시면 각 직장 붙들어뻬어. 내 조카도 놓고 나오고 면장까지 해묵고, 중학교 교장까지도 해묵고 그랬어 지금. 지금 그 사람들이 칠십야달 아홉, 많이 묵어야 팔십. 우리 정도만 해도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도 드물었지. 나는 인자 아버지 밑에서 오곡국민학교 다 졸업했지. 20회 동창이여.

여그는 인자 명산저수지 거가 켈로 높고 좋은 게 뚝이 있었고, 저그서 그냥 미끄럼도 타고 놀고 허고 그래. 그때가 좋았지. 도시락 싸든 열매나 뛰고 막 좋아서. 우리도 오후에는 저 거그 뭐라고 허냐, 요쪽에 학교에 인자 그 화단에서 공부를 허고— 학교가 좁아갔고. 화단서

할 때도 있었고, 오후에 땀기고. 그전에는 눈 한 번 바로 뜨들 못 허고 선생이라 허든 죽는시늉까지 했어. 여그 중앙교 있고 명산도 학교가 있었고 오곡이 있고. 지금도 뭐 있는디 거그도 지어갔고. 압록서도 학교가 있었어. 처음에는 요리 왔지. 여그 저 덕산, 구성, 명산, 쌍구, 골짜에선 다 오고, 송정, 침곡 다 오고. 학생수가 많았지. 우리 집은 밥술이나 묵었다고 봐야지. 그때 당시에는 일학년까지인가 일본 사람들한테 배우다가 조선으로 돌아왔지. 오래되어갔고 교장은 모르지.

구호 원조 온 것은 모르고, 10월 20월도 아버지한테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런 사탕 같은 것도 가물가물하지만, 아버지 어무니가 돈 준 역사가 없는 것 같아. 몰라. 그때 뭐 땅만 있으면 부자여. 그전에는 어디 공장이 있었어 뭐 있었어. 근디 여그 삼원기업 생겨갔고 부자가 되어뵈네. 거그는 어떻게 해서 모가지가 걸려갔고 탄 놈이 차를 갖고 가는디 내가 거그 수위를 했었어. 수위를 헌디 내가 그전에, 근게 나는 사는 세상이 아버지는 공부를 갈칠라 그러고, 나는 공부를 안 할라 그러고. 그래갔고 인자 서당에를 내가 땀겨어. 아버지가 허다못한게 오죽해야 책보를 들고 땀기면 어따 감춰블고 안 가본게 아버지가 도치에다 놓고 조사본 양반이여. 그러게 허다못해서 중학교를 갈 판인디 내가 문앞에 가다가 여났는디 안 가블고 하다가 못 헌게 서당에 부남 선생이라고 안씨들 집안에 여우내 신장사 거 밑에 거가서 안부남 선생이라고 서당 선생이 있었어. 서당에는 한 20년 30년 다 와서

쌀을 짊어지고 와서 살고 공부했어. 나도 땀기다가 또 땀 바람이 들어가 그것도 안 해봤어.

공부는 뭐 신진식이라고 신 군수, 부군수 했던 거기가 어디 살았냐든 봉조리 살았는데, 신진식이 부군수로 왔어. 그때 인자 나는 무었을 했냐, 서당예를 같이 땀김서도 닭을 많이 키워. 배고픈 세상에 닭피기가 얼마나 묵고 싶었겠어. 이려고 막 글을 읽는데 배가 고파서 막, 나도 인자 못된 소리를 한다, 녀이 땀포를 싸갓고 오븐 살찌기고 놈을 갖고 또랑에 좋은 폭포수 가서 까묵어블고 솔방울을 넣고 선반에 얹어본게 고놈은 밥을 묵음서 한 소리가, 예이 더런 놈의 새끼들 그래싸든 나는 양심이 있은게 내야 절반을 갈라주고 묵던 시상이었고. 그 신진식은 소학 대학까지 다 읽은 사람이여, 그런게 부군수가 되었지. 그럼서 저그 닭이 알을 나아. 그럼서 내가 진식이, 알을 나았다 그럼서 찹기도 하고 들키기도 하고 아주 재밌다고도 보고 그래쌍고. 오지게 어찌 잼이 오고 배가 고프고 험게, 소도 키우고 머심도 두고 한다, 짚 속에서 공부도 재미없인게 자다가 선생한테 뚜드러맞기도 하고. 거그서 먹고 자고 한 사람도 많고, 한 달 두 달 일 년 계약하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 식모 할머니도 있었고.

글다가 내가 어찌다가 신민당으로 빠졌어. 그러다가 내가 주위 사람들 말 안 듣고 양회수가, 그 지금으로는 한 20년 전에 양회수가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그 뒤에 고재철이 했었고 내가 그 직속이 됐었어.

그전에는 신민당 오븐 서장 같은 사람들이 마중을 안 나오고 경비를 했었어. 그전에는 신민당이 아주 그랬잖애. 막 마루 밑에 들어가든 쭈셔블고 그랬잖애.

좌우지간 아주 내가 골수분자가 됐었어. 지금 의원 한 사람이 관리자 했었고. 그때 오야지였어, 깡패. 그러다가 저 의원도 해묵고 대의원도 해묵고 해서 여수에서 온 사람하고 단짜이었던가. 나하고 해갓고 흥기훈이라고 한 사람이 내 우에 있었고 그 사람이 골속 대장이었어. 그 사람 인계를 내가 맡았어. 돈을 그전에 오천원짜리 고놈을 오만치 갖다줍서 명단을 빼주라 그래. 그놈을 짊어지고 땀기게 저그 오곡지서장 그사람이 꼭 내 뒤에서 나와. 쫓아와서 막 아들이 라이타로 신호를 해. 막 신호식으로 어디 간다 어디 왔다 감시를 하고 따라 땀겨. 돈만 주면 걸려본게.

그전에 싸이카가 귀했었네. 내가 오지리에서 일번으로 샀어. 내가 뵈 하러 의원한테 갖다줘.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도 사고, 그전엔 묵어브러도 암시랑도 안 하고 그래갓고. 그 돈을 내가 다 의원한테 갖다 줘블고 나는 쪼께 가졌지. 한 10여 년이 넘지. 어떤 모양만 빠져갓고. 뭉터게 돌아땀길 데가 있간다. 집안 살림은 저 양반이 하고.

고생이라든 말로는 못했지. 여자들은 한번 걸려노면 안 풀어진대더만. 근디 뭉 지금도 생각하든 우리 안식구한테 겁나게 죄송시럽고 미안히지. 부모님은 아버지가 인자 나 한 마흔땀 살 묵어서 돌아가셨지.

아, 오지게 책보를 도치에 찍어붙고 그랬당개. 공부가 하기 싫어갔고. 멍청한 놈은 따로 없는갑서. 내가 목을 것이 없은게 갈칠래야 갈칠 시간이 없어. 그래 인자 예전에 섬진강 물고기 잡고 그랬을 때 앞내물이라 한디 거그서도 오지게 회포를 잡고 주전자로 하나를 담을 때가 있었어 참게가. 그전에는 큰 물가로 가서 게 하나씩만 잡으면 엄청나게 잡고, 섬진강 댐 막기 전에 깨끗하고 명산저수지까지 게가 올라왔은게. 은어 스미가 인자 나왔지만은 그전에는 은어가 여까지 많이 올라온게, 금천교까지도 그때간만 해도 틀망을 없은게 못 산게 잡아서 몇 마리씩 먹기도 하고. 그때는 꾸어서 먹고 지져서 먹고 지금대로 오지게 해묵간디, 읊어.

나는 인자 손자를 많이 못 보고 막둥이한테서 남매, 둘째한테서 형제. 셋째 첫째는 안 났어.

내가 쥘 많이 못 했던 건 할무니만 혼자 일을 시키고, 나는 일을 안 하고,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할무이는 열라 더 시켜목을라 해 며느리를. 나도 지금도 생각하믄 어무니 생각은 요만치도 안 나 어부지 생각만 나고. 저 참외를 승렸는디 오직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 묵은 꼴이 배기 싫어갔고 보리쌀을 꾸정물통에다 부어본 사람이여.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짚디. 나는 보든 못했으나 본인한테 말을 들을 때 열매가 그러졌어. 얘기는 배어갔고 있고 밥은 못 묵게 하고. 시아부지가 참외를 갖고 와서 큰집 뒤에 가갔고 작은방 문을

열고는 아나 요놈이라도 묵어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지금도 내가 인자 막 피가 토혈라 그래. 말은 안 해도 눈물이 질질 흘러브러. 그리고도 갈라 생각도 못하고 해브러. 실망하고 달아나볼 건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이라 지금도 고놈을 생각하믄 겁나게 미안해서 내가 요즘도 파를 다듬고 하믄 보짜보짜 가갔고 다듬어주고 그래. 나는 뛰어놀고 못된 짓이나 하고 지랄병을 한디 집에서 시아부지 따라가서 뜨진 별에 곡괭이 지고 가서 일하고. 나는 망나니로 커블고 할무니만 고생시켰지. 속창아리가 없어. 내가 요리 안식구한테 잘 할라고 노력을 해도 원 성질이 있어눈게 툭툭해져. 그래놓고 내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믄 또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정이 조께 더 붙으지.

그런게 지금은 잘 할라고 마음 묵어봐야 여자들은 한번 걸러노면 패인게. 그전에는 노름허지 각시질허지. 그런 것을 하믄 뭐 못쓰게 커갔고 그런 걸 생각하믄 인자, 지금 손 뇌본 지가 10여 년 되는디 고칠래야 고치지도 못하고 들어주고 못하고. 인자 숨이 가빠서 늙음서.

할무니가 딱 팔십. 근디 지금 여 허리 다리를 못 써. 애러쌓고 그래. 그런게 지금 여수서 요 다리 수술을 한 사람이 많아요. 오지리, 거그 가서 수술할라고 내가 해서. 현 사람이 시방 많애. 잘 걸고. 아프단 소리를 안 헨게.

이왕 말이 나온게 하지만, 그전에는 논마지기도 없는 형편이 된게 대수술 생각도 못했지만 요새는 몇 푼이라도 있고 뉘 통장에 가서 2,

3백이라도 들어 있고 그래서 엇그제 저녁에는 내가 수술비는 내가
줄 텐게, 널이라도 여수 가서 낚을 반세, 그래. 말은 안 해도 뭐 좋아
라 해.

정대창(기명 남 84세) | 곡성군 오곡면 오리지

요 선에서 가면 좋겠어

박금순, 비단 금에 순할 순이여 한문은. 33년 12월 10일 팔십다섯
인디 85세여 양력으로도.

나는 결혼을 스무 살에 했지. 살아온 거 뒷 해 고상고상해갖고 뭐.
왜 안 해, 시방 미리 나 아파서 죽게 되믄 요양원에다 넣고 자연에다
가게 하라고 정신 말짱할 때 해놔야지, 뭐 애기들이 인식을 못허잖아.
그래서 정신 말짱할 때 말을 해놔어. 추석에 말을 더 해놔어. 자연으
로 가게 해놔어. 저리 아파서 하믄 갖다 너브러라 하고, 애기들한테.
우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봐갖고 큰며느리가 죄가 많은게 된
것이다 글고, 며느리를 보고 너가 애쓴다 그러고.

나는 여그 죽동에서 태어나갖고 살아갖고 학교는 6학년 2학기
때, 뭐? 아 중학교 33회여. 죽동에서 뭐 잘살았지. 7남매 딸이여 내
가. 죽동에서. 그래갖고 본동으로 시집와갖고 여그서 살아서 본동댁
이라 해.

아버지는 군에 다니셨지. 쌀밥만 묵고 운동화 신었지, 잘살아서. 고상시럽게는 안 살고 편하게 살고.

방죽굴이라고 한다, 우리 죽동 저 읍 다 직장에 들어갔지 죽동 사람들이. 저그 거스기 시큰아버지도 담양 군수하고, 또랑가 집이도 도에 과장 했지. 전부 다 그 세상에는 직장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우리 아버지도 세무서에서 계시다가 군으로 가셨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버지가 영리해갔고 애기들이 다 영리했지. 아버지는 5남매여. 한 집에서 안 살고 다 따로 나갔지. 우리 아버지가 막둥이여 5남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세무서가 없어지고 군으로 가서 공직생활 했지. 일제시대 뒤 저그 왜 안 뺏아가, 나 시집보낼라고 모퉁이다가 도가지를 물어갔고 비단이랑 그랬는디, 그놈들이 새벽에 들어와갔고 항아리가 딱 집혀서 짝 파갔고 비단 두 도가지 짝 갖고기불고 아버지 양복도 짝 흠쳐가불고. 요 동네서 소도 잡아다 묵고 돼지도 글고. 나 열아홉 목어서 반란 났잖아.

우리 때는 형제간에 싸워보도 않고 선하게 컸어. 일본 사람한테 공부해갔고 히라가나만 배우고. 해방되고 한글을 했지. 받침 배우고 우리가 6학년 2학기 때 8월 15일 정치가 되어갔고 우리가 3월 24일날 졸업식하고 가나다라 기억니은 받침 배우고 졸업했어.

우리 다닐 때는 남자 한 반 여자 한 반 70명이었어. 우리 다닐 때는 고로고. 우리는 뭐 밥이라도 묵은게 다 학교를 보냈지. 학교 다닐서

학교 갔다 왔다가 애기들이 그냥 뒤 무덤덤하니 그러고 살았지. 집에가 있다가 나는 인자 숙희할매가 중신을 했어. 나는 인자 그냥 아가씬게 그런갑다 했는디, 신랑 된 사람이 나를 좋다고 죽어도 만 데 안 간다고 나한테만 온다고 했어. 아버지 어무니가 한동네다 사돈하믄 속상한게 안 된다고 했는디 머시마가 죽어라고 한게 그냥 좃어.

일본 가서 큰누나한테서 살다가 해방되어갔고 왔는갑더마. 6년 전 배여, 그사람 졸업하고 나 학교 갔어.

그때 세상에는 곤란한게 일본 갔다가 왔지요. 일정시대는 전부 농사짓고 한 거는 공출해불고 살았잖아. 그래갔고 학교 땡길 때도 여그 치마도 물팍 위에 딱 해서 입혀서 학교 땡기고, 짝 반공굴 파고 저녁 때 되면 서당골까지 왔어. 송진을 팡이 따러 생기고 서당골 가서 팡이 따고, 여그 학교 산 중앙초 앞에 동산에 가서 명산 가서 팡이를 따어. 인자 일본놈들이 우리를 시켜. 맨날 그런 거 시키고 공부는 쪼께 하고. 낫을 갖고 팡이가 솔나무에 붙었으면 그걸 딱딱 쳐서 담아갔고 갖고 와서 학교로 모은 데가 있지 고놈들한테다 바쳐서. 아 인자 어릴 때는 덜 시키고 상급생한테 더 시켰지.

나는 만 일곱 살에 들어갔는디 네 살 세 살 두 살이 많더만 동창이. 열한 살 묵고 열두 살 묵고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더만. 애기아버지들도 한복 입고 그러고 땡기고. 무조건 검정색 흰 거 입고.

졸업하고 어매 밑에서 살았지. 그때 세상에 땡길 데가 어디를 있어,

성제간들하고 살았지. 수놓고. 시방도 뜨개질하고 시방도 노라면 잘 놔. 내가 책상보고 뭐이고 실 빼갖고 만들고 그런 것들도 몽땅 내가 하고. 뜨개질에다 뭐에다 옴팡 해갖고 동그런 와꾸에다 비단을 가운 데다 놓고 가상에다 베를 딱 해서 원앙침, 공작새 있고 그런 거, 원앙 침 첫날저녁에 비는 거 그런 거 놓고. 또 수복으로 해서 공동 베개를 땡글어. 한쪽에는 수짜 쓰고 한쪽에는 복짜 쓰고. 안 갈쳐줘도 해지더 만. 이불도 책상도 이불보랑 하고.

그러다가 애기 낳고 살았지. 나는 스물에 거기는 스물일곱에 결혼 하고 나랑 농사짓고 살았지. 나는 딸 넷에다 아들 둘에다 6남매를 나왔지. 큰아들은 작년에 읍사무소 있다가 끝냈어. 아이고 풍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고 살았지. 하도 고상스럽게 살아서. 낮이면 일하고 밤이면 빨래하고. 질짚은 어매가 안 해서 나도 몰라. 시댁에는 시누랑 다 시집가블고 시아재랑 시어미 있더라. 3년 테꼬 있다가 시아재도 내놓고. 아들 자녀들은 지들 밥 묵고살고. 영감은 팔십너이에 돌아가 셨어. 9년차 됐지. 장수했어.

동창들 지금도 있고 동창회도 몇 년을 했어. 여우네 종렬이는 1년 선배고. 여그서 살다 읍내 여우내로 갔어. 내 이름은 아까기 하스코라고 불렀지 나를.

다 뭐 성제간들 잘살아. 건강하지. 나는 운동을 아주 겁나게 하고, 여그 치매 건강체조 저것을 열심히 하고 해서 나는 텔레비를 봐도 화

면만 안 봐. 메모를 해서, 메모지를 두고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해놨다 꼭 지켜. 새끼들한테 부담 안 줄라고. 내가 현명하게 해야 고생을 덜 하잖어 새끼들이. 종교는 불교인데 인자 늙은게 절을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안 땡겨.

그때 죽동방죽 나 어려서 학교 안 땡길 때 파더마. 근디 아구미~ 흰 구렁인가 나왔는디, 방죽 팔 때. 그레갖고 인자 정부에서 땅 사갖고 만드는데 겁나게 고상했지. 군에서 봤지 개인이 파가디, 큰 구렁이가 나왔다 글더라고. 그때 거가 상여집이 여가 있고 전에는 초상이 나쁜 상여들이 있잖아. 그래서 무서웠다 하고 뭐 논이고 평지 방죽이 무 겁든 않았어. 우리들은 않았는디, 방죽에서 예를 들어서 팔 때는 몰랐 는디 만들어논 뒤에 얼음이 얼면 사람들이 뭐 타다가 서인가 죽었네. 여그 또랑도 요러고 안 생기고 또랑 위로 다녔잖아. 요강맹키로 구멍 뚫어서 빨래하고. 또랑에서 배추를 시치고. 썩으로 시쳐갖고 인자 간 을 해, 그레갖고 김치를 담고 그랬지. 물도 여다가 해갖고 저고리를 입은게 물둥 이 이고 오면 다 젖터랑이 다 보이잖아. 썩이 없었어. 두 룡박 시암만 있었지. 집에 시암이 있는 집에는 저그 박순이 할매 집만 시암이 있고 전부 공동 시암물 질어다 먹고 그랬어. 그때 거그서 빨래 전부 하고 저그 아랫물 산 데는 또랑으로 땡기고, 다리도 없고. 개화가 되어서 다리를 뇌렸지 그 세상에는 막 땡겼어. 앓았어. 물이 들어 오던 않았는디 뭐. 그 안에 큰애기 때는 구루마도 땡기고 사람도 또랑

낮은 데로 땡겼어. 시방 방죽이 그때게는 상여집만 무서웠지. 뭐 시방도 낚시질 하고 그래.

낚시질 해. 흑 던져갖고 막대기로 고기를 짝 찍어갖고 나오대. 작대기가 요만치나 진 놈으로 메기를 콧 찍어, 까무친가? 그때게도 150미터가 넘어.

아, 농악은 뭐 옛날 옛적부터 있었어. 몇 십 년을 농악 생길 때부터 뒤에 아지매랑 했지. 아이 저 광주로 여수로 나주로 다 땡김서 장려상이라도 다 타고 제주도 가갖고 남도문화제 일등 좌도농악 타고 그랬어. 첩부터 인자 몇 살 지정이 없고 마을사람끼리 하든 돼. 무조건 들어오든 돼. 나는 거시기 잡색이라고 저구리 입고 치마 입고 훌쩍훌쩍 뛰었지. 시방 한 50년 될 거여! 나이, 시방도 떠느리만 없으면 훌쩍훌쩍 뛰어. 떠느리가 한게 안 하지. 그까이 거 못 떨게 뭐 있어. 내가 인자 선소리하든, 밟~자 밟~자 다리를 밟~자 한번 뚫으면 장수~ 하고 두 번 뚫으면 극락에 가~네 밟~자 밟~자 다리를 밟~자 뭐 이렇게 선소리하든 밑에 사람이 후소리 하고— 광주 가서 했어. 상쇠는 인자 전부 유도를 하지. 그래야 뒤에서 졸졸 따라가고, 여하튼 제주도 가서 인자 일등상 탔어. 시방 좌도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올라가서 거 하잖아. 뭐 요로고 살았당께. 아이고 말을~.

전에 세상에는 전부 공출했고 자유당 때는 뭐 고상했잖아. 우리들 나이에는 다 고상하고 살았지. 뭐 쪽 캐러 저 동부까지 걸어서 화순까

지 땡기고. 여그는 쪽이 없어. 그럼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서산을 가서 물 질러 나오면 쪽을 캐서 올라가면 동부까지 와. 그래서 쪽이 집에 저녁에 오면 떠브러. 그래갖고 쏘아갖고 쪽떡 쪽밥 해묵고. 그때는 차가 없어 걸어 땡기고. 그 사람들은 새벽에 가면 밥헐라고 나오더마.

나무는 저 도림사 신선바우 저 우에 가서 나무를 해 와. 두 동을 이고 인자 번갈라서 이고 땡기고 대구박으로 했어. 하이고 저그 따라가 갖고 목욕탕 지어는 데 뒤에 가서 석산이더마. 저그 가서 두 동을 해 갖고 원효골, 거그를 우리는 으시난골이라 했어. 매 석산이여 거그서 두 동을 해갖고 이고 요리 갖다놓고 또 요리 갖다놓고 하고 저녁때 두 동을 이고 오고. 또 저그 건넌재 가갖고, 밥 싸갖고 가서 물바탕에서 밥 먹고 두 동을 해, 삭다리. 가지 죽은 놈을 해갖고 이고 번등을 해 왔다 갔다가. 그래갖고 살았어 불 때고. 그러다가 개꽃 짱다리 해다가 피고. 또 들에다 말려갖고 갖다가 때고. 그 뒤에 연탄이 나와갖고 연탄을 때고 살았어.

50년 전에는 산이 빨개갖고, 솔나무 하나도 없어갖고 그랬지. 50년 전에는 나무 없어 하나도. 정부에서 뭐 사방공사를 해갖고 산이 번성이 되었지 각시 때는 나무가 없었지.

뭐 젊은게 벌러 땡겼지. 우유가 없은게 할매들이 생쌀 씹어갖고 맥이고 사카린에 쌀 갈아서 죽 쑤서 맥이고. 보리쌀도 쌀 갈아서 밥하고 썩밀 개떡해서 먹고, 밀로 개떡을. 그렇게 맛있어 화학비료를 안 해갖

고, 약을 안 했잖아. 풀 뜯어다 봄 되면 보릿고랑에 놔두고, 농사짓고 거름할라고, 그래갓고 인자 합수 찌크러갓고 거름 만들어서 농사짓고 살고, 전부 화학비료를 안 쓴게 뭐 밭을 퍼뜩으로 밀어서 행귀갓고 풀때죽 쭈어 먹고, 고구마대 호박대 풀어서 죽 쭈 먹고 무시를 썰어갓고 무시밥 해묵고 뭐 콩보리밥에다가 한 주먹 안쳐갓고 뭐 하고, 그런 세상 살았잖아. 무공해만 자셨잖아. 지금은 화학비료에 뭐 농약 덩어리 해갓고 암이 많이 온대. 화학비료를 해갓고 한 달 안에는 먹지 마래.

옛날에 뭐 깔 비어 오라고 해서 거름하고 며칠날 딱 지정을 해주면 아버지들이나 오빠들이나 베서 주든 그걸 학교에서 거름을 땀들고, 시방땡키로 어디를 땡기간디, 전에는 마실도 못 가게 한게 집에서만 살았지. 내외법이 있어갓고. 엄격하게 새끼들을 다뤘잖아. 명령을 거역을 안 하고 그러고 살았지.

죽동은 저 우게 서방에서 한문을 엄청 배웠지 아버지들은, 150호여 전에는, 지금은 더 넘을 거여. 뭐 그때 세상에도 뭐 안 낀 데가 없었어. 여가 수준이 높아. 군수가 일정 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면장도 많이 있고, 도 뭐시도 계셨고, 기관에 다 쪼갓어. 수준이 켈로 높아 아주 말할 것도 없이.

여그 서산사 절을 읍네 정씨문중에서 지었거든. 거그는 교촌으로 들어가지. 포랑 있잖아 포랑, 이쪽에만 죽동이고 저쪽은 샛골, 교촌.

여그 감나무골이라고 있으면 산 밑에서 반석이 짝 깔렸는디 파져갓고 있어 저그서 물이 나와요. 시방도 떠다 묵어, 고놈 묵고 위장병도 나왔다고 해. 수질검사 했더니 물이 좋다고 해더라고. 물이 들쩍지근해갓고 맛있어.

소풍, 소풍은 명산저수지로 가고, 저그 천주교 자리가 우리 일학년 인디 앞에서 조회하고 저 뒤로 가서 뭐 운동장 하고, 그 옆에다 신사 지어 놓고 조회할 때마다 신사 참배하고, 조회만 끝나면 모퉁으로 가서, 운동장이 뒤편에 있고, 이사를 저리 문화센터로 갔어. 우리 일학년 때 입학을 해갓고 중앙교로 2학기 땡가 이사를 갔을 거여. 천주교가 본 중앙교 자리고, 쪼깐해. 우리 영감 또래는 거가 26회거든. 내가 33회고, 거 또래 때는 남녀공학땡기로 켜나 봐. 저그 집안에 성이나를 업고 땡겼어.

전에는 열다섯 살 묵으면 여웠어. 근디 지금 사람들은 세련돼갓고 뭐 말할 것도 없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만 못혀. 재미라는 것은 없고 서글프고 소외감 느끼고 한숨스런 것만 생기지. 그때가, 곤란하게 살아도 그때가 좋았어. 이뻐갓고 그랬는디 지금 세상에 귀한 것이 없은게 근가 먹기 싫어서 못 먹잖아요.

뭐 전화는 날마다 하고 한게 자식들이. 요 선에서 가든 송장도 호강을 하갓는디 켈로 오래 살든 어찌까 싶어.

전에는 아침 6시 되든 모 승렸잖아. 저 다 모 승그고 아침에 6시에

나카쁜 밥 묵고 아침에 묵지. 모 찌고 밥 묵지, 점심 묵지, 저녁때 새로 해묵지. 그리고 밥을 묵고 살았어. 뭐 삼기로, 석곡으로, 모 송그러 그러고 땡졌어 고달로. 연락이 오면 저 신리 가서도 모 송그고 고달 가서 모 송그고 와. 그럼 밤이여. 인자 짬으로 안 사람끼리 모를 송그고 석곡으로 내 걸어서 땡기고.

그래도 그때는 차가 있어서 완행버스 타고 가서 송그고 삼기 가서 송그고, 저 고달로 신리하고는 걸어서 땡졌네. 거기서 해 깔딱 넘어갈 때 걸어서 온게 오밤중이더라. 또 홀태로 털고 막 발로 밟고 막 홀트고 나락 벼를 해다가 마당에다 해놓고 나락 볶아서 홀트고 구월 끝까지 시월 초시까지 했어.

그래도 그때 세상이 좋았당개. 시방도 김장을 집집마다 다 갔어. 열 명씩 달려들어서 해주잖아 시방도. 읍내보다 여그가 더 억시당개.

박금순(77명, 여, 88세) |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유과로 생생정보에도 나갔네

박길순. 41년 6월 2일. 음력으로로는 사월 스무이튿날. 지금 나이가 칠십여섯. 결혼은 스물네 살, 아저씨는 서른두 살에 했어. 외아들이라고 늦게 장가를 가라고 했대.

나는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에서 태어났지. 그때 뭐 딸이 다섯, 끝으로 남동생 하나 있었지. 엄마 아빠는 농사졌지. 외아들이었어 아버지가. 날라고 날라고 한 것이 딸만 다섯을 낳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들을 낳지. 나는 넷째딸. 남동생은 아파서 죽어브렸어. 그때 결혼했은 게 몇 살인가 모르겠네, 그래갖고 죽어브어.

산동국민학교 31회로 졸업하고. 남원도 산동이 있어. 학교를 갈라 큰 거리가 멀어갖고 겨울에는 도굴— 어무니가 도굴 솥에다 불을 해서 독을 하나씩 해서 텨혀줘. 독을 불 텐데 너워서 손에다 놓고 요로게 해갖고 양쪽에다 손 시런게 책보는 띠고. 남자들은 어깨에 띠고 여자들은 허리에 띠고 다닌 데만 다니고. 그때는 옛날에 그렇게 산디 학

교를 갈치면 못썬다고 안 갈렸어. 국민학교만 갈치면 된다고. 우리 동창 하나 여그 와서 살더마. 내가 장애를 안 가니까 안 보이지. 겁내 반가워서 나 참기름도 하나 짜주더마. 가는 배운 집으로 와갖고 신랑이 군청에도 댕겼더마. 나는 뭐 부절리는 옛날에 보른 몰라 농사졌지. 그렇게 뭐 애기들허고 뽀 따묵기 하고 고무줄놀이허고 그런 거여.

아들을 나온게 어미가 아이고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지. 그래갖고 소아마비가 돼갖고 죽었어 아들이. 그때 결혼해갖고, 아마 열아홉 살 먹고 며이마 돌이 나갖고 뭐 지금은 커. 그때는 내가 시집을 와도 조카들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도 내가 김장해 줘. 지그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내가 인자 김장을 해주지. 애썼지 생각하든. 각시는 가블고.

그때 여동생이 인공 때 비행기가 오든 숨을라고 굴 파놓고 살았거든. 근디 동생을 넘어 었고 가브렸어, 여동생을. 숨으러 가서 본게 동생이 없어. 가들은 쫓겨서 가블고. 가가 얼마나 놀랬었어, 동생이 없어져본게. 그 이튿날 찾으러 간게 넘들 집에가 있어. 그렇게 살고, 동생은 잊어뵈다가 찾아갖고 살고, 가가 지금 칠십세 살 묵었는갑네.

나 바로 위가 또 세 살 터울. 한 방에서 같이 살았지. 동생이 그리나를 따라올라고 해싸, 놀러가든 따라오고, 화장실 간다고 핑계 대고 가블고. 그때는 돼지를 밑에다 키우고 위에서 똥 누고 그랬어. 아이고 공간이 있어. 그래갖고 걸러 가갖고 밑에서 받아 묵어 똥돼지. 글고

잡아묵어. 그 돼지가 글게 맛있어.

부절리에서는 뭐 질쌌한 것은 쥘로 큰언니가 하고, 명집에 들가든 뭐 물레방에 돌리든 그걸로 저저저 명집에를 내든 뽀데기, 뽀 판 거 갖다주고, 쥘로 큰언니가 넷 키웠어. 그래갖고 돈 벌어서 애기들 갈치고 먹고, 누에가 첨에는 이만 한 종이떼기다가 씨를 싹 깔려갖고 갖다 주든 며칠 만에 키우면 누에가 나와. 여 네 키워서 인자 뽀를 따다가 뽀여. 날만 새든 밥 뽀이지. 이리 삼고. 그래갖고 인자 밥 뽀이고 커서 집을 저. 며칠 만에 올라간가 모르것네, 막 굶질굶질해갖고 뽀데기를 만들어. 그럼 또 실이 나와서 명주 베도 뭐 하고, 뽀데기를 딱 얻어 묵을라고 하고, 나는 그런 것을 안 묵었어. 내가 무서서 못 묵어. 지금도 돼지 소고기 닭고기 다 안 묵어.

안 묵은 것은 둘째 문제고, 뭐 또 실가지고 베를 짜서 물들여서 옷도 해주고 큰언니가 우리를 엄마뽀기로 키웠지. 팔십여덟, 작년에 죽었어. 그때까지 뭐 나는 수예 같은 거 하고 막 십자수 나갖고 저 방에 거시기만 하나 있네. 옛날에 다림질은 잡고 저 다리미로 숯 너갖고 다림질했지. 잡고 있으면 요리 대리지.

옛날 살림살이 큰 것을 생각하든 겁나지. 이제 스물네 살에 시누가, 아저씨 둘째누님이 뭐 선을 봐갖고 했지. 소개해 줬는디 내가 인자 시누가 동생한테 해갖고 우연히 알아갖고 중매했는디, 남원서 만났지. 재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가 몰라. 그래갖고 뭐 3년 만에

약혼을 했지. 허네 안 허네 하고, 뒤 3년 동안 가끔 한 번씩 보지. 그때는 뭘 찬가 뭐 네모지기 차가 지프차가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타고 와. 뱃을 했는가 그때만 해도. 그래갖고 약혼하고 반지 주고받고 남원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잘생겼어. 미남이라고 올렸지 시골서.

시집왔는데 누나 둘 여동생 둘. 아들만 하나. 외아들이 하나여. 지방 동네에 시누 살고 있어. 중매는 둘째시누가 하고. 요짜으로 시집을 온게 아니라 아버지가 열다섯 살 묵어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식구가 없어. 그래갖고 곤란했어. 나 시집와서 집을 사갖고 왔고. 그때만 해도 시누 둘 있고 뭐. 시집와갖고 농사짓지. 아저씨도 글고 동생들이랑. 그래갖고 살고 나는 내가 인자 그때만 해도 새각시, 빨래 반 것도 장갑 끼고 안 했어 맨손으로 하고, 냇가 가갖고 걸어온 냇가 저그 있잖아 거그서 빨래하고. 그때만 해도 다우다여, 좋은 놈이. 때가 안 진게 수세미에 잿물 받쳐서 빨래 받고 그랬어.

시집에 와갖고 2년 있다 그랬을걸,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대소변 받아내고. 내가 업고 지게 작대기, 애기 아버는 서울로 돈 벌러 간다고 가브렸어. 그런 중에 막내시누하고만 살 때 아파서 업고, 내가 업은 것이 지게 작대기를 받치고 업으면 잘 저. 그래갖고 요 방에서 대소변 받고. 그때 딸만 둘 있었는데 한 방에서 잤어. 인자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저씨는 중화요리 뭐 배웠대. 가락국수. 겁나게 고생했어. 가락국수도 하고 그런디 인자 형편이 어렵고 한게 내려

왔지. 동생도 혼자 시집은 가야 하고 그래서 뭐 시누 둘 다 내가 시집을 보냈지. 어머니는 아파갖고 십 년 만에 돌아가셨지. 꼭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옛날에는 밀가리 푸대가 있거든, 어무이가 손도 왼손인가 풍, 못 다니고 있었지. 새각시 때, 어무이가 아들 하나를 그렇게 귀엽게 키웠는데 뭐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아저씨가 뭐 한동안 있다가 내려와갖고 여그 와 살고, 살면서 농사졌지. 동생들 결혼식 보내갖고. 뭐 어떻게 보냈는가 모르겠어,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서러운 세상 살았지.

뭐 그러고 우동장사도 해보고 아채장사도 했지 인자. 젊은 각시 때. 애기들 둘 낳고, 아들 셋 낳지. 가운데가 죽었어.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생각헌게 아이고~.

거 인자 채소장사는 녀의 논 얻어갖고 아범이 인자 했지. 근게 인자 젊었지 인자. 채소를 가꾸와 갖고 결혼해갖고 허고 몇 년 있다가 막내 시누가 인자 우리 애기들 둘 낳 때까지는 있었어. 애기들 봐주고 도와 주고. 글서 읍내서 해림이라고 닭집 있지, 거그서 식당 했어. 거그서 있었는데 세를 얻어갖고 동해식당이라고 했어. 그럼서 내가 배달도 망기고. 지도소 거그도 내가 저녁으로 이고 망겼어. 저녁으로 인자 야식을 해, 거그서. 저 저녁으로 떡국 끓여갖고 갈 때고 있고 배달을 했지. 그때 돈으로 30원, 큰돈이었지. 기술이 있었는데 시작해갖고. 시누가 다행히 봐준게. 시누가 애썼어 인자. 시어미 돌봐야 한디 안 돼. 그

래갖고 인자 뭐 막둥이 여우고 내가 들어와서 치워블고, 큰아들 세 살 목었을 땐가 치우고 들어왔네.

근디 우리 뭐 안 해블고 야채장사를 했지, 녀의 눈 얻어갖고, 여그 방에 어머니가 앉아 계셔. 밀가리 푸대종우로 찢어서 탁탁 개놔. 신문도 개놓고. 그래서 방에서 누라고 눕혀서 드러놔서 냐지. 고놈을 요만 현 대접이 있었어, 스댕그릇으로. 그걸로 대소변 받아냈지. 할 것은 해야지. 각시 시절에 채소 송귀서 팔러 가. 아침장에도 가고 저녁때 장에도 가고 했어. 장사하러 땡겼어. 식당 합서 뭐 돈 번 재미로 손님 많아갖고 배달땡기고. 조그만해서 방 두 칸이었는데 애기들 목욕을 시켜갖고 딱 눕히면 손님들 다 끝날 때까지 자. 저그서. 손님은 밀려쌓고 뭐 장사도 잘땡어. 그래서 우리 딸 가가 잘 자. 방에 손님들 오면 저리 밀어놓으면 또 자애가. 눈 오고 비 올 때도 겁나게 고생했지. 인자 뭐 들어와갖고 채소장사를 하면서 동막 올라간디 거기까지 채소를 배달 땡겼어. 글서 곡성에서 환갑 센다고, 인호 알지? 저그 인호가 뭐 죽었는가. 뭐 거 그 집 어머이히고 교육장에서 뭘, 하 뭐시여. 그사람하고 크게 환갑 췌어. 환갑 세면 예전에 배추를 50개씩 달라고 그래. 거기까지 배달 갔어. 그때만 해도 그런게 돈 벌었지. 그래서 앞에 논을 샀어요. 그때만 해도 뭐 서 마지기 600평짜리, 그것이 우리 땅이여. 내가 채소장시합서 돈 번 것이여.

그거 하믄서 어찌다 어무이가 더 악화돼갖고 돌아가셨지. 아이고

보리 갈아갖고 보리밥 해묵고. 밥을 쌀 하나씩 팔아놓으면 양대기를 솥에다 놓고 쌀만 얹혀놓으면 되거든. 그렇게 고생했어. 주믄 안 잡수고 구석데기에 뵈다가 애기들 콩고물 밥을 비비 줘. 그놈 얻으라고 애기들이 놀아. 막내가 나 장에 가믄 저기 자빠져서 얼굴이고 뭐이고 땡아준 사람이 없어. 근디 뭐 배만 부르믄 잘 자서 콩고물 비빈 놈 얻으묵으라고 애기들이 그냥 그 재미로 살고. 참 고생 많이 했어. 돌아가시고 그래도 이제 채소장시 배추 모종 고추 호박 오이 송귀서 팔러 땡겼어. 수박도 밭에다 송귀갖고 하고. 재미있어. 인자 내가 아침장이나 가믄 저녁때 장은 지쳐갖고 가고 하루 두 번씩 땡겼어. 여그 그랑프리가 극장 있었잖아, 그때 했어. 저그서 앞에서 팔았어. 내 자리가 딱 있어. 내 자리를 맡아는 데가 내 자리여, 그가 장이었어. 고리가 장이 있었지. 개소주 내린데는 짜장면집이었고, 저그서 내가 쥬로 잘 팔았어. 뭐 일등으로 팔아야 기분이 좋아갖고 올라오서 막걸리를 한 잔 묵고 오면, 리어카를 끌고 오면 노래를 부르고 올라온대. 10원 50원 70원, 뭐 100원 200원 했가디?

그때 자들을, 고등학교를 머이마 둘을 채소장시합서 광주로 보냈어. 돈을 채소장시 합서 만들어줘. 나는 벌어갖고 와서 아저씨가 싹 가져가. 일주일 벌어서 아저씨 주믄 쓰고 난 축의금 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아저씨가 다향지. 나는 인자 매일 장에 가지. 오일장에도 내 자리 있었어. 저그 방천 있는데. 그래갖고 뭐 뭐랄까, 몰라, 지금 그때

판 기억에는 채소만 팔고 다른 데는 판 사람이 팔고, 하여튼 나만 팔아 붙든 남들 판다고 했어. 전화만 하면 또 타 오면 또 팔고, 재밌게 팔았네~.

집도 인자 그때 샀어. 진 놈 사고 논도 사고. 그때 두 마지기 서마지기, 또 저놈 두 마지기, 한 2천 평 되지. 인자 내가 폐백도 하고. 환갑 세면 상도 개고, 그 장에 다니면서도. 또 환갑 세는 집에도 가서 일하고 내 솜씨 지금도 있어. 실고추도 썰어서 팔고, 밤채도 갖고 가서 팔고, 반찬도 팔고. 콩장, 저녁으로 배추하믄서 그 자리서. 글쓴 다와서 사가. 해남식당이라고 있었어. 우체국 앞에. 그 해남식당 언니가 겁나게 도와줬네. 나한테로 와. 그래서 콩장이랑 싹 가즈가고, 밤채 같은 거. 해남식당 언니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몰라. 그리고 떨치도 까서 팔고.

나도 생각하면 까마득해. 어뜨게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일은 되도 된줄 모르고 했는디, 내가 인자 애들 도시락 싸주고 뒀는게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 내가 인자 잘나간게, 돈 벌어진 재미로 된지도 모르고 일했어. 내가 저녁으로 와서 하믄 아범이 거들어주고, 자기도 안 자지. 내가 인자 그때만 해도 오징어 애리고 옛날에 조금 배웠겠지 남 원서. 큰애기 때 배웠지. 폐백은 인자 하나 두 개 몇 개씩 들어와. 닭 삶아갖고 닭도 해가고 구절판 해서 담고 대추머리 하고, 하나씩 하믄 그때 돈으로 3만 원? 지금은 한 30원 더 해. 어떤 놈네집 가믄 3만 원

씩 했어. 3만원짜리 2만5천원짜리 했거든. 2만5천원짜리는 구절판이 덜 들어가지. 해놓고 그럼 또 가져가고, 채소 팔러 땡김서.

내 방이 아주 어지러져 겁나. 그때 애기들 클 때지. 지그들 인자 알아서 해. 둘째랑 큰딸이랑 해. 학독에다 불살 갈아갖고. 동생들도 키우고. 가들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여그서 나왔지. 둘째는 고등학교만 다니고. 아들네들 들은 대학교까지 갈쳤지. 지금 인자 고생한 거 다 알아. 금개 모르겠어, 어찌게 했는가.

우리 눈에, 대필 눈은 태풍 와갖고 나락이 쓰러졌어. 짚도 귀했는디 일찍 보내 논게, 장에 갔다 온게 녀의 야를 딱 묵고 올라와. 안다고 갈쳐줬는디 어만 눈을 묶어주고 가. 그대로 놔두고 짚도 못 얻고.

인자 아저씨가— 나는 술을 묵고 우리 영감은 술을 안 묵거든. 인자 냉장고도 그때만 해도 샀지. 그전에는 없는디 몇 년 후에 들여놨는디, 방이 작은게 못 들어와. 부엌에 놓는디 냉장고 뒤에 막걸리를 막 담아 놔 영감이. 내가 술을 먹은게. 한동안 막걸리를 먹고 내가 또 아팠어. 위가 안 좋아갖고 죽네 사네 했어. 저그 암이라고 야단했는데 암이 아닌게 살지. 아이고~ 같이 간 할매야는 사진 찍어라 갔는디 그 사람은 죽고, 최보 있었어, 그 사람 각시는 죽고 나는 요렇게 있고. 나도 어떻게 해서 악착스럽게 했어.

어떻게 큰딸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랬는디 머이마들 대학교에 입학 오라고 하는갑네,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장사 갔다 와서

갔다 오고, 저녁때 장사할란게 멩기고. 자들도 알아, 힘들어.

우리 손지 저 막내, 요것이 손주 나이놓고 돌 때 가서 사진 찍은 거 이네 저게. 영감이 뭐 속은 안 씩이고, 자 여워놓고, 저 애기 낳아놓고 이듬해 죽었나? 5개월 고생했어. 채소장시를 몇 십 년 했는디—.

지금 나간 것은 심심한 것보다도 해도라고 해싸. 내가 영감 살았을 때 우리야 안 팔고 저 사람 거 가서 도와줬어. 그때만 해도 저 집 가서 많이 해줬지. 그 돈주머니를 석곡장에도 갔었네. 저그네 집 팔러 간다고 하든 갔다 오라 그래. 나도 인자 애기들 여워본게 내야는 별로 심을 안 썼지. 인자 석곡장에 물난리 나서 쓸어가봤잖어. 근디 인자 나한테 나 혼자 팔고 오라 그래. 그럼 녀의 야를 내야같이 다 팔고 와. 나는 인자 일당만 받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든 내야 팔람서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가 모르겠어. 지금도 올 추석에도 어찌 오라 그래서 가도 일당백에 안 줘. 안면이 그렇게 무서.

나 큰놈 낳고 들어와봤어. 우동장사안 하고 채소장시 한……, 큰아들이 마흔…… 여그서 첫새벽에 리어카 끌고 나감서 잠을 설치면은 잠옷을 입고 갈 때가 있었어. 잠옷바람으로 잠결에 나가.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입고 가든 도로 와서 리어카 펴놓고 올 때도 있고 영감이 옷 갖다 줄 때도 있고. 나 인자 양심적으로 했지. 근디 인자 할머니가 아파본게 내가 이 꼴이 나봤어. 그냥 뭐 묵고살란게 멩겼지.

나도 생각하든 이상시러. 어뜨게 내가 구절판이랑 했을지. 시방 생

각하든 괴로운디, 나는 뭐 스스로 나 혼자만 했지 어디에다도 출품한 거 없었지. 근게 나도 혼자 개발해갖고 어찌게 막 유과도 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저그 저쪽에다 그 사람하고 앞에 언니하고 서이 했거든. 합동으로 해갖고 계속 해 어찌게 맨들면 영감들은 심부름하고. 나는 뭐 그 사람 가블고 채소 안하고 유과를 한 10년 했을까? 유과는 찹쌀을 담가갖고 서 대만 해야 해.

거 장례식장 이사장이라고 있어. 초상 나든 반찬 해주고 밥 해주고 그러고 멩겼어.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 여자사장 있을 때 초상만 낫다 하든 가야 해.

인자 유과는 나하고 영감하고 만들고 뭐, 사미자가 우리 집 와서 촬영해 갔지. 지금도 전화해. 약이랑 옷도 사서 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래. 인자 그것이 어떻게 말을 낫는가 모르겠어, 근디 인자 촬영했어. 과정을 했지. 인자 쌀 불귀 가서 찌다가 해갖고 꿩놓고 잠은 가서 자고 와. 그때 저 거스그 사진 찍을 때는 우리 집 와서 잤어. 3월 15일 날 인자 그랬을 거여. 요런 집에서 자도 괜찮다고 자고, 생생정보인가? 사진 찍을 때는 와서 잤어 우리 집에서. 네 번 사진 찍었구만. 쌀을 인자 불귀갖고 찌갖고 새벽 2시에 만나야 해. 나는 인자 그렇게 멩글어 노면은 영감이 뭐 불 때면 그놈이 두 시간 끓으면은 4시 5시나 되면 만들기 시작해서 9시 반에 다 만들어. 영감이 인자 방에다 넣어. 나는 인자 그러고 세간에 가서 술 묵고 와서 딱 말려놓고 기름칠해서 놓고.

저기 적새 놓고 큰 적새에다가 놓고 꺾. 꾸면 막 두꺾갓고 넓어져. 조청 바르고 저녁에. 그 이튿날 또 썰. 그렇게 일을 했어. 고놈을 뒤 없애 못 팔아. 우리같이 숯불 꺾서 하는 데 없어. 유과도 한 10년 넘게 했어. 시방도 사미자 거 서로 보고 싶다고, 나보다 한 살 많아.

그거 있고 또 생생정보는 반찬 해갓고 딸네 집 간 거. 그때 담배상 추김치 담아갓고 떡갈비 쟁이고 해갓고 딸네 집 보냈었지. 출연료 꼬끔 주고, 요번에도 사진 두 번이나 찍었잖아. 갓김치 담고 상추김치 담고 사진 찍었는데, 돈 보내준단디 돈 통장에 안 너었더마. 글고 또 참게탕 맛집으로, 옛날식으로 무 썰어놓고 끓인디 그렇게 맛있어. 이번에는 열다섯이나 왔더마. 또 저기 갓김치 꼬들배기 딱 다 해갓고 사미자랑 새끼들이랑 다 보냈지.

우리 영감은 칠십다섯 살에 돌아가셨어. 시방 10년 돌아갓고만. 돌아가시니까 딱 나는 놈을 샀어. 도와준 아줌마 있는데 일당 쳐서 샀어. 혼지는 못해. 명절에는 인자 모지래서 못 팔아. 박스로 하나 맛쳤어. 그래갓고 다 채워줘야지. 안 채워주면 안 되지. 요만치 꺾주면 유과랑 콩깨잘이랑 해서. 잘 일어난게 콩가루로 해갓고 맛있게 해줘. 한 박스로 그때 4만 원이고 5만 원, 글고 배박스로 7만 원. 남원서도 와서 가져갔어. 하이고~ 대목 돌아올 때까지 해. 시방 시작했어. 옛날 같으면 뭐 또 결혼식하믄 보내고 또 히고 그래갓고 인자 1월달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해야 해.

인자 안 해, 못 해. 요 동네서 젊은 사람이 한디, 내야만 못하지. 인자 한 집, 두 집인가 해. 지금 52년째 요 동네서 살고 있지.

인자 농악 치러도 땡겼지. 영감이 가라고 한게 가지. 죽기 아니른 살기로 다 팔고 와갓고 그 이튿날 가자고 하믄 따라 나가고. 남도 문화제를 안 빠진 날이 없이 땡겼어. 남편이 가라근께 가지. 나는 인자 허리 디스크 수술도 했어 환갑 때. 수술하고도 일을 했어. 석 달간은 일을 안 했지. 무릎은 또 아픈 것도 같으고 안 아픈 것도 같고.

죽동에 여 나무다리 있었어 사람만 땡기게. 거그서 빨래하고, 길도 리어카 하나 겨우 땡기게 있었고. 형제간은 작년에 둘이 죽었어. 큰 언니랑 둘째언니 죽고. 시누는 뭐 지금 광주가 있어. 돈 벌러 땡기게 왔다 갔다 해. 칠십하난디, 막둥이 가 시누가 우리 아이들 많이 봐줬지. 나 아파서 죽을라 할 때 많이 생각했는디, 나 아파서 죽으면 어쩔까나. 지금도 잘해. 그 시누 애기들도 딸 둘 아들 둘. 딸은 지금 거시기 좋은데 다녀. 사우도 하고 검찰청에 다니고.

그래도 옛날에는 고무줄 너갓고 면반스 입고 힘들고 그래도 그때 그런 시절이 너무나 그립고 그러제,

박길순(여, 78세) |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사랑받고 살았어

이귀현, 팔십셋, 생일은 음력으로 사월 스물사날. 띠는 돼지띠고.

요 집에 시집온 게 식구가 열두 식구여. 여그서 살았어. 열두 식구 산디 3년 만에 재금을 나가갓고, 우리 조카 머이매 네 살짜리가 불을 내서 홀랑 타브렸어. 우리 오빠가 음에가 곡성으로 가잔 놈을 아버지가 마다한게 못 가고 집을 땡그러줘서 살았어. 오빠가 소방대원들 해결해주고 곡성으로 가져한게 영감이 안 가. 그래서 도로 그 집에서 살았어. 살다가 딱 일 년 살고 집 사갓고 가서 살았어. 그래갓고 인자 집 사갓고 살만 한게 영감이 내 아파브러. 그래갓고 수술을 다리 네 번 하고 배수술 하고 다섯 번 하고 그래갓고 대구 가서 살았어. 그러다가 또 여그와갓고 일 년인가 살더마 다리가 또 아파갓고 또 수술하고 살다 죽었어.

자제는 다 대구서 두 집 살아. 거그서 고등학교까지 막내는 대구서 졸업했어. 인자 노년에 여그를 와갓고 인자 2년인가 살다가 아파브

러. 많이 아파브러. 병원 세월만 한 40년 하다가 돌아가셨어. 대구에서는 암시당토 안 히고 살았어. 여그 온게 그러고 아파브러.

나는 곡성읍에가 친정이고 삼구여 거그도, 군청 옆에. 거그서 우리 동생이 살아. 결혼하고서는 삼기서 살다가 대구로 갔어. 신혼살림도 몇 달 살도 안 히고 불이 나브렸는디. 그러다가 집 짓고 살다가 대구에서 또 애기들도 대구서 다 보내고.

나 어릴 때 우리 집은 거가 시장통 간 디 사거리 웰빙센터 거그로 들어가뵈어. 친정이. 우리 조카만 아파트 살아. 우리 동생은 군청 옆에 거그서 살고. 나는 인자 웰빙센터 거그 국민학교도 없어져블고 나는 국민학교 나왔어. 몇 회인지는 몰라. 학교 땡기다가 나 열 살 묵어서 해방돼서 학교를 아버지가 못 가게 해부러. 그래서 고만치 배우면 되니까 배우지 마래.

육이오는 나 열다섯 살 때 났어. 일본시대 해방은 열 살 묵어서 나고. 그때 막 클 때, 우리 오빠가 순경한게로 우리는 저 명산골에 피난가브렸지 아버지 친구 집에 데려다놓고, 거그서 대한민국 되어서 나왔어. 전쟁 끝나고 읍내로 왔지. 우리 오빠는 인공 때 숨어 있다가 자수를 안 했어. 일정시대 때는 오빠는 만주에서 있다가 와갓고 몇 년 안 있다가 경찰 시험봐서 들어가뵈어. 몰라 나는 어린게 몰라. 내 경찰로 퇴직했어. 인공 때는 경찰 가족들 죽일라고 안 그랬가니. 근디 우리 가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나는 오빠 하나, 동생 둘. 오빠가 경찰이고 인자 남동생 하나는 서울서 살고 막내하고 나하고만 여그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 성제간이 얼마 안 돼 나는. 인공 때는 넘겼는데 경찰로 있을 때 아버지는 아파서 돌아가셨어. 아들 떠느리 잘 살다가 나이 많은게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구십하나에 돌아가시고.

나는 열여덟 살에 결혼했어. 인자 장사하다가 아픈게 내가 대구로 가서 낫고 애기들이 벌어 묵고 살고 그랬어. 영감도 뭐 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애기들이 벌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 우리 큰아들은 순창서 졸업하고, 여그서 6학년 때 가고, 큰딸은 여그서 졸업하고 가고, 둘은 졸업하고 가고 막내는 대구서 갔네. 내가 아픈게 먼 데로 조계 뜨래. 그래서 낫을라고 갔어. 그러다가 여그를 와 인제, 큰아들 데꼬, 조계 속이 상했지. 대구 있을 때는 저 얼마나 내가 곱고 예쁘고 했는지, 오십대에. 시방 요래. 인자는 나도 못써져브렸어. 아버지도 순하디 순한 양반이여. 생전 욱 한번 안 해.

인자 대한민국이라고 경찰들 우리 오빠 혼자 나가본 군인들 맞이하러 가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 났다고 인공 때 숨어 있다가. 나는 인자 국민학교 3학년 땐가 해방됐어. 그래갖고 안 땀겨브렸는데 나는 뭐, 전쟁 나기 전에 모르지. 나는 뭐 그때 해방 때도 막 태극기가 길에 있고 막 태극기가 난리 났지. 뭐 인자 늙은 사람들도 일본사람들이 다 데려가 징용을. 친정아버지도 갔다 왔지. 저 나이 많은게 노무자로 갔

지. 피해 보상도 못 받아. 근디 우리 아버지는 넘 대로 가갖고 이름이 없어. 그런게 보상을 못 받았어. 인자 우리가 다 해봤는데 대신으로 가와서 그 사람이 이름이 있지. 근게 해방돼서 나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죽인다고 막 쫓아갔네. 고 사람은 인자 인공 때 어떤 사람이 잡아다 죽여브렸어. 아버지도 똑똑해, 그래서 저놈이 나를 보냈고 너도 내 대신 죽어봐라 그럼서 죽여브는다고 쫓아다녀. 근디 인공 때 죽여브렸단게.

우리 오빠는 또 곡성 시내에서는 다 알아. 암전하다고, 똑똑하고 암전해서. 봉급 받으면 안 갖고 와 배고픈 사람 뵈여블고, 친구들 다 쥐블고, 생전 좋단 소리 듣고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여자들은 도가지 속에 감춰서 키워야 한다고 안 보내브러, 학교를. 우리 또래들 다 학교 못 갔어. 다 학교를 안 땀겨블고 야학으로 배우고 아버지가 갈치고, 나가들 못하게 해. 국문 같은 것은 다 집에서 배웠지, 알가니 조선 글을? 시방도 막 일본말로 해브러. 오빠 빨래나 해서 입히고 대려서 입히고 그랬어. 치마저고리 입고 고려고 살았어.

처녀 때는 편히 살았어. 아 인자 결혼을 온게로 식구가 많아서 고생이지. 식구가 열두 명인게. 시어매 시아배 동서가 둘 시아재 조카들 아주 우리 내우에 딱 열둘이더란게? 집에서 밥 한 그릇 안 해본 사람이 여그와서 얼마나 고생이여. 나가 셋째여. 그리고 2년을 살았어. 내가 저 큰동서 방을 자라고 주더라고, 큰동서도 쓰고 나도 쓰고 방 하

나갔고, 서방도 있지. 근디 같이 못 자지. 그래갖고 인자 뭐 우리 집 와서 결혼해서 전경으로 있었어 그때. 잠복 가블고 없고 근게 시어매랑도 자고 인자. 그리고 살았어. 2년을 산게 살림을 내놓더만. 친정 사람도 걸려갖고 살았어. 여그 와서 물 질어 먹고 살고, 와서 울도 안 허고 어찌고 넘어갔는가 몰라 인자.

곡성 가믄, 그때 30원을 주믄 타, 차를. 여그서. 그래서 가믄 며칠 있다 오고, 글도 다행히 재금 나가서 뭐 못 묵은다고 곡성을 오래. 입 덧할 때 맛있는 거 해주고 친정에서 그래. 선보러 온게 시어매 될 사람이 우리 아버지 줄라싼게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해봤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선을 보러 온게. 할매들이 줄라싼게. 그때 결혼식 하믄서 서로 처음 본 거여.

우리 어무니가 요 집에 처음 온게 먼지가 막 있고 그래서, 어무이가 멀리 와서 본게. 너는 그 집에 들어가믄 빨래는 디지게 하길드라 그래. 빨래가 수북하고 먼지가 수북하고 그런게. 우리 집은 언제나 깨끗한디. 그래갖고 아버지가 오빠한테 구박받지 어무이한테 구박받지 그래갖고 살았어. 장가는 우리 집으로 왔지. 옛날식으로 허고 요 집으로 왔지. 버스 타고 왔지.

여그 어른들이랑 다 버스 타고 왔는데 그날 어찌게 눈이 많이 와갖고 택시도 없어. 그런게 오빠가 마르데 차를 하나 잡으니까 사람 안 태우지 마르데차는. 그래도 우리만 조께 실코 가자 해갖고 곡성으로

갔어 그날. 오빠가 내가 죽도록 걸리는 거여. 그때 우체국 자리가 면사무손디 요리 시내로 올라면 나 보고 여그 어른들 본게 와갖고 반찬 사갖고 오고 그랬단 거여.

그러더만 나 대구서 산게 오빠가 와서 너가 걸린다, 그래. 내가 여수경찰서에가 조께 있는디 통 지서로 전화를 해. 나 막이고 자면 여수로 오래. 작은딸 업고 여수 많이 땡겼네. 여수 오동도서 뭐 사 땡이고. 고로고 살았어 처음에는. 대구서는 잘 사니께 몸조심만 하고 살아라 하더니 또 돌아가셔블대.

나는 시집 그날 왔는데 몇 날 며칠 거지들이 얻어묵으러 오고 결혼식 하면 치알 치는데 그걸 못 거뒤, 눈이 많이 와서. 나는 그래도 열여덟에 갔어.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민며느리로도 가고 그랬어. 둘째 며느리는 혼자되갖고 살더라고 여그서, 쪼그매갖고. 동서가 셋 다 살았어. 내 방 없어도 좋게 살았어 동서들끼리는.

나는 인자 친정어머니가 질짬도 안 갈치고 바느질만 갈치고 음식만 갈치고 그래갖고 음식이랑 바느질은 잘 했어. 질짬도 시집 와서도 안 했어. 친정 거시기를 아니까 시어매가 배우지 마래. 다른 동서들은 했는데 나는 안 했어. 세상이 달라진게 안 허더만.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유괴해갖고 나를 데려왔은게, 이뻐했지. 식구만 많이 살았지 뭐 시집살이는 안 했어. 예전에는 바느질 무시무시하게 했지. 발틀로 내 쓰다가 손틀로 땡글어붙어. 뭐 옛날에 배넛저고리를 다 해 입혔어. 시방

매로 사 입히지도 않아. 애기들이 5남매에다 손지말 저놈까지 키워갖고 뭐. 인자 아들들 딸들 다 시집가서 살고, 나는 절에 멍겨.

나 대구서 살 때 광주사태 있다고 하는디 뉴스 딱 한 번 비춰주고 안 낫당게. 식구들은 암시당토 안 했어. 곡성경찰서는 그때 거그여. 새로 크게 지었어. 나 많이 멍겼어. 어려서 가쁜 동생 온다고 반가라 그러. 나 온다고 하믄 다 좋아서 그러. 오빠 심부름 막 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보러 가라고 하고. 아버지가 딴 데는 못 가게 해도 오빠한테는 가라고 하대. 인자 영화도 거그 가서 혼자 보고 오고 그랬어. 영화는 다 생각 안 나. 열셋이나 열넷이나 혼자 봐간디 기억이 나나. 그 안에 갇은 잊어블고 몰라. 뜨개질이나 하고 난 통 그랬어. 뭐 장화홍련 전이나 했나? 기억 안 나.

며느리들도 사우들도 다 잘살고 그래.

경로당은 날마다 간디 화투를 다섯이 쳐. 3백 원씩 해갖고 통에다 여. 그 순간만 재미로 하고, 다섯이 갈라갖고 하염없이 놓고 하고, 우리가 안 해 간식은. 그 돈은 통 화투만 쳐.

이귀현(가명, 여, 84세) | 삼기면 원등리

인생을 잘 살았다 싶어

오금례, 일흔야달, 41년생이여. 생일은 3월 열이튿날 음력. 출생지는 석곡면 염곡리.

태어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는 딸 둘 아들 하나, 내가 큰딸. 근디 나 배놓고 아버지가 징용은 아니고 돈 벌러 일본 가서 3년을 살다 왔대. 나 배놓고 가서 3년 만에 나오셨어, 43년도에 나오셨어. 돈 벌러, 거시기가 아니고 그냥 돈 벌러 일본 저 사촌 작은아버지 당숙이 제신계 오라게갖고 가서 노동일을 했대. 막 밀어주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왔는갑서, 그 앞전에 당숙이 일본으로 가서.

우리가 원래 논도 스물대여섯 마지기 짓고 살았어. 유지급이었어, 부자고, 거 학교를 십리를 걸어서 멍긴계, 머슴이 막 저다 주고 그랬어, 보리밥을. 머슴은 둘을 데리고 살고, 소도 아주 큰 황소 뵈여서 뵈놈 사고.

나는 스물한 살에 결혼했어, 저그 원통 삼기면 광산 김씨들 집안으

로. 딸 둘 아들 둘 두고, 우리 애기들은 다 결혼했지. 큰딸은 구리, 둘째애들은 광주서 산디 농촌진흥청에 다니고, 인자 영감님은 돌아가신 지 한 달 됐어, 11월 4날. 학교는 석곡초등학교 34회. 종교는 기독교 침례회.

어릴 때 기억이— 인자 내가 아홉 살에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어. 가시내야, 니가 공부 잘한다고 해도 급장 해야 쓰것나 너는 부급장 해라 했어, 선생이. 그래서 상급학교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디 졸업을 막상 하고 난게 시골에서는 중학교를 보내면 머시마들이랑 연애해서 집안 망신시킨다고 얌전히 크라고 안 보냈어.

처녀 때는 어쨌나면 큰 데서 나만 학교를 땡겼어. 거시기 한 스물여섯 명이 컸는데 십리를 걸어서, 5, 6학년 된게 남자들이, 그 사람이 이름이 김판석이라고 한디 손을 잡고 다니고 그랬어. 근디 아재하고 동갑이더라고. 그 사람이 광주서 다니고 그랬는디, 국민학교부터 손을 잡고 땡기고— 그런게, 이쁘고 그런게. 광주농댄가 나왔을 거여. 근디 군인에 갈람서 편지쪽지를 주더라고. 군인 갔다 오면 결혼하지 말고 나랑 살자고. 한 열아홉 묵었는가. 근디 나는 군대 갔다 와서 결혼했지. 그래서 나는 항상 못 잊었어, 잘생겼는디. 근디 나중에 광주에서 만났는디 아니더라고. 빨리 죽어블대. 인연이 아니었던갑서. 그 외에는 스토리 없어.

결혼해갖고는 저그 11년 살다가, 거시기 저 염곡서 우리 친정이 광

주로 이사를 갔어. 우리 어머니는 동생을 갈김서 논 두 마지기 팔다 등록금하고, 또 팔고 등록금하고 그랬어. 뭐 우리가 부자로 잘산게 할머니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죽어블서 고모하고 삼촌하고 델다 키워. 나는 막 일도 안 하고 컸는디 여기를 온게 일이 너무 많은 거여. 여그서 11년 살다 나갔어.

저그 느닷없이 와갖고는 가자 글더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 어미가 광주서 가게를 하나 사과장사 얻어줬어. 저그서 일 년 살다 본게 못살겠대. 근디 공판장서 받아갖고 와서 나한테 넘길 놈 다 넘기고 팔면 이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들어와보렸는디, 또 느닷없이 광주를 간단게 내가 원이를 데꼬 나가갖고, 다섯인디 방을 식구 많다고 안 줘. 근디 어디를 가니까 광산 김씨라고 11만 원 주고 상하방을 얻어갖고 조카 5년 디꼬 있다가 장성농고로 영감이 수위로 보내서 거기 가갖고 7년을 산디, 교장이 착실하다고 영감보고 소젓을 짜라고 했는디 어깨를 못써블터만. 그러다가 또 7년 있다가 광주로 나왔지. 근디 또 우리 친정고모가 오두막집 사서 산디, 우리 누가 하는 말이 왜 우리 애들 키워갖고 노가다 일을 해갖고 여름에는 일을 허고 겨울에는 일을 못허고 사냐고.

그러게 빚 얻어갖고 고생하고 살았는디, 한 일 년 그러다가 남동생이 도교육청에 있음서 저그 목포로 여고생 기숙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저그 흑산도 흥도 이런 데 자취하든 풍기문란허다 해서 기숙사를

지었는데 거그를 영감을 수위로 보냈어. 근디 나는 빨래해 준다고 갖는다 인자 사감선생이 이러더마. 아이고 광주아줌마, 그러지 말고 여그 기숙사 안에서 애기들 밥해주면 어찌졌냐고. 그래서 아줌마 셋하고 나하고 너이 했지. 그때가 마흔한 살이었는데, 서른한 살에 나가 갖고.

마흔한 살에 목포를 가 갖고 2백 명을 밥을 해준디 4시에 일어나서 쌀을 40키로를 시켜서 밥을 안쳐놓고 불을 해노면 아줌마 셋은 인자 집에 가서 밥해 주고 그사람이 5시에 와. 인자 영양사 서무과장 다니는 기능직 공무원이 됐지. 영감도 글고. 그래 갖고 인자 해준디 영양사나 사감선생이나 서무과장이나 직원이 열일곱 명이며, 막 개관식을 할라고 한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 그래서 개관식을 연기해서 3월 달에 해서 내가 거그서 15년을 있었어. 4시에 일어나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인정을 받았지. 거시기 사감선생이나 다 자면서 나는 인자, 여자들 인방에서 뭐 있는데 나는 부부간이라 수위실에서 잤지.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모든 책임을 다 졌지.

저그 정광여고 제일여고 어찌고 다섯 개 학생들 밥을 다 주고 7시 반엔가 채려주면 다 먹고 도시락을 싸 갖고 가. 소세지 볶고 계란도 열판씩 해서 주고 멸치를 세 박스씩 해서 볶고. 15년 딱 있는데, 영감이 정년이 되니까 거가 있기가 싫더라고. 인자 내가— 영감은 거그서 온전을 배우고 면허를 그냥 따더라고, 퇴직금 갖고 아벨라를 사줬어. 넘

들은 한 시간이면 온디 우리는 봉선동을 한 시간 반이나 걸려. 글고 내가 방을 얻어줘서 기숙사 옆에서 살다가, 거기 말뽕새가 켜 여자가 있었는데 낮에는 직원들 밥을 해주고 근디 인자 회의를 오후 4시에 한다고 오란게 거그가 4시 넘어서 오고 그래. 근디 여자가 돈이 있어 야 택시를 타지 글면서. 썼는다— 그 사람을 기계공고 3식 하는 데를 보내브렸어, 정원 미달로. 근디 날 잡아먹어블라 그네. 언니는 15년 됐어도 안 보낸다고 막, 그런다고 막 뭐라 하고.

근디 내가, 도교육감이 날아간 새도 쓰면 맞춘다 했어, 그만큼 켜 사람인데 로비해 갖고, 내가 2백만 원 주고 겸면 초등학교로 와브렸어. 쉼일곱이나 됐는가 모르겠네. 영감은 나보다 다섯 살 더 잡셨네. 우리는 위생 형태로 가 갖고 그때 돈 10만 원이면 조리사 자격증이 와브렸는데 나는 안 해블고, 그래서 내가 삼기로 내신을 했는데 조리사가 있어본게 내가 겸면으로 갔지. 2백만 원 줘본게 이튿날 바로 내줘 블더라고. 거그서 4년 반을 있었지. 군청 위생계에서 나와 갖고 왜 자격증도 없는데 여그서 조리사로 하냐 그래서, 내가 전에 2백 명을 밥을 해줬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다고 글게 두 번을 물리치고 내가 또 예순한 살에 정년을 했어. 그러니까 퇴직금이 5천7백이 나왔어. 겸면 초등학교가 없어지기 전이지. 지금 일흔여덟인게, 한 17년 됐어.

또 저그다, 고서다 집을 하나 천만 원 주고 샀는데, 유치원 선생 차를 타고 겸면을 멩겼지. 영감은 또 저그 첨단 공장에 청소부 감독으로

다녔어. 아벨라 차를 갖고. 또 나는 정년을 함서 논을 440평을 사갖고 쌀 열 가마를 하고. 큰 사우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쌀이 150만 원이라니까 사우가 서울을 가자고 해갖고— 어느 회사에 점심만 해 준게. 예순한 살에 거그서 한 6개월인가 해줬는데, 사우가 서울로 올라가자 해갖고는, 피자헛이라고 구리시 거그에 빌딩 관리인으로 영감이 있었지. 거그서 8년을 살았는데, 영감이 일흔다섯 살을 잡순게 마당 청소만 하고 살았는데, 영감이 술을 끄쳐놓고 묵은 걸 사장이 봤어.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소리를 죽도록 안 했네. 상처 입은게.

일흔다섯에 고향으로 또 왔어. 나는 막 내려와서 또 아파트를 25평을 구리에서 1억 4천을 주고 샀어. 글고 광주서도 주공아파트도 당첨되고. 어디냐, 용봉동 거그 현대아파트 하나 전세 내놓고 팔아갖고 가니까 7천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7천만 원 빚을 내갖고 또 갚았어.

일본도 갔는데, 친구 딸이 탈춤 문화재를 팔라고 제주도 결혼을 해 갖고 일본 가서, 또 유학을 갔는데, 가서 애기들 동경 성심대학 거그 덜다주고 해주고 또 석 달 갔다 살고 석 달 갔다 살고 그러서 혼자 왔다 갔다 했지. 일본을 가든 또 글씨도 안 보이고 그러믄— 친구가 석 달에 5백 해놓고 4백해놓고 세 번 다니고 빚 싹 갚으고 내놓으니까, 파니까 2억 천만 원 받아갖고 인자 여그 집에 1억 주고 사고. 또 작은 딸한테 돈을 또 맡기고. 1억 2천을. 또 여그 와서 주고 2억 천을 받았

는데 돈이 하나도 없지.

또 요양보호사를 구리서 따서 영감이 배도 아프고 그러대. 그래서 딸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따라고 해서 따서 내려왔는데, 또 저 집이 나서 3년을 놀았는데 누가 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어느 사람 마누라가 풍 걸려서 아파서 그걸 5개월 했어. 그 인연으로 그 집을 샀지. 또 5년 동안 집 고친 데 집이 많이 들어갔어. 그러고도 내가 9백 평 논을 5천7백주고 내가 순수히 벌어갖고 샀어. 글고 인자 지금은 일은 안 해도 하고, 애기들이 일을 많이 하면 얼른 죽은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집에가 있으면 심심해서, 두 집만 한 70만 원 벌믄 쓰고 싶은 데 쓰고.

자식들 키운 데 애로점은 인자 여 거시기 둘이 월급 받아봤자 돈 한, 장성농고 갈 때는 뭐 2만 천 원, 나는 목포로 갈 때는 7만 원, 너이 주방 아줌마들이. 또 아가씨가 아파갖고 2만 원씩 떠갖고 주고 그랬단게. 우리가 또 둘이 월급을 타야 등록금을 못 내. 큰아들 전대, 둘째도 전대 사대, 셋째는 교대 그런게 돈이 별로 안 들어가. 그래서 빚을 내서 감해서 주고, 또 월급 갖고 사감한테 빌려서 등록금 내고. 그래 갖고 시골에 논하고 밭하고 팔아갔지. 내가 그놈이 원이 되어서 샀지.

우리 막내가 조대 법대를 다닌디 왕자가 돼갖고 그때 스포티지 차를 타갖고 그때 화니백화점에서 청바지값 화장품값이 날라온 거야. 그래서 우리 막내 때문에 집안 살림 못한다고, 뭘 놈의 대학생이 돼갖고 엄마아빠 돈을 받아서 차를 산다고 엄청 썩히고, 큰딸 작은딸은 속

하나도 안 씹히고 큰아들은 전부 장학생. 큰아들은 돈 주란 말도 안 해. 지금은 막내가 그래도 잘해. 큰 어려움이 없었는디 그래도 저그 기숙사 살 때 쭈글쭈글한 단무지 써는디 어깨가 돌아가들 안 해서 약해다 먹고 그랬지.

시집살이는 인자 안 히고. 들에 갔다 오면 여그 성님이 밥을 다 묵어블고 또 그래. 막 몰도 그 성님이 다 대주고. 나는 시가에서도 사랑 받았어.

바람은 인자, 내가 일하는 거는 자식들 땅콩 같은 거 감 같은 거 사서 주고 아는 사람 친구들 밥이라도 한 끼니 사서 먹고 그런 것이 보람이여. 내가 아빠 돌아가시고 눈물만 난게 일을 할란다 하는디 애들이 쪼끔만 하시오 그래갖고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영감 돌아가시기 전에는 돈을 계속 벌어야겠다 했는디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만해야 쓰겠다 그 생각을 했어. 내년 시월까지만 하고 그만할라고.

그래도 나는 참 후회는 안 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싶어. 나는 곡성이 너무 좋아. 인자 임자 있을 때 내놔갖고 팔리믄, 인자 집 안 사고 아파트를 해갖고 살라고 했는디 아직 집이 안 팔렸어. 고택인디 집을 다 고쳤어. 샴시랑 전기도 전부 선을 갈아블고.

오금례(기령여, 78세) | 삼기면 원동리

놀러 가면 끝을 봤어

엄순자. 36년 6월 20일이여, 생일은. 이름은 엄순자.

나는 엄마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서 살았어요. 일본서 태어났다가 아홉 살에 한국에 왔어. 일본 사람은 아니고. 그때 아버지는 안 돌아가셨고 여까지 오셨고. 승주는 아버지 고향이지. 일제시대에 돈 벌라고 간 거지 일본으로.

우리 어머니는 나온게 팔십, 우리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나 몰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게 모르겠소.

지금은 인자 일본글 다 몰라. 기억에 한국 사람인디 우리 어무니가 일만 시키고 학교도 못 댕기게 했어. 어릴 때 일도 농사일 거들고 다 농사지었지, 그때는 다 벼농사지. 난 그런 것도 못했어요, 여그 와서 배웠지. 친정에서는 일을 안 해놔서, 곱게만 키워서.

땀날 술 먹고 늦게만 들어가고 뭐 시엄니 시아버지가 뭐 좋게 봐. 내가 놀러를 기른 끝을 보고 온게. 술 먹고 춤추고. 화전. 종교는 인자

뭐 없고. 재밌는 거 뭐 없어.

큰아들은 결혼해서 일본 살고, 큰딸은 경기도 광주 있고. 그것은 호강으로 가고. 인자 자식하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큰딸은 인자 아버지 없으면 데려다 산다고는 하는데, 혼자 있다가 어찌고 해야지. 함께 딱 가쁜 좋은디 안 되고. 우리 새끼들 뭐 별로 녀석지 않자네.

외삼촌이 해줘가지고 중매쟁이가 오면 올 어매가 쫓아내블라 글고 그랬지. 상당히 영리한 사람인디 물러갔고 저래요. 뭐 부모들이 가라고 한게 갔지, 뭐. 외삼촌은 뭐 우리 시어매 동생이여. 여그서 안 살고 우리 동네 저그 승주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막 머슴으로 가잖아요. 그 외숙님이 우리 집에서 3년을 머슴으로 살다가 조카한테 왔어. 우리 집에서 선보려 와서 만났지. 내가 안 비취줘봤지. 다방 그런 거 없었지. 우리 외숙님이 손수건 하나라도 줘서 보내지 왜 그냥 보내냐고 막 그랬는디, 나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보냈지.

열여덟 열아홉에 왔는디 시집을. 공부도 안 하고. 시집가는 게 두려워서 안 간다고만 했거든. 우리 친정어머니가 잘산디 내가 학교를 3학년까지 댕기다가 내가 시집을 안 간다고 뻘었어. 나는 큰딸. 우리 어매는 딸 둘. 아들도 없고. 마음은 좋아요 우리 영감님이. 나는 인자 집에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근디 우리 영감님은 봤는가 몰라.

엄순자(기명 여. 83세) | 삼기면 원동리

곡성 어르신들 살아온 이야기

머시기 할매 거시기 아버지

초판 1쇄 발행 | 2017년 12월 29일

펴낸이 | 고광운

역은이 | 조준원

펴낸곳 | 곡성군, 곡성문화원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전 화 | 061) 362-0890

제작처 | 도서출판 문예바다

전 화 | 02)744-2208

메 일 | qmyes@naver.com

© 곡성문화원, 2017. Printed in Seoul, Korea

ISBN 979-11-6115-030-7

* 이 책의 판권은 곡성군과 곡성문화원에 있으며 2017년 창조지역사업으로 발행되었습니다.

